

2017년 겨울 국어사학회 ·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개화기 교과서의 종합적 연구

일시: 2018년 1월 12일(금)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102호

주최: 국어사학회 ·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 2017년 겨울 국어사학회 ·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세부 일정

- 일시: 2018년 1월 12일(금)
-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102호

일 시		발 표 및 내 용	사 회
개회	09:30~10:00	등록	이동석 (교원대)
	10:00~10:10	개회사: 정재영(국어사학회장) 인사말: 이정훈(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장)	
제1부 개인 발표	10:10~10:50	[개인발표 (1)] 발표 주제: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에 대한 통시적 고찰 발 표: 서근화(서강대) 토 론: 백채원(서울대)	김현주 (공주교대)
	10:50~11:30	[개인발표 (2)] 발표 주제: 16~18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음절말 'ㅅ'형과 'ㄷ'형에 대한 고찰 발 표: 김성옥(충남대) 토 론: 김한별(서강대)	
	11:30~11:40	휴식	
	11:40~12:20	[개인발표 (3)] 발표 주제: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표기 의 식 고찰 발 표: 송미영(충남대) 토 론: 신성철(국민대)	
	12:20~13:30	점심 식사	
제2부 주제 발표	13:30~14:10	[주제발표 (1)] 발표 주제: 대한제국기 교과용·계몽용 도서 자료의 현황과 연구 전망 발 표: 한영균(연세대)	조재형 (전남대)
	14:10~14:50	[주제발표 (2)] 발표 주제: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의 연구 성과 및 전망 발 표: 이준환(창원대)	
	14:50~15:00	휴식	
	15:00~15:40	[주제발표 (3)] 발표 주제: 개화기 국어교과서 문법의 연구 성과 및 전망 발 표: 이지영(서강대)	
	15:40~16:20	[주제발표 (4)] 발표 주제: 개화기 교과서 어휘의 연구 성과 및 전망 발 표: 신중진(한양대)	
	16:20~17:00	[주제발표 (5)] 발표 주제: 개화기 교과서와 일본어 교과서의 영향 관계 발 표: 장원재(계명대)	
	17:00~17:10	휴식	
	17:10~18:00	[종합 토론] 좌장: 홍중선(고려대) 황문환(한중연), 배영환(제주대), 이승희(상명대) 조남호(명지대), 허재영(단국대)	
	18:00~18:10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교육	이동석 (교원대)
폐회/ 총회	18:10~18:20	폐회 및 총회: 국어사학회장, 총무이사	

# 목 차

## 제1부 개인 발표

서근화 ▶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에 대한 통시적 고찰 .....	7
백채원 ▶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에 대한 통시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23
김성옥 ▶ 16~18 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음절말 ‘ㅅ’형과 ‘ㄷ’형에 대한 고찰 .....	25
김한별 ▶ “16~18 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음절말 ‘ㅅ’형과 ‘ㄷ’형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	43
송미영 ▶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표기 의식 고찰 .....	47
신성철 ▶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표기 의식 고찰”에 대한 토론문 .....	61

## 제2부 주제 발표

한영균 ▶ 대한제국기 교과용·계몽용 도서 자료의 현황과 연구 전망 .....	65
이준환 ▶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의 연구 성과 및 전망 .....	79
이지영 ▶ 개화기 국어교과서 문법의 연구 성과 및 전망 .....	99
신중진 ▶ 개화기 교과서 어휘의 연구 성과 및 전망 .....	123
장원재 ▶ 개화기 교과서와 일본어 교과서의 영향 관계 .....	141

## 종합토론

황문환 ▶ “대한제국기 교과용·계몽용 도서 자료의 현황과 연구 전망”에 대한 토론문 .....	75
배영환 ▶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의 연구 성과 및 전망”에 대한 토론문 .....	97
이승희 ▶ “개화기 국어교과서 문법의 연구 성과 및 전망”에 대한 토론문 .....	121
조남호 ▶ “개화기 교과서 어휘의 연구 성과 및 전망”에 대한 토론문 .....	139
허재영 ▶ “개화기 교과서와 일본어 교과서의 영향 관계”에 대한 토론문 .....	157
각종 장소 안내 .....	159



# 제1부

## 개인 발표



#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에 대한 통시적 고찰

서근화(서강대학교)

## 1. 서론

이 연구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들’의 기능을 살펴보자.

###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들’

가. 들<sup>3</sup>. 의존명사.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다.

과일에는 사과, 배, 감 **들**이 있다.

나. 들<sup>5</sup>. 조사.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

**다들** 떠나갔구나.

다. 들<sup>9</sup>. 접미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사람들** / **그들** / **너희들**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국어의 ‘들’은 의존명사, 보조사, 접미사의 문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중세국어 시기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중세국어의 ‘들’을 하나의 문법범주로만 파악하였다. 복수접미사로 파악하거나(허용 1975, 고영근 2012 등), 보조사로 파악하는 관점(김진형 1995, 양정호 1991, 2015 등), 의존명사로 파악하는 관점(이현희 1994 등)이 그러하다. 기존 연구에 따라 중세국어의 ‘들’을 접미사, 보조사, 의존명사 중에서 하나로 파악을 한다면 통시적인 관점에서도 ‘들’의 분포 변화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보조사 ‘들’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보조사 ‘들’은 (1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 분포 변화를 고려할 때 접미사로만 쓰였던 ‘들’이 보조사로 기능이 확대될 경우, 의미 기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들’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 ‘들’의 분포와 그 변화

### 2.1. ‘들’의 분포

‘들’의 분포와 변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세국어 ‘들’의 문법 범주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파생접미사로 보는 관점은 허웅(1975), 고영근 (2012) 등이 있다. 허웅(1975)에서는 ‘들’은 명사에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로 보았으며, 고영근 (2012: 85-87, 180)에서는 명사나 대명사에 접사가 붙어 다시 체언을 파생시키는 어휘적 파생법으로 보았다.

두 번째로, 중세국어 ‘들’을 보조사로 보는 관점이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양정호(1991, 2015)가 있다. 양정호(1991)에서는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어에 수 범주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들’을 수 범주를 표시하는 보조사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 ‘들’을 의존명사로 보는 관점이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현희(1994)가 있다. 이현희(1994)에서는 ‘들’, ‘뿐’, ‘쌈’ 등이 명사구 보문 뒤에 와서 보문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속격조사 ‘-스’ 앞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동명사형 어미 ‘음’ 뒤에 올 수 있음을 들어 이들을 명사라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로, 통사구성요소로 보는 관점이 있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구분관(1997, 1998)이 있다. 구분관(1997 : 117)에서 ‘들’은 통사구성요소이므로 파생접미사가 아니고,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도 아니므로 굴절접미사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들’을 파생접미사도 아니고 굴절접미사도 아니면서 의존성을 가지는 부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중세국어의 ‘들’은 파생접미사, 보조사, 의존명사, 통사구성요소 중에서 하나로 파악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현대국어의 ‘들’은 접미사, 보조사, 의존명사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통시적인 관점에서 ‘들’의 분포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1.1. 접미사 ‘들’

접미사는 명사인 선행 성분에 통합된다. 접미사 ‘들’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2) 가. 그 後 사나올마내 王이 臣下들 드리시고(其後數日 波羅奈王將諸群臣)

<釋詳 11:31a>

나. 동심들과 의논히여 내바다라 <순천김씨 10:9>

다. 요스이 아히들 드리고 엇디 겨신고 <현풍곽씨 9:4>

라. 하인들이 주인을 여러 번 보쳐여 <을병연행록 2:25b-26a>

마. 비록 직무들을 공정히 보슬피고 심흔 이가 잇셔도 마음디로 공정히 못 하고

<독립신문 1899.09.25.>

바. 유대에 광야가 진동하며 유대에 산들이 격동하더라 <신학월보 1:21>

(2)의 예들은 각각 15세기부터 20세기의 예로, 명사인 선행 성분에 ‘들’이 결합한 것이다.



접미사는 명사인 선행 성분에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명사구에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도 발견된다.

- (3) 가. 生은 世界에 나아 사라 ㅎ니는 것들히라 <月釋 1: 釋序 1b>  
 나. 우리 여러 ㅁ슴 도히 너기는 형데 ㄱㅌ니들히 더 일흠난 화원의 가(咱們幾箇好弟兄 去那有名的花園裏) <번박上 1b>  
 다. 私忌엔 벼슬에 인느니과 벼슬에 잇디 아니흐 이들히 <가례 6:36b>  
 라. 여러 집들과 담을 다 누른 디와로 니어시니 <을병연행록 2:60a>  
 마. 일본 동경에 잇는 대한 류학싱들이 본국 학부에서 보쥬금을 아니 준 후브터는 살 슈가 업서 죽을 디경이라 <독립신문 1898.04.02.>  
 바. 그새에 그 부모들이 엇터케 붓그러워 ㅎ리오 <신학월보 1:96>

구분관(1997/1998)에서는 ‘들’은 직접 통합된 ‘것’과만 관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휘고도제약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들’은 어휘부 밖에서 결합하는 통사구성 요소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파생접미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3가), (3바)는 각각 (4나)와 (5나)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 (4) 가. 生은 [[世界에 나아 사라 ㅎ니는 것]들]히라 <月釋 1: 釋序 1b>  
 나. 生은 [世界에 나아 사라 ㅎ니는 [것들]]히라 <月釋 1: 釋序 1b>

- (5) 가. 그새에 [[그 부모]들]이 엇터케 붓그러워 ㅎ리오 <신학월보 1:96>  
 나. 그새에 [그 [부모들]]이 엇터케 붓그러워 ㅎ리오 <신학월보 1:96>

‘그 부모들’의 경우 (5가)의 ‘그’는 후행하는 ‘부모’를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정된 사람은 복수가 될 수 없으므로 (5가)의 구조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부모들’은 (5나)처럼 명사 ‘부모’에 ‘들’이 먼저 결합하고 그 전체가 ‘그’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4바)는 (5나)의 구조로 보아야 하며, (3가)의 경우 역시 (4나)의 구조로 보아야 한다.

## 2.1.2. 의존명사 ‘들’

의존명사는 명사구인 선행 성분에 통합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6) 가. 그 懺호는 法은 惑과 業과 報와 들 세 障에 나디 아니호니(其所懺法은 不出惑業報等三障호니) <원각下 3-2:25b-26a>  
 나. 아래 聞과 覺과 들홀 이를 例호야 다 니르샤디 塵이니(下聞覺等を 例此호야 皆云塵이니) <원각上 2-2:68b>  
 다. 師 쯔 니르샤디 너희들히 ㅎ다가 種智를 일우고져 홀딘댄 [...] 쯔 取捨 말며 利益과 成과 壞와 들헛 이를 念티 아니호고(師 | 復曰호샤디 汝等이 若欲成就種智ㄴ댄 [...] 亦無取捨호며 不念利益成壞等事호고) <육조下 61a-61b>

- (7) 가. 琥珀과 白石과 들흔 즈비심과 선심과는 공경흔는 모습미 곧트니라(琥珀白石映等者는 如慈善謙敬之念也 | 라) <법집 44a>  
 나. 헝다가 空寂과 靈知와 들헝 다 글와 닷가사 비르서 正헝 法門늘 일위 兩足尊이 드외리니 이 므스물 닷디 아니헝면 올티 못헝리라(若並運雙寂헝야사 方爲正門헝야 成兩足尊헝리니 非此 | 면 不可헝니라) <법집 81a-b>  
 다. 스랑흙과 띄움꽂 들헝 뜯디 나느니 뜯디 나면 諸苦에 락여 거쭈트 거슬 지서 거쭈트 거슬 受커니 므스기 업스며 므스기 利益헝리오(生愛惡等情헝느니 情生헝면 則諸苦에 所繫헝야 夢作夢受 | 어니 何損何益이리오) <법집20a>  
 라. 凡夫와 聖人꽂 들헝 法비 다 썸과 곡도와 곧트니라 헝시니(凡聖等法이 皆如夢幻이라 헝시니) <법집 27a>

(8) 이젠 알팍 許흙과 求흙과 아쳐툼과 댓움과 恭敬과 띄움과 重흙과 가비야움 들 여들 念을 여월시라 <원각사 2-2:148b> [이현희(1994: 48)의 예 재인용]

(6), (8)은 15세기, (7)은 16세기의 예이다. (6), (7)의 ‘들’은 공동격조사 ‘와/과’ 뒤에 결합하였다. 이때 ‘들’이 보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보조사와 의존명사는 모두 선행 성분이 명사구(NP)이며, 조사 통합 관계에서도 이들 뒤에 구조격조사가 후행하기 때문이다(보조사+ 구조격조사, 의존명사+ 구조격조사). 그러나 의존명사는 선행 성분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앞에 관형어가 온다. 특히 (7다, 라)의 경우 ‘공동격조사 + 관형격조사 + 들 + 처격조사 + 관형격조사’의 구조를 지닌다. 그렇다면 선행 명사구가 관형 성분이 되어야 하므로, [[[NP<sub>1</sub>와 NP<sub>2</sub>와]스]들]엿 구조에서 [[NP<sub>1</sub>와 NP<sub>2</sub>와]스]가 ‘들’을 수식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본고는 (6)~(8)의 ‘들’을 의존명사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현희(1994: 46-49)에서는 ‘들’은 명사구 보문 뒤에 와서 보문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속격조사 ‘-스’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동명사형 어미 ‘-움’ 뒤에 올 수 있다(8)는 사실을 통해 ‘들’이 명사라고 파악하였다. 즉 이현희(1994: 47)에서도 (6)~(8)의 구조를 [[A와 B와 C와] [들]]로 파악하였다.<sup>1)</sup> 또한 아래의 예처럼 의존명사 ‘등’과 ‘들’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 (9) 가. 生業은 곧 殺와 盜와 婬과 等이니(生業은 卽殺盜婬等이니) <능엄경 5:54>  
 나. 色과 空과 等의 象이 虛空엿 곳 곧헝야(以色空等象이 如虛空花헝야)  
 <능엄경 2:52>  
 [이현희(1994: 48-49) 예]

(9)는 [[A와 B와 C와] [等]]의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분포를 고려할 때, ‘등’과 의존명사 ‘들’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의미 기능 차이에서도 의존명사와 보조사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3장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1) 이현희(1994: 47)에서 ‘들’은 두 가지 뜻을 지닌다고 보았다. 하나는 벌려 놓은 것[等所列]을, 또 하나는 그 외의 나머지[等所餘]를 가리키는 뜻을 지닌다. (4), (5)의 ‘들’은 벌려 놓은 것[等所列]에 해당한다.

### 2.1.3. 보조사 ‘들’

#### [1] 부사와 결합하는 ‘들’

보조사는 명사구인 선행 성분에 통합한다. 먼저 부사 뒤에 결합하는 ‘들’의 예를 살펴보자.

- (10) 가. 요스이는 오래 기별 모르니 답 〃 ㅎ기 ㄱ이업스며 일기도 심히 사오나오니 대되 어이들 디내는다 <은진송규렴 35, 1699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 나. 쏘 빅천 사름 오나놀 더그니 보고 대되 편히들 디내니 깃거ㅎ노라 <은진송규렴 37, 1698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 다. 오릭 기별 목나 궁금ㅎ든차 네 글시 보니 그 스이 집안이 다들 무고ㅎ가 시부니 다형 기특ㅎ다 <정보연간독 24>
- 라. 대한 이즈를 죠곰치라도 보죤 ㅎ고 심흔 싱각이 잇는 사름은 참아 이왕에 ㅎ던 형실과 버릇들을 쏘 ㅎ지 못 흘너라 죠심들 ㅎ고 눈들 쓰고 꺃히들 싱각들 ㅎ기를 우리는 간절히 불으노라 <독립신문 1898.04.02.>
- 마. 화지는 저 불야 소리 질으듯 큰일 낫다 어셔들 오시오 소리를 질너 가며 한바탕을 썬들더니 늘근 놈 절문 놈 흘 것 업시 ㅎ는도 썬지지 안코 꾸역꾸역 모여 오니 <고목화 787>

(10가, 나)는 17세기, (10다, 라)는 19세기, (10마)는 20세기 예이다. 부사 뒤에 결합하는 ‘들’은 근대국어 시기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 [2]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들’

다음으로 연결어미 뒤에 결합하는 ‘들’의 예를 살펴보자.

- (11) 가. 요스이는 집마다 하 꺃히여들 놀쁘니 ㄱ이업서 뵈고 <은진송규렴 76, 1700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 나. 대강 이 오시 품슈는 놉고 갑슨 적으니 브딕 사들 넘으라 ㅎ는 말을 곡도롤 문드라 <을병연행록 6:56b-57a>
- 다. 황태비 던하썬 크게 하례를 올니며 빅관이 꺃거워들 ㅎ더라 <독립신문 1898.01.08.>
- 라. 지금꺃치 서로 의심ㅎ고 서로 히ㅎ라 ㅎ며 내 몸 ㅎ나만 싱각ㅎ고들 관민이 일을 ㅎ거드면 나라히 늘 약ㅎ고 솔난흘지니 <독립신문 1897.01.12.>
- 마. 빅성의 피 글거운 월급이나 먹고셔들 안젓스리니 <독립신문 1898.12.10.>
- 바. 이 죽을 디경에 니르러도 누가 ㅎ나이 나셔 도아 주는 사름 업고 도아 주기는 식로히 서로 잡아 먹으라들문 ㅎ니 <독립신문 1897.03.16.>
- 사. 우리 신문 보는 이는 그 대한 사름의 처디를 당히셔 엇더케 작명흘논지들 요랑들 ㅎ여 보시오 <독립신문 1898.01.08.>
- 아. 주찰야순을 부즈런이 ㅎ야 이런 절발지환이 업도록들 ㅎ오 <미일신문 1898.04.11.>

(11가)는 17세기, (11나)는 18세기, (11다~아)는 19세기의 예이다.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들’은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19세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다양한 연결어미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1다~아)에서 알 수 있듯이, 연결어미 ‘-어’, ‘-고’, ‘-고서’, ‘-으러’, ‘-은지’, ‘-도록’ 뒤에 ‘들’이 결합할 수 있었다.

- (12) 가. 독립할 ㅁ음을 기르지 안<sup>ㅎ</sup>여서는 못 쓰겟다고들 의론<sup>ㅎ</sup>며 조선서 장스와 공업이 흥성계 <sup>ㅎ</sup>지 안<sup>ㅎ</sup>셔는 나라히 안 되겟다고들 의론<sup>ㅎ</sup>며 학교가 번성치 안<sup>ㅎ</sup>셔는 나라히 기명치 못<sup>ㅎ</sup>리라고 연설들을 <sup>ㅎ</sup>엿다더라 <독립신문 1896.10.22.>  
나. 불란서에 잇는 전국 신문이 모도 말<sup>ㅎ</sup>기를 영길리와 동팅<sup>ㅎ</sup>자고들 <sup>ㅎ</sup>엿다더라 <독립신문 1897.02.04.>

19세기의 특징적인 점은 인용절 ‘-고’에 결합하는 ‘들’도 활발히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12)는 인용절의 ‘-고’ 뒤에 ‘들’이 결합한 예로, 연결어미 ‘-고’보다 인용절에 쓰인 ‘-고’ 뒤에 결합한 ‘들’이 더 많이 발견된다.

### [3]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들’

다음은 종결어미 뒤에 결합하는 ‘들’의 예를 살펴보자.

- (13) 가. 만일 그뒤로 두면 정부에서 시무할 사름이 장츠 업스리라들 <sup>ㅎ</sup>다더라 <독립신문 1897.03.09.>  
나. 그쎄에 모든 의론이 다 이르기를 이것은 반다시 정부에 청의<sup>ㅎ</sup> 것 이 아니고 외부에서 타결<sup>ㅎ</sup>는 것이 올타들 <sup>ㅎ</sup>기에 <독립신문 1898.03.05.>  
다. 다형이 사름은 상치 안코 세간도 더러 구<sup>ㅎ</sup>엿스나 쓸갑슨 고등<sup>ㅎ</sup> 세월에 갖득 으나 살 수 업다들 <sup>ㅎ</sup>는데 <미일신문 1898.04.11.>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들’은 19세기부터 확인되며, 이때 ‘들’은 보조사이다. (13)을 통해 19세기에 들어서 ‘들’의 분포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4] 조사와 결합하는 ‘들’

다음은 조사 뒤에 결합하는 ‘들’의 예이다. 이들은 ‘[NP+ 조사]들’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들’에 선행하는 조사는 의미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미격조사에 ‘들’이 결합한 예를 살펴보자.

- (14) 후궁이 놀나 나왔다가 우흔 넉관의게 가오시며 쇼환도를 주오시며 급<sup>ㅎ</sup>흔 일이 잇거던 즈스<sup>ㅎ</sup>라 <sup>ㅎ</sup>오시니 각각 손의들 쥐고 셔셔 도곤도곤이 기다리더니 <계축上 20a>

(15) 가. 정치학이라 하는 학문은 문명 기화한 나라에서들 여러 천 년을 두고 여러 만 명이 저기 평상에 주야로 생각하고 공부하여 모든 학문인디

<독립신문 1896.04.14.>

나. 조선에서 하는 일을 낫낫치 듯고 보고 또 저기 본국에들 편지하여 각국 신문지 에들 조선 일이 모도 나느니라 <독립신문 1896.08.22.>

다. 일본 상회 하나이 덕국 가서 화륜선 세 척을 지어 청국 양조강 항구 스이셔들 장스하게 작정하였는디 이 비들이 오는 스월부터 시작한다더라

<독립신문 1897.01.23.>

(16) 가. 토이기에 잇는 각국 대스들이 크레테가 독립될 일을 작정하여 각식 조목을 의론하고 작정한 후 본국으로들 이 조목들을 전보하였다더라

<독립신문 1898.04.13.>

나. 이탈리아 잇는 일본 공사 구리노 씨를 코레테로 가서 자서히 유람하고 회랍과 토이귀 서울노들 가 저기 스정들을 알아 기별하라고 하였더라

<독립신문 1897.04.06.>

다. 월급을 아니 주는 폐단이 잇드리도 너넬히 나가 저기 직조로들 버러 먹고 살만 들 하더라 <독립신문 1897.02.16.>

라. 각 학교 학원들이 학문을 비화야 이세상에 사름이 될 줄노들 생각들 만히 혼 사름들이 잇고 <독립신문 1896.12.31.>

(17) 가. 포도아 왕후 에밀리아 폐하는 부인네 의복을 잘 만드느 학문을 비화 저기의 의복과 저기의 친구 다른 나라 왕후와 황후와 공주의게들 저기 손으로 조흔 의복들을 만드라 선스를 하고 <독립신문 1897.02.16.>

나. 조선 대신네들이 조선흥망을 맞하 조선이 잘 되고 못 되는 담당이 조선 사름의 게들 잇느니라 <독립신문 1897.03.06.>

(14)는 17세기, (15)~(17)은 19세기의 예이다. 19세기에 들어서 ‘들’과 결합하는 조사가 매우 다양해진다. 의미격조사의 경우, 17세기에는 ‘들’이 ‘에’만 결합을 하였으나 19세기에는 ‘에서, 에, 서’, ‘로’, ‘에게’와 같이 다양한 의미격조사와 결합하게 된다. (15)는 ‘들’이 ‘에서, 에, 서’와 결합한 예이며, (16)은 ‘(으)로’와, (17)은 ‘에게’와 결합한 예이다. 특히 (16)의 ‘로’는 다양한 기능을 보이는데, (16가, 나)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로’가, (16다)는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로’가, (16라)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 ‘로’가 쓰였다.

한편 보조사 뒤에 결합하는 ‘들’의 예도 확인된다.

(18) 전국 사름의 불상하고 걱정스러운 일을 내 일긋치들 생각지를 아니하니

<독립신문 1897.02.23.>

(18)은 ‘들’이 보조사 ‘긋치’와 결합한 예이다. ‘들’이 보조사와 결합한 예는 (18)의 예만 확인된다. 현대국어에서 보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하는 예는 많이 발견되지만, 이전 시기에는 19세기에서 위 (18)의 예만 확인된다.

**[5]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들’**

- (19) 가. 요스이 각부 공문 왕릭를 보니 이리 저리 댁음디로 호고 **십흔 디로들** 하니 그  
도 힘이 드러 못흐는 일인지오 <독립신문 1897.04.01.>
- 나. 희랍 군사들이 파살나로 쫓기고 터키 기병들이 쫓기는 군사를 쫓아 많이 죽였  
는데 신문기자들이 하마터면 죽을 뻔들 하였다더라 <독립신문 1897.05.04.>
- 다. 이새를 당흐야 던치나 밋친 사름 외에는 썸을 썬고 광무 이년에 사는 줄들을  
알 듯흐더라 <독립신문 1898.01.13.>

- (20) 生은 세계에 나아 사라 흐니는 것들히라 <月釋 1: 釋序 1b> (=3가)

본고는 (19)에서 의존명사 뒤에 결합하는 ‘들’은 보조사로, (20)은 접미사로 처리하고자 한다. (19)의 경우, ‘들’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복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요소 외의 다른 요소의 복수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령 (19나)의 경우 ‘들’은 명사구(‘죽을 뻔’)의 복수성이 아니라, 행위참여자인 ‘신문기자’의 복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19)의 경우 ‘들’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복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접미사로 처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3.1.1.에서 후술).

**[6] 명사절과 결합하는 ‘들’**

- (21) 가. 지금 조선 경계는 빅성이 빅성이 아니요 관인의 로예가 되여 죽도록 일흐야 정  
부에 세나 밋치고 낭반의게 돈이나 췌기며 열는 흐면 낭반의게 엇어뎡기들이나  
흐는지라 <독립신문 1897.08.26.>
- 나. 우리가 올은 말 호고 죽는 것은 사름의 췌헛헛 일ियो 나라에 영광이니 아모던  
지 올은 말 호고 올은 일 흐시기들을 브라노라 <독립신문 1897.10.21.>
- 다. 인화문 압해 각집 별비 구종과 마부 등이 췌췌로 모혀 잡기들을 란만이 흐는  
것을 순검들이 보고 금단치 아니하니 <익일신문 1898.04.13.>

(21)은 명사형 어미 ‘-기’ 뒤에 ‘들’이 결합한 예이다. (8)에서 살펴보았듯이 명사형 어미 ‘-옴’ 뒤에도 ‘들’이 결합한다. 중세국어, 개화기국어, 현대국어 모두 명사절에 ‘들’이 결합하는 것은 동일하나, 명사형 어미가 시기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세기에는 명사형 어미 ‘-옴’이, 19세기에는 명사형 어미 ‘-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명사절과 결합하는 ‘들’의 분포 변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사형 어미의 분포로 볼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들’의 분포 변화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세기에는 명사절과 결합하는 ‘들’이 명사형 어미 ‘-옴’에만 쓰였다가 16세기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이후 19세기부터 ‘들’은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이 가능하게 되고, 현대국어에서는 의존명사 ‘것’과도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들’이 명사절과 결합하는 양상이 시기에 따라 명사형 어미 ‘-옴’ → 명사형 어미 ‘-기’ → 의존명사 ‘것’으로 분포가 축소 및 확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중세국어 시기부터 현대국어 시기에 이르기까지 ‘들’의 분포 변화가 있기는 하나, 이들 예의 경우 ‘들’ 자체의 분포 변화가 아니라, 명사형 어미 ‘-옴’과 ‘-기’의 변화로 보아

야 한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명사형 어미 ‘-음’의 영역이 가장 넓었으나, 점차 영역이 축소되면서 명사형 어미 ‘-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명사형 어미 ‘-음’과 ‘-기’의 경쟁 관계에 의해 시기별로 ‘들’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가 달라진 것이다.

본고는 (21)의 경우 명사절에 결합하는 ‘들’을 보조사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들 ‘들’은 선행 요소의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행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의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자세한 내용은 3.1.2.에서 후술).

## 2.2. ‘들’의 분포 변화

2.1.에서 문법 범주별로 ‘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접미사는 명사인 선행 성분에 통합되며, 의존명사와 보조사는 명사구인 선행 성분에 통합된다. 중세국어 시기부터 ‘들’은 접미사와 의존명사의 쓰임을 보인다. 접미사 ‘들’의 경우 NP를 선행 성분으로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있으나, ‘들’은 선행 성분인 명사에 먼저 결합을 하고 그 전체가 관형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선행 성분은 NP가 아니라 명사이다. 한편 접속 명사구에 결합하는 ‘들’도 확인되는바, 이 ‘들’은 의존명사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중세국어 시기의 ‘들’은 접미사와 의존명사로 쓰였다.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들’은 분포가 확대되어 보조사로도 쓰이기 시작한다. ‘들’은 부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 의존명사, 명사절에 결합하게 된다. 17세기의 경우 ‘들’은 부사, 연결어미, 조사와, 18세기의 경우 연결어미와, 19세기의 경우 부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 의존명사, 명사절에 결합하게 된다.<sup>2)</sup> 현대국어 시기에 이를수록 ‘들’과 결합하는 조사와 연결어미의 종류도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보조사 ‘들’의 쓰임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들’의 의미 기능과 그 변화

### 3.1. ‘들’의 의미 기능

#### 3.1.1. 접미사 ‘들’과 의존명사 ‘들’의 의미 기능

2장에서 각 시기별로 ‘들’의 분포와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세국어 시기부터 ‘들’은 접미사와 의존명사의 기능을 보인다. 이때 ‘들’의 의미 기능은 ‘들’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복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접미사 ‘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자.

(22) 가. 그 後 사나올마내 王이 臣下들 드리시고(其後數日 波羅奈王將諸群臣)

<釋詳 11:31a>

나. 동침들과 의논히여 내바다라 <순천김씨 10:9>

다. 요스이 아히들 드리고 엇디 겨신고 <현풍곽씨 9:4>

2) 중세국어 시기에도 의존명사(‘것’, ‘이’), 명사절에 결합하는 ‘들’이 있기는 하나, 전자의 ‘들’은 접미사로 후자의 ‘들’은 의존명사로 파악하였다.

- 라. 하인들이 주인을 여러 번 보쳐여 <을병연행록 2:25b-26a>  
 마. 비록 직무들을 공정히 보슬피고 심흔 이가 잇셔도 마음되로 공정히 못 하고  
 <독립신문 1899.09.25.>  
 바. 유대에 광야가 진동하며 유대에 산들이 격동하더라 <신학월보 1:21>

(22)는 (2)의 예를 다시 가져온 것이다. (2)의 예들은 각각 15세기부터 20세기의 예로, 명사인 선행 성분에 ‘들’이 결합한 것이다. 이때 ‘들’은 ‘들’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인 ‘臣下’, ‘동성’, ‘아뢰’, ‘하인’, ‘직무’, ‘산’의 복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접미사 ‘들’의 의미 기능은 ‘들’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복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의존명사 ‘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자.

- (23) 가. 그 懣<sup>ᄃᆞ</sup>는 法은 惑과 業과 報와 들 세 障애 나디 아니호니(其所懣法은 不出惑業報等三障호니) <원각하 3-2:25b-26a>  
 나. 見塵이 淸淨호며 아래 聞과 覺과 들을 이를 例호야(見塵이 淸淨호며 下聞覺等을 例此호야) <원각상 2-2:68b>  
 다. 師 쯔 니르샤디 너희들히 호다가 種智를 일으고져 홀단덴 [...] 쯔 取捨 말며 利益과 成과 壞와 들을 이를 念티 아니호고(師 | 復曰호샤디 汝等이 若欲成就種智<sup>ᄃᆞ</sup>단 [...] 亦無取捨호며 不念利益成壞等事호고) <육조하 61a-61b>

(23)은 (6)의 예를 다시 가져온 것이다. 2.1.2.에서 이때 ‘들’은 접속 명사구에 ‘들’이 결합하므로 의존명사로 파악하였다. 의존명사와 보조사는 NP를 선행 성분으로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때 ‘들’은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미 기능을 고려할 때, (23)의 예는 보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로 파악해야 한다. 보조사 ‘들’은 ‘들’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의 복수를 나타내지만, 의존명사 ‘들’은 ‘들’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때 ‘들’은 복수 주어나, 행위참여자의 복수 또는 사건의 복수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23)은 별려 놓은 것[等所列]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즉 (23가)는 ‘惑, 業, 報’를, (23나)는 ‘聞, 覺’를, (23다)는 ‘利益, 成, 壞’를 가리킨다. 따라서 (23)의 ‘들’은 ‘들’과 직접 결합하는 성분의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의존명사 ‘들’의 의미 기능은 ‘들’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복수를 나타낸다.

### 3.1.2. 보조사 ‘들’의 의미 기능

현대국어 논의에서 보조사 ‘들’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보조사 ‘들’의 의미 기능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주어의 복수성으로 보는 관점(백미현 2002, 하귀녀 2005), 사건의 복수성으로 보는 관점(임홍빈 2000/2005),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보는 관점(최형장 2005)이 그러하다.

먼저 보조사 ‘들’을 주어의 복수성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살펴보자. 백미현(2002: 68-71)에서는 명사 자체의 복수 의미와 주어의 복수 의미를 나누어 파악하였다. 주어 명사에 붙은 복수 의미의 유표형은 반드시 명사 자체의 복수 의미를 전달하는 반면에, 목적어



자리에 오는 유정성이 낮은 명사의 유표형은 주어 명사의 복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주어의 복수 개념만을 표시하는 간접 복수 의미는 주어의 복수성이 주어 이외의 성분에 복사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귀녀(2005: 224)에서도 보조사 ‘들’을 주어의 복수성으로 파악하였는데, ‘들’은 ‘들’이 통합한 것의 복수적인 의미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의 복수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보조사 ‘들’을 사건의 복수성으로 설명한 논의로 임홍빈(2000/2005)가 있다. 임홍빈(2000/2005:206-208)에서는 간접 복수의 ‘들’은 다른 성분이 아닌 바로 그것이 접미된 성분의 복수를 유표적으로 나타내는데 그 문체의 성분이 가진 의미가 복수적인 사건과 개별적으로 관련됨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조사 ‘들’을 행위 참여자의 복수성으로 파악한 관점이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최형강(2005)가 있다. 최형강(2005)에서는 ‘들’을 담화적인 기능과 함께 복수성을 반영하는 보조사로 처리하였는데,<sup>3)</sup> 이때 ‘들’은 행위 참여자나, 청자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복수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24) 가. 어서들 오십시오.

나. 어서들 이 쪽으로들 오십시오. [이상 임홍빈(2000: 36)의 예]

(25) 가. 철수야, 영이야, 여기 있는 그림과 책을 잘들 봐 뒤.

나. 철수야, 영이야, 수학과 영어를 열심히들 공부해.

[이상 최형강(2005: 270)의 예]

임홍빈(2000)에서는 (24가)의 ‘어서들’의 ‘들’은 접미된 부사 ‘어서’의 복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여, ‘어서’가 문체되는 사건이 복수적임을 유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형강(2005)에서는 부사나 부사어의 복수성 자체보다는 그러한 부사가 쓰인 문맥에서 행위 참여자가 둘 이상이 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보조사 ‘들’은 사건 자체의 복수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복수임을 나타낸다고 본 것이다.

(26) 가. 철수야, 영이야,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봐 뒤 + 철수야, 영이야, 여기 있는 책을 잘 봐 뒤

나. 철수야, 영이야, 여기 있는 그림과 책을 잘 봐 뒤 + 영이야, 영이야, 여기 있는 그림과 책을 잘 봐 뒤

(26)은 (25가)의 예를 사건 자체의 복수와 사건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복수를 나타낸 것이다. (25가)는 임홍빈(2000/2005)의 입장으로 보조사 ‘들’이 사건 자체의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며, (25나)는 최형강(2005)의 입장으로 보조사 ‘들’이 사건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최형강(2005)에서는 (25가)는 (26가)의 의미가 아니라, (26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보조사 ‘들’을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설명하였다. 본고도 최형강(2005)의 논의를 받아들여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 나타난 보조사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최동주(2000: 88-89)에서는 서술어나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서술절의 주어 등의 뒤에 삽입되는 ‘들’은 상황의 참여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서술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상대방의 관심을 환기하는 담화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먼저 부사 뒤에 결합하는 보조사 ‘들’의 예를 살펴보자.

(27) 가. 쪼 빅천 사름 오나날 더그니 보고 대되 편히들 디내니 깃거호노라

<은진송규렴 37, 1698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나. 오릭 기별 목나 궁금흔든차 네 글시 보니 그 스이 집안이 다들 무고흔가 시부  
니 다형 기특하다 <정보연간독 24>

다. 화직논 저 불야 소리 질으듯 큰일 낫다 어서들 오시오 소리를 질너 가며 한바  
탕을 써들더니 늘근 놈 절문 놈 흘 것 업시 호노도 싸지지 안코 꾸역꾸역 모여  
오니 <고목화 787>

(27)은 (10)의 예를 일부 가져온 것이다. (27가, 나)의 부사 ‘편히’, ‘다’와 결합한 ‘들’은 행위참여자인 ‘대되(‘모두’)와 ‘집안’의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최형강(2005)에서는 (24가)의 ‘어서들 오시오’에서 ‘들’은 사건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복수임을 뜻한다고 보았다. (27다)도 (24가)와 유사하다. 즉, ‘어서 오시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사건의 복수),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포함한 행위참여자들이 여럿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27)의 보조사 ‘들’은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자.

(28) 가. 요스이는 집마다 하 급히들 놀쁘니 그이업서 보고

<은진송규렴 76, 1700년, 안동김씨(어머니)→송상기(아들)>

나. 대강 이 오시 품슈는 놓고 갑슨 적으니 브디 사들 넘으라 호는 말을 곡도롤 문  
드라 <을병연행록 6:56b-57a>

다. 불란서에 잇는 전국 신문이 모도 말하기를 영길리와 동밍하자고들 호엇더라  
<독립신문 1897.02.04.>

(28)은 (11)의 예를 일부 가져온 것이다. (28가~다)는 연결어미 ‘-어’, ‘-고’ 뒤에 ‘들’이 결합한 예이다. (28가, 다)의 ‘들’은 사건의 복수성인지,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28가)는 ‘-마다’로 인해 각각의 집에서 개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경우 사건의 복수성으로, ‘집들’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경우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다)의 사건의 복수성과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9) 가. 영길리와 동밍하자 + 영길리와 동밍하자 + ...

나. (A신문) 영길리와 동밍하자 + (B신문) 영길리와 동밍하자 + ...

(29가)는 (28다)를 사건의 복수성으로 나타낸 것이고, (29나)는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나타낸 것이다. (28다)의 상황이 ‘영길리와 동밍하자’라고 말하는 신문들이 한꺼번에 외쳤을 경우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볼 수 있으나, 공간이나 시간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인 경우 사건의 복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참여자의 복수성과 사건의 복수성의 합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들’의 의미 기능을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건의 복수성은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을 함의하지 않으며,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은 사건의 복수성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복수가 아닌 한 명의 사람이어도 복

수의 사건을 행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행위참여자가 복수일 경우 행위참여자들이 동시에 그 사건을 행할 수도 있으며, 행위참여자 각각이 사건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보조사 ‘들’의 의미 기능은 행위참여자의 복수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세 번째로,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자.

(30) 그제에 모든 의론이 다 이르기를 이것은 반다시 정부에 청의홀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타결하는 것이 올타들 헝기에 <독립신문 1898.03.05.>

(30)의 ‘들’도 사건의 복수성과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30)의 상황이 ‘타결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외쳤을 경우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볼 수 있으나, 공간이나 시간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인 경우 사건의 복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의 복수성과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의 합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30)의 ‘들’도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네 번째로, 조사와 결합하는 ‘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자.

(31) 가. 후궁이 놀나 나왔다가 우흔 닉관의게 가오시며 쇼환도를 주오시며 급흔 일이 잇거던 즈스헝라 헝오시니 각각 손의들 쥐고 셔셔 도곤도곤이 기다리더니  
<계축상 20a>  
나. 토이기에 잇는 각국 대스들이 크레테가 독립될 일을 작정헝야 각식 죠목을 의론헝고 작정헝 후 본국으로들 이 죠목들을 전보헝엿다더라  
<독립신문 1898.04.13.>

(31)은 (14), (16)의 예를 일부 가져온 것이다. (31)의 ‘들’은 각각 ‘닉관’, ‘각국 대스들’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로,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들’을 살펴보자.

(32) 희랍 군사들이 파살나로 쫓기고 터키 기병들이 쫓기는 군사를 쫓아 많이 죽었는데 신문기자들이 하마터면 죽을 뻔들 하엿다더라 <독립신문 1897.05.04.>

(32)는 (19나)의 예를 가져온 것이다. (32)의 ‘들’은 행위참여자인 ‘신문기자들’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을 나타낸다.

여섯 번째로, 명사절과 결합하는 ‘들’을 살펴보자.

(33) 지금 죠션 경계는 빅성이 빅성이 아니요 관인의 로예가 되여 죽도록 일헝야 정부에 세나 맞치고 낭반의게 돈이나 췌기며 열는 헝면 낭반의게 얻어뭇기들이나 헝는지라 <독립신문 1897.08.26.>

(33)은 (21가)의 예를 가져온 것이다. (33)의 ‘들’도 역시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을 나타낸다. ‘들’은 백성이 양반에게 얻어맞는 개별 사건의 복수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행위참여자인 ‘백성들’과 더 관련성이 높다.

지금까지 ‘들’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접미사 ‘들’과 의존명사 ‘들’은 선행 요소의 복수성을 나타내고, 보조사 ‘들’은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을 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조사 ‘들’의 경우 사건의 복수성으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행위참여자의 복수성과 사건의 복수성의 함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들’의 의미 기능은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3.2. ‘들’의 의미 기능 변화

중세국어 시기의 ‘들’은 접미사와 의존명사로 쓰였으며,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들’은 보조사로도 쓰이기 시작한다. 분포 변화를 고려할 때 접미사, 의존명사로 쓰였던 ‘들’이 보조사로 기능이 확대될 경우, 의미 기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의 예는 의미 변화의 중간 단계를 보여준다.

(34) 가. 포도야 왕후 에밀리아 폐하는 부인네 의복을 잘 만드느 학문을 비화 즈기의 의복과 즈기의 친구 다른 나라 왕후와 황후와 공주의게들 즈기 손으로 죠흔 의복들을 만드라 션스를 하고 <독립신문 1897.02.16.>

나. 죠션 대신네들이 죠션 흥망을 맞하 죠션이 잘 되고 못 되는 담당이 죠션 사름 의게들 잇는지라 <독립신문 1897.03.06.>

(34)는 (17)의 예를 가져온 것이다. 분포를 고려할 때, (34)의 ‘들’은 조사 ‘-에게’에 후행하므로 보조사로 보아야 한다. 이때 보조사 ‘들’의 의미 기능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를 보조사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방법과, 선행 요소의 복수성과 행위참여자의 복수성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 그러하다. 전자의 경우 보조사는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을 나타내므로 행위참여자인 ‘왕후, 황후, 공주’와 ‘죠션 사름’의 복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맥을 고려할 때, (34)는 ‘다른 나라 왕후와 황후와 공주들의게’, ‘죠션 사름들의게’가 더 자연스럽다. 이때 ‘들’은 선행 요소인 ‘공주’와 ‘사름’의 복수성을 나타낸다. 즉 (34)는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이 불일치한다. 분포상으로는 ‘들’은 보조사이지만, 문맥상으로는 선행 요소의 복수성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34)의 보조사 ‘들’을 선행 요소의 복수성과 행위참여자의 복수성 둘 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34)의 현상은 ‘들’의 의미 기능이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대국어에서 ‘NP에게들’은 매우 어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4)의 ‘들’은 분포와 의미 기능 변화를 보여주는 과도기적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 4.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들’의 분포와 그 변화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접미사는 명사인 선행 성분

통합되며, 의존명사와 보조사는 명사구인 선행 성분으로 통합된다. 중세국어 시기부터 ‘들’은 접미사와 의존명사의 쓰임을 보인다. 접미사 ‘들’의 경우 NP를 선행 성분으로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있으나, ‘들’은 선행 성분인 명사에 먼저 결합을 하고 그 전체가 관형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선행 성분은 NP가 아니라 명사이다. 한편 접속 명사구에 결합하는 ‘들’도 확인되는바, 이 ‘들’은 의존명사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중세국어 시기의 ‘들’은 접미사와 의존명사로 쓰였다.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들’은 분포가 확대되어 보조사로도 쓰이기 시작한다. ‘들’은 부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 의존명사, 명사절에 결합하게 된다. 17세기의 경우 ‘들’은 부사, 연결어미, 조사와, 18세기의 경우 연결어미와, 19세기의 경우 부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 의존명사, 명사절에 결합하게 된다. 현대국어 시기에 이룰수록 ‘들’과 결합하는 조사와 연결어미의 종류도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보조사 ‘들’의 쓰임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들’의 의미 기능과 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접미사 ‘들’과 의존명사 ‘들’은 선행 요소의 복수성을 나타내고, 보조사 ‘들’은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을 나타낸다. 특히 보조사 ‘들’의 경우 사건의 복수성으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행위참여자의 복수성과 사건의 복수성의 함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들’의 의미 기능은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들’의 의미 기능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이 불일치하다고 보거나, 이때 보조사 ‘들’의 의미 기능을 선행 요소의 복수성과 행위참여자의 복수성 둘 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 변화를 보여주는 과도기적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강범모(2007), 복수성과 복수 표지, 《언어학》 47, 한국언어학회, 3-31.
- 고영근(2012),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1993), 국어 과생접미사의 통사적 성격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7-140.
- 구본관(1997),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국어학》 29, 국어학회, 113-140.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과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김진형(1995), 중세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 목록 설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창섭(2005), 소구의 설정을 위하여,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 박철우(2010), '들'-표지 명사구의 구조와 의미, 《한국어의미학》 31, 한국어의미학회, 51-75.
- 백미현(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인지》 9(2), 담화·인지언어학회, 59-78.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 나무.
- 양정호(1991), 중세 국어 과생 접미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호(2015), 중세국어 명사 과생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7-32.
- 유창돈(1964), 《이조국어사연구》, 반도출판사.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홍빈(1989), 통사적 과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67-196[재수록: 임홍빈(1998), 《국어문법의 심층》 2, 태학사].
- 임홍빈(2000), 복수 표지 '들'과 사건성, 《애산학보》 24, 애산학회, 3-50.
- 전영철(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2), 한국언어정보학회, 27-45.
- 전영철(2007),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 - '들'의 통합적 해석, 《언어학》 49, 한국언어학회, 325-347.
- 정상희(2016), 복수 표현의 복수성과 화용적 의미, 《한국어의미학》 52, 한국어의미학회, 31-59.
- 최동주(2000), '들' 삽입 현상에 대한 고찰, 《국어학》 35, 국어학회, 67-92.
- 최형강(2005), 보조사 '들'의 특성 연구,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253-276.
- 최형강(2008), 복수와 반복 - '들'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27, 한국어의미학회, 315-340.
- 하귀녀(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황화상(2005), 통사적 접사 설정의 제 문제, 《한국어학》 28, 한국어학회, 269-294.
- 황화상(2015), 보조사와 주변 범주- 보조사, 접미사, 의존 명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73, 국어학회, 309-334.

# “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에 대한 통시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백채원(서울대학교)

이 논문은 통시적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들’을 분포에 따라 접미사, 의존명사, 보조사로 나누고 분포의 차이에 따른 의미 기능을 살피고 있는 글입니다. ‘들’이 접미사와 의존명사일 때는 선행 요소의 복수성을 나타내며, 보조사일 때는 행위참여자의 복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들’의 의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3)의 예들에서 (3가)와 (3바)에 나타나는 ‘들’은 접미사로 분석하셨습니다. 그런데 (3가)의 예문 ‘生은 세계에 나아 사라 ㅎ니는 것돌히라’<月釋 1: 釋序 1b>에서 ‘들’이 ‘세계에 나아 사라 ㅎ니는 것’이라는 명사구에 결합한 것이 아니라, ‘것’에 결합한 것으로 보신 근거가 궁금합니다. 저의 직관으로는 ‘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 있는 것’이라는 명사구에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접미사로 보는 근거가 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 행위 참여자의 복수성과 사건의 복수성의 함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사건의 복수성은 행위 참여자의 복수성을 함의하지 않지만 행위 참여자의 복수성은 사건의 복수성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 참여자의 복수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위 참여자’는 ‘행위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행위 참여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위 참여자의 복수성과 사건의 복수성이 저에게는 뚜렷하게 잘 구별이 되지 않는데, 혹 살펴보신 자료 중에 사건의 복수성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대한국어 시기에 보조사로 사용되는 ‘들’이 나타나는 자료의 대부분은 언간 자료인 듯합니다. 언간이 구어적 성격이 강한 자료임을 고려하면, 15세기에 보조사 ‘들’이 사용된 예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문헌의 한계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접미사와 의존명사로 쓰이던 ‘들’이 보조사로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이미 15세기부터 ‘들’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4. 명사에 결합한 ‘들’은 직접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복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근심들 마라’<순천김씨언간60:5, 어머니→딸>에서와 같이 해당 명사가 ‘근심’과 같은 추상명사인 경우도 선행 요소의 복수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직관으로는 오히려 행위자(혹은 사건)의 복수성에 가깝지 않나 합니다.

5.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들’로 제시된 (13)의 예가 모두 인용 구문임을 고려하면, 이는 ‘~하  
다고들 하-’ 구성에서 ‘고’가 생략된 구성으로 볼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사름이 장차  
업스리라(고)들 혼다더라’(13가), ‘올타(고)들 헝기에’(13나), ‘살 수 없다(고)들 헝는데’(13  
다)]
6. 논문에서 제시하신 (10라)의 예(췌심들 헝고 눈들 쓰고 깃히들 싱각들 헝기를 우리는 간절  
히 불으노라<독립신문 1898.04.02.>)에서는 어근 ‘췌심’에 ‘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예를 고려하면 어근에 결합하는 ‘들’도 하나의 부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와 같이 ‘들’이 유동적으로 각 어절 뒤에 결합하는 현상에 대한 논의도 추가하면 더욱  
풍부한 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16~18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음절말 ‘ㅅ’형과 ‘ㄷ’형에 대한 고찰

김성옥(충남대학교)

1. 서론
2. 연구 대상의 선정 및 특성
3. 16~18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음절말 ‘ㅅ’형과 ‘ㄷ’형에 대한 분석
  - 3.1. 기저형 음절말 ‘ㅅ’에 대한 표기 분석
  - 3.2. 기저형 음절말 ‘ㄷ’에 대한 표기 분석
  - 3.3.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에 대한 표기 분석
4.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한글간찰을 대상으로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 그리고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에 대한 표기 변화 과정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소주의 표기가 중심이었던 중세국어에서는 8종성법에 따라 받침에는 8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자음이 실현되었다. 이는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중세국어에서는 변별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근대국어에 들어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변별적 자질을 잃고 중화됨으로써 현대국어에서는 7개의 자음인 7종성법이 실현되는 것이다. 8종성법에서 7종성법이라는 음운사적인 큰 변화에는 이처럼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중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표기사적으로는 ‘ㅅ’과 ‘ㄷ’이 혼기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기 현상에 대하여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까지는 음절말 ‘ㅅ’형보다 음절말 ‘ㄷ’형이 다소 우세한 양상을 보이다가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음절말 ‘ㄷ’형보다 음절말 ‘ㅅ’형이 많아지면서 18세기에 들어서는 ‘ㅅ’형으로의 표기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ㅅ’과 ‘ㄷ’이 혼기되는 양상에 있어서는 기저형 음절말 ‘ㅅ’의 표기 과정과 기저형 음절말 ‘ㄷ’의 표기 과정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혼기되는 과정에서 기저형 음절말 ‘ㅅ’과 기저형 음절말 ‘ㄷ’이 동일한 혼기 과정을 보이지 않는데, 즉 기저형 음절말 ‘ㄷ’의 경우는 ‘ㅅ’과의 중화되는 과정에서 ‘ㄷ’이 ‘ㅅ’과 혼기되는 변화를 보이지만, 기저형 음절말 ‘ㅅ’은 ‘ㄷ’과의 혼기가 간헐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은 ‘ㅅ’으로 표기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중화되는 과정에서 기저형 음절말 ‘ㅅ’과 기저형 음절말 ‘ㄷ’, 더 나아가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에 대한 표기 변화 과정 등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ㅅ’과 ‘ㄷ’이 중화되는 초기 단계인 16세기경에는, 기저형

음절말 ‘ㅅ’은 그 기저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저형 음절말 ‘ㄷ’이 ‘ㅅ’과의 혼기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과 이때 혼기의 초기 단계임에 따라 기저형 음절말 ‘ㄷ’이 ‘ㅅ’형으로의 표기보다 ‘ㄷ’을 유지한 표기형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음절말에서의 ‘ㅌ, ㅊ, ㅍ’ 등의 중화형이 ‘ㄷ’으로도 나타남으로써 16세기에는 음절말에서의 ‘ㄷ’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어 17세기에 들면 기저형 음절말 ‘ㅅ’은 ‘ㅅ’형으로의 표기를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기저형 음절말 ‘ㄷ’이 ‘ㅅ’형으로의 확산과, 그리고 음절말에서의 ‘ㅌ, ㅊ, ㅍ’ 등의 중화형도 ‘ㄷ’이 아닌 ‘ㅅ’형으로의 확산을 보임으로써 18세기 이후에는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 그리고 음절말 ‘ㅌ, ㅊ, ㅍ’의 중화형이 대부분 ‘ㅅ’형으로 나타남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 대상의 선정 및 이들에 대한 서지적 특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16세기에서 18세기 초반 한글간찰에서의 음절말 ‘ㅅ’형과 ‘ㄷ’형에 대한 표기 양상과 그 변화 과정 등을 논한다. 4장에서는 논의의 내용을 요약한다.

## 2. 연구 대상의 선정 및 특성

본 연구는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한글간찰을 대상으로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 그리고 기저형 음절말 ‘ㅌ, ㅊ, ㅍ’의 중화형에 대한 표기 변화 과정 등을 고찰하기 위해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한글간찰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즉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 17세기 중·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송규렴가의 한글간찰 등이다. 16세기 중반~18세기 초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은 ‘ㅅ’과 ‘ㄷ’이 중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혼기 양상이 16~17세기 중·후반 사이에 대부분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 그리고 ‘ㅌ, ㅊ, ㅍ’의 중화형이 ‘ㅅ’형으로의 표기적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한글간찰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한글간찰에서의 음절말 ‘ㅅ’ 표기 양상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한글간찰에서는 구어성이 풍부하여 음절말 ‘ㅅ’과 ‘ㄷ’ 등에 대한 언중들의 사용 양상 및 그 변화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한글간찰들의 서지적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은 1977년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소재 순천김씨 묘에서 발굴된 것이다. 전체 192편 중 한문간찰인 3편을 제외한 189편이 모두 한글간찰이다. 이 한글간찰의 대부분은 墓主人 順天 金氏가 生前에 어머니 信川 康氏, 아버지 金 燾, 남동생 등의 친정 식구들과 남편 蔡無易로부터 받은 것들이다. 순천김씨 한글간찰은 順天 金氏와 그 주변 인물들의 생존 연대 및 편지에 적힌 년대기를 통해 볼 때, 1550년대에서 1590년대 사이에 쓰인 것으로서 壬辰亂 이전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조항범 1998:21~23). 순천김씨 한글간찰의 판독은 조건상(1981), 전철웅(1995) 등에 의해 진행되어, 이후 조항범(1998)에서 전 자료에 대한 주해와 현대역이 자세히 다뤄졌다. 본고에서의 순천김씨 한글간찰에 대한 판독 및 주해는 조항범(1998)을 참조한다.

둘째,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간찰은 1989년 4월에 현풍곽씨 후손들이 그들의 12대 조모 진주하씨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발견된 간찰은 전체 172편으로, 이를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한글간찰 167매<sup>1)</sup>, 한문간찰 5매 등이다. 167편의 한글간찰은 郭澍의 필적이 105편으로 가장 많다. 그 중에서 郭澍가 그의 부인에게 쓴 편지가 대부분인

가운데 광주가 장모에게 보낸 편지, 광주가 노비에게 보낸 편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백두현 1997, 2003). 현풍곽씨 한글간찰은 ‘임인 정월(1602)’이라든가 ‘기미 팔월(1619), 경신 삼월(1620), 임술 삼월(1622), 병술 녹월(1646)’ 등의 기록과 무덤 주인인 진주하씨의 남편 郭澍의 계보를 통해서 17세기 전반인 1602~1646년에 걸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김일근 1991, 이병근 1996). 이러한 현풍곽씨 한글간찰의 판독 및 주해는 백두현(2003)을 참조한다.<sup>2)</sup>

셋째, 17세기 중·후반~18세기 초반의 은진송씨 제월당(霽月堂) 송규렴(宋奎廉, 1630.1.15~1709.6.5)가의 한글간찰은 송규렴의 후손가에서 전해진 아홉 첩의 簡札帖(『先札』 1~9) 중 『先札』 9를 일반적으로 말한다. 『先札』은 송규렴을 중심으로 당시 집안사람들 간에 오고간 한문간찰과 한글간찰을 모아 作帖한 것으로써 『先札』 1~8은 대부분 한문간찰이고, 『先札』 9가 한글간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때 한문간찰 속에도 한글간찰이 간헐적으로 들어 있는데, 『先札』 1~8 속에 포함된 한글간찰은 11편 정도가 된다. 그리고 한글간찰을 모아 作帖한 『先札』 9에서는 112편의 한글간찰이 있으므로 송규렴가의 한글간찰 편수는 『先札』 1~8 속에 포함된 한글간찰 11편과 『先札』 9에서의 112편으로 도합 123편이 된다. 송규렴가의 한글간찰이 쓰인 시기는 넓게 보면 1684~1709년 사이이고, 좁게 보면 1690~1709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대략 17세기 중·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9b:23~29). 제월당 송규렴가의 한글간찰에 대한 판독 및 주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2009b)’을 참조한다.

본 한글간찰들의 목록 및 편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목록 및 한글간찰 편수

시기	한글간찰 명	편수	참조
16세기 중반	순천김씨 한글간찰	189편	조항범(1998)
17세기 초반	현풍곽씨 한글간찰	167편	백두현(2003)
17세기 중·후반 ~18세기 초반	송규렴가 한글간찰	123편	한국학중앙연구원(2009b)
합계		480여 편	

### 3. 16~18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음절말 ‘ㅅ’형과 ‘ㄷ’형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한글간찰을 대상으로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 그리고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의 중화형에 대한 표기 변화 과정을 살핌을 목적으로

1) 현풍곽씨 한글간찰 167매는 種子分給記, 노비 名簿, 調理法, 祭物名 등의 문서 12매, 小驗할 때 작업 방법을 지시한 것 1매 등이 포함된 것이다(백두현 2003:18).

2) 현풍곽씨 간찰은 건들바우박물관보고서(1991, 金一根 해제)에서 168편이 판독되었었다. 그러다가 백두현 교수께서 원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들바우박물관에서의 영인본 ‘[건들 167]’에 끼어 있는 작고 긴 쪽지를 발견하였고, 이를 백두현(1997)에서 <164>번 간찰로 두어 현풍곽씨 간찰은 169편이 되었고, 이후에 백두현(2003)에서 미공개 자료 3점(120번, 160번, 161번)을 추가함으로써 현풍곽씨 간찰은 현재 총 172편이 된 것이다. 백두현(2003)에서는 간찰 내용의 진모를 파악하여 번호를 달리 부여하면서 문화재관리국보고서의 번호(약칭 [문 번호])와 건들바우박물관보고서(1991, 金一根 해제) 번호(약칭 [건들 번호])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판독에 대한 풀이, 해설, 주석 등이 자세하게 다뤄졌다.

한다. 특히 기저형 음절말 ‘ㄷ, ㅈ, ㅊ’의 중화형에 대한 변화 과정은 이들이 중화되어 [t<sup>h</sup>]로 실현되지만 표기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ㄷ’의 표기 양상과 유사하게 ‘ㄷ’과 ‘ㅅ’형이 혼기되다가 ‘ㅅ’형으로의 표기 경향을 이루므로 ‘ㅅ’과 ‘ㄷ’형의 혼기 현상을 논함에 있어서는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뿐만 아니라 기저형 음절말 ‘ㄷ, ㅈ, ㅊ’의 중화정도 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3장에서는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한글간찰을 통해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이 중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표기 양상과 변화 과정을 보이는지, 그리고 기저형 음절말 ‘ㄷ, ㅈ, ㅊ’의 중화형들은 어떠한 표기 변화 과정을 보이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1. 기저형 음절말 ‘ㅅ’에 대한 표기 분석

필자는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의 중화 과정에서 기저형 음절말 ‘ㅅ’의 표기 변화를 논하기 위해 16~20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의존명사 ‘것’과 일반명사 ‘옷’(衣)의 표기형과 빈도 등을 살핀 바 있다. 의존명사 ‘것’과 일반명사 ‘옷’(衣)은 16~20세기에 쓰인 대부분의 한글간찰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의존명사 ‘것’과 일반명사 ‘옷’(衣)에 대한 표기형과 빈도 등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 (1) 본 한글간찰에서의 ‘것’에 대한 용례

##### ㄱ. 순천김씨 한글간찰 (16세기 중반)

- 죽식들 니필 것도 나흔 거시 잇사 보내랴<9><sup>3)</sup>
- 저년 죽순 것 보밧...쁘들 것 업고...흔 것도 묻히여<12>
- 최소니는 간느냐. 가진 것들 죽시 츠리순다<124>

##### ㄴ. 현풍곽씨 한글간찰 (17세기 초반)

- 제 머근 것 해고 죽세 되여 바다 쓰소<5>
- 이 머근 것 보고 죽시 업시 흐소<34>
- 동싱의 무명 뿐 것 두 굿티 브람 흐여<132>

##### ㄷ. 송규렵가 한글간찰 (17세기 중·후반~18세기 초반)

- 귀별흔 것들은 호싱이 오는 뒤 보내마<9-7><sup>4)</sup>
- 타락꿀 가는 것 브디 닛디 말고 죽시 던흐여라<9-27>
- 음식도 점점 먹고 먹고 시븐 것도 이셔<9-66>

(1)은 본 한글간찰에서의 ‘것’이 ‘것+{#, C}’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용례의 일부를 보인 것으로 (1ㄱ)은 16세기 중반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용례들이다. 이 한글간찰에서는 ‘것+{#, C}’이 77여 건<sup>5)</sup> 출현하는데 이들이 ‘ㄷ’형인 ‘견’형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모두 ‘ㅅ’형인 ‘것’형으로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ㄴ)의 17C 초반 현풍곽씨에서의 55여 건<sup>6)</sup>,

3) < > 안의 번호는 순천김씨 한글간찰에 대하여 조항범(1998)에서 부여한 것이다.

4) < > 안의 번호는 송규렵가 한글간찰들에 대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2009b)에서 부여한 것이다. 이때 (9-7)의 경우, 앞의 ‘9’는 ‘『先札』 9’를 의미하고 뒤의 ‘7’은 ‘『先札』 9’의 112편에 대한 순서를 의미한다.

5)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것’에 대한 용례는 다음과 같다. ‘머글 것 어더<2>, 것 묻 쌀 것 흐면<8>, 죽식들 니필 것도<9>, 죽순 것 보밧...새 것들 당시 쁘들 것 업고...흔 것도 묻 히여<12>, 니블 것도 묻 히여...내 것 못고<15>, 싱이레 쌀 것 보내랴<61>, 아모 것또 보낼 것 업셔<63>, 누밧 것들 그릴 것갓<65>, 느즌 것 저그나<66>, 자일 것과 안석 것과 반물 드려<69>, 내 권 것 업스니<79> 등등이다.

6)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것’에 대한 용례는 다음과 같다. ‘약 먹일 법 슨 것도 가너<2>, 아므<sup>7)</sup>것도 보낼 것 업셔<3>, 누밧게 어들 것도<21>, 덕은 것 보고<35>, 무명 뿐 것 두 굿티...아므<sup>8)</sup>것도 정 알외으을 것

(1ㄷ)의 17C 중·후반~18C 초반인 송규렵가에서의 35여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ㄱ’형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모두 ‘ㄷ’형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순천김씨, 현풍곽씨, 송규렵가 한글간찰에서의 의존명사 ‘것’에 대한 표기형과 빈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본 한글간찰에서의 ‘것+{#, C}?’에 대한 표기형과 빈도

		것+{#, 자음(C)}	
시기	한글간찰 명	‘것’형	‘ㄱ’형
16세기 중반	순천김씨	77여 건	-
17세기 초반	현풍곽씨	55여 건	-
17세기 중·후반 ~ 18세기 초반	송규렵가	35여 건	-
합 계		170여 건	-

16세기 중반부터라면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중화되는 시기이므로 ‘ㅅ’형과 ‘ㄷ’형이 혼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하여 의존명사 ‘것’에 휴지(#)나 자음(C)이 후행하는 환경에서 ‘것’이 ‘ㄱ’으로도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의존명사 ‘것’의 표기형을 ‘것’형과 ‘ㄱ’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표 2>에서와 같이 170여 건에 달하는 본 한글간찰에서의 의존명사 ‘것’은 ‘ㅅ’형인 ‘것’형으로만 나타나고 ‘ㄷ’형인 ‘ㄱ’형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기 양상은 일반명사 ‘옷’(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옷+{#, C}’의 환경에서 예측되는 ‘옷’형과 ‘으’형을 분석한 결과, 의존명사 ‘것’과 같이 음절말에서의 ‘ㅅ’형인 ‘옷’으로만 나타나고 ‘ㄷ’형인 ‘으’형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 용례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본 한글간찰에서의 ‘옷’에 대한 용례

ㄱ. 순천김씨 한글간찰

- 덩싱위니 옷도 아니 받고<1>
- 옷돌도 늘그니 다 업시코<12>
- 옷마다 나므라고 다 하 옷 업세라 호고<80>

ㄴ. 현풍곽씨 한글간찰

- 누비 옷 누비 바지 섹랏거든 보내고<6>
- 아귀 옷도 호여 줄 거시고 다른 되도 팔 디 이시니<23>
- 니블 블근 옷 돌 점 보내고<73>

ㄷ. 송규렵가 한글간찰

- 넙던 호것 덕손의 냥 누비옷들 밋븐 이 업서<9-23>
- 열흐 가지를 일코 갓옷 다믄 고리를 가져가며<9-27>

(2)는 본 한글간찰에서의 ‘옷’이 ‘옷+{#, C}’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2ㄱ)은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용례들이다. 이 한글간찰에서는 ‘옷+{#, C}’이 50여 건<sup>8)</sup> 출현하는데,

업스와<44>, 아므것쑤 보내으을 것 업스와<56>, 광석홀 것도 하 물 어더흐니<60>, 보낼 것 피발 서 말<64>, 전의 호여던 것 쑤 보내옵노이다<65>, 제예 팔 것 위호고<71>, 제 머근 것 헤고<73> 등이다.

7) ‘것+{#, C}’에서 ‘#’은 ‘휴지’를 의미하고, ‘C’는 ‘Consonant(자음)’을 의미한다.

8)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옷’(衣)에 대한 용례로는 ‘덩싱위니 옷도 아니 받고<1>, 하 옷 문 얻거든<14>, 달옷 마스미<15>, 옷도 두더기 니퍼...달옷 마슴도 뵤노라<17>, 옷 문 어더 니블 주툰<20>, 옷

이들은 체언말에서의 ‘ㄷ’형인 ‘읻’형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모두 ‘ㅅ’형인 ‘읻’형으로만 나타남을 보인다. 그리고 (2ㄴ)의 현풍곽씨에서는 10여 건, (3ㄷ)의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는 2건이 나타나는데, 이들 또한 ‘읻’형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모두 ‘읻’형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기저형 음절말 ㅅ과 관련하여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한글간찰에 나타나는 의존명사 ‘것’과 일반명사 ‘읻’의 표기에서는 이들이 높은 출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ㄷ’형과의 큰 혼기 양상 없이 기저형 ‘ㅅ’이 대부분 유지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외에도 순천김씨, 현풍곽씨,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ㅅ’에 대한 표기 양상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ㅅ’인 ‘것’이 10여 건 나오는데, 이들도 ‘사이것 반다이 알것 가지」 사서<8>, 새이것 상으로 호고 반다이 굴알것 가지」 혼디 녀호라<8>, 사이것 굴것 알것<178>’ 등과 같이 ‘ㅅ’형으로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저형이 음절말 ‘ㅅ’인 ‘긋’, ‘항것’, ‘벗-(脫)’ 등도 ‘오늘 긋 보라 가니<27>’, ‘동너 갈 제 제 항것드려 달라 호니<92>, 학개 것도 혼 벗 버려서 안집들호고<31>’와 같이 ‘ㅅ’형으로만 나타남을 보인다.<sup>9)</sup> 이어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ㅅ’의 용례가 아래 (3)과 같이 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ㅅ’형의 용례들

ㄱ. 빗(梳. 3건):

- 빗접 슈건 갓보애 든 재자리보<59>,  
갓보희 벼로 빗접 슈건 칩 호여<84>  
빗접을 닛고 아니 가져와 이시니<86>,

ㄴ. 못(3건):

- 훗고기란 만히 잡아 왔거든 혼 못만 보내고<73>  
큰딕의셔 통조기 혼 못 청어 혼 드림<127>  
자반 조곰 호읍고 싱조기 혼 못 가읍노이다<154>

ㄷ. 짓-(作. 9건):

- 우리 논 짓는 사름을 다 츄심호여<13>  
집을 짓고 제곰 살게 호새<31>,  
천하의 큰 죄를 짓꼬 나왔스울식<160>

ㄹ. 닷(五. 19여 건):

- 빨 너 말 닷 되를 가더 가니<5>  
폼 뻥 것읻 잇거든 폼 뻥 거슬 닷 자만 보내고<38>  
츄빨 혼 말 녹도 닷 되 뻥 닷 되 가너<83>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는 (3ㄱ)의 ‘빗접’이 3번 나오는데, 모두 ‘ㅅ’형으로만 발견된다. ‘빗접(>빗접)’은 ‘기름 곁은 종이를 접어서 빗 따위의 머리를 빗는 데 쓰이는 물건을 싸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빗(梳)+접-(동사어간)’으로 구성된 비통사적 합성명사일

호여 니블 세는<21>, 읻돌 호마<30>, 오라비 읻 하 물 어더 니버<34>, 다른 읻 안 호려쇠<36>, 곁읻 보내소<50>, 자내 읻 닐굽 거식 두고…훗 당읻 브라 두고 학개 읻 세헤 두니<80> 등이 있다.  
9) 한편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다섯이나 여섯쯤 되는 수’를 의미하는 ‘대엿’의 경우, ‘다엿 되<5, 118>, 다엿 그르슬<56>’과 같이 대부분 음절말 ‘ㅅ’형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음절말 ‘ㄷ’형인 ‘세 필 뵈 설 훗 다엿 자<134>’가 한 건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기저형 음절말 ‘ㅅ’은 ‘ㄷ’형과의 혼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기저형 음절말 ‘ㄷ’은 ‘ㅅ’형과의 혼기가 빈번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다엿’은 기저형 음절말 ‘ㄷ’이 ‘ㅅ’형과 혼기되는 현상에 유추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가능성이 있다(백두현 2003:325). (3ㄴ)의 ‘뭇’은 생선을 세는 단위 명사로 열 마리를 일컫는데, 때로는 장작, 채소 따위의 작은 묶음을 세는 단위 명사로도 쓰이는 것으로써 이 또한 발견되는 3건 모두 ‘뭇’형으로만 나타난다. (3ㄷ)의 ‘짓’-(作)은 다양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데,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도 ‘재료를 들여 밥, 옷, 집 따위를 만들다’의 의미인 ‘집을 짓고…집을 짓고더…두 간이나 새로 짓고<31>’ 등이나, ‘논밭을 다루어 농사를 하다’의 의미인 ‘논 짓는 사림을<13>’, 그리고 ‘죄를 저지르다’의 의미인 ‘므슴 죄를 짓고<121>, 므슴 죄를 전싱의 짓고<125>, 나는 전싱 므슴 죄 짓고<142>, 천하의 큰 죄를 짓소 나왔스올시<160>’ 등으로 쓰이고 있다.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는 이러한 ‘짓’-(作)이 총 9번 나오는데, 이들도 모두 ‘진’형이 아닌 ‘짓’형으로만 발견되는 것이다. (3ㄷ)의 ‘닷’은 ‘되, 말, 냥’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다섯임을 나타내는 수관형사이다. 이때 ‘五’는 수관형사로 쓰인 ‘똥 다섯 마리<100>’이나 수사로 쓰인 ‘미는 스물다섯시 가늉<72>, 새 열다섯 가늉<17>’ 등을 함께 볼 수 있는데, 이러한 ‘五’의 수관형사 및 수사 또한 다소 많은 출현에도 불구하고 ‘단’ 등의 ‘ㄷ’형은 발견되지 않고 대부분 ‘닷’ 등의 ‘ㅅ’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도 기저형 음절말 ‘ㅅ’은 대부분 ‘ㅅ’형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의존명사 ‘똥~똥’이 ‘늑도 뭇 툯 똥하니<9-7>, 보고 본 똥 반갑기<9-52>, 이 똥과 업슨 똥 시버 흐노라<9-67>, 놀라운 똥하며<9-97> ~ 경스를 쏘 본 똥하며<9-24>, 즈연 더딜 똥 시브고<9-48>, 미양 성티 똥흔 똥하며<9-72>’와 같이 ‘똥’의 43여 건과 ‘똥’의 18여 건 등의 출현 가운데 이들이 모두 ‘ㅅ’형으로만 발견되는 것이다. 그 외 ‘통쥐 괴별은 쪼 드르니<9-20>, 쪼 와 고흐니<9-32>, 이제야 쪼 자바시나<9-39>’ 등의 ‘방금’의 의미를 가진 ‘긫’이나 ‘그릇 즉시 보내여라<6-1>’에서의 ‘그릇’(器) 등의 기저형 음절말 ‘ㅅ’도 ‘ㅅ’형으로만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순천김씨, 현풍곽씨,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ㅅ’은 이 ‘ㅅ’이 ‘ㄷ’과의 중화 과정에서 ‘ㄷ’형과의 혼기를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ㅅ’은 ‘ㄷ’형과의 큰 혼기 양상 없이 대부분 기저형 ‘ㅅ’을 유지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저형 음절말 ‘ㅅ’과는 달리 기저형 음절말 ‘ㄷ’은 ‘ㄷ’이 ‘ㅅ’형과 혼기되다가 점차 ‘ㅅ’형으로의 확산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변화 과정은 3.2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도록 한다.

### 3.2. 기저형 음절말 ‘ㄷ’에 대한 표기 분석

중세국어 시기에 기저형이 체언말 ‘ㄷ’형이었던 ‘붓(>붓, 筆), 못(>뭇, 釘), 갓(>갓, 笠), 뽏(>똥, 情), 곧(>긫, 處), 벗(>벗, 友)’ 등은 현대국어에서는 체언말 ‘ㅅ’형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부정부사 ‘뭇’도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에서는 기저형이 ‘뭇’이었던 것이 현대국어에서는 ‘뭇>뭇’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기저형 음절말 ‘ㄷ’이 ‘ㅅ’형으로 재구조화된 것은 16세기 이후에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중화되는 과정에서 ‘ㄷ’이 ‘ㅅ’형과의 혼기를 보이다가 ‘ㅅ’형으로의 표기 경향을 이룬 표기사적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ㄷ’형과의 혼기가 거의 없었던 기저형 음절말 ‘ㅅ’의 경우는 ‘ㄷ’형으로 재구조화된 어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ㅅ’형과의 혼기를 보인 기저형 음절말 ‘ㄷ’은 ‘ㅅ’형으로 재구조화된 어형들을 현대국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중화되는 과정에서 ‘ㅅ’과 ‘ㄷ’의 혼기가 기저형 음절말 ‘ㅅ’에도 빈번하게 나타났었다면 기저형 음절말 ‘ㅅ’도 ‘ㄷ’형

으로 재구조화된 어형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한다.

3.2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ㅅ’에 이어 기저형 음절말 ‘ㄷ’에 대한 표기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때 기저형 음절말 ‘ㄷ’은 대부분의 한글간찰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부정부사 ‘몹>몹’과 용언 어간 ‘믿-(信), 받-(受), 얻-(得), 듣-(聞)’ 등을 통해 우선 살피고자 한다. 이에 본 한글간찰에서의 ‘몹>몹’과 ‘몹ㅎ->몹ㅎ-’, 그리고 어간말 ‘ㄷ’을 가진 용언들의 표기형 및 빈도를 먼저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3> ‘몹>몹’과 ‘몹ㅎ->몹ㅎ-’에 대한 표기형과 빈도

시기	한글간찰 명	‘몹>몹’과 ‘몹ㅎ->몹ㅎ-’의 표기형	
		‘몹’과 ‘몹ㅎ-’	‘몹’과 ‘몹ㅎ-’
16세기 중반	순천김씨	400여 건	-
17세기 초반	현풍곽씨	260여 건	5건
17세기 중·후반 ~ 18세기 초반	제월당 송규렴가	-	230여 건

<표 3>은 본 한글간찰에서의 부정부사 몹>몹’과 보조용언 ‘몹ㅎ->몹ㅎ-’의 표기 양상 및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현대국어에서의 부정부사 ‘몹’은 기원형이 ‘몹’이다. 그리고 15세기에는 음절말에서의 ‘ㄷ’과 ‘ㅅ’이 변별되었으므로 부사 ‘몹>몹’이나 보조용언 ‘몹ㅎ->몹ㅎ-’는 ‘先考〇 뜯 몹 일우시니<龍歌12章>, 년 디 몹 쓰리니<釋譜23:3>, 제 뜯들 시러 퍼디 몹홀 노미 하니라<訓註>, 아디 몹ㅎ스와<圓覺 上一之一 27>’와 같이 대부분 ‘몹’과 ‘몹ㅎ-’ 등으로 쓰였다. 그러다가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중화되면서 ‘벼슬 몹ㅎ여시니<1518 二倫 4a>~고티디 몹ㅎ리라<二倫18a>, 萬物리 홀긔 업스면 나디 몹ㅎ느니<1569 칠대만법 1b>~萬物이 나디 몹ㅎ며<칠대만법1b>, 行티 몹ㅎ느니<1588 小學諺解5:108a>~이 글 넓다가 몹디 몹ㅎ여<小學諺解5:117a>’와 같이 기저형 음절말 ‘ㄷ’이 동일 문헌 내에서도 ‘ㅅ’형과 혼기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몹>몹’과 ‘몹ㅎ->몹ㅎ-’가 400여 건 출현하는데 이들이 ‘몹 습대로 몹 상면될가<3>, 몹리 받 거신디 몹 받 거신디<6>, 유무 말라 하니 몹ㅎ노라<8>, 다리를 받디 몹ㅎ고<15>’와 같이 ‘몹’과 ‘몹ㅎ-’형으로만 쓰임을 볼 수 있다. 이는 16세기 중반인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몹>몹’과 ‘몹ㅎ->몹ㅎ-’의 경우는 음절말에서의 ‘ㄷ’과 ‘ㅅ’의 혼기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는 ‘몹’과 ‘몹ㅎ-’가 260여 건 출현하는 가운데, 이들이 ‘사름을 몹 보내려니와...히를 보디 몹ㅎ여<4>, 친히 갖다가 몹 어더 오니<43>, 자내 영히 성치 몹ㅎ여<86>’와 같이 대부분 ‘몹’과 ‘몹ㅎ-’형으로 나타나나, 5건 정도가 ‘엇디 자신고 닛디 몹ㅎ여 ㅎ벼<57>, 완〃이 ㅎ여 몹ㅎ을 거시니<107>, 몹 보내여 일시를 닛디 몹ㅎ여<164>’처럼 ‘ㅅ’형인 ‘몹’형과 ‘몹ㅎ-’형으로 나타남을 보인다. 즉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에 와서는 기저형 ‘몹’이 간헐적이긴 하나 ‘ㅅ’형인 ‘몹’형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인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는 ‘몹’이 기저형이 음절말 ‘ㄷ’임에도 불구하고 ‘몹’형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230여 건이 모두 ‘음식을 그리 몹 머그니<9-6>, 글시 몹 써 편지 몹ㅎ니<9-20>, 몹이 수이 소복디 몹ㅎ고<9-67>, 어이 ㅎ실디 아디 몹ㅎ며<9-86>’처럼 ‘몹’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사 ‘몹>몹’이나 보조용언 ‘몹ㅎ->몹ㅎ-’의 분석을 통해 기저형 음절말 ‘ㄷ’은



후대로 갈수록 ‘ㅅ’형으로의 확산 및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기저형 어간말 ‘ㄷ’을 가진 용언들에서도 ‘ㄷ’이 ‘ㅅ’형으로의 확산을 보임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 어간말 ‘ㄷ’을 가진 용언들의 표기형과 빈도

시기	한글간찰 명	믿-(信)+C		받-(受)+C		얻-(得)+C		듣-(聞)+C	
		믿-	밋-	받-	밧-	얻-	엇-	듣-	뎡-
16세기 중반	순천김씨	8건	2건	13건	4건	13건	-	16건	1건
17세기 초반	현풍곽씨	-	3건	2건	12건	-	5건	18건	3건
17세기 중·후반 ~18세기 초반	송규렴가	-	3건	-	1건	-	2건	-	21건

<표 4>는 본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어간말 ‘ㄷ’인 ‘믿-(信), 받-(受), 얻-(得), 듣-(聞)’ 등의 표기형과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어간말 ‘ㄷ’을 가진 용언들은 <표 4>에서처럼 기저형 어간말 ‘ㄷ’이 ‘ㅅ’형과 혼기되어 나타남을 보인다. 즉 ‘얻-’의 경우는 13건이 출현하는데, 이들이 ‘다엿 되만 얻고져 흐뇌<5>, 옷 묻 얻거든<14>, 처 비라 얻디 말라<41>, 분 하 업스니 쓰던 거시나 얻고전노라<159>’와 같이 ‘ㄷ’형인 ‘얻’형으로만 발견되나, ‘믿-, 받-, 듣-’ 등은 ‘믿-:밋-=8:2, 받-:밧-=13:4, 듣-:뎡-=16:1’의 빈도와 같이 ‘ㄷ’이 ‘ㅅ’형과 혼기되어 나타남을 보이는 것이다. 일테면 ‘ㄷ’형인 ‘믿-, 받-, 듣-’이 ‘너히 형테를 믿고 인노라<21>, 춘개를 믿다니<109>, 짐도 너히 받느니<35>, 바들 것도 받느니라<147>, 기별 듣고 하 불상타<35>, 어마님 편티 아닌 증을 듣고 민망<60>’ 등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ㅅ’형인 ‘밋-(信), 밧-(受), 뎡-(聞)’형도 ‘묻 밋고 오려 두어 섬 히여<66>, 둘 주고 흐나 밧자 흐니<64>, 온 거슨 다 밧되<156>, 밧양 유무 뎡다가<137>’와 같이 다소나마 나타나는 것이다.<sup>10)</sup>

그러다가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에 와서는 어간말 ‘ㄷ’을 가진 용언들이 ‘듣-(聞)’의 경우는 ‘듣-:뎡-=18:3<sup>11)</sup>’으로 어간말에서의 ‘ㄷ’형이 많이 나타남을 보이나, 그 외 ‘받-(受)’의 경우는 ‘받-:밧-=2:12<sup>12)</sup>’처럼 어간말에서의 ‘ㅅ’형이 많이 나타나고, ‘믿-(信)’과 ‘얻-(得)’에서는 ‘믿-:밋-=0:3’과 ‘얻-:엇-=0:5’의 빈도와 같이 ‘믿-’형과 ‘얻-’형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모두 ‘ㅅ’형인 ‘밋-’형과 ‘엇-’형으로만 보이는 것이다.<sup>13)</sup> 그리고 이어서 17세기 중·

10)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400여 건에 달하는 ‘묻-’과 ‘묻-’의 경우는 아직 ‘ㅅ’형과의 혼기 없이 ‘ㄷ’형으로만 나타나는 반면 용언의 어간말 ‘ㄷ’은 ‘ㅅ’형과의 혼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를 볼 때, 기저형 음절말 ‘ㄷ’의 ‘ㅅ’형과의 혼기 확산이 어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11)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듣-:뎡-=18:3’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듣-’형(18건): 기별 듣고 깃거흐뇌<19, 67>, 노래 듣드시 듣고 견디소<52>, 소리도 서로 묻 듣게 <59>, 유뫼에 히여거늘 듣고...기별도 즈즈조 묻 듣거노<129> 등등.  
 ② ‘뎡-’형(3건): 말습을 묻 듣고...흐즈 말습을 묻 듣고 오오니<156>, 동상의게 듣오니<162>.

12)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받-:밧-=2:12’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받-’형(2건): 보내신 거슨 받와이다<3>, 흐가지로 흐여 받<83>.  
 ② ‘밧-’형(12건): 온 거슨 다 밧고 그릇드 다 도로 가<19>, 전의 밧즈 온 유무를 밧 보오며<44>, 뜻 닷 되 가 즈세 밧소<49>, 모밀점 출화 밧소<55>, 글워 로 밧고<70> 등등.

13)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믿-(信)’과 ‘얻-(得)’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믿-’형: 발견되지 않음  
 ② ‘밋-’형(3건): 나 밋고 조심 홀만<11>, 너 밋고 잇노라<112>, 히술 흐니 밋디 묻 흐로소이다<159>.  
 ③ ‘얻-’형: 발견되지 않음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송규렴가 한글간찰에 가서는 어간말 ‘ㄷ’을 가진 용언들이 기저형이 어간말 ‘ㄷ’임에도 불구하고 ‘새 감스느 오기 밋디 못흐면 어이 홀고<9-88>, 더욱 밋디 못홀 것 ㄱ티여<9-104>, 빅천 도디 밋기느<9-8>, 혼자 보내 엇디 못흐여<9-110>, 이후는 일절 뫋디 못흐니<9-12>, 네 병환 기별을 뫋고<9-13>’ 등과 같이 모두 ‘ㅅ’형으로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저형 음절말 ‘ㄷ’의 ‘ㅁ>ㅁ’과 ‘ㅁ>ㅁ’->‘ㅁ>ㅁ’-, 그리고 ‘ㅁ-(<信>), ㅁ-(<受>), ㅁ-(<得>), ㅁ-(<聞>)’ 등은 기저형 음절말 ‘ㅅ’과는 달리 ‘ㄷ’이 ‘ㅅ’형으로의 표기 변화 과정을 보이는데, 본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ㄷ’에 대한 표기 양상을 이들 외에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ㅁ>ㅁ’(<情>), ‘ㅁ>ㅁ’(<筆>), ㅁ->ㅁ-’ 등을 통해 더 볼 수 있다. 이때 ‘ㅁ>ㅁ’(<情>)은 ‘하늘하 이 ㅁ ㅁ를 아라<3>, 내 ㅁ슴 먹는 ㅁ과 이리 다르니<61>, 너히도 다시 불 ㅁ ㅁ 마오<73>, 자내 ㅁ디 내 ㅁ과 다르니<105>’와 같이 나타나고, ‘ㅁ>ㅁ’(<筆>)은 ‘벼로에 인는 황모ㅁ 보내소<5>’와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ㅁ->ㅁ-’<sup>14)</sup>은 ‘ㅁ형님씨도 열 권 가니<64>, ㅁ아기 올 제 드려 보내새라<69>, 이튼날 ㅁ오라 바니미 드려와 보고<8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이 간찰에서의 ‘ㅁ>ㅁ’ 등이 ‘ㅅ’형과의 혼기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ㅁ>ㅁ’(<情>), ‘ㅁ>ㅁ’(<筆>), ㅁ->ㅁ-’ 등도 아직은 ‘ㅅ’형과의 혼기 없이 ‘ㄷ’형으로만 나타남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기저형 음절말 ‘ㄷ’이 ‘ㅅ’과의 중화 과정 초기에는 ‘ㄷ’형과 ‘ㅅ’형과의 혼기도 초기 단계임에 따라 기저형 음절말 ‘ㄷ’이 ‘ㄷ’형을 유지한 어형들이 많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에 기저형 음절말 ‘ㄷ’이 ‘ㅅ’과의 중화 초기 단계인 16세기쯤에는 음절말 ‘ㄷ’형의 출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는 ‘ㄱ-’과 ‘ㅁ-’ 등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임이는 것느가 니러서 기는 즈조 ㅎ느가<36>, 일저리 것디 아니호매<62>, 관도 뵈 거슬 가더다가 뫋다 ㅎ니<21>, 덩동디 딕의 약 뫋즈오러 가니<問, 53>’와 같이 기저형 음절말 ‘ㄷ’이 ‘ㅅ’형인 ‘ㄱ-’과 ‘뫋-’형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17세기 중·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송규렴가의 한글간찰에 가서는 기저형 음절말 ‘ㄷ’이 ‘ㄷ’형으로의 용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ㅅ’형으로만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순천김씨, 현풍곽씨,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ㄷ’은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중화되는 과정에서 ‘ㅅ’형과의 혼기를 보이다가 후대로 갈수록 ‘ㅅ’형으로의 표기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저형 음절말 ‘ㅅ’의 경우는 ‘ㅅ’이 ‘ㄷ’과 중화되는 과정일지라도 기저형 ‘ㅅ’을 대부분 유지하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인 것이다. 따라서 기저형 음절말 ‘ㅅ’과 기저형 음절말 ‘ㄷ’은 중화 과정에서 이들이 동일한 혼기 과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혼기 양상을 기저형 음절말 ‘ㅅ’과 기저형 음절말 ‘ㄷ’ 등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없이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까지는 음절말 ‘ㅅ’형보다 ‘ㄷ’형이 다소 우세한 양상을 보이다가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음절말 ‘ㄷ’형보다 음절말 ‘ㅅ’형이 우세하였다는 등의 해석은 앞으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④ ‘엇-’형(5건): 사름을 ㅁ 엇거든<4>, 보리기름을 놈게 엇기 어려우니<16>, 초계디기나 엇게 ㅎ소<117>, 제예 뫋 뫋 엇다가 ㅁ<147>.  
 14) ‘ㅁ-’은 중세국어에서 ‘ㅁ-’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ㅁ-, ㅁ-, ㅁ-’ 등으로 세 어형이 나타난다. ㅁ형<64:17>, ㅁ아기네<99:9>, ㅁ버스틀<93:18> 등이 참고 된다(조항범 1998:276).

한편 위와 같이 ‘ㅅ’과 ‘ㄷ’이 혼기되는 과정에서 기저형 음절말 ‘ㅅ’은 ‘ㄷ’형과의 혼기를 거의 보이지 않고, 기저형 음절말 ‘ㄷ’이 ‘ㅅ’형과의 혼기를 보이는데, 이때 ‘ㄷ’형과 ‘ㅅ’형과의 혼기는 기저형 음절말 ‘ㄷ’에서뿐만 아니라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의 중화형에서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에 3.3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의 중화형에 대한 표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3.3.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에 대한 표기 분석

형태음소주의 표기인 현대국어에서는 ‘끝(末), 낮(晝), 꽃(花)’과 같이 음절말음의 기저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는 음소주의 표기가 중심이었기에 ‘끝(末), 낮(晝), 꽃(花)’ 등의 체언말 ‘ㅌ, ㅈ, ㅊ’은 ‘ㅅ~ㄷ’으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즉 한국어의 음절말음은 폐쇄로 끝나기 때문에 음절말에서의 격음이나 경음은 이들이 가지는 후두 긴장성이나 기식성이 음절말에서는 변별성을 잃어 동일 위치의 평음으로 중화되는데, 이때 중세와 근대국어에서는 그 음성형이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들의 체언말이 ‘ㅅ’형이나 ‘ㄷ’형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음절말에서의 ‘ㅌ, ㅈ, ㅊ’은 중화되어 [tʰ]로 실현되지만 표기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ㄷ’의 표기 양상과 유사하게 ‘ㄷ’과 ‘ㅅ’형이 혼기되다가 ‘ㅅ’형으로의 표기 경향을 보이므로 ‘ㅅ’과 ‘ㄷ’의 혼기 양상에 있어서는 ‘ㅅ’과 ‘ㄷ’뿐만 아니라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에 대한 중화 과정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3.1.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을 가진 어형으로는 ‘낯(個), 끝(末), 밑(低), 같-(同), 팔, 붙-(着), 빚(債), 잊-(忘), 낮(晝), 맞-(合), 몇, 빛(光)’ 등이 있다. 그 중 ‘같-(同), 낯(個), 끝(末), 빚(債), 잊-(忘), 빛(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에 대한 용례

###### ㄱ. 같-(同)

- ① ‘ㄷ’형(5여 건): 일마다 ㅅ슴 ㄷ디 ㅅ흔니<72>  
 혼 ㅅ식 ㄷ디 아녀<한 자식 ㅅ지 ㅅ아 96>  
 내 간 ㅅ는 거와 이 ㅅ튼니<149>  
 너 자토리과 ㅅ거늘<165>  
 귀실곳 네 ㅅ디 아니면<167>

###### ② ‘ㅅ’형: 발견되지 않음

###### ㄴ. 낯(個)

- ① ‘ㄷ’형: 발견되지 않음
- ② ‘ㅅ’형(15건): 조귀 ㅅ도 아녀 보내니<57>  
 올히는 꾸리 ㅅ도 소년 거러<58>,  
 심 〃 ㅅ여 꾸린 ㅅ도 겨러 주리 업고<90>,  
 보육 여섯 ㅅ 민서방 지릭 네 ㅅ 오기내 주어라<143>

###### ㄷ. 끝(末)

- ① ‘ㄷ’형 (5건): 무명 ㄷ도 어들 세 업고<21>  
 무명 ㄷ 업고 짐 ㅅ거오니<37>  
 두 손ㄷ 마조 ㅅ여<73>  
 어버이 ㄷ ㅅ시ㄷ ㅅ ㅅ노ㅅ다<135>  
 보화 ㄷ도 언디 ㅅ노라<147>

㉔ ‘ㅅ’형: 발견되지 않음

ㄷ. ‘빚(債)’

- ① ‘ㄷ’형(10여 건): 내 바다 빚 갑고<10>  
 형도 빚 하 쓰고<31>, 잡빚 당기지 말오<85>  
 저기 빚 거스러 보고져<92>,  
 느릿 빚 소개 다시 드러서 빚 말 니르면<88>,  
 당시 빚 소기 무터시니 ㄱ업다<123>  
빚들도 네 형과 의논혀여 호고<166>,

② ‘ㅅ’형: 발견되지 않음

ㄹ. 잊-(忘)

- ‘ㄷ’형(1건): 그레 빚들 빚디 아니호게<49>  
 ‘ㅅ’형(16여 건): 너를 하 빚디 못호고<55>  
 미양 빚디 못혀여 니즌 나리 업서<13>  
 내 니블 일도 다 빚고<58>  
 다시곰 다 빚디 못호니<65>  
 날 못 빚는 일가 호고 노혀여<93>

ㅂ. 빛(光)

① ‘ㄷ’형: 발견되지 않음

- ‘ㅅ’형(4건): 너빅 빚고 빚 고오니<131>  
 너빅 빚고 빚 사오나오니<62>  
빚 도쿄 너빅 너브니로 빚과 보내여라<빚 175>

(5)는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갈-(同), 날(個), 끝(末), 빚(債), 잊-(忘), 빛(光)’ 등에 대한 용례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5ㄱ)의 ‘갈-(同)’은 연철표기된 ‘ㄱ티’가 23건으로써 ‘술 취흔 사롭 ㄱ티 어렵호고<12>, 내 저른 적 ㄱ티 므스미 정시니 이시면<58>, 쫄즈식 ㄱ티 먹는 정을 모르니<68>’처럼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갈-(同)’의 기저형이 ‘갈-(>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갈-(同)’은 음절말에서의 중화형이 ‘ㄱ’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일마다 므슴 갈디 못호니<72>, 혼 즈식 갈디 아녀<96>’처럼 ‘ㄷ’형인 ‘갈’으로만 나타남을 보인다.

(5ㄴ)의 ‘날(個, 箇)’의 경우, 15세기 문헌에서는 ‘댓 날출 바횿 굽기 다혀므를<初杜解 15:18>, 소리 혼 날출<救箇 6:4>, 삼천 날치로소니:三千箇<翻朴 上1>’와 같은 ‘낫’과 ‘대전 혼 날태 동궐이 놀라스바니<龍歌 47章>, 세 날 불썸 빼여디니<月印 上16>, ㅍ이 다만 돈 혼 날트로<釋譜 24:39>’와 같은 ‘날’으로도 나타난다. 그리하여 조항범(1998:297)에서는 ‘낫’의 기저형이 ‘날’인지 ‘낫’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낫’ 또는 ‘날(個, 箇)’이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조기 낫도 아녀 보내니<57>’와 같이 ‘낫’으로만 15건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5ㄷ)의 ‘글(>끝, 末)’은 15세기 문헌에서의 ‘末은 글티라<釋譜 9:2>, 몸이 分뵈야 두 글티 드외리라<蒙法 55>, 澄觀書사 글테 날오디<圓覺 序75>’와 같은 연철표기를 통해 ‘末’의 기저형이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이 휴지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후행하면 음절말에서의 ‘ㅌ’이 중화되어 ‘글과 글과를 슬피실씩<월석 8:16>, 처섬과 글과를 다시곰 드디면<圓覺 上一之一-69>’처럼 ‘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도 ‘末’은 ‘명디 글도 어들 세 업고<21>, 무명 글 업고 짐 뜨거오니<37>, 두 손글 마조 쥐여<73>, 어버이 글 즈시글 못 글노도<135>, 보화 글도 언디 못호노라<147>’와 같이 ‘글’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한편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남자종 이름인 ‘근사니~긋스니’가 13번 나온다. 그 중에서 ‘ㄷ’형인 ‘근사니’가 ‘근사니 보내뇌<11>, 오늘 근사니 나디 몬 홀손가<45>, 근사니도 여테 아니 왔고<190>’ 등으로 12번이 나오고, ‘ㅅ’형인 ‘긋스니’가 ‘또 긋스니 더욱 내 말 드락랴<28>’에서 1번 나온다. 조항범(1998:59)에서는, ‘근산’이는 ‘근(末)’과 ‘산’으로 분석되어 ‘남자 종 중에서 맨 끝의 종’, 즉 ‘막내 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노비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末山’과 관련된다 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사니~긋스니’을 통해 ‘글(>끝)’의 중화형이 ‘ㄷ’형으로 쓰이다가 이 시기에 ‘ㅅ’형인 ‘긋’으로도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한다. 이에 반해 (5口)의 ‘잊-(忘)’의 경우는 대부분 ‘ㅅ’형으로 쓰이면서 ‘ㄷ’형이 ‘그레 뜨들 넛디 아니하게<49>’에서 1건이 보이고, (5日)의 ‘빛(光)’은 ‘너비 좁고 빛 사오나오니<62>’와 같이 ‘ㅅ’형으로만 4건이 보이는 것이다.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의 중화형에 대한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ㅌ, ㅈ, ㅊ’의 중화형과 빈도

갈-(同)		낱(個)		끝(末)		빚(債)		잊-(忘)		빛(光)	
ㄷ형	ㅅ형	ㄷ형	ㅅ형	ㄷ형	ㅅ형	ㄷ형	ㅅ형	ㄷ형	ㅅ형	ㄷ형	ㅅ형
5건	-	-	15건	5건 (12건)	- (1건)	10건	-	1건	16건	-	4건

이로써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ㅌ, ㅈ, ㅊ’의 중화형과 빈도 등을 정리한 <표 5>에서도 보듯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의 중화형 중 ‘갈-(同), 끝(末), 빚(債)’ 등은 ‘ㄷ’형이 많이 쓰이고, ‘낱(個), 잊-(忘), 빛(光)’ 등은 ‘ㅅ’형이 많이 쓰이는 가운데, 이 시기에는 이들 중화형에 대한 ‘ㅅ’과 ‘ㄷ’의 혼기 양상이 어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ㅅ’형과 ‘ㄷ’형이 비슷한 빈도로 혼기되어 쓰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3.2.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

순천김씨 한글간찰에 이어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은 ‘갈-(同), 낱(個), 밭(田), 잊-(忘), 낫(晝), 옷(漆)’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6)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에 대한 용례

##### ㄱ. 갈-(同)

- ① ‘ㄷ’형: 발견되지 않음
- ② ‘ㅅ’형(5건): 아들 곶쓰오면<160>  
 엄셔방 밥과 산전도령 밥을 마치 곶게<65>  
 우리게서 흐는 거스란 마치 곶게 흐소<65>  
 내 팔즈곶치 사오나온 팔직<139>

##### ㄴ. 낱(個)

- ① ‘ㄷ’형: 발견되지 않음
- ‘ㅅ’형(3건): 오리 싹포 열 낱 적습건마는<1>  
 던복도 두 낱만 달라 흐여 쓰소<3>  
 들괴알 다엿낱만 유지를 주워<71>

##### ㄷ. 밭(田)

- ① ‘ㄷ’형(1건): 밭자리 쉬 굴믹<115>

- ㉔ ‘ㅅ’형(3건): 뺏마다 다 가리되<13>,  
 모퉁 뺏느르<sup>15)</sup> 초계되 쇼상이라 하니<57>,  
 논도 무기읍고 뺏도 무기읍노이다<130>

㉕. 잊-(忘)

- ㉕ ‘ㄷ’형: 발견되지 않음  
 ‘ㅅ’형(53여 건): 아히를 일시도 뺏디 못혀여<9>  
 기별 몰라 일시도 뺏디 못혀여 분별혀뇌<61>  
 빗점을 뺏고 아니 가져와 ... 뺏디 말고<86>

㉖. 낮(晝)

- ㉕ ‘ㄷ’형: 발견되지 않음  
 ‘ㅅ’형(6건): 너일 낮 전으로 보내소<3>  
 너일 낮 후에 느르<sup>15)</sup>식으로 내여 보내소<25>,  
 밤낮 글로 분별혀읍다니 ... 밤낮 띄으와<142>

㉗. 옷(漆)

- ㉕ ‘ㄷ’형: 발견되지 않음  
 ‘ㅅ’형(5건): 오순<sup>16)</sup> 옷당이 와서 뵈셔 아샷는가 ...  
 광샷이를 친히 가 옷당이 드려다가 ...  
옷남오 버현디...옷남글 버릴 거시니 ...  
옷당이 드려다가 수이 아스라 혀여<56>

(6)은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형 중 ‘같-(同), 낫(個), 밭(田), 잊-(忘), 낮(晝), 옷(漆)’ 등을 분석하여 그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위의 (6)을 통해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의 중화형은 ‘밭자리 쉬 굴믹<밭자리, 115>’에서 ‘ㄷ’형이 한 건 발견되는 것 외에는 대부분 ‘ㅅ’형으로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때 (6㉗㉔)의 ‘옷당’의 경우는 ‘옷을 다루는 기술자(漆匠)’인 ‘옷장이’이며, ‘옷남오’는 ‘옷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15) ‘뺏느르’는 ‘뺏밭#느르’로, ‘뺏밭#느르’의 구성이다. 이때 ‘뺏’ 부분의 글자가 먹에 뭉그러져 자형이 분명하지 않으나, ‘뺏밭’은 ‘뺏밭’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뺏밭느르’는 ‘뺏밭’이라는 마을에 있는 나무터일 것이다. ‘뺏밭’은 오늘날의 俗지명에서 흔히 보이는 것으로 한자로는 ‘薪田’으로 적힌다. ‘뺏’은 ‘뺏나무’(참나무, 풀 등으로 우거진 잡목을 가리킨다)의 준말이다(백두현 2003:316). cf. 뺏 爲薪<해례용자>, 뺏 신(薪)<訓蒙 하4>.

16) ‘오순’은 ‘옷(←옷)+-은’의 구성으로 ‘옷은’을 의미한다. 문헌에서는 ‘옷’과 ‘옷’이 함께 쓰였는데, 어간말 ‘ㅊ’인 ‘옷’이라는 어형은 1608년에 간행된 <諺解胎產集要>에서 보인다. cf. 뺏른 오출 불에 스라 뺏를 고해<胎產 53a>. 「순천김씨연간」에서도 ‘옷출 주시면...옷칠 혀느니 뺏혀는 디셔 뺏혀면 뺏토쇠마는 엇딜고<108>’ 등으로 ‘옷’이 나타난다. 이때 ‘뺏>뺏’과 같은 어간말 평음의 유기음화 예는 잘 알려져 있으나 ‘옷>옷’과 같이 어간말 ‘ㅅ’이 ‘ㅊ’으로 변화한 예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어간말 ‘ㅊ’이 ‘ㅅ’으로 변화한 ‘뺏>뺏’, ‘뺏>뺏’과 같은 현상이 최근의 국어에 나타나고 있는데, ‘옷>옷’은 이런 변화와도 상반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옷>옷’과 같은 변화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옷’이 ‘漆’은 오시라<法華經諺解 1:219>와 같이 보다 이른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기는 하나 ‘옷’과 ‘옷’ 두 어형이 쌍형어로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문헌상으로 ‘옷’과 ‘옷’만 나타나지만 ‘옷’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극소수의 예이긴 하지만 이러한 예들은 국어 음운사에 있어 특이한 의미를 가진다(백두현 2003:312). 이에 따라 ‘漆’이 ‘옷’과 ‘옷’ 등의 두 어형이 쌍형어로 공존하였다면, ‘漆’의 기저형이 ‘옷’이었을 경우에 순천김씨에서의 ‘옷’형은 ‘漆’의 기저형이 ‘ㅅ’임에 따라 기저형을 유지한 어형이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漆’의 기저형이 ‘옷~옷’이었을 경우에 순천김씨에서의 ‘옷’형은 ‘ㅊ~ㅈ’의 중화형이 ‘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의 ‘ㅌ, ㅈ, ㅊ’의 중화형과 빈도

같-(同)		낱(個)		밭(田)		잊-(忘)		낮(晝)		웃(漆)	
ㄷ형	ㅌ형	ㄷ형	ㅌ형	ㄷ형	ㅌ형	ㄷ형	ㅌ형	ㄷ형	ㅌ형	ㄷ형	ㅌ형
-	5건	-	3건	1건	3건	-	53건	-	6건	-	5건

이로써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는 <표 6>에서도 보듯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와는 달리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의 중화형이 대부분 ‘ㅌ’형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3.3.3의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도 ‘ㅌ, ㅈ, ㅊ’의 중화형이 대부분 ‘ㅌ’형으로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 3.3.3. 17세기 중·후반~18세기 초반의 송규렴가 한글간찰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은 ‘같-(同), 흘-, 잊-(忘), 온갖, 낮(晝), 꺾(串), 맞-(迎), 잣-’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7)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의 ‘ㅌ, ㅈ, ㅊ’형에 대한 용례

ㄱ. 같-(同)

- ① ‘ㄷ’형: 발견되지 않음
- ② ‘ㅌ’형: (3건): 꿈 가운데 일 곶야<9-52>  
꿈곶터 든너 가니 내여 보내고<9-39>  
늘근이 마치 아히 곶트니<9-104>

ㄴ. 흘-

- ① ‘ㄷ’형: 발견되지 않음
- ② ‘ㅌ’형(2건): 녕감 흐것 상인의 것<9-27>  
흐니블 꺾튼 거시나 흐여<9-72>.

ㄷ. 잊-(忘)

- ① ‘ㄷ’형: 발견되지 않음
- ② ‘ㅌ’형(65건): 타락쑈 가는 것 브터 넛디 말고<9-27>  
이 싸 가는 보 넛디 말고 즉시 보내여<9-17>  
흐 때 흐시도 넛칠 적이 업서 흐노라<9-43>  
다 넛고 편히 누으나...일이 하 넛치들 아니 흐니<9-106>

ㄹ. 온갖

- ① ‘ㄷ’형: 발견되지 않음
- ② ‘ㅌ’형(3건): 온갖 일이 거어흐가<9-14>  
온갖 근심을 다 넛고 편히 누으나<9-106>  
온갖 일을 당혀<9-110>

ㅁ. 기타 [맞-(迎), 낮(晝), 꺾(串), 잣-]

- ① ‘ㄷ’형: 발견되지 않음
- ② ‘ㅌ’형(6건): 글시 보고 친히 맞는 듯<9-21>  
제 밭낫 흐터 이셔 입째 꺾지 잇다가<9-100>  
운복 세 꺾... 속복 다섯 꺾<9-9>  
왕너도 꺾디 아니흐고<9-112>

(7)은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의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형을 가진 ‘같-(同), 낱(個), 밭(田), 잊-(忘), 낮(晝), 웃(漆)’ 등을 분석하여 그 용례를 제시한 것인데, 이 한글간찰에서는 <표 7>에서도 보듯 중화형이 ‘ㄷ’형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모두 ‘ㅌ’형으로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7>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의 ‘ㅌ, ㅈ, ㅊ’의 중화형과 빈도

같-(同)		홀-		잊-(忘)		온갖		기타[낫, 꺾(串), 맞-, 잣-]	
ㄷ형	ㅅ형	ㄷ형	ㅅ형	ㄷ형	ㅅ형	ㄷ형	ㅅ형	ㄷ형	ㅅ형
-	3건	-	2건	-	65건	-	3건	-	6건

이로써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의 중화형이 모두 ‘ㅅ’형으로만 나타나는데, 이때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기저형 음절말 ‘ㅎ’ 등의 중화형도 ‘ㅅ’형으로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아들 낫스오시니 문내 깃스와<121>, 응답을 어더 녀소<4>, 녹도죽 뇨는<64>, 그르세 꺾드려 뇨습게 흐소<97>, 보롬만이면 그장 돛느니라<101>’ 등과 같이 ‘낫-, 뇨-, 뇨-’ 등의 어간말 ‘ㅎ’이 ‘ㅅ’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헝것조차 밍여 드리 이시니<35>’처럼 ‘헝것’의 ‘교’의 중화형도 ‘ㅅ’형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ㅅ’이나 ‘ㄷ’은 물론이고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 ㅎ’의 중화형도 모두 ‘ㅅ’형으로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시기에는 음절말 ‘ㅅ’과 ‘ㄷ’이 ‘ㅅ’형으로의 표기 경향을 이루었다는 표기사적 사실 또한 재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4. 결론

본 연구는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의 한글간찰인 16세기 중반의 순천김씨 한글간찰,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 17세기 중·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송규렴가 한글간찰 등을 대상으로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 그리고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에 대한 표기 변화 과정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저형 음절말 ‘ㅅ’의 표기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저형 음절말 ‘ㅅ’은 본 한글간찰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의존명사 ‘것’과 일반명사 ‘옷’(衣) 등으로 우선 살피고, 이어 각 한글간찰별로 순천김씨에서의 ‘것, 꺾, 항것, 벗-(脫)’, 현풍곽씨에서의 ‘빋첩, 몯, 짓-(作), 닷’, 송규렴가에서의 ‘돛~돛, 꺾, 그릇(器)’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음절말에서의 ‘ㅅ’은 ‘ㄷ’과 중화되는 과정에서 ‘ㄷ’형과의 혼기를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기저형 음절말 ‘ㅅ’은 ‘ㄷ’형과의 혼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저형 음절말 ‘ㄷ’의 표기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한글간찰별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는 ‘몯>몯’과 ‘몯ㅎ->몯ㅎ-’, 그리고 용언 어간 ‘믿-(信), 받-(受), 얻-(得), 듣-(聞)’ 등을 비롯하여 각 한글간찰별로 나타나는 기저형 음절말 ‘ㄷ’형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6세기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ㄷ’이 ‘ㅅ’형과의 혼기를 보이는 것은 하나, 400여 건에 달하는 ‘몯>몯’ 및 ‘몯ㅎ->몯ㅎ-’나 ‘얻-(得), 뜯>뜯(情), 붓>붓(筆), 문->만’ 등이 아직은 ‘ㅅ’형과의 혼기 없이 기저형을 유지한 ‘ㄷ’형으로만 나타나는 등, 어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기저형 ‘ㄷ’이 유지된 어형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가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는 ‘믿-(信), 얻-(得), 견-, 문-’ 등이 ‘ㅅ’형으로만 나타나는 등, 기저형 ‘ㄷ’의 ‘ㅅ’형으로의 표기가 확산되고, 이후 17세기 중·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ㄷ’이 ‘ㄷ’형으로의 용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부분 ‘ㅅ’형으로만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의 중화형에 대한 표기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는 ‘같-(同), 낱(個), 끝(末), 빛(價), 잊-(忘), 빛(光)’ 등을 통해 살펴 보았는데, 이들 중 ‘같-(同), 끝(末), 빛(價)’은 대부분 ‘ㄷ’형으로 나타나고, ‘낱(個), 잊-(忘), 빛(光)’은 ‘ㅅ’형으로 나타나는 등, ‘ㅅ’형과 ‘ㄷ’형의 혼기 양상이 어휘에 따라 차이는 보이나 비교적 ‘ㄷ’형과 ‘ㅅ’형이 비슷한 빈도로 혼기되어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초반의 현풍곽씨 한글간찰에서는 순천김씨 한글간찰에서의 ‘ㅅ’형과 ‘ㄷ’형의 혼기와는 달리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의 중화형이 대부분 ‘ㅅ’형으로 쓰였음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 자료인 송규렴가 한글간찰에서는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은 물론이고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과 심지어 ‘ㅎ’의 중화형까지도 모두 ‘ㅅ’형으로만 나타남을 확인하면서, 이를 통해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형의 혼기가 이 시기에는 ‘ㅅ’형으로의 표기 경향을 이루었다는 표기사적 사실 또한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기저형 음절말 ‘ㅅ’은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중화되는 과정에서 ‘ㄷ’형과의 큰 혼기 없이 대부분 ‘ㅅ’형을 유지하였던 것인 반면, 기저형 음절말 ‘ㄷ’은 음절말에서의 ‘ㅅ’과 ‘ㄷ’이 중화되는 과정에서 ‘ㅅ’형과의 혼기됨을 보이고, 또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도 음절말에서의 중화형이 ‘ㄷ’과 ‘ㅅ’형으로 혼기됨을 보이다가, 이들 모두 후대로 갈수록 ‘ㅅ’형으로의 표기적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기저형 음절말 ‘ㅅ’과 기저형 음절말 ‘ㄷ’은 중화 과정에서 이들이 동일한 혼기 과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혼기 양상을 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 그리고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없이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까지는 음절말 ‘ㅅ’형보다 음절말 ‘ㄷ’형이 우세한 양상을 보이다가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음절말 ‘ㄷ’형보다 음절말 ‘ㅅ’형이 우세하였다는 등의 해석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등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건들바우박물관(1991), 『晉州河氏墓出土文獻과 服飾調查報告書』 (金一根 해제).
- 김무식(1997), 『順天金氏墓 출토 인간자료의 국어학적 연구 -주로 음운현상과 표기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19, 문학과언어학회, 1~28쪽.
- 김성옥(2017), 「18~19세기 한글간찰의 표기법적 고찰 -동춘당 송준길가(家)의 미주해 한글간찰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91, 어문연구학회, 27~55쪽.
- 김성옥·김정태(2015a), 「동춘당 송준길家 한글간찰의 표기법 특징」, 『어문연구』 84, 어문연구학회, 5~30쪽.
- 김성옥·김정태(2015b), 「개화기 한글 간찰의 음운론적 고찰」, 『한글』 84, 한글학회, 137~169쪽.
- 김일근(1973), 『諺簡의 研究(續): 諺簡의 諸學的 考察』, 『학술지』 16-2, 건국대학교, 39~93쪽.
- 金一根(1991), 『忘憂堂 從姪 郭澍의 再室 晉州河氏墓 出土文獻의 觀點』 (『晉州河氏墓出土文獻과 服飾調查報告書 : 건들바우박물관』 에 수록).
- 김주필(2009), 「조선시대 한글 편지의 문어성과 구어성」,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23~257쪽.
- 김한별(2015), 「19세기 전기 국어의 음운사 연구 -(의성김씨 학봉 종가 인간)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문희순(2017), 「동춘당 송준길가 300년, 소장 한글편지의 현황과 삶의 모습」, 『어문연구』 91, 어문연구학회, 119~158.
- 박부자(2008), 「은진송씨 송준길 후손가 인간의 서지-정리자 및 정리 시기에 대한 검증」, 『돈암어학』 20, 돈암어문학회, 128~156쪽.
- 박창원(1984), 「중세국어의 음절말 자음체계」, 『국어학』 13, 국어학회, 171~197쪽.
- 배영환(2014), 「<신창명씨묘출토인간>과 관련된 몇 가지 국어학적 문제」, 『언어학연구』 32, 한국중원언어학회, 143~166쪽.
- 백두현(1997), 『晉州 河氏墓 出土 <玄風 郭氏 諺簡> 判讀文』, 『어문논총』 31, 경북어문학회, 19~88쪽.
- 백두현(2003), 『현풍곽씨인간 주해』, 태학사.
- 백두현(2015), 『한글문헌학』, 태학사.
- 이광호(1987), 「근대국어 표기법에 나타난 분철표기의 연구」, 『어문학논총』 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95~113쪽.
- 이기문(1998/2011), 『신정판 국어사 개설』, 태학사.
- 李承子(2001), 「표기법 특징으로 본 ‘ㅅ’중성의 변별적 음가-‘ㅅ’중성 체언을 중심으로-」, 『이광호교수 회갑기념논총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637~659쪽.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출판사.
- 이진호(2008),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 신승용(2000),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성철(2004), 「음절말 ‘ㅅ’과 ‘ㄷ’의 표기 변화에 대한 연구 -16·17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7~54쪽.
- 전철웅(1995), 「<淸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의 判讀文」, 『湖西文化研究』 13,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25~281.
- 조건상(1981), 「註解 및 概說」, 『淸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 충북대박물관, 17~33쪽.
- 조건상(1982), 『順天金氏墓出土簡札考』, 修書院.
-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a), 『조선후기 한글간찰(인간)의 역주 연구 1』, 태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b), 『조선후기 한글간찰(인간)의 역주 연구 2』, 태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c), 『조선후기 한글간찰(인간)의 역주 연구 3』, 태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a), 『조선후기 한글간찰(인간)의 역주 연구 4 -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간찰』, 태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b), 『조선후기 한글간찰(인간)의 역주 연구 5 - 은진송씨 송규렴 가문 한글간찰』, 태학사.
- 한용운(2003), 「15세기 국어의 음절말 ‘ㅅ’과 ‘ㄷ’에 대한 일고찰」, 『국제언어문학』 8, 국제언어문화회, 37~53쪽.
- 허재영(2005), 「한글 편지에 쓰인 어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글』 268, 한글학회, 87~121쪽.
- 홍윤표(1986),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 1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13~140쪽.
- 홍윤표(1994), 『근대국어 연구 (I)』, 태학사.
- 황문환(2010),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73~131쪽.
- 황문환(2013),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종합화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 59, 한국어학회, 39~74쪽.

# “16~18세기 한글간찰에서의 음절말 ‘ㅅ’형과 ‘ㄷ’형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김한별(서강대학교)

이 논문은, 한글 간찰을 대상으로 16-18세기 음절말 ‘ㅅ’과 ‘ㄷ’ 표기의 양상을 정밀하게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국어 표기사적·음운사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절말 ‘ㅅ’과 ‘ㄷ’의 혼기 양상이 종래에 간본 자료 중심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의 이러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토론자가 품은 몇 가지 문제의식과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를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 I. 주요 사항

### [1] 기술적 타당성과 설명적 타당성

연구 자료를 ‘한글 간찰’로 한정된 이유는, 추측건대 한글 간찰에서 보이는 음절말 ‘ㅅ’형과 ‘ㄷ’형의 표기 양상이, 간본 중심의 종래의 논의 결과(李翊燮 1987: 124-144, 1991: 40-41, 1992 등)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혼기 양상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표기법적, 혹은 음운론적 원인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논문이 ‘기술적 타당성’을 넘어 ‘설명적 타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2] 제시된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3.3에 제시된 자료 중에는 잘못된 것이나 새롭게 분류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이들은 논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각 項의 첫 문단에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을 가진 어형”으로 언급된 어사들이 모두 현대 표준어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 어사별 ‘기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가령, (7ㄴ)의 ‘홀-[單]’은 “호[ㅌ]”로 재구되는 어사이므로(김정대 2010), 해당 항목을 ‘홀-’으로 제시하면 독자가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2-2] 3.3.1에 대한 내용입니다.

- (5ㄷ)의 ‘빚[債]’ → 15세기 국어형은 ‘빚[債, 價]’입니다. 따라서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을 가진 어형”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음절말 /ㅌ, ㅈ, ㅊ/을 함께 묶어서 다루되, 적어도 16세기 자료(<순천김씨묘 출토 한글 간찰>)에서는 ㅌ音 /ㅌ/과 ㅈ音 /ㅈ, ㅊ/을 구분하여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訓民正音》의 자음 체계에 따르면 舌音은 /ㄷ/으로, 齒音은 /ㅅ/으로 중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 (5)에 제시된 어사들의 음절말 표기에 정연한 규칙성이 있음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ㅌ/ 말음으로 소급하는 어간은 ‘ㄷ’형으로 표기되며(예 곶-[同], 곶[末], 빈[價, 價]), 본래 /ㅈ/이나 /ㅊ/ 말음이었던 어간은 (주로) ‘ㅅ’형으로 표기된다는 사실(예 닛-[忘], 빛[光])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사실을 참고한다면, (5ㄴ)의 ‘낱[個]’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술되어 있듯이 15세기 국어형으로는 ‘낱’뿐만 아니라 ‘낫’도 존재하였는데, 이 단어는 <순천김씨묘 출토 한글 간찰>에서는 ‘ㅅ’형으로만 표기됩니다. 그렇다면 ‘낫’으로만 표기된 이 단어는 15세기 국어의 ‘낱’과 ‘낫’ 중 후자의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그 기원형 혹은 “기저형”을 제시할 때에도 ‘낱’이 아니라 ‘낫’으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2-3]** 3.3.3에 대한 내용입니다.

- (7ㄷ)의 ‘온갓’ → 15세기 국어형은 ‘온갓(HL)’입니다. 이는 ‘온(H)[百]+갓(L)[物]’이라는 구성의 합성어이므로, “기저형 음절말 ‘ㅌ, ㅈ, ㅊ’을 가진 어형”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표 7> 아래 본문 중 “더 나아가 ‘형것조차 미여 드러 이시니<35>’처럼 ‘형겡’의 ‘ㅍ’의 중화형도 ‘ㅅ’형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형겡’의 15세기 국어형은 ‘현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하지 않은 분석입니다.

## II. 지엽적인 사항

**[1]** 표기(“음절말 ‘ㅅ’형과 ‘ㄷ’형”)와 소리(“기저형 음절말 ‘ㅅ’과 ‘ㄷ’”) 단위를 구분하여 나타내 주면 독자가 더 이해하기 편리할 듯합니다. 가령 전자는 ‘ㅅ’과 ‘ㄷ’으로, 후자는 /ㅅ/과 /ㄷ/으로 각각 구분하여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신 한글 간찰 자료에 대하여 기존의 판독문과 주해를 참조하셨는데, 최근에 출간된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황문환 외 편 2013a, 2013b, 2013c)의 재 판독문은 참조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본문에 제시된 자료 중 기존의 판독문과 달라지거나 판독상의 이견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판독자료집’도 참조·인용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간찰을 세는 단위가 ‘매’와 ‘편’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단위는 통일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찰에 대해서는 ‘건(件)’이라는 단위 명사가 주로 사용되는 듯한데, 이 논문에서는 ‘건’이 오히려 본문에 제시된 자료의 출현 빈도나 용례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 즉 ‘회(回)’나 ‘번(番)’, ‘개(個/箇)’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4]** 한글 간찰 자료를 제시할 때, 각 편지의 상황 정보(발신 연도, 발신자, 수신자, 수수 관계 등)도 필요에 따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특정 표기 경향이 발신자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어도 ‘발신자 정보’는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 3.1의 ‘것+{#, C}’는 ‘것{#, +C}’로 나타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는 형태소 경계 (morpheme boundary)를, ‘#’은 단어 경계(word boundary)를 각각 의미하는 경계 표지이므로, ‘+’와 ‘#’이 연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참고 문헌

- 김정대(2010), <‘홀-’, ‘홀-’과 관련된 낱말들의 변화에 대하여>, 《방언학》 12, 한국방언학회, 5-41.
- 李翊燮(1987), <音節末 表記 ‘ㅅ’과 ‘ㄷ’의 史的 考察>, 《省谷論叢》 18, 省谷學術文化財團, 113-153.
- 李翊燮(1991), <國語史와 表記法>, 《’91 제5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국어사 논의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과학연구부 어문연구실, 33-47.
- 李翊燮(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황문환 외 편(2013a),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 역락.
- 황문환 외 편(2013b),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2》, 역락.
- 황문환 외 편(2013c),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3》, 역락.



#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표기의식 고찰

— 문체와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

송미영(충남대학교)

<차례>

1. 서론
2.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현황
3. 개화기 문체 형성과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문체
4. 개화기 띄어쓰기 유형과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띄어쓰기
5. 결론

## 1. 서론

1895년 학부 주도로 최초의 국어과 교과서인 『國民小學讀本』이 발간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편찬은 『初等小學』(1906, 대한국민교육회)과 『高等小學讀本』(1906-1907, 휘문의숙)이라 할 수 있다. 민간 편찬 교과서의 작자층은 주로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나 관련 단체로, 당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이들이 저술한 국어과 교과서는 학부 편찬 교과서와 다른 양상을 취할 것이라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문체와 띄어쓰기를 토대로 그 안에 내재된 표기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한문체, 국문 위주로 나아가기 위한 어문 의식이 나타날 것이다. 고종의 「법률칙령」(1894. 11.)을 비롯하여, 지식영의 「국문론」(대한독립협회보, 1896. 12. 30.), 주상호의 「국문론」(독립신문, 1897. 9. 28.) 등은 교과서, 신문, 잡지 등의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민간 편찬 교과서의 작자층은 주로 교사, 언론인, 판사, 관리 등으로 당시 교육을 통한 민중 계몽이나 구국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인물 또는 단체라는 점이다. 『初等小學』(연대 미상, 작자 미상), 『蒙學必讀』(연대 미상, 최재학) 등이 순한 글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은 당시 작자층이 지닌 어문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학부 편찬 교과서와 달리, 민간 편찬 교과서의 경우 띄어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학부 편찬 개화기 교과서 중, 가장 늦게 발간된 『普通學徒用 國語讀本』(1907-1908)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반면 『初等小學』(1906, 대한국민교육회), 『初等小學』(1906, 보성관), 『蒙學必讀』(연대 미상, 최재학), 『녀즈독본』(1908, 장지연), 『最新初等小學』(1908, 정인호), 『樵牧必知』(1909, 정윤수), 『新纂初等小學』(1909, 현재) 등은 띄어쓰기를 하였다. 학습 대상이 글을 익히는 초등 수준인 경우 더욱 그러한데, 이는 편찬자가 독자의 국자 습득을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화기 민간 편찬 교과서는 학부 편찬 교과서에 비해 문체와 띄어쓰기 등을 통해 국자(國字) 학습을 위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 편찬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문체, 띄어쓰기 양상 등은 모두 당시 학습자를 고려하고자 했던 작자층의 표기 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리라 본다.

## 2.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현황

1895년~1896년에 학부 편찬 국어과 교과서 『國民小學讀本』, 『小學讀本』, 『牖蒙彙編』, 『新訂尋常小學』 등이 편찬된 뒤 정부 주도의 교과서 편찬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후 1906년부터 1909년은 국어과 교과서의 편찬이 집중되는 시기로,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학부, 1907-1908)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당대 지식인 개인 혹은 민족 사학 단체에 의한 것이다.<sup>1)</sup>

[표 1]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 목록(송미영 2017: 37)

	교과서명	편저자	권책수	사용문자	발행연도	저자신분
1	初等小學	大韓國民教育會	8권4책	국한문	1906	애국계몽단체
2	高等小學讀本	徽文義塾編輯部	2권2책	국한문	1906-1907	민족사학
3	初等小學	普成館	미상	국문	미상	천도교사학
4	幼年必讀	玄采	4권2책	국한문	1907	교사
5	幼年必讀釋義	玄采	4권2책	국한문	1907	
6	蒙學必讀	崔在學	미상	국문	미상	-
7	初等女學讀本	李原競	1권	국한문	1908	판관
8	녀즈독본	張志淵	2권2책	국문	1908	언론인
9	婦幼獨習	姜華錫	2권1책	국문	1908	교사, 언론인
10	勞動夜學讀本	俞吉濬	1권	국한문	1908	국문연구가
11	最新初等小學	鄭寅琥	4권2책	국한문	1908	군수, 독립운동가
12	樵牧必知	鄭崙秀	1책	국한문	1909	경학원 사성
13	初等國語語典	金熙祥	3권3책	국한문	1909	교사
14	新纂初等小學	玄采	6권6책	국한문	1909	교사

[표 1]과 같이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에는 문법 교과서 1종(『初等國語語

1) 1895년과 1896년 학부 편찬 교과서 발간 이후 일제에 의해 교과용 도서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종국(2008:73)에서는 ‘학부의 학정 참여관에 의한 교육 간섭기(1904. 12. - 1906. 8.), 대한제국 및 일제 통감부에 의한 학교령 시행기(1906. 8. - 1911. 8.), 조선총독부에 의한 조선 교육령 시행기(1911. 8. - 1945. 8.)’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민간 편찬 교과서 중, 자강 정신이나 주체성 등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典』)과 한문 교과서(『初等女學讀本』, 『婦幼獨習』) 1종을 포함하여 총 14종에 해당한다. 1906년부터 발간된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는 개화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민중 계몽을 위해 편찬되었을 것이다. 또한 작가의 직업을 고려한다면 주체성을 지닌 나름대로의 국문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문체와 띄어쓰기를 살핌으로써 그 표기 의식에 접근하고자 한다.

### 3. 개화기 문체 형성과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문체

개화기의 문체 형성은 정부와 개인 차원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895년 5월 8일 고종은 법률 칙령 제9조에서 “다 國文으로써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或國漢文을 混用함”이라 발표함으로써 국어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법관 양성 입학시험에 국문 과목의 신설, 한성 사범학교 국문 과목의 교수 등으로 적용되어 한문 위주에서 한글 사용으로의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대한독립협회보」에 실린 지식영의 ‘국문론(1896. 2.)’과 『독립신문』에 실린 주상호의 ‘국문론(1897. 9. 28.)’에서 국문 사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시 순한글체 『독립신문』(1896. 4. 7.)<sup>2)</sup>의 발간도 문체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개화기(1894~1910)는 근대 교육 체제의 수립과 함께 어문 의식이 태동되는 시기로, 국한문체가 퇴조하고 성경, 신문, 잡지, 신소설 등에서 한글체의 사용이 나타난다. 순한글 문법서인 『국문정리』(1897, 리봉운)와 국문초학(1908, 주시경) 이외에도 선교사에 의해 발간된 순한글 교과서 『초학언문』(1895, 존스부인), 국문독본(1902, 조원시) 등도 발간되었다. 민현식(1994:39)의 분류에 따르면, 개화기는 ‘문체 실험기(1876-1894), 문체 경쟁기(1894-1904), 국한문체 정착기(1904-1910)’ 중, ‘문체 경쟁기와 국한문체 정착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신문의 논설에서 순한글보다 국한문체가 선호되었던 것을 통해 문체에 대한 저항이 개화기를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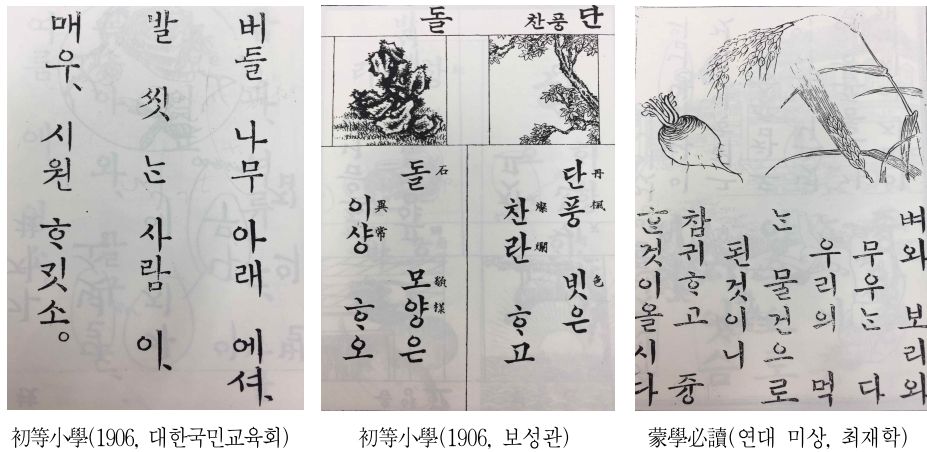
이와 같은 문체 경쟁기에 민족정신과 더불어 지식 전달과 보급의 수단으로 교과서가 발간된다. 각급학교의 모든 교과서가 국한문체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필자의 특별한 의지에 따라 부녀자 대상의 잡지에서는 순한글체가 나타나기도 한다(장소원, 2005:381, 383). 이는 개별 필자의 주체성은 공통적이거나, 이를 나타내는 방식은 각기 다른 문체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경우 편찬자의 표기 의식에 따라 다양한 문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2) 申昌淳(2003:542)에 따르면, 서재필이 순한글문체를 채용한 것은 선교사들과 그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다. 기독교 신자라는 점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나, 자주 독립을 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독립신문』 데일호(1896. 4. 7.) 논설에서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느거든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라고 순한글을 사용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3) 동학, 천주교, 기독교와 같은 종교 단체에서는 한글 사용을 선호하였고, 시조와 가사는 국한문혼용체를, 고전소설은 순한글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법률칙령 공포 후 공문서에서는 여전히 한문이 사용되었고, 처음에는 상당히 사용되던 한글체도 점차 축소된다(李基文, 1984:67-68).

학부 편찬 국어과 교과서는 모두 국한문혼용체로, 『國民小學讀本』(1895)과 『小學讀本』(1895)이 한문 위주의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를, 『新訂尋常小學』(1896)은 국문 중심의 의역언해체로 국주한종체(國主韓從體)에 가깝다.<sup>4)</sup> 반면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문체는 크게 한글전용체와 국한문혼용체로 나뉘며,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初等小學』(1906, 대한국민교육회), 『蒙學必讀』(연대 미상, 최재학), 『初等小學』(1906, 보성관) 등에서 한글전용체를 취하였다.



初等小學(1906, 대한국민교육회)

初等小學(1906, 보성관)

蒙學必讀(연대 미상, 최재학)

[그림 1] 한글전용체

[그림 1]의 『初等小學』(1906, 대한국민교육회)은 최초의 한글전용체 교과서에 해당한다. 특히 조선인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 중 처음으로 순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애국계몽단체의 특징을 보여준다. 『初等小學』(1906, 보성관)<sup>5)</sup>, 『蒙學必讀』에서도 한글전용체를 채택함으로써 초급 단계의 학습자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개화기의 흐름을 반영함과 동시에 민족 계몽을 위해 애국계몽단체와 사학 그리고 개인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녀즈독본』(1908, 장지연)에서 한글전용체를 취하였는데, 이는 국문 본위의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에 해당하므로, [그림2]에서 함

4) 이상혁 · 권희주(2013:450, 451)에서는 개화기 국어과 교과서의 문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또한 국어교과 독본류(학부, 민간) 14종을 대상으로 학습 대상(여성, 유년, 일반)에 따라 교과서를 분류하고, 문체의 특성을 제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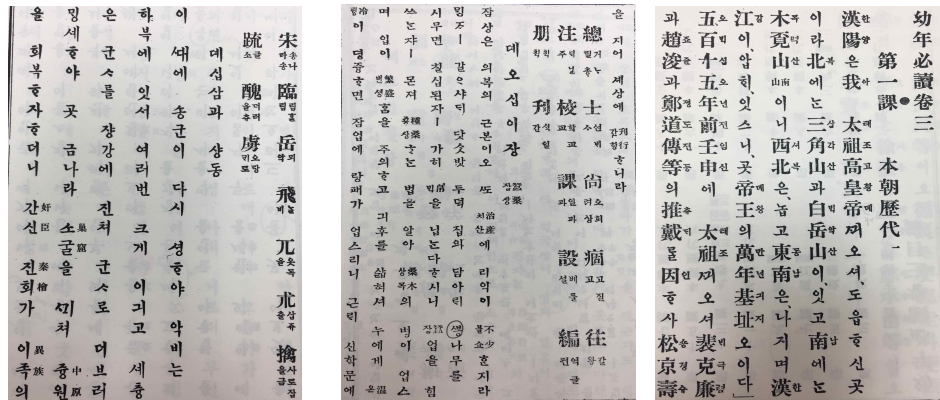
- 가) 국한문혼용체: 한문 중심 구결체(현토체) 한문 본위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
- 나) 국한문혼용체: 한문 중심 직역언해체 한문 본위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
- 다) 국한문혼용체: 국문 중심 의역언해체 국문 본위 국주한종체(國主韓從體)
- 라) 한글전용체: 국문 중심 한자병용체 국문 본위 국주한종체(國主韓從體)

그러나 한글전용체인 『蒙學必讀』(연대 미상, 최재학), 『初等小學』(1906, 보성관 1:36)이 제외되었고, 라)의 한글전용체는 ‘순한글전용체’와 ‘국문 본위 국주한종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 대상이 대체로 초등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자보다는 필자의 표기 의식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5) 1905년 이용익이 보성학교를 설립하였고, 이후 인쇄소 보성사와 출판사 보성관이 건립된다. 보성학교에서 사용하는 일체의 교과서를 본교에서 새롭게 편찬하여 준비하였고, 모든 교사들이 교과서 편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김봉희, 1999:60).

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은 개화기에 문체 저항이 존재하여 사학계의 개화기 교과서에서 한문을 더 선호하는 추세를 보일 것(심재기, 1999:101)이라는 견해와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한글전용체 또는 국한문혼용체이면서 국문 본위의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를 취한 경우이다.



녀즈독본(1908, 장지연)

樵牧必知(1909, 정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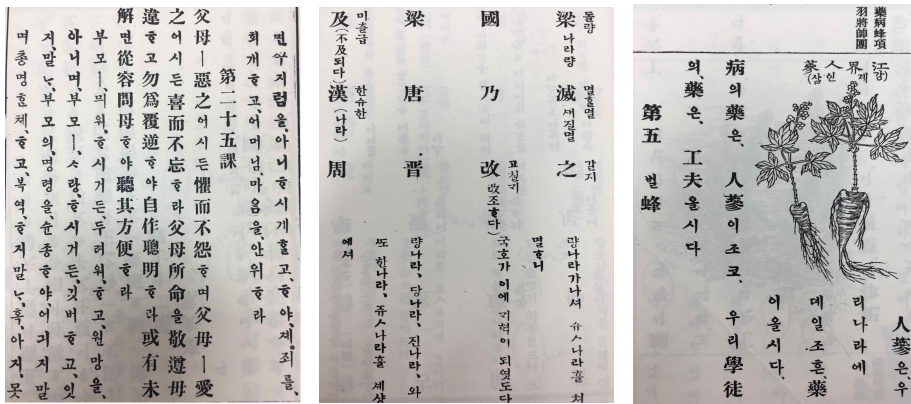
幼年必讀(1907, 현재)

[그림 2] 국문 본위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

[그림 2]에서 제시한 『녀즈독본』은 한글전용체를, 『樵牧必知』와 『幼年必讀』는 국한문혼용체를 취하였다. 『녀즈독본』은 한글전용체로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樵牧必知』와 『幼年必讀』은 국한문혼용체 중, 의역언해체로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녀즈독본』과 『樵牧必知』에서 한글 옆에 한자를 방기(傍記)하여 이해를 도왔으나, 『幼年必讀』은 한자음을 적고, 이를 한글로 방기(傍記)하여 실제로 초학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밖에도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교사용 도서인 『幼年必讀釋義』도 국한문혼용체의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를 따랐고, 『勞動夜學讀本』(유길준, 1908) 역시 국한문혼용체 중,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 의역언해체를 취하였다. 이들 교과서는 소년과 여성,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한문혼용체를 취하였으나, 본문은 국문 본위의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로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문체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初等女學讀本(1908, 이원규)

婦幼獨習(1908, 강화석)

最新初等小學(1908, 정인호)

[그림 3] 두 문체의 혼용

[그림 3]의 『初等女學讀本』은 한문 교과서로 한문 중심 구결체(현토체)가 본문에 먼저 제시되고, 한글전용체 문장으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저자 이원규가 학습자에 부합하는 문체를 배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대한국민교육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애국계몽적인 사상과 한글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이상혁 · 권희주, 2013:453). 또한 『婦幼獨習』은 여성과 어린 아이를 위해 한글 전용체를 취하면서 국한문혼용의 직역언해체를 취하였다. 『最新初等小學』은 권1에서는 순한글체를, 권2에서는 국한문혼용체를 취함으로써 한글 전용체와 국한문혼용체 중 의역언해체의 두 문체를 보여준다. 즉 학습자를 고려한 단계적 본문의 실현을 통해 독본류의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6)</sup>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는 한글전용체, 국한문혼용체, 두 문체의 혼용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화기의 사상과 함께 저자의 한글 의식을 반영한다. 또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함으로써 효과적인 교과서 체재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 개화기 띄어쓰기 유형과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띄어쓰기

구두법(句讀法)이란 문자 표기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활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두점(句讀點)으로 이를 실현한다. 구두점은 사이 띄우기와 기호 사용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전자가 띄어쓰기의 바탕이 된다(우형식, 2017:73).

최초의 구두점 사용은 『훈민정음』(1446)과 『용비어천가』(1447)로, 권점(圈點, 고리점)은 쉼표 기능의 중권점(中圈點, 가운데고리점)과 마침표 기능의 우권점(右圈點, 오른쪽 고리점)을 사용하였다. 이후 19세기에 이르면, ‘권점 띄어쓰기’와 ‘빈칸 띄어쓰기(=사이 띄우기)’로 나타나게 된다.<sup>7)</sup>

6) 이는 학부에서 발간된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에서 권1에서는 한글전용체를, 권2~4에서는 국문 중심의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함으로써 중층적인 편집 체재를 가졌던 것과 유사하다.

사실상 현대적 의미의 띄어쓰기는 외국인 선교사나 외교관의 문법서에 한국어 회화문을 영역문과 대비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민현식 1999:170), 이는 영역문의 띄어쓰기에 맞춰 국문 배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띄어쓰기가 되기 때문이다. 로스(J. Ross) 목사의 'Corean primer(1877)'와 영국인 외교관 스코트(J. Scott)의 '언문말칙(Corean Manual or Phrase Book)(1887)'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살필 수 있다.

(1) 가. 되션말 보이기 쉽다

doeshun mal boigi sooipda

Corean speech (to) learn easy <Corean primer(J. Ross, 1877) 6>

나. 이 길 과히 멀다

i kil koahi melta

this road excessively long

(This road is longest.) <언문말칙(J. Scott, 1887) 18>

(1)에서와 같이 외국인에 의한 띄어쓰기가 시도된 경우도 있으나,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사이를 띄우는 방법 이외에 모점과 권점이 활용되기도 한다.

(2) 가. 빅성을평안하게하쇼셔

Give peace to thy people!<스과지남(J.S. Gale, 1894) 23>

나. 턴하형세가네와지금이크게긋지아니하야전에는각국이각각본디방을직히고본국풍속만  
썩르더니...<스민필지(H.B. Hulbert, 1895) 일>

다. ...조선.사름은.놈의.나라.글몬.슌상하고.본국.글은.아쵸.리치를.알지못하니.절통한  
지라.<국문정리(리봉운 1897) 서문, 단권>

라. 우리.나라는.북으로만.청국과.아라사로.더불어.접하고.동서남.세편은.다.바다가.두  
른지라. ... 소곰도.바다물로.만드느니라<국문초학(주시경 1908) 마흔일곱재공과>

마. 빅화가란만헌데. 느러드느나뵈들아.<대한매일신보 1909. 5. 1. 스조>

(2가)의 『스과지남』에서는 영역문의 띄어쓰기는 나타나지만, 국문의 띄어쓰기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나)와 같이 외국인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에서 띄어쓰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반면 (2다)~(마)의 내국인에 의한 문법서나 신문에서 모점과 권점의 사용이 나타난다. (2다)는 일본어 통역관 리봉운이 저술한 문법서로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으나, 어절마다 모두 권점으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라)의 『국문초학』에서는 모점을 사용하되, 권점은 사용되지 않았다. (2마)의 경우 신문에 실린 개화기 시조에서 권점과 모점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양상은 개화기가 띄어쓰기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모색기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사실상 내국인에 의한 띄어쓰기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띄어쓰기로 박영효의 '사화기략(使和記略, 1882)'이 등장하게 되고, 박문국(博文局)에서 창간된 『한성주보』(漢城周報, 1886)의 긴 구절이나 문장 단위의 띄어쓰기로 이어진다(민현식, 1999:173). 이후

7) 양명희(2013:199)에서는 19세기 띄어쓰기 유형으로 권점 띄어쓰기와 빈칸 띄어쓰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빈칸 띄어쓰기는 주로 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독립신문(1896. 4. 7.)’ 창간호에서 ‘또 국문을 이리케 귀절을 쪼여 쓴즉 아모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라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띄어쓰기가 채택된다.<sup>8)</sup>

번역 성경과 기독교계 신문에서도 띄어쓰기가 확대된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1897), 『협성회회보』(1898), 『대한미일신보』(1904), 『황성신문』(1898)의 사설, 논설 등에서 보수층의 문체인 국한문체는 붙여쓰기를, 한글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였다. 또한 번역성경인 『시편촬요』(1898)와 『신약전서』(1900)에서도 띄어쓰기가 실천된다. 이 밖에도 『국문연구』(1909)에서는 붙여쓰기를 취하되, 존귀자 앞에 글자 한 자를 띄어쓰는 ‘자(字) 띄움법’에 해당하는 대두법(擡頭法)이 사용되었다(崔泰榮, 1990). 이는 『독립신문』, 『협성회회보』, 『미일신보』 등에서 ‘대군주, 님군, 하느님, 왕후’ 앞에서도 나타난다. 반면 주시경의 문법서 『국문초학』(1909)에서는 붙여쓰기를 취하되, 모점(.)을 사용하였고, 『말의 소리』(1914)에서는 형태소 끝에 우권점을, 어절 끝에는 중권점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인직의 신소설 귀의성(鬼의聲, 1906)에서는 붙여쓰기 하되, 모점 표시를 구절 단위마다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화기는 이전 시기에 활용되었던 권점(圈點)과 대두법(擡頭法)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띄어쓰기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화기 국어과 교과서에서도 나타난다. 학부 편찬 국어과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띄어쓰기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 내의 구두법(句讀法)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권점(圈點)과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권점 또는 모점을 사용하였으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경우, 권점과 모점 그리고 띄어쓰기를 모두 적용한 경우, 띄어쓰기만을 채용(採用)한 경우 등이 있다.

첫째, 권점(圈點)과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예를 제시하면 (3)과 같다.

- (3) 가. 우리大朝鮮은亞細亞洲의一王國이라<國民小學讀本(학부, 1895) 1>  
 나. 古者에男子 | 生에桑弧와蓬矢로天地와四方을射함은男子의立志가上下와四方의有 흠으로써흠이니라<小學讀本(학부 1895) 1>  
 다. 大凡兒童이玩弄을喜호야動作을不已 흠으로…<高等小學讀本(휘문의숙, 1906-1907) 1:38>  
 라. 子女를가라치지아닐수잇나대개아달과딸은나다음에家을니으며…<勞動夜學讀本(유길준, 1908) 1:33>  
 마. 저空中에우리가사는地球보다더큰별이잇소<初等國語語典(김희상, 1909) 2:18>

(3가)와 (3나)는 학부 편찬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점 사용뿐만 아니라, 띄어쓰기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민간 편찬 교과서인 『高等小學讀本』, 『勞動夜學讀本』, 『初等國語語典』 등에서도 모두 마찬가지로 특징을 보인다. 이는 국한문혼용체가 갖는

8) 李基文(1989)에서는 『독립신문』의 띄어쓰기는 미국에 오래 체류하고 영문 띄어쓰기에 익숙했던 서재필이 한글 운영에 관해 나름대로 가졌던 의식의 결과라고 제시하였다.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3라)의 경우에는 보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3라)의 경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이므로 한자음을 우측에 방기(傍記)하였으나, 권점이나 띄어쓰기의 실현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권점 또는 모점을 사용하였으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4) 가. 支那昔時에齊나라에。뽕닙을짜는。ᄃᆞᆫ女子 | 。잇스니。이여자논。목에。큰혹이잇는지라。  
 <新訂尋常小學(학부, 1896) 3:12, 전 3권>

나. 무릇、녀즈된즈 | 、몬져、닙신을、비올지니、닙신ᄃᆞᆫ、법은、다만정렬、뽕이라、<初等女學  
 讀本(이원공, 1908) 5, 단권>

다. 나라의ᄃᆞᆫ은、여러사람이ᄃᆞᆫᄃᆞᆫ야、된것이니、나의<sup>합</sup>一身이、비록、적으나、곳、나라를、민드<sup>일 신</sup>는  
 一<sup>일 개 인</sup>個人이라.<幼年必讀(현재, 1908) 1:1 전 4권>

(4가)의 학부 편찬 『新訂尋常小學』에서 어절마다 권점을 표시하였는데, 권점의 유형이 ‘.’과 ‘.’으로 나누어 나름대로의 어절 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 3권에 적용된다.<sup>9)</sup> 한편 (4나)와 (4다)에서는 권점 대신에 모점을 사용하여 어절을 구분하였다. (4다)의 『幼年必讀』은 독자를 고려하여 오른쪽에 한자음을 방기(傍記)하였고, 전 4권 모두 모점을 적용하였다.

셋째, 권점 또는 모점 그리고 띄어쓰기가 단계적으로 적용된 경우이다.

(5) 가. 이.그림을 보오 저 兒孩가 글 읽기에 미오 心力을 드리웁니다<신찬初等小學(현재 1909), 2:15>

나. 蜘蛛가網의中央에居ᄃᆞᆫ야四方으로注目ᄃᆞᆫ다가蟲類가. 걸니면。빨니。나아가…<신찬初等  
 小學(현재 1909), 5:31>

다. 鼠<sup>쥐서</sup> 見<sup>볼건</sup> 猫<sup>괴묘</sup> 入<sup>들입</sup> 穴<sup>구멍</sup> 裏<sup>속리</sup>

쥐가 괴양이 오는것을보고 구녕속으로 드러가니<婦幼獨習(강화석 1908) 上:32>

라. 傍<sup>것방</sup> 借<sup>빌차</sup>

(傍관) (借착)

良民誤捉 량민오착、량민을도적으로잡아<婦幼獨習(강화석 1908) 下:164>

마. 學徒들은、더、實果를보라、더實果가、도냐、<最新初等小學(정인호 1908), 2:21 전 4권>

바. 昨日에學校에서放學이된故로、甲童이가、그동모乙童이를、尋訪하얏소、<最新初等小學  
 (정인호 1908), 3:22 전 4권>

(5가)의 예와 같이 『신찬初等小學』 1, 2권에서는 띄어쓰기와 권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5나)에서와 같이 3~6권에서는 띄어쓰기 없이 권점을 사용하였다. 또한 『婦幼獨習』 상권에서는 (5다)와 같이 띄어쓰기만으로 어절을 표시하였다면, 하권에서는 모점만 활

9) 학부 편찬 교과서 중, 『국어독본』(1907)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는 발견할 수 없으며, 문장의 마지막에 권점을 찍었다. 즉 학부 편찬 교과서 네 권 중, 『國民小學讀本』과 『小學讀本』을 제외한 두 권의 교과서에서 권점의 사용이 드러난다. 특히 『新訂尋常小學』(1896)은 일본 문무성에서 발간된 『심상小學讀本』(1887, 전 7권)의 권점 사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용되었다. (5마), (5바)와 같이 『最新初等小學』은 1, 2권에서는 모점과 띄어쓰기를, 3, 4권에서는 모점만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교재의 초급 단계 수준에서는 권점 또는 모점과 띄어쓰기를 함께 적용하였고, 수준을 고려하여 이후 단계에서는 띄어쓰기를 제외한 권점 또는 모점만으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권점과 모점, 띄어쓰기를 모두 적용한 경우이다.

- (6) 다리 예논、단풍나무가、잇고。 언덕 예논、 사람 이、 가오。 <初等小學(대한국민교육회, 1906) 1 전 8권>

(6)에서 『初等小學』은 전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급 과정인 1~4권은 띄어쓰기와 모점을 침표로, 권점을 마침표로 사용하였다. 또한 5, 6권에서는 붙여쓰기를 하였으며, 어절 단위로 모점 찍기가 이루어지며, 권점을 마침표로 찍었고, 고급 과정인 7,8권 붙여쓰기에 모점 없이 마침표의 위치에만 권점을 사용하였다(민현식, 1999:250). 또한 명사와 조사를 띄어 쓴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라 하겠다. 즉 동일한 초학자용 교재라 하더라도 민족 사학 단체에서 편찬한 교과서에서 권점과 모점, 띄어쓰기를 모두 적용함으로써 초학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띄어쓰기만을 전면 채용(採用)한 경우의 예이다.

- (7) 가. 저<sup>稱</sup>울은 묵어온것과 가<sup>重</sup>벼<sup>者</sup>여온 것<sup>輕</sup>을 다오 <初等小學(작자미상, 1906 보성관) 1:44>

나. 김<sup>松</sup>렬<sup>商</sup>부도 또<sup>車</sup>흔 송<sup>向</sup>상 차<sup>歌</sup>상<sup>安</sup>민의 처<sup>東</sup>라 상<sup>東</sup>민이 안<sup>東</sup>동<sup>東</sup>짜에 갖다가 도<sup>東</sup>적<sup>東</sup>의<sup>東</sup>게 죽<sup>東</sup>인<sup>東</sup>바 | 된 지<sup>東</sup>라 <녀즈독본(장지연 1909) 上 :51>

다. 鬼神은 향<sup>東</sup>상<sup>東</sup>享<sup>東</sup>흠이 업<sup>東</sup>서 정<sup>東</sup>성<sup>東</sup>잇<sup>東</sup>는<sup>東</sup>디 향<sup>東</sup>ㅎ<sup>東</sup>느<sup>東</sup>니... <樵牧必知(정윤수 1909) 上:10>

라. 종<sup>東</sup>로<sup>東</sup>에서 던<sup>東</sup>둥<sup>東</sup>으로 올<sup>東</sup>나가<sup>東</sup>면 안<sup>東</sup>동<sup>東</sup>네<sup>東</sup>거<sup>東</sup>리가 잇<sup>東</sup>고 네<sup>東</sup>거<sup>東</sup>리<sup>東</sup>에서 대<sup>東</sup>안<sup>東</sup>동<sup>東</sup>으로 올<sup>東</sup>나가<sup>東</sup>면... <蒙學必讀(연대 미상 최재학) 1:85>

(7가)의 『初等小學』, (7나)의 『녀즈독본』, (7다)의 『樵牧必知』, (7라)의 『蒙學必讀』 등은 모두 권점과 모점 대신에 띄어쓰기만을 적용하여 어절을 나누어 표시하였다. 『녀즈독본』과 『樵牧必知』는 상·하권 모두에서 동일하게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또한 『初等小學』과 『蒙學必讀』은 삽화를 제시하고 있을 만큼 상세한 설명이 뒤따른다. 이처럼 띄어쓰기를 전면적으로 적용한 것은 민간 편찬 교과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현대 국어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단서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학부 편찬 국어과 교과서와 달리,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띄어쓰기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가 1906년부터 편찬되어 당시 많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편찬 주체가 대체로 교육 구국 운동에 참여했던 민족 선각자 또는 민족 사학 단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민중 계



몽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과서가 편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부 편찬보다는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 5. 결론

이 글에서는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 14종을 대상으로 문체와 띄어쓰기 양상을 통해 편찬자의 표기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화기 민간 편찬 교과서의 발간 시기가 주로 1906년부터 1909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당시 지식인들의 사상과 민족의식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의 문체는 ‘한글전용체, 국한문혼용체, 두 문체의 혼용’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자의 한글 의식과 함께 개화기의 사상을 반영한다. 또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함으로써 효과적인 교과서 체재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자를 익힘과 동시에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위해 한자를 국문과 방기(傍記)하여 내용 전달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 내의 구두법(句讀法)의 유형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권점(圈點)과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권점 또는 모점을 사용하였으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경우, 권점과 모점 그리고 띄어쓰기를 모두 적용한 경우, 띄어쓰기만을 채용(採用)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는 편찬 주체가 대체로 교육 구국 운동에 참여했던 민족 선각자 또는 민족 사학 단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민중 계몽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과서가 편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화기는 문체와 띄어쓰기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또한 문체와 띄어쓰기는 집필자의 언어관과 언어 정신을 반영한다. 학부 편찬 교과서에 비해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에서 한글전용체를 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과 권점과 모점, 띄어쓰기를 통해 학습자를 고려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교과서 편찬자의 표기의식을 살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姜南旭(2005), 「<蒙學必讀>에 대한 解題 - 전통과의 연계성 탐색 및 발행연도 추적을 더하여 -」, 『先淸語文』 33,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365-399.
- 고경민(2017), 「근대계몽기 인쇄매체를 통해 살핀 ‘어문 의식’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대한 고찰 - 신문과 학술지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 44, 한말연구학회, 5-32.
- 구자항(2004), 「‘독본(讀本)’을 통해 본 근대적 텍스트의 형성과 변화」, 『상허학보』 13, 213-244.
- 김미경·한영균(2016), 「근대 계몽기 국한혼용문의 한문 문법 간섭도 측정을 위한 시론」, 『국어사 연구』 23, 261-305.
- 김미형(2004), 「한국어 언문일치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글』 265, 한글학회, 171-199.
- 김봉희(1999),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영민(2009), 「근대계몽기문체 연구: 유길준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91-428.
- 김인선(1991), 「갑오경장(1894-1896) 전후 개화파의 한글사용」, 『주시경학보』 8, 3-32.
- 김주필(2014),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의 성격과 특징」, 『泮矯語文研究』 37, 반교어문학회, 37-70.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혜련(2014), 「근대 초기 한·일 ‘국어(과)’ 교과서와 학습자 기획 -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과 『심상소학독본』(1904)을 중심으로 -」, 『일본학』 39,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63-91.
- 리의도(1983), 「띄어쓰기 방법의 변해온 발자취」, 『한글』 182, 한글학회, 195-224.
- 민현식(1994), 「개화기 국어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 국어국문학회, 37-61.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박민영(2013), 「개화기 교과서 『신찬초등소학』 연구 - 학부편찬 교과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아시아문화연구』 32, 99-129.
- 서종학(1996), 「띄어쓰기의 역사와 규정」, 『人文研究』 18-1, 1-16.
- 송미영(2017), 『개화기 국어과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 현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沈在箕(1992), 「開化期 文體樣相에 관한 研究 - 독립신문과 한어문전의 고담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문화), 91-107.
- 申昌淳(2003), 『國語近代表記法の 展開』, 태학사.
- 심재기(1999), 『국어 문체 변천사』, 집문당.
- 양명희(2013), 「띄어쓰기 변천을 통해 본 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163, 197-223.
- 우형식(2017), 「한국어 띄어쓰기의 성격과 운용 양상」, 『동북아 문화연구』 5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73-94.
- 임상석(2008),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 李氣銅(1994), 「갑오경장이 어문 생활에 끼친 영향 - 교과서를 중심으로 -」, 『새국어생활』 4-4, 국립국어연구원, 171-185.
- 李基文(1984), 「開化期の 國文 使用에 관한 研究」, 『韓國文化』 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문화), 65-84.
- 李基文(1989),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주시경학보 4, 탑출판사, 7-22.

- 이상혁·권희주(2013), 「근대계몽기 "국어교과 독본류"의 문체 연구 - 학습자와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 『民族文化研究』 6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45-473.
- 이정찬(2013), 「『유년필독』의 출간 배경과 논리 - 국가주의 역사관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8, 국제어문학회, 73-103.
-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주).
- 李準煥(2013), 「開化期 學部 편찬 讀本 자료의 언어 양상 - 『國民小學讀本』, 『小學讀本』, 『新訂尋常小學』을 대상으로 -」, 『語文研究』 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1-108.
- 이현희(1999), 「개화기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235-279.
- 임상석(2008),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 장소원(2005), 「현대국어와 역사성 - 문체」, 『국어학』 45, 국어학회, 373-406.
- 장영미(2015),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과 『유년필독』 비교 연구」, 『동화와 번역』 29,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17-244.
- 정길남(1997,1999), 「개화기 교과서의 문체적 특징」,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 박이정, 228-239.
- 조운정(2013), 「노동자 교육을 둘러싼 지식의 절합과 계몽의 정치성 -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고찰 -」, 『인문논총』 69, 407-445.
- 崔起榮(1993), 「韓末 교과서 《幼年必讀》에 관한 一考察」, 『서지학보』 9, 한국서지학회, 97-131.
- 최영철·허재영(2014나), 「개항 이후 학제 도입 이전까지의 한국 근대 학문론과 어문 문제 -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중심으로 -」, 『인문과학연구』 4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81-207.
- 崔泰榮(1990), 「初期 翻譯聖經의 띄어쓰기」, 『崇實史學』 6, 송실사학회, 149-188.
- 崔泰榮(1990), 「初期 翻譯聖經의 擡頭法表記」, 『崇實語文』 7, 崇實語文學會, 5-14.
- 최호철(2004), 「남북 띄어쓰기 규범의 통일에 대하여」, 『한국어학』 25, 한국어학회, 343-364.
- 韓榮均(2013), 「近代啓蒙期 國漢混用文의 類型·文體 特性·使用 樣相」, 『구결연구』 30, 구결학회, 219-256.
- 허재영(2004), 「근대계몽기의 어문 정책(1) - 개화기 『한성순보(주보)』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14, 한민족문화학회, 55-81.
- 허재영(2009),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경진.
- 허재영(2011가), 『조선 교육령과 교육 정책 변화 자료』, 경진.
- 허재영(2011나), 「근대 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441-467.
- 허재영(2016), 「근대 계몽기 어문정책과 국어교육」, 보고서.
- 홍종선(1996), 「개화기 시대 문장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33-58.
- 홍종선(2000),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3』, 박이정.
- J. Ross(1877), 「Corean primer」,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 第1冊』, 博而精.
- J. Scott(1887), 「언문말칙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 第2冊』, 博而精.
- J.S. Gale(1894), 「辭課指南 스과지남 Korean grammatical forms」,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 第4冊』, 博而精.



# “개화기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표기의식 고찰”에 대한 토론문

신성철(국민대학교)

이 발표문은 1897년부터 1909년까지 민간이 편찬한 14종의 국어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14종의 교과서에 나타난 문체와 띄어쓰기의 유형이 일정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표문은 개화기의 민간 편찬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문체와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그 안에 내재된 표기 의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작자층이 지닌 표기 의식을, 일반적으로 개화기의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 또는 언급되는, 애국계몽운동 등의 개화기 사상과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독자)의 수준에 따른 교과서 체재를 구현하기 위해 문체와 띄어쓰기의 다양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 즉 발표자는 국어 교과서의 문체와 띄어쓰기에 나타난 표기 의식을 다음의 두 가지라 주장한다.

첫째,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애국계몽 등의 개화기 사상  
둘째, 학습자(독자)의 수준 고려

이 발표문이 구체적이며 흥미로운 논의임에도, 두 가지 표기 의식이 교과서에 반영된다는 주장에 더 적합한 논리성과 합리성을 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문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질문은 세 가지이지만, 각 내용이 밀접히 관련된 것이어서 연속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1. 표기 의식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1-2. 문체 또는 띄어쓰기에 내재된 표기 의식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1-3. 표기 의식과 ‘문체, 띄어쓰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1번 질문과 관련된다.

개화기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독자에 따라서 국문 또는 국한문혼용, 한문 등의 문체 분류는 조선시대에 두루 나타난다. 『훈민정음』도 필요에 따라 한문본, 언해본 등이 존재하며, 조선시대의 언해 문헌도 그 사용자나 용도에 따른 문체의 변화가 드러난다. ‘역서류-국한문’, ‘불서류(특히 근대국어, 지방본)-국문, 운음류-국문, 편지류-한문편지, 한글편지, 국한문’ 등. 새로운 등장으로 볼 수 없을 듯한데, 개화기와 작자층의 배경에 몰두된 것은 아닌가?

3. 문체나 띄어쓰기의 특성이 표기의 층위가 아닌 표기 대상인 문장들의 형태, 통사적인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표기 의식이 중심이 아니라 형태, 통사 단위의 인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성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 ‘주3)의 각 분류를 단계별 변화로 가정한다면’, 또는 ‘띄어쓰기 단위를 정의한다면’ 표기 층위가 아닌 형태, 통사 단위가 관련된 것이 아닐까?

4. 학부 편찬과 민간 편찬의 국어과 교과서를 상식 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비교해 보면, 먼저, 학부 편찬의 경우에는 일정 규격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보수적인 경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리고 민간 편찬에서는 편찬자의 다양화로 인한 다양성과 차등화 등 개신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서론에 이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으나, 학부 편찬과 민간 편찬의 차이가 지닌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5. 문체와 띄어쓰기의 각 유형과 그 유형에 반영된 ‘표기 의식’이 14종의 교과서에서 어떤 분포도를 보이는지, 문체와 띄어쓰기를 종합한 논의가 제시된다면 논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제2부

## 주제 발표





# 대한제국기 교과용·계몽용 도서 자료의 현황과 연구 전망

한영균(연세대학교)

## 1. 서론

### 1.1. 연구 목적

이 글은 기본적으로 대한제국기(1897~1910)에 근대적 지식의 전달을 위해 만들어진 교과용·계몽용 도서 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자료의 현황을 살피고 국어(문체)사적 관점에서 연구 방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 지식인들의 서구 학문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이 지닌 지정학적 여건 때문이었을 뿐,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지식인들과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17세기 후반 연행사들을 통한 서학 관련 서적의 수입 과정을 보면 상당히 서구 문물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한문 문식력을 지닌 이들에 한정된 것이었고, 이에 대한 저작도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그러나 1876년의 개항 이후 특히 1894년의 공문식 공포 이후부터는 서구의 지식과 문명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 시기의 교과용·계몽용 도서에 대한 연구는 강윤희(1973)의 선구적 연구부터 김봉희(1999)의 문헌정보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축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선 연구의 대부분은 20세기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연구 여건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자료를 대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 이 시기의 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어떤 자료들이 있는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현재 전하고 있는 이 시기의 교과용·계몽용 도서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들이 지닌 국어(문체)사적·문화사적 의미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 대상 자료의 한정 : 대한제국기 도서 자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이 시기에 간행된 도서류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성격도 복합적이어서 교과용·계몽용 도서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기적으로 이 글에서는 1894년 갑오경장에 의해 근대적 정부 체제가 갖추어진 이후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한 시기까지 만들어진 자료를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1910년대에 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자료들과 비교하여 그 성격이 유사하거나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다음 유형의 자료는 이 글에서의 검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① 한국어 학습서·어휘자료·사전류 : 발표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시기의 한국어 학습서는 100여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연구들이 적지 않고, 또 이 글에서 다루는 서적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아 다루지 않는다.
- ② 외국어 학습서·어휘자료·사전류 : 이 시기의 외국어 학습서는 약 30종에 달한다. 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교과용·계몽용 도서와는 다르다고 보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③ 성경, 기독교 관련서류 : 이 시기에는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러시아 정교회 등 기독교의 대표적 종파가 모두 조선교구를 설치하는 한편, 이른바 문서 선교의 관점에서 많은 책자를 펴내고 있고, 그 유형도 전례(典禮)를 다룬 것, 교리(教理)를 다룬 것 등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150종 이상이 전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김봉희 1987). 이 역시 서양의 문물을 전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글에서 다루는 것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논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번역) 서사물류 : 서사물(번역, 번안 포함)이란 현대문학 영역에서 문학작품류로 다루어 왔던 것들을 가리킨다. 이 중에는 역사·전기물처럼 단순한 서사물로 다룰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글은 다루지 않는다.
- ⑤ 잡지류 : 종교계의 잡지를 포함하여 1890년대~1900년대에는 약 40여종의 잡지가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도 이 글의 논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1.3. 논의의 방향

이 글에서는 전체 교과용·계몽용 도서류를 주제에 따라 크게 8 영역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21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전하고 있는 도서의 목록을 정리한 다음, 그 중 특히 국어(문체)사 혹은 문화사적 관점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아직 소개된 적이 없는 자료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 등을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전하는 자료를 모두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 현전 자료 개관

이 장에서 소개하는 자료는 282종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 중에는 2책 이상이 한 질로 구성된 것들이 많다. 여기에 제시한 종수는 책 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어떤 책들이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그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1. 국어 관련서 : 53종

#### 2.1.1 문법서류 : 15종

『조선문전』(유길준, 1904 이전?), 『大韓文典』(최광옥 1908), 『대한문전』(유길준, 1909), 『초등국어어전』(김희상, 1909), 『대한문법』(김규식, 1909), 『유인본 대한국어문법』(주시경, 1906), 『필사본 말』(주시경, 1908년경), 『유인본 고등국어문법』(주시경, 1909), 『국어문전음학』(주시경, 1908), 『국어문법』(주시경, 1910), 『改訂初等國語語典』(김희상, 1910), 『조선어전』(김희상, 1911), 『유인조선문법』(김규식, 1912), 『조선어문법』(주시경, 1913), 『말의 소리』(주시경, 1914)

#### 2.1.2 국어(독본)류 : 23종

『국민소학독본』(학부, 1895), 『초학언문』(존스 부인, 1895), 『소학독본』(학부, 1895), 『신정심상소학』(학부, 1896), 『국문독본』(존스, 1902), 『초등소학』(대한국민교육회, 1906),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학부, 1906), 『국문첩경』(한승곤, 1906-1907), 『고등소학독본』(회문의숙편집부, 1907), 『유년필독』(현재, 1907), 『유년필독석의』(현재, 1907), 『연설법방』(안국선, 1907), 『국문철자첩경』(한승곤, 1908), 『初學捷經』(길선주, 1908, 1913재판),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학부, 1908-1909), 『여자독본』(장지연, 1908), 『부유독습』(저자미상, 1908), 『노동야학독본』(유길준, 1908), 『초등소학』(보성관, 1908), 『초등여학독본』(1908), 『최신초등소학』(정인호, 1908), 『신찬초등소학』(현재가, 1909), 『초목필지』(1909), 『몽학필독』(최재학, 1900년대)

2.1.3. 글쓰기 관련서 : 13종

-『문장지남』(최재학, 1908), 『實地應用作文法』(최재학, 1909), 『실용작문법』(이각중, 1912), 『시문독본』(최남선, 1916)  
 -『신찬국문간독』(립원상, 1908), 『척독완편(1905)』, 『신찬척독완편(1908)』, 『신찬국문가령간독』(고유상, 1909), 『신찬언문간례척독』(이중정, 1911), 『독습일한척독』(정운복, 1909), 『독습일선척독』(정운복, 1911), 『증보최신척독(1911)』 『鮮文句解新撰尺牘』(1913), 『備註附音尺牘自解』(현재, 1913),  
 cf. 『언간독』(1911), 『증보언간독』(1886)

2.2. 역사 관련서 : 42종

2.2.1. 세계사 관련서 : 21종

『泰西新史攬要』(학부, 1895), 『輿載撮要』(1895), 『만국약사』(학부, 1895), 『티셔신사』(학부, 1987), 『俄國略史』(학부, 1898), 『중일약사합편』(학부, 1898), 『미국독립사』(1899), 『중동전기』(현재, 1899), 『과란말년전사』(어윤적, 1899), 『법국혁신헌사』(황성신문사, 1900), 『청국무술정변기』(현재역, 1900), 『日露戰記』(박영무역, 1904), 『정선만국사』(김상연, 1906), 『만국사기』(현재, 1906), 『普法戰記』(1907), 『미국스기』(밀부인, 1907), 『중등만국사』(유승겸, 1907), 『가리미아전기』(유길준, 1908), 『東西洋歷史』(현재, 1908), 『동양사교과서』(유옥겸, 1908), 『羅馬史』(현공립, 1907)

2.2.2. 한국사 관련서 : 21종

『조선약사십과』(학부, 1895), 『조선역대사략』(학부, 1895, 한문본), 『조선역사』(학부, 1895), 『普通教科 東國歷史』(학부, 1899), 『대한역대사략』(1899, 한문본), 『동국역대사략』(학부, 1899, 한문본), 『대동역사』(정교, 1905, 한문본), 『대동역사』(최경환, 1905, 한문본), 『역사집략』(김택영, 1905, 한문본), 『중등교과 동국사략』(현재, 1906\_1908), 『대동역사략』(대한국민교육회, 1906), 『대한력스』(오성근, 1906, 순한글), 『신정동국역사』(원영의·유근, 1908, 필사본), 『중등교과 동국사략』(현재, 1908), 『초등대한역스』(조종만, 1908, 한글 한자부기), 『초등대한역사』(정인호, 1908), 『초등본국역사』(유근, 1908), 『초등대동역사』(박정동, 1909), 『초등본국역사』(안중화, 1909), 『신찬초등역사』(유근, 1910), 『전후삼한고』(신채호, 미상, 필사본)

2.3. 지리 관련서 : 39종

2.3.1. 세계지리 관련서 : 18종

『世界萬國年契』(학부, 1894), 『스민필지』(헨버트, 1889 한글본), 『士民必知』(학부, 1895 한문본), 『만국지지』(학부, 1895), 『소학만국지지』(학부, 1895), 『지구략론』(학부, 1896,

한자병기), 『중등만국지지』(주영환·노재현·현채 공역, 1902), 『디세락히』(리화학당, 1904, 1910 재판), 『신찬외국지지』(저자미상, 1907), 『萬國地理』(황윤덕, 1907), 『초학디지』(Miller, 1907), 『最新世界地理』(정운복, 1908), 『(袖珍譜解)六大洲』(송헌석, 1909), 『中等萬國新地志』(김홍경, 1909, 1910 재판), 『초등만국지리대요』(안중화, 1909), 『布哇遊覽記』(현순 1909), 『(新訂中等) 萬國地誌』(송헌석, 1910), 『초등외국지리』(유옥겸, 1910), 『만국지지』(저자, 간년 미상)

### 2.3.2. 한국지리 관련서 : 18종

『조선지지』(학부, 1895), 『大韓地誌』(현채역, 1899, 1901재판), 『대한지지』(현채, 1906), 『初等大韓地誌』(안중화·유근, 1907-1908), 『新編大韓地理』(김건중역, 1907), 『대한신지지』(장지연, 1907), 『초등대한지지』(안중화, 1907), 『초등대한지지』(안중화·유근, 1907), 『초등지리교과서』(국민교육회, 1907), 『초학디지』(Miller, 1907), 『신편대한지리』(김건중, 1908), 『最新高等大韓地誌』(정인호, 1909), 『초등본국지리』(1909, 동문관발행), 『초등본국지리』(박정동, 1909), 『초등대한디지』(조종만, 1909, 한자병기본), 『初等大韓地理全』(안중화, 1910), 『신정분도대한제국지도』(현공렴, 1908), 『대한지지』(이종광, 1911),

### 2.3.3. 지문학 관련서 : 3종

『新撰地文學』(민대식, 1907), 『중등지문학』(윤태영역, 1907), 『精選地文教科書全』(김동규, 1909)

## 2.4. 사회과학 관련서 : 34종

### 2.4.1. 법학·행정학 관련서 : 20종(법률서 제외)

『공법회통』(학부, 1896, 중국본복각), 『국제사법』, (유문환, 1900), 『법학통론』(박문사편 집부, 1905), 『국가학』(나진·김상연역, 1906), 『민법총론』(신우선, 1907), 『법학통론 증정 2판』(유성준, 1907), 『외교통의』(안국선역, 1907), 『정치원론』(안국선, 1907 요약번역본), 『회사법』(김상연, 1907), 『회사법강요』(이연웅, 1907), 『상법』(박승빈, 1908), 『國際公法志(全)』(박정동, 1908), 『법학통론』(주정균, 1908), 『지방행정론』(조성구, 1908), 『법규신선』(임학재 1909), 『정선법학통론』(주정균·유옥겸, 1911)  
『상법요의』(김상연 역, 1900년대), 『상법총론』(이면우, 1900년대), 『정치학』(유길준, 1900년대 필사본), 『헌법』(조성구 강술, 1900년대)

### 2.4.2. 경제학 및 상학 관련서 : 14종

『상업법론』(김대희역, 1907), 『은행론』(劉文相역, 1907), 『貨幣論』(이필선, 1907), 『普通經濟學』(이필선, 1907), 『商業大要』(유완중, 1907), 『商業學』(장지연, 1907), 『經濟學』(유치형, 1908), 『최신경제학』(박승희·주정균, 1908), 『경제학요의』(윤정하, 1908), 『(新編) 銀行 簿記學』(임경재, 1908), 『商業 經營法』(안국선, 1909), 『簡易商業簿記學』(임경재, 1910), 『商行爲法』(안국선 1900년대), 『財政門』(편저자 미상, 1900년대)

## 2.5. 이학 및 자연과학 관련서 : 중

### 2.5.1. 산술·산학 관련서 : 32종

cf. 한영균(2016) 참조.

### 2.5.2. 이학·자연과학 관련서 : 40종

- 이화학(16), 물리학(7), 동물학(4), 식물학(6), 박물학(4), 광물학(1), 천문학(2)
  - 『신편화학교과서무기질』(제중원, 1906), 『신편화학교과서유기질』(제중원, 1906), 『근세 소화학』(민대식, 1907), 『新編化學』(안형중, 1907), 『초등이화학』(이필선·진희성역,

1907), 『(最新)高等小學 理科書』(현채, 1908), 『新選化學教科書』(유문상, 1908), 『普通理科教科書\_理化學及鑛物之部』(보성관, 1908), 『最新高等小學理科書』(현채, 1908), 『개정新撰理化學』(박정동, 1908), 『理科師生』(이각중, 1909), 『신찬중등무기화학』(유진영·구자홍 공찬, 1910), 『改正理科教科書』(현채, 1910), 『新撰實驗理化學教科書』(이관희, 1910), 『無機化學』(저자미상, 1900년대), 『化學教科書』(홍인표역, 1900년대)

-『신찬소물리학』(대한국민교육회간, 1906), 『물리학초보』(안일영·박원복, 1908), 『初等物理教科書全』(진희성역, 1908), 『近世物理學』(최규익역, 1909), 『改訂中等物理學教科書』(민대식, 1910), 『初等用簡明物理教科書』(최재학역, 1910), 『小物理學』(저자미상, 1900년대)

-『동물학』(안애니, 1906), 『新編 動物學』(신해용, 1908), 『초등동물학』(정인호, 1908), 『最新動物學問答』(이관희, 1909)

-『植物學』(현채, 1908), 『식물학중교과서』(윤태영역, 1908), 『식물학중교과서 부도』(윤해영, 1908), 『식물도설』(안애니, 1908), 『初等植物學』(정인호, 1908), 『식물학』(안애니, 1913)

-『신찬소박물학』(국민교육회, 1907), 『(新編)博物學』(이필선, 1907), 『新撰小博物學』(유성준, 1908 재판), 『(最新)博物學教科書』(이관희, 1910)

-『中等鑛物界教科書』(민대식, 1907)

-『천문략히』(배위량, 1907), 『天文學』(정영택, 1908),

### 2.5.3. 의학·약학·위생학 관련서 : 26

- 생리·위생학(15), 의학(7), 약학(1), 간호학(1), 심리학(1)

-『신학신설』(지석영, 1890년대) 『전태공용문답』(리화학당, 1899), 『티모위생』(저자미상, 1905), 『신편심리교과서』(홍석후역, 1906), 『초등위생학교과서』(안중화, 1907/1909), 『中等生理學』(저자미상, 1907-1908), 『위생』(역자 미상, 1907), 『中等生理衛生學』(임경재, 1907-1911), 『중등생리학해설』(김하정, 1907), 『중등생리학부도』(김하정, 1907), 『초등위생학교과서(전)』(안중화역, 1907), 『심리학초권』(안애니역, 1908), 『初等生理衛生學大要(全)』(안중화, 1909), 『히부심리학』(제중원, 1910), 『衛生大鑑』(저자미상, 1911)

-『種痘新書』(학부, 1898), 『진단학』(홍석후역, 1906), 『히부학』(김필순역, 1906), 『병리학 통론』(제중원, 1907), 『解剖學(전)』(유병필, 1907), 『무씨산과학』(홍중은역, 1908), 『외과 총론』(김필순역술, 1910)

-『약물학상권 무기질』(어비신역, 1905)

-『간호교과서』(제중원, 1907)

-『心理學 教科書』(김하정, 1907)

## 2.6. 실업 관련 서적서 : 15종

### 2.6.1. 농·축·수산업 관련서 : 8종

『栽桑全書』(현공림 1905), 『(富國全書) 養鷄新論』(신우예 역, 井上正賀, 1908), 『(最新)森林學』(의진사 편집부, 1909), 『農學初階』(보성관, 1907), 『實用果樹栽培書』(전재익, 1910), 『作蠶飼養法』(이병현 1909), 『作蠶飼養新書』(저자미상, 1900년대추정), 『잠상휘편』(정성화, 1900년대)

### 2.6.2. 광업·측량술 관련서 : 7종

『(精選)土地測量法』(주영운, 1908), 『土地測量法』(이한용 1908), 『量地法』(이성실 1908), 『土地測量術』(탁지부 1908), 『新發明 鑛山 鐵道 田畑 宅地 山林 原野 實用三效式測量法』

(山崎園藏, 1909), 『新撰 測量學』(김택길 1909), 『最新 田野 山林 實地 測量法』(柴田榮吉 1909)

## 2.7. 예술 및 체육 관련 서적 : 5종

2.7.1. 음악 관련서 : 1종(찬송가류 제외)

『보통교육창가집』(학부, 1910)

2.7.2. 미술 관련서 : 1종

『중등용기화법』(오영근, 1908)

2.7.3. 체육 및 군사 훈련 관련서 : 3종

『步兵操典』(군부, 1898), 『戰術學教程』(군부, 1902), 『학교체조교수서』(학부, 1910)

## 2.8. 수신·교육 및 가정학 관련서 : 23종

2.8.1. 수신·예절 관련서 : 13종

『夙惠記略』(학부, 1895), 『서례슈지』(학부, 1896 추정 한글본), 『西禮須知』(학부 1902 한문본), 『중등수신교과서』(회문의숙 편집부, 1906-1908), 『고등소학수신서』(회문의숙편집부 1907), 『初等倫理學教科書』(안중화 1907), 『보통학교 학도용 수신서』(학부 1908-1910), 『初等小學修身書』(유근 1908), 『普通教育 國民儀範』(진희성역 1908), 『윤리 학교과서』(신해영 1908) 『初等修身』(박정동 1909), 『初等修身教科書』(안중화 1910), 『普通教科 修身書』(회문관 1910)

2.8.2. 교육학 관련서 : 2종

『교육학』(최광옥, 1907), 『간명교육학』(유옥겸역, 1908)

2.8.3. 여성 교육 관련서 : 6종

『신찬가정학』(박정동, 1907, 순한글), 『新編家政學』(현공립, 1907 국한혼용), 『漢文家政學』(현공립가, 1907 중국본복각한문본), 『女士須知(녀사수지)』(노상직, 1907 한문대역 순한글, 언해본 형식), 『부인필지』(이숙, 1908), 『신정육아법』(저자미상, 1912, 순한글 국한문 대역본)

## 2.9. 기타

『西遊見聞』(유길준, 1895), 『신역 생계학설』(이풍호역 양계초 1908), 『二十世紀之大慘劇 帝國主義』(변영만 1908), 『强者의 權利競爭論』(유문상, 1908)

## 3. 몇 가지 언급할 자료들

이 장에서는 이 글에서 처음 소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현대 한국어 문체 형성사 연구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이 글에서 처음 소개된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발표 자료에는 책 제목과 저자 등만 보이고, 실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미지 자료를 이용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모든 자료의 이미지를 발표 자료에 함께 포함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 3.1. 국어 관련 자료

『연설법방』(안국선, 1907),

『실용작문법』(이각중, 1912),

『신찬국문간독』(림원상, 1908),

『신찬국문가당간독』(고유상, 1909),

『신찬언문간례척독』(이종정, 1911),

『독습일한척독』(정운복, 1909),

### 3.2. 역사 관련 자료

『만국사기』(현채, 1906)

『미국스괴』(밀부인, 1907),

『대한력스』(오성근, 1906, 순한글),

『초등디한역스』(조종만, 1908, 한글 한자병기),

### 3.3. 지리관련 자료

『디세략히』(리화학당, 1904, 1910 재판),

『신찬외국지』(저자미상, 1907),

『스민필지』(헐버트, 1889 한글본),

『士民必知』(학부, 1895 한문본),

『초학디지』(Miller, 1907),

『布哇遊覽記』(현순 1909),

『초등대한디지』(조종만, 1909, 한자병기본),

### 3.4. 법학 관련 자료

『국가학』(나진·김상연역, 1906),

『외교통의』(안국선역, 1907),

『정치원론』(안국선, 1907 요약번역본),

『상법』(박승빈, 1908),

### 3.5. 자연과학 관련 자료

『동물학』(안애니, 1906),

『식물학』(안애리, 1913)

『턴문략히』(배위량, 1907),

『전테공용문답』(리화학당, 1899),

『티모위생』(저자미상, 1905),

『히부싱리학』(제중원, 1910),

『히부학』(김필순역, 1906),

『解剖學(전)』(유병필, 1907),

『간호교과서』(제중원, 1907)

### 3.5. 체육관련 자료

『步兵操典』(군부, 1898),

『戰術學教程』(군부, 1902),

『학교체조교수서』(학부, 1910)

### 3.6. 교양교육 관련

『서례슈지』(학부, 1896 추정 한글본),

『西禮須知』(학부 1902 한문본),

『신찬가정학』(박정동, 1907, 순한글),

『新編家政學』(현공립, 1907 국한혼용),

『漢文家政學』(현공립가, 1907 중국본복각한문본),

『女士須知(녀사수지)』(노상직, 1907 한문대역 순한글, 언해본 형식),

『부인필지』(이숙, 1908),

『신정육아법』(저자미상, 1912, 순 한글 국한문 대역본)

## 4. 대한제국기 교과용·계몽용 자료 관련 연구의 전망

지금까지 개화기, 근대계몽기 등으로 지칭된 시기에 간행된 자료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는 주로 국어문법서, 국어교과서, 한국어 학습서 등에 나타난 문법 의식 내지 한국어의 특징에 관심을 둔 것이었고, 여기에 성경 및 기독교 교리서의 간행과 관련된 연구를 추가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서구의 지식 및 문물의 수용을 목적으로 한 도서의 간행은 그보다 좀더 폭넓은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간단히 국어(문체)사 연구 및 한-중-일 삼국의 지식(문화)교류사의 관점에서 필요한 연구의 방향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이들 자료의 활용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기로 한다.

### 4.1. 국어(문체)사적 관점에서의 연구 전망

필자가 당초 이들 자료에 대해 관심을 둔 것은 현대 한국어 문체 형성사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들 자료가 당대 지식인의 의식, 특히 ‘국문’의 사용 및 ‘언문일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여 거의 1000종에 달하는 이 시기의 자료를 살펴본 감회는 자료 모두가 개별적으로 깊은 관찰에 값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전체 자료에 반영된 국어(문체)사적 특징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을 대표하는 자료 몇몇만 구체적으로 검토하여도 국어(문체)사적 특징 전반을 파악하는데에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문제는 어떤 유형의 자료들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어떤 자료가 국어(문체)사의 관점에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워낙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 윤곽을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자료의 목록을 각 자료가 담고 있는 주제별로 소개한 것은 국어사 연구자들이 자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의 전체적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능력이 미치지 못해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얻지 못했으나, 필자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하고 있는 연구의 일단을 정리하면 ① 현대 한국어 국어 문체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② 한·중·일 삼국의 어휘 교류에 대한 연구 ③ 개별 어휘의 어지(語誌) 연구 ④ 번역어의 수입과 정착에 대한 연구 ⑤ 조사·어미류의 변천 과정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 4.2. 한-중-일 삼국의 지식 교류사의 관점에서의 연구

대한제국기 교과용·계몽용 도서 자료의 중요성은 국어(문체)사 연구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19세기말~20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 조선(대한)의 지식인들이 느낀 위기의식과 그에 바탕을 둔 지식의 도입을 위한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좀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당대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그의 수입과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하는 (도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개별 문헌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미처 정리할 여유가 없었던 ① 한국어 학습서·어휘자료·사전류 ② 외국어 학습서·어휘자료·사전류 ③ 성경, 기독교 관련서 ④ (번역) 서사물류를 포함하여,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시기에 간행된 전체 자료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디지털화하는 한편, 각 (도서)자료의 원전을 파악하여 한-중-일 삼국의 문헌의 교류를 통한 지식 교류 양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현대 한국어 지식체계의 성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결론 : 생략

### 참고문헌

- 강운호(1973),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 강현조(2012), 한국 근대 초기 번역·번안 소설의 중국 일본문학 수용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46
- 김병철(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 김봉희(1987), 『한국 기독교 문서 간행사 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 김봉희(1999),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이대출판부
- 김형철(2011), 개화기의 천주교, 개신교 관련 자료, 『국어사연구』13
- 김효진(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 현실사
- 박종석의(1998), 대한제국 후기부터 일제 식민지 초기 (1906 - 1915 ) 까지 사용되었던 과학교과용 도서의 조사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8-1.
- 박주원(2006), 『근대 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중 1890년대도서목록
- 박형우(2000), 제증원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간행된 의학 교과서, 아세아문화사영인해제
- 박형우(2008), 『한국 근대 서양의학 교육사』, 청년의사.
- 백순재(1970), 개화기의 한국서지 (韓國書誌) - 1884 ~ 1918년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1.
- 송민(1973), 19世紀 天主教資料의 國語學的 考察, 『국어국문학』 72-73.
- 신중진(2011), 개화기 신문 잡지 자료 목록, 『국어사연구』13
- 유탉일(1980), 개화기교과용도서총록, 『한국학논집』2, 계명대한국학연구소
- 이영아(2011), 국어사 자료로서의 개화기소설, 『국어사연구』13
- 이유림(2000), 한국천주교회의 출판 활동, 『최석우신부수품50주년논총2』
- 이철찬(2008), 대한제국시대 학부의 도서편찬 및 간행에 관한 연구, 상명대박사
- 이현희(1999), 개화기국어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4』, 국립국어연구원.
- 이희재역(1994), 『한국서지-수정번역판』, 일조각
- 최현배(1940/1972), 『고친한글갈』, 정음사
- 하동호(1972), 開化期 小說 研究 - 書誌 中心으로 본 開化期小說, 단대석사
- 하성래(2000), 한국천주교회의 한글 번역 활동, 『한국천주교화사의 성찰-최석우신부수품50주년논총2』, 한국교회사연구소
- 한영균(2013), 19세기 서양서 소재 한국어 어휘자료와 그 특징, 『한국사전학』 22.
- 한영균(2013), 종교성교회 간행의 국어사 자료, 『언어사실과 관점』 32.
- 한영균(2014), 다중 번역 서사물에 대한 기초적 연구, 『국어사연구』 제19호
- 한영균(2016), 대한제국기 산술교재류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문화』 73.
- 한영균(2017a), 언문일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구현, 『언어사실과 관점』 41.
- 한영균(2017b), 국한혼용문의 현대화 과정에 대한 시론, 『언어와 정보사회』 31
- 허재영(2011), 근대 계몽기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향, 『국어사연구』13
- 허재영(2012), 『근대계몽기의 교육학 연구와 교과서』, 지식과 교양.
- 홍종선(2000), 현대국어 연구를 위한 시기별 언어 자료,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 “대한제국기 교과용·계몽용 도서 자료의 현황과 연구 전망”에 대한 토론문

황문환(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자께서는 “대한제국기(1817~1910)에 근대적 지식의 전달을 위해 만들어진 교과용·계몽용 도서 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자료적 현황을 살피고” “그것들이 지닌 국어(문체)사적·문화사적 의의”(p.1)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셨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점검하시느라 여간 힘이 들지 않으셨을텐데 현전 자료를 개관해 주시고 그중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아직 소개된 적이 없는 자료를 중심으로” 직접 (그 내용과 특징 등을) 소개해 주신 것은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발표 여건의 제약으로 논의가 소략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하여 이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께서는 대상 자료를 ‘교과용·계몽용’ 자료로 범주화하셨습니다. ‘교과서’보다는 당연히 범위가 넓겠지만 이 범주의 적극적 특징으로 무엇을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식으로 제시하신 “근대적 지식의 전달을 위해 만들어진”(p.1), “서구의 지식 및 문물의 수용을 목적으로 한”(p.8) 점이 이 범주에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1) ‘2.1. 국어 관련서’ 중에는 간독류(簡牘類)가 제시되어 있고 이중 일부는 “3. 몇 가지 언급할 자료들”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독류가 ‘교과용·계몽용’에 포함된 기준을 굳이 여쭙어 보아도 괜찮을까요? 우선 “근대적 지식의 전달”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좀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발표자께서 ‘문체 형성사’의 관점에서 간독류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에 초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간독류와 관련된 실물 자료로는 이미 18~19세기 ‘대마도 증가문고 한글서간류’(기시다 후미타카 2016)에서 國漢文이 광범하게 혼용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영인자료 참조) 여기에 쓰인 국한문과 개화기에 시도된 國漢文體를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볼 수 있을까요? [cf. 한편 『언간독(諺簡牘)』류에 실린 남성간 언간은 (한문 간독집인 『후사류집(候謝類集)』과 목록이 일치하여) 한문 간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김봉좌 2004: 16~22쪽)]

(2) 제시해 주신 목록 중에는 『유몽천자(牖蒙千字)』(J. S. Gale, 1901)와 같은 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 책은 시기적으로도 대한제국기에 해당하고 성격상으로도 작문 독본에 해당할 뿐 아니라 문체상 “계몽기 국한문체 작문의 실상을 요령 있게 범주화”(이상현 외 2017: 23)한 것으로<sup>1)</sup> 평가받기도 합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자료가 국어(문체)사의 관점에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p.8)고 한다면 이와 같은 책이 바로 그러한 분석에 부응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1) “『유몽천자』 1~3권의 국한문체는 통상적인 차원에서 거칠게 분류하자면 소위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 한문현토체(漢文懸吐體)에 각 권이 대응된다.”(이상현 외 2017: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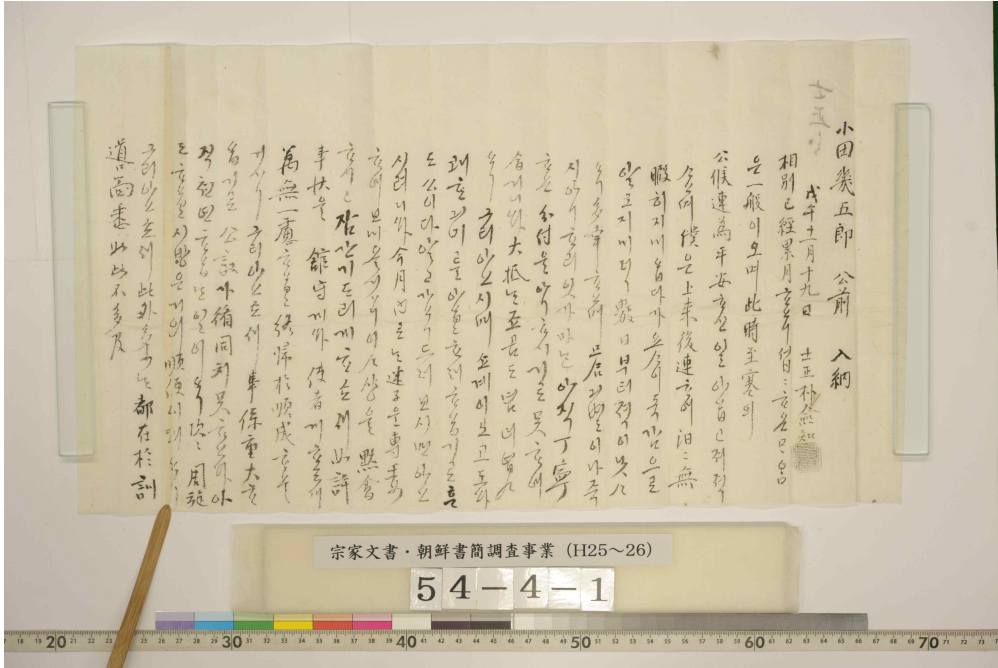
2. 발표자께서는 대상 자료와 관련한 연구 전망으로 ‘국어(문체)사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한-중-일 삼국의 지식 교류사의 관점에서의 연구’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후자는 특히 ‘신생 한자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듯한데 자료 활용만 뒷받침된다면 발표자께서 전망하신 대로 “한-중-일 어휘 교류에 대한 연구, 개별 어휘의 어지(語誌) 연구, 번역어의 수입과 정착에 대한 연구”(p.8) 등이 앞으로 더욱 본격화하겠습니다.[예: “‘화학(化學)’이란 용어의 한국어 유입과 수용”을 다룬 임려(2017)의 경우] 그런데 이러한 연구 전망을 접하면서 개화기 이전의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 예로 ‘경영(經營)’이라는 한자어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 ‘경영(經營)’은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화기 이전의 문헌에서 ‘경영’은 “공리하여 일을 마련하여 나감”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보일 뿐입니다.[예: 그르시 상의 그독디 아니커든 敢히 손이며 버들 피호디 문호야 샹네 여러 날 경영호야 모톤 후에야 敢히 유무를 내느니 (器皿이 非滿案 이어든 不敢會賓友호야 常數日營聚然後에사 敢發書호느니) <小學諺解(1587) 6:131>, 단안이 즈식이 업서 장스를 못호여 호거닐 후개 신근히 빅 가지로 경영호여 오솔 프라 역스를 도와 므츄내 장스호엇더니 (顔無子不克葬 可辛 勤百營鬻衣相役卒葬之) <五倫行實圖(1797) 5:20b>] 그러다가 개화기에 들어 현대국어와 근접한 의미로 쓰인 ‘경영’이 나타나 보다 두드러지게 됩니다.<sup>2)</sup>[예: 우리는 如此호 爽快호 집의 사나 넷적을 도라 보니 今日 갖흔 집을 經營호게 되기는 여러 번 變遷을 지닛시니 <國民小學讀本 5> 會社라 호는 것은 衆人이 資本을 釀出호야 商業을 經營호는 호 團體니라 <國語讀本 8:39>] 이후 『朝鮮語辭典』(조선총독부, 1920)에서는 “管理하고 運營하는 일(理め營むこと)”을 기본 의미로 제시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영’은 개화기를 전후하여 일종의 의미 변화(=확대/이동?)와 함께 連語 관계가 달라진 양상을 보이는 셈입니다. 이같은 경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식 교류사’ 관점에서는 어떻게 포착하고 다루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신생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교류사’의 측면에서 소홀히 취급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포착이 가능하려면 개화기 이전의 한자어에 대한 관심과 정리도 당연히 필요한데 현재 이에 얼마나 부응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참고 논저]

기시다 후미타카(2016), “대마도(對馬島) 종가문고(宗家文庫) 한글 서간류에 대하여”, 語文學論叢 35,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3~22쪽.  
 金奉佐(2004), “朝鮮時代 方刻本 諺簡牘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송철의·이현희·황문환·장윤희·이용·양정호(2008), 한국 근대 초기의 어휘,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상현·임상석·이준환(2017), 『유몽천자』 연구: 국한문체 기획의 역사와 그 현장, 역락.  
 임 려(2017), “‘화학(化學)’이란 용어의 한국어 유입과 수용”, 한국사전학 30, 한국사전학회, 190~221쪽.

2) 송철의 외(2008: 6~7)에서는 “새로 유입된 단어”이면서 “한국 근대화 초기의 시대성과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어휘”의 하나로 수록하였다.

[대마도 종가문고 한글 서간(‘史料16’), 1798년,  
朴俊漢(조선통사) → 小田幾五郎(일본통사)]



小田幾五郎 公前 入納

相別已經累月흐오니 設 ” 흐은 ㅁ음은 一般이오며 此時 至寒의 公候 連爲 平安흐신 일 아옵고져 積스오며 僕은 上來後 連흐여 汨 ” 無暇히 지내옵다가 ... 事係重大흐 읍기로 公議가 循同치 못흐오와 아직 천연흐읍는 일이오니 次 ” 周旋도 흐읍고 시 방은 거의 順便이 되오니 그리 아오쇼셔 此外多少는 都在於訓導面悉 姑此不多及

戊午 十一月 十九日 【右】 士正 朴僉知 【印】



#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의 연구 성과 및 전망

이준환(창원대학교)

## 1. 머리말

이 글의 목표는 개화기에 나온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표기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음운상의 양상에 관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여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의 결합 관련 표기, 초성, 중성, 종성과 관련한 표기, 음운 현상 관련 표기, 띄어쓰기 및 문장 부호 표기 등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음운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그간의 연구에서 거둔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연구를 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간과한 면은 없는지를 살펴서 앞으로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생각하여 보도록 하겠다.

개화기에 나온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교육의 출발점에서 사용되었던 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특히 신분제 철폐와 근대적 학교 제도가 도입되고 보통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교과서 안에 담는 언어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애를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언어의 표기, 음운, 문법, 어휘 등에서 이질적인 모습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정제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한 언어적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띈다. 이런 이질적인 양상들은 교과서 편찬의 주체, 교과서 편찬의 목적, 교과서를 사용할 대상, 교과서의 난이도, 문체 등과 상관관계를 맺으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교과서를 정부에서 편찬했는지 민간에서 편찬했는지, 교과서 편찬의 주체가 어떤 언어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교과서를 사용할 대상의 학력 수준이나 성별이 어떠한지, 교과서는 어느 정도의 난도로 구성되었는지, 교과서가 국한문체인지 국문체인지 등에 따라서 교과서에 반영된 언어의 모습은 다소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런 모습은 교과서 연구를 하는 데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지만 당시 국어가 지니고 있었던 다양한 양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언어 연구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 편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교과서 속에 반영된 언어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이 글에서는 표기와 음운에 초점을 맞추어 갑오개혁 무렵부터 1910년까지 편찬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표기와 음운의 연구 성과를 살피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도록 하겠다.

이 시기에 편찬이 된 교과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화살표 오른쪽의 것은 약호를 나타냄). 그리고 줄을 바꾸어 각각의 교과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 ① 『國民小學讀本』(1895)[學部, 『國民小學讀本』, 學部編輯局, 1895, 國漢文] → 『국소』  
김억수(1979), 이기동(1994가, 1994나), 김형철(1997), 정길남(1999), 정승철(1999), 남영주(2001), 신유식(2003), 원혜연(2009), 이준환(2013), 송미영(2017)

- ② 『초학언문』(1895)[MRS. G. H. JONES. 『초학언문』, 빅지학당, 1895, 순 국문] → 『초학』  
김근영(2012), 박연호·김근영(2015), 서신혜(2012)
- ③ 『小學讀本』(1895)[學部, 『小學讀本』, 學部編輯局, 1895, 國漢文] → 『소학』  
김억수(1979), 이기동(1994가, 1994나), 김형철(1997), 정길남(1999), 정승철(1999), 남영주(2001), 신유식(2003), 이준환(2013), 송미영(2017)
- ④ 『新訂尋常小學』(1896)[學部, 『新訂尋常小學』, 學部編輯局, 1895, 國漢文] → 『심소』  
김억수(1979), 이기동(1994가, 1994나), 김형철(1997), 정길남(1999), 정승철(1999), 남영주(2001), 신유식(2003), 원해연(2009), 이준환(2013), 박치범(2013), 박치범(2015), 송미영(2017)
- ⑤ 『牖蒙千字』 1~3(1901)[Games Scarth Gale, 『牖蒙千字』 1~3, 大韓聖敎書會, 1901, 國漢文] → 『유몽』  
박상균(1998), 박미화(2007), 이준환(2015)
- ⑥ 『高等小學讀本』(1906)[徽文義塾編輯部, 『高等小學讀本』, 徽文義塾編輯部, 1906, 國漢文] → 『고소』  
김억수(1979), 이기동(1994가, 1994나), 남영주(2001), 송미영(2017)
- ⑦ 『初等小學』(1906)[국민교육회, 『初等小學』, 국민교육회, 國文·國漢文] → 『초소』  
김억수(1979), 남영주(2001), 신유식(2003), 원해연(2009), 박치범(2013), 송미영(2017)
- ⑧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1907)[學部,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 大日本圖書株式會社, 1906] → 『국어』  
김억수(1979), 이기동(1994, 1994나), 남영주(2001), 원해연(2009), 신유식(2003), 박치범(2013), 박치범(2015), 송미영(2017)
- ⑨ 『幼年必讀』(1907)[玄采, 『幼年必讀』, 徽文館, 1907, 國漢文(한자음 병기)] → 『유년』  
김억수(1979), 남영주(2001), 신유식(2003), 원해연(2009), 송미영(2017)
- ⑩ 『幼年必讀釋義』(1907)[玄采, 『幼年必讀釋義』, 1907, 國漢文] → 『유석』  
김억수(1979), 남영주(2001), 송미영(2017)
- ⑪ 『勞働夜學讀本』(1908)[兪吉濬, 『勞働夜學讀本』, 京城日報社, 1908, 國漢文(한문 부속체, 일부 한자음 병기)] → 『노동』  
김억수(1979), 이기동(1994가, 1994나), 남영주(2001), 신유식(2003), 송미영(2017)
- ⑫ 『녀즈독본』(1908)[張志淵, 『녀즈독본』, 光學書鋪, 1908, 국문] → 『여자』  
김억수(1979), 이기동(1994가, 1994나), 남영주(2001), 신유식(2003), 원해연(2009), 송미영(2017)
- ⑬ 『婦幼獨習』(1908)[姜華錫, 『婦幼獨習』, 皇城新聞社, 1908, 국문] → 『부유』  
김억수(1979), 이기동(1994가, 1994나), 남영주(2001), 송미영(2017)
- ⑭ 『初等女學讀本』(1908)[李源兢, 『初等女學讀本』, 1908, 國漢文] → 『여학』  
김억수(1979), 이기동(1994가, 1994나), 남영주(2001), 원해연(2009), 송미영(2017)
- ⑮ 『新纂初等小學』(1908)[玄采, 『新纂初等小學』, 1909, 國漢文, 언해문체 아님] → 『초등』  
김억수(1979), 이기동(1994가, 1994나), 남영주(2001), 신유식(2003), 원해연(2009), 박치범(2013), 박치범(2015), 송미영(2017)
- ⑯ 『最新初等小學』(1908)[鄭寅琥, 『最新初等小學』, 鄭寅琥, 1908, 國漢文] → 『최초』  
김억수(1979), 남영주(2001)
- ⑰ 『樵牧必知』(1909)[鄭崙秀, 『樵牧必知』, 1909, 國漢文(한자음혼 병기)] → 『초목』  
김억수(1979), 이기동(1994가, 1994나), 남영주(2001), 송미영(2017)

이런 연구를 통해서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면이 있고, 연구 대상이 된 교과서라고 하더라도 분석이나 고찰 정도에서 편차가 많이 보이는 등



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화기 교과서 균형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러 교과서 가운데 그간의 연구에서 중심이 된 것은 단연 學部에서 편찬된 『國民小學讀本』(1895), 『小學讀本』(1895), 『新訂尋常小學』(1896),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1907)이다. 이 교과서들은 學部에서 편찬된 것으로 정부에 의해 편찬된 것이라는 점이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중시되었던 듯하고, 앞의 세 교과서는 시기적으로 19세기 후반에 나온 것이어서 개화기 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중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19세기에 발행된 『초학언문』(1895)에 대한 연구는 이곳에 실린 자모와 반절에 관한 간단한 언급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등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발행된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진 듯한 면이 있다.

그리고 연구 내용 가운데에 김근영(2012), 박연호·김근영(2015)는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한글 표기를 간단히 언급한 정도에 그친 것이다. 그리고 서신혜(2012)와 박치범(2013, 2015)는 자모와 반절에 관하여 다룬 것으로 본격적으로 표기와 음운을 다룬 연구라 할 수는 없다. 한편 원해연(2009)은 문장 부호 사용에 관한 것으로 특징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데, 교과서를 배울 독자의 등급과 문장 부호 사용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으로 주목되는 연구 성과라 하겠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는 교과서에 따라 연구 대상으로서의 활용 정도나 연구 정도에서 편차가 있으므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며 교과서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재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교재 하나하나에 대한 정직한 연구를 통하여 각 교재의 표기와 음운의 특징을 상세히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재 사이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드러내는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 2.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 표기: 분철의 확대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종성을 가진 체언이나 용언 어간이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때는, 어휘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 모두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분철을 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나타난다(정승철 1999: 10-11, 남영주 2001: 59, 송미영 2017: 127). 이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것을 표기하는 데에서 시작한 분철의 경향이,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표기하는 데에 더욱 확대된 것과 더불어 용언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것을 표기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비롯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종성에 하나의 자음을 갖고 있는 형태나 자음군을 갖고 있는 형태 모두에서 본래의 형태로 표기를 하는 것들이 늘어나 오늘날의 표기법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형태소의 종성이 어떤 자음을 지니고 있는지와 이 형태소의 문법 범주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서, 연철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중철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상세히 다루어졌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밝혀져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세부적인 표기의 양상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대신에 몇 가지 예를 가지고서 이 표기 양상이 어느 정도의 경향으로 나타나는지를 교과서 말뭉

치 검색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1] 개화기 교과서의 분철, 연철, 중철 표기 양상

	분철	연철	중철
① 몸을	몸을: 39회	모를: 0회	몸를: 0회
② 일을	일을: 133회	이를: 0회	일를: 0회
③ 것을	것을: 97회	거슬: 29회, 거술: 11회	것슬: 8회, 것술: 3회
④ 답아	답아: 5회	다마: 0회	답마: 0회
⑤ 더불어	더불어: 0회	더브리: 26회, 더부리: 13회	더블리: 0회
⑥ 늘어	늘어: 3회	느러: 1회	늘러: 0회
⑦ 얻어	얻어: 12회	어더: 11회	엇더: 0회
⑧ 먹어	먹어: 8회	머거: 0회	먹거: 0회
⑨ 여기-	녁이-: 27회	녀기-: 1회	-

[1]에서 볼 수 있듯이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는 ③의 경우 연철과 중철이 이루어진 것도 꽤 보이나 ①, ②, ③ 모두 분철의 경향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용언의 경우는 연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⑤와 분철과 연철이 비슷하게 나오는 ⑦을 제외한 ⑥, ⑧에서 보듯이 분철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⑨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소 내부에서도 과도 분철을 한 것이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도 관찰될 정도이다.

이를 다양한 표기 양상을 보이는 ③을 대상으로 하여 문헌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철을 보이는 교과서와 중철을 보이는 교과서를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연철을 보이는 교과서는 『국소』(거슬: 7회, 거술: 2회), 『소학』(거슬: 2회), 『심소』(거슬: 10회, 거술: 9회), 『부유』(거슬: 10회), 『여자』(거슬: 8회), 『여학』(거슬: 1회) 등이고, 중철을 보이는 교과서는 『국소』(것슬: 2회, 것술: 1회), 『심소』(것슬: 6회, 것술: 2회) 등이다. 이에 반해서 분철을 보이는 교과서는 『심소』(1회), 『유년』(7회), 『부유』(19회), 『여학』(1회), 『국어』(42회), 『초등』(26회) 등이다.

이를 보면 1890년대에 나온 교과서에서는 연철과 중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1900년대에 나온 교과서에서는 분철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 여성을 독자로 한 교과서에서 연철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비록 ‘것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보여 주는 것은 교과서마다 편차가 표기법의 채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이에 는 발행 시기와 대상 독자의 차이가 고려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량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며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 3. 초성, 중성, 종성의 표기와 음운

#### 3.1. 초성의 표기와 음운

3) 검색 대상 말뭉치에는 『국소』, 『소학』, 『심소』, 『고소』(권2), 『유년』, 『노동』, 『여자』, 『부유』, 『여학』, 『국어』, 『초등』과 같이 모두 11 종류의 교과서가 들어가 있으며, 검색 프로그램으로는 유니콧크를 사용하였다.

### 3.1.1. 병서의 표기와 음운

개화기 교과서의 초성 표기에 사용된 병서에는 주로 사계 합용 병서가 사용되었음이 지적된 바 있는데(이기동 1994: 161-163, 정길남 1999: 5-8, 정승철 1999: 14-16, 송미영 2017), 아래에서 보듯이 사계 합용 병서의 사용이 두루 관찰되어 사계 합용 병서로 표기를 통일하려는 경향이 눈에 띈다.

#### [2] 사계 합용 병서의 표기

- (1) 시 ① 본래의 ‘시’을 표기: 興人門<sup>시</sup>지<국소 4ㄱ>, 쏘리논<심소 6ㄴ>, 씨닷기<심소 1ㄴ>  
 ② 기저형의 경음화 반영: 썩질을<국소 12ㄴ, 심소 21ㄴ>, 쌀기를<심소 5ㄴ>  
 ③ ‘<sup>시</sup>’을 반영: 씨지고<국소 43ㄱ>  
 ④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반영: 될 씨시오<소학 3ㄴ>
- (2) 씨 ① 본래의 ‘씨’을 표기: 쏘<sup>씨</sup>흔<국소 1ㄴ, 심소 16ㄱ>, 노동 1:8, 부유 60>  
 ② ‘<sup>씨</sup>’를 반영: 씨예<국소 42ㄴ, 심소 16ㄴ, 유년 1:6, 여자 상:31>, 씨나<국소 39ㄱ>, 씨러지고<국소 17ㄱ, 심소 2ㄱ>, 씨슬<국소 36ㄱ>  
 ③ ‘<sup>씨</sup>’을 반영: 씨워 두면<국소 12ㄴ>
- (3) 썩 ① 본래의 ‘썩’을 표기: 썩 아니오<국소 1ㄴ>, 썩 아니라<소학 6ㄴ, 소학 20ㄴ>, 썩져<국소 29ㄱ, 44ㄴ, 66ㄱ>, 썩혀<국소 50ㄱ>, 썩리<심소 44ㄱ>, 썩<심소 6ㄱ, 21ㄴ>
- (4) 씨 ① 기저형의 경음화 반영: 씨어[<sup>씨</sup>]<국소 58ㄱ>  
 ②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반영: 흘 씨어다<소학 1ㄴ>, 불 씨로다<소학 2ㄴ>  
 ③ ‘<sup>씨</sup>’을 표기: 소곰 맛시 썩 줄은<심소 11ㄱ>

이 예들을 보면 사계 합용 병서는 어두나 비어두를 불문하고 본래부터 쓰이던 경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평음이 새롭게 경음이 되거나 ㄱ계 합용 병서가 경음이 되거나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의 경음의 실현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ㄱ계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

#### [3] ㄱ계 합용 병서의 표기

- (1) 씨 ① 본래 ‘씨’을 표기: 씨<소학 1ㄴ, 심소 8ㄱ>, 힘씨<국소 30ㄱ>, 受苦함으로씨<심소 1:8ㄴ>, 天下로씨<소학 2ㄱ>, 쌀<심소 18ㄴ>, 씨며[用]<심소 8ㄱ>  
 ② ‘<sup>씨</sup>’을 ‘<sup>씨</sup>’으로 표기: 씨며[書]<심소 1ㄱ>, 씨흙에는<심소 46ㄱ>, 씨서<심소 21ㄱ>
- (2) 씨 ① 본래 ‘씨’을 표기: 씨서[織]<심소 6ㄱ>, 씨져[裂]<심소 22ㄱ>  
 ② ‘<sup>씨</sup>’을 표기: 글씨<심소 13ㄴ>  
 ③ ‘<sup>씨</sup>’을 표기: 씨르계[短]<심소 20ㄱ>, 씨어[<sup>씨</sup>]<심소 24ㄱ>

이는 ‘씨’와 ‘씨’에 한정되어 나타나며, 『소학』, 『국소』, 『심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 역시 그 쓰임을 보면 경음의 표기를 위하여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씨’ 또는 ‘로씨’는 한문 ‘以’의 번역 투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수적으로 볼 때 사계 합용 병서에 비해 ㄱ계 합용 병서는 적게 나타나는데, 국어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자면 ㄱ계 합용 병서가 사계 합용 병서로 합류해 가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동 1994: 161-163, 정승철 1999: 14)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씨’은 『심소』에서만 보이는데, 이를 정길남(1999: 7-8)에서는 이 교과서의 출판에 일본인들이 관여한 것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할 바 있다. 즉 『심소』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서 ‘을/를’을 사용하고 있고, 어휘 선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를 일본인들이 전통적인 표기를 채택하고자 바를 보여 주는 것이라 파악하였다.<sup>4)</sup>

이에 반해서 각자 병서 표기는 아래와 같은 예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된다.

#### [4] 각자 병서의 표기

- (1) ㅅ ① 본래 ‘ㅅ’을 표기: 싸흠에<국소 29ㄴ>  
 ② ‘ㅅ’을 반영: 쓰기[用]<국소 2ㄱ, 소학 8ㄱ>, 쓸타가<국소>, 로써<소학 6ㄱ, 7ㄴ>, 힘쓰게  
 <국소 32ㄱ>  
 ③ 한자음: 성씨(姓氏)<부유 상:2>, 玉씨(玉氏)<부유 상:29>, 고씨계로(高氏)<여자 상:14>
- (2) ㅈ ① ‘ㅈ’을 표기: 쫓차<최초 4:16>, 쫓긴<유년 4:29>, 쫓치되<최초 3:7>, 쫓느<최초 4:33>  
 ② ‘ㅈ’을 표기: 쫓너<여자 하:4>

위 예를 보면 ‘ㅅ’과 ‘ㅈ’은 경음을 적기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ㅅ’의 표기는 광범하게 보인다. 그러나 ‘ㅈ’은 1900년대에 민간에서 출판된 문헌에서 용언에서 그 쓰임이 관찰되는 양상을 보인다(송미영 2017: 76). ‘ㅅ’은 한자음의 표기에서도 그 쓰임을 보이고 있다.

각자 병서의 사용은 스콧(Scott)의 『언문말책』(1887), 『영한사전』(1891)과 천주교의 『성경직해』(1892-1897), 『國漢會語』(1895)에서 “ㄱ<언문 5>, ㅍ<언문 5>, ㅅ<언문 5>, ㅈ<언문 5>”, “꺾거<성경 5:16>, 떠나<성격 5:8>, 빠지기를<성경 4:26>, 쓰지<성경 4:5>, 찌르니<성경 6:39>”, “아깝다<국한 62>, 똥똥하다<국한 170>, 뽀<국한 200>, 쓸개<국한 234>, 잔다<국한 18>”에서 보듯이 전면적으로 사용되었다(정승철 1999: 16). 그리고 李鳳運의 『국문정리』(1897)에서부터 俞吉濬의 『大韓文典』(1909), 周時經의 『國語文法』(1910) 등의 문법서에서 경음 표기로 그 사용이 주장된 바인데, 이런 흐름이 교과서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병서 표기 양상을 볼 때 이 시기 교과서의 경음 표기에는 ㅅ계 합용 병서의 사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교과서에서 ㅈ계 합용 병서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일부 예에서 각자 병서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ㅅ계 합용 병서가 주류를 이루면서 ㅈ계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가 공존하는 것은 국어 표기법의 일반적인 흐름과 비추어 볼 때 어긋나지는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전통에서 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육을 하고자 했던 지향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5)</sup>

### 3.1.2. /ㅣ/나 /ㅈ/ 앞의 ‘ㄷ’과 ‘ㄴ’ 표기와 음운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ㅣ/나 /ㅈ/ 앞에 ‘ㄷ’이나 ‘ㄴ’이 선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 4) 실제로 『심소』에는 일본과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일본인들의 편찬 방침에 의한 표기의 채택일 수도 있으나, 일본인들이 ㅈ계 합용 병서를 선호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편찬자에 의한 표기의 사용일 수도 있으나 『심소』가 보이는 문체적 특징과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밝혀 보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 5) 池錫永은 ㅅ계 합용 병서 사용, 俞吉濬·周時經·李能和·李鳳運은 각자 병서 사용, 魚允迪은 ㅈ계 합용 병서 사용도 주장하는 것으로 나뉘는 등 이 시기의 국어 연구자들이 병서 사용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 것과 비교해 보면 학술적인 논의와는 다르게 교과서의 병서 표기는 일률적인 양상을 보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어 연구자들은 표기의 방향을 정하는 입장에서 있고 교과서 편찬자들은 기존 표기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 차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국어 연구자들의 병서 표기와 관련한 논의 내용은 송미영(2017: 55-58)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미 근대국어 시기에 구개음화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개화기 국어에 이르러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는 /l/나 /j/ 앞에 /ㄷ/과 /ㄴ/이 올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ㄷ’이 보이는 예와 ‘ㅈ’이 보이는 예, ‘ㅇ’이 보이는 예와 ‘ㄴ’이 보이는 예가 공존한다. 먼저 ‘ㄷ’과 관련한 표기의 양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5] /l/나 /j/ 앞의 ‘ㄷ’ 표기 관련 양상

- (1) ㄷ ① 비구개음화형을 표기: 도흔<국소 17ㄱ, 심소 35ㄱ>, 도아햐야<국소 26ㄱ>, 더의들이<심소 14ㄴ>, 뚝소<초소 1:27ㄴ>
- ② 파도교정형을 표기: 뚝아<심소 22ㄱ>, 뚝기톨<심소 1ㄱ>, 도고마흔<심소 26ㄱ>, 諸寺中(더스중)에[諸: 章母]<유년 1:14>
- ③ 한자음의 표기: 병덩(兵丁)[丁: 端母]<초소 1:33ㄱ>, 테조(體操)[體: 透母]<초소 2:4ㄴ>, 天下(턴하)<유년 1:6>, 傳國(전국)헝기[傳: 澄母]<유년 1:8>, 地勢(디세)[地: 定母]<유년 1:11>, 鐵(털)[透母]<유년 1:11>, 第一(데일)[第: 定母]<유년 1:12>, 邸주막(더)[端母]<유몽 3>, 蹄굽(데)[定母]<유몽 3, I 부류>, 笛더(덕)[定母]<유몽 3, I 부류>, 亭덩즈(팅)[定母]<유몽 3, I 부류>, 釣낙시(도)[端母]<유몽 3, I 부류>, 冇드릴(정)[澄母]<유몽 3, I 부류>, 池뫓(지)[澄母]<유몽 3, I 부류>, 蚰머뭇거릴(지)[知母]<유몽 3, I 부류>, 懲징계(징)[澄母]<유몽 3, I 부류>
- (2) ㅈ ① 구개음화형을 표기: 죠흔<국소 45ㄴ>~죠아햐는<국소 23ㄱ>, 敗햐는 체햐고<국소 29ㄱ>, 처와 ㄱ치<심소 16ㄱ>, 찌러지지<심소 21ㄱ>, 집신장스<심소 27ㄱ>, 절<초소 1:27ㄴ>, 먹지 아니햐면<국소 13ㄴ>, 밧치지 아니햐<심소 15ㄴ>, 질겅지 아니햐리오<노동 11:9>
- ② 한자음의 표기: 정자(亭子)[亭: 定母]<초소 1:27ㄴ>, 병정(兵丁)[丁: 端母]<초소 2:7ㄴ>, 長林(장림)[長: 澄母]<유년 1:6>, 朝鮮海峽(조선해협)[朝: 知母]<유년 1:11>, 諸寺中(더스중)에[中: 知母]<유년 1:14>, 殿대궐(전)[定母]<유몽 3, II 부류>, 庭뜰(정)[定母]<유몽 3, II 부류>, 體뫓(체)[透母]<유몽 3, II 부류>, 竹대(죽)[知母]<유몽 3, II 부류>, 哲뫓을(철)[知母]<유몽 3, II 부류>, 雉뺩(치)[澄母]<유몽 3, II 부류>

이를 보면 어두, 어중, 어휘 형태소, 문법 형태소, 한자음을<sup>6)</sup> 불문하고 /l/나 /j/ 앞에 ‘ㄷ’을 보이는 것과 ‘ㅈ’을 보이는 것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미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형태로 간주되는 것인데도 ‘도흔’, ‘도아햐야’가 보이는 것을 정길남(1999: 19)에서는 구개음화 이전의 표기로 보고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ㄷ 구개음화 관련 표기가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하고 있다. 특히 ‘뚝-’의 경우는 교과서 특유의 규범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에 집필자의 복고적인 심리 현상이 관여된 결과물로 보았다. 송미영(2017: 171)에서는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ㄷ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은 표기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유어는 구개음화를 겪은 형태를 표기 대상으로 삼은 반면에 한자어의 경우는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형태를 표기 대상으로 삼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어중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송미영(2017: 174-177)의 연구는 한자음의 경우까지를 포괄하여 자세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중에 따른 표기 양상을 살피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ㄷ 구개음화가 반영된 표기를 하든 반영되지 않은 표기를 하든 당시 언중들에게는 /l/나 /j/ 앞에 /ㄷ, ㅈ, ㅉ/이 오는 것이라면 실제로는 /ㅈ, ㅉ, ㅉ/이 됨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느 쪽의 표기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스콧(1891)의 기술에 따르면 당시 언중들은 어중을 불문하고 /l/나 /j/ 앞에서는 ‘ㄷ’으

6) 교과서의 표기 특성상 국한문으로 된 것 중에 한자에 음이 달려 있지 않은 『국소』, 『소학』, 『심소』, 『고소』, 『초소』(국한문 부분), 『유석』, 『여학』, 『최초』 등은 한자로 표기된 부분의 한자음을 알기가 어렵다.

로 적더라도 실제로는 /ㅈ/으로 발음됨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sup> 위에서 제시한 과도교정형의 표기도 이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자음의 경우에는 한자음의 聲母에 따른 구별 없이 舌頭音과 舌上音 모두 구개음화형과 비구개음화형으로 표기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운서와 자전의 한자음에 기초를 두고 舌頭音은 비구개음화형으로 舌上音은 구개음화형으로 표기한 것들도 있다. 이를 가장 확연히 보여 주는 것이 『유몽』인데, 이 책은 같은 책이지만 판본에 따라 보수적인 양상을 보이는 I 부류에서는 후자의 양상을 보이고, 개신적인 양상을 보이는 II 부류에서는 전자의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개신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유몽』을 편찬한 계일에 의해 고안된 이른바 계일 시스템(Gale system) 또는 개혁 철자(reformed spelling)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에 따라서 舌頭音과 舌上音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구개음화가 된 것에 따라서 ‘ㄷ’, ‘ㅈ’을 이용하여 표기를 한 것이다.(이준환 2015: 236).

설두음과 설상음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 양상은 [5]에서 제시한 『유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과서의 전체적인 양상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자음의 경우는 이와 같은 운서와 자전을 기준으로 삼아 규범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고유어와는 다른 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 /ㅣ/나 /j/ 앞의 ‘ㄴ’ 표기 관련 양상

- (1) ㄴ: 니러나<여자 상:49, 113>, 니러나셔<국어 1:45, 국어 2:57>, 너기사<국소 6>, 넷적<국소 45  
ㄴ, 심소 3ㄴ, 유년 1:2, 노동 1:30>  
(2) ㅇ: 이러나셔<심소 4>, 이러나셔<유년 3:19, 여학 22ㄴ, 초등 2:44>, 일곱<국소 29>, 심소 26ㄴ,  
여학 2>, 옛적<국소 30>

위에서 보듯이 /ㅣ/나 /j/ 앞에서 ‘ㄴ’을 보존한 형태와 ‘ㄴ’이 탈락한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데, 같은 교과서 안에서도 같은 형태에 대해서 ‘넷적’, ‘옛적’에서 보듯이 이질적인 양상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표기에 대해서는 이준환(2013: 90-91)에서 간단히 다룬 바 있는데, 동일한 성격의 ㄷ 구개음화 관련 표기와 연관을 지어서 함께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7) ㄷ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스콧은 ENGLISH-COREAN DICTIONARY(1891)의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구개음화가 서북지역을 제외하고는 고유어와 한자음을 불문하고 일반화된 현상이며 표기상 ‘ㄷ’을 쓰더라도 실제 발음은 /ㅈ/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거센 폐쇄음 혹은 치음 t의 구개음화>

- ① 모음 i, ye, yo, you 앞에서 church의 구개음 ch와 똑같이 발음함. 모음 ye와 yei 앞에 위치한 유기 폐쇄음 t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겪음.
- ② 단어의 어원인 중국어가 원래 t로 시작하는 경우 한국인들은 글로 쓸 때에는 똑같이 t를 유지하지만 입을 때에는 늘 치음 t를 구개음 ch로 발음함. 한자 天을 읽을 때 한국인은 이를 t'yen이 아니라 ch'yen으로 발음할 것임. 體面은 ch'yei-myen으로 발음되지 결코 t'yei-myen이라 발음되지 않음.
- ③ 순수 한국어인 몇몇 단어에서도 ‘도타(is good)’는 chyot'a, ‘도회(paper)’는 chyohui로 읽힘.
- ④ 북서부 지방에서는 치음이 구개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직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음.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③에서 보듯이, 스콧이 구개음화를 겪은 형태인 ‘조타’와 구개음화하는 무관하고 비어두에서의 /·/ > /-/-만은 겪은 ‘조희>조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초성을 모두 ‘ㄷ’으로 표기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당시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2. 중성의 표기와 음운

### 3.2.1. ‘·’ 관련 표기와 음운

일반적으로 /·/는 비어두에서부터 음소로서의 역할을 잃기 시작하여 대체로 /ㅡ/에 그 역할을 넘긴 후, 어두에서도 음소로서의 역할을 잃기 시작하여 대체로 /ㅏ/에 그 역할을 넘겨 사라진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음운 변화를 겪은 이후에도 표기에서는 ‘·’가 여전히 사용되었는데, 교과서 자료에서 볼 수 있는 ‘·’ 관련 표기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 관련 표기 양상

##### (1) ‘·’ 사용

① 본래 /·/를 지닌 것: 마음<여학 5ㄴ, 국어 1:28, 초등 2:1>, 흐느꼐이라<국소 24ㄱ>, 아들 <부유 14, 29, 61, 여자 8, 12, 16>, 사름<국소 29ㄱ, 심소 1ㄱ, 유년 1:2, 노동 1:6, 여자 상:1, 국어 2:4, 초등 2:1>~스릅<국소 2ㄴ, 심소 2ㄴ, 여자 상:44, 국어 3:43>, 다룬<국소 8ㄴ, 국어 2:9>, 쯔지<국소 4ㄱ, 심소 34ㄴ, 유년 1:34, 여자 상:72, 국어 2:19>, 으릅다운<심소 17ㄴ, 25ㄱ>, 되느니<국소 9ㄱ, 소학 3ㄴ, 심소 38ㄴ, 고소 29, 여자 상:2, 국어 2:18, 초등 3:39>

② 본래 /·/를 지니지 않은 것: 하느<국소 68ㄴ, 여학 6ㄱ>, 으들<심소 2ㄱ, 14ㄱ, 32ㄱ>, 무슴 <국소 7ㄴ, 심소 21ㄱ, 유년 3:43, 여자 하:16, 국어 1:49>, 스스로<국소 13ㄴ, 심소 15ㄴ, 여자 상:6, 국어 사:72>, 썩와<국소 53ㄴ, 69ㄴ>, 안즈<국소 13ㄱ, 심소 21ㄱ, 초등 2:29>, 맞느<심소 31ㄴ, 41ㄱ>~맞느면<심소 9ㄴ, 여학 27ㄴ>, 것술<국소 12ㄱ, 심소 2ㄴ, 16ㄱ>.

##### (2) ‘·’ 미사용

① 본래 /·/를 지닌 것: 마음<국소 23ㄱ, 심소 1ㄱ, 유년 1:14, 노동 1:30>~마암<유년 1:37, 노동 1:7, 여학 10ㄴ>, 한나만<노동 1:75>, 되나니<소학 3ㄴ, 노동 1:24>, 아달<국소 53ㄴ, 노동 1:3, 여자 하:39, 여학 3ㄱ, 초등 2:36>~아들<국소 37ㄴ, 심소 18ㄱ, 여자 상:2, 초등 4:3>, 사람<국소 43ㄱ, 소학 7ㄴ, 유년 1:1, 노동 1:2, 여자 상:15, 여학 16ㄴ, 국어 1:14, 초등 1:61>, 다룬<국소 22ㄴ, 심소 12ㄱ, 유년 3:18, 노동 1:13, 여자 상:15, 여학 13ㄴ, 국어 2:26, 초등 2:49>, 쯔지<국소 29ㄴ, 고소 70, 노동 1:42, 여자 하:92, 여학 8ㄴ, 초등 8ㄴ>, 아름다 운<심소 17ㄱ, 유년 3:9, 초등 3:7>

② 본래 /·/를 지니지 않은 것: 것술<국소 59ㄴ, 심소 23ㄴ>, 안자<국소 30ㄴ, 노동 1:42>, 맞나 <심소 20ㄴ, 여자 상:102>, 썩와<국소 25ㄱ, 유년 2:38, 여자 하:88>

[7]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 /·/를 지녔던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경우도 있고, /·/의 변화가 반영된 경우도 있고, 본래는 /·/를 지니고 있지 않던 것이 ‘·’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본래 /·/를 지니지 않은 것들을 ‘·’를 이용하여 표기한 예들도 두루 보인다. ‘·’로 표기된 것들은 ‘마음~마음~마암’, ‘흐느~하느~한나’, ‘아들~으들~아달~아들’, ‘되느니~되나니’ 등에서 보듯이 /ㅏ/ 또는 /ㅡ/와 통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중 비어두에서 ‘·’가 ‘ㅏ’로도 표기되는 것은 /·/>/ㅏ/의 변화에 의해 얻게 된 음성적 실현형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가 실제로 하나의 음소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유몽』에서 보이는 ‘·’ 관련 표기는 ‘·’를 표기에 계속 사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유몽』을 보면 판본에 따라 ‘·’를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데, ‘·’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앞서 기술한 계열과 이창직의 새 철자법에 따른 것이다. 이 철자법은 1902년 장로회공의회에서 제안되어

1903년 7월 17일 상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가 그해 평안도 지방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은 옛 철자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새 철자법의 취지에 따라서 『유몽』에 ‘·’를 사용하지 않고 고유어는 물론이고 한자음도 ‘ㅏ’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이는 실제로 /·/의 소실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것이라 하겠다.

[8] 『유몽』의 ‘·’ 미사용 양상

- (1) 習慣이라하는거슨사람이自兒時로父母의게서듯고보는中에서自然히天性으로더브리配合하여行習이되여썩리가박혀堅固하여牢不可破라風俗으로더브리恰似하니假量風俗은一朝一夕에變하여곳친다할지라도習慣은卒然히變易지못하나니라<권 1, 제3과정>(1903)
- (2) 余가가이로에在할時에東洋古書를多得하여閱覽하더니其中에一卷冊子를見한則머사 | 라하는者의現夢이라滋味가有하기로謠譯하여記載하노라  
其言에曰五月初五日은우리先祖의規例를依하여恪勤히守할節日이기로早朝에起하여洗漱하고祈禱한後에~~썩~~싸이라하는高山에登坐하여祈禱하라할새思想이一定치못하여情神이散亂하거늘喟然히嘆息하여曰人이此世에生한거슬默想하니虛하고空하도다<권 2, 제1과정>(1904)

‘·’가 표기에 계속 사용된 것을 정길남(1999: 30-32)에서는 문자의 보수성과 관련짓고 전대의 표기인 ‘·’를 교과서에서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본 바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교과서를 비롯하여 새롭게 간행되는 문헌과 이전 시기에 간행된 문헌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의 표기법의 연속선상에서 표기법을 익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를 표기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2. ‘一’ 관련 표기와 음운

‘一’와 관련된 표기는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것과 관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길남(1999: 32-34)과 송미영(2017: 198-204)에서 상세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송미영(2017)에서는 다양한 교과서에서의 출현 예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소 내부의 원순 모음화 관련 예, 용언의 활용에서 보이는 원순 모음화 관련 예를 선행 자음과의 관계 속에서 상세히 고찰하였으므로 교과서 자료의 원순 모음화 관련 현황을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된다.

[9] ‘一’ 관련 표기 양상

- ① 원순 모음화 반영: 물은<국소 20ㄴ, 노동 1:16, 국어 1:38>, 눈물<국소 47ㄱ, 유년 1:33, 여자 상:35>, 불 속에<국소 44ㄱ>, 드무니<소학 10ㄴ>~드무니라<여자 상:61>~드물다<소학 11ㄱ>, 더부러<국소 55ㄴ, 소학 2ㄱ, 심소 10ㄱ, 고소 55, 여학 25ㄱ, 국어 8:54>, 슬푸다<심소 19ㄴ, 유년 4:18, 초등 4:39>~슬푼이논<심소 31ㄴ>, 붓터<심소 21ㄱ, 국어 6:36, 초등 2:29>, 불근<심소 10ㄴ>~붉은<국어 2:37, 초등 5:73>
- ② 원순 모음화 미반영: 물<국소 49ㄱ>, 그물<심소 3ㄱ, 노동 1:90, 국어 3:31>, 불<국소 44ㄱ>, 이불 속에<국소 42ㄱ>, 숯불<국소 42ㄴ>, 하물며<국소 59ㄱ, 여자 상:24>, 못<심소 2ㄱ, 심소 5ㄱ, 유년 4:55>, 붓터<국소 18ㄱ, 심소 8ㄱ>, 불근<유년 3:37>
- ③ 형태소 경계: 아니흐물<국소 17ㄴ>, 더흐물<국소 18ㄴ>, 되믄<국소 32ㄱ>, 절물씨에<심소 30ㄴ>, 검은<국어 2:16>/ 일사무며<소학 8ㄱ>, 담우니<최초 2:11>, 꼬부면서<초등 4:4>, 더푸며<여학 13>, 십푸니<초등 3:13>, 나물이<국소 3>
- ④ 양순음 이외의 자음 아래: 무릇<심소 1ㄴ>



개화기 교과서 자료에서는 [9]에서 보듯이 원순 모음화 관련 예를 반영하고 있는데, 동일한 어휘에 대해서도 ‘물~믈’, ‘불근~붉은~블근’ 등에서 보듯이 그 양상이 다양하다. 원순 모음화 현상은 근대국어 시기에 발생하여 확산된 것이므로 어휘 형태소 내부의 것들은 통시적 변화의 결과를 고착된 것으로 여기지는 반면에 형태소 경계에서 보이는 것들을 볼 때 공시적으로도 원순 모음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원순 모음화가 적용된 것들을 정길남(1999: 32-33)에서는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것들이 구어로써 사용 빈도가 높은 말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아니흐믈’, ‘더흐믈’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소 경계에서 원순 모음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였다.<sup>8)</sup> 그러나 정길남(1999)에서 이용하지 않은 교과서 자료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살펴보면, ‘일사무며’, ‘꼬부면서’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본래의 ‘ㅡ’가 ‘ㅓ’로 표기된 것들도 보이므로(이준환 2013: 92, 송미영 2017: 203-204) 형태소 경계에서도 원순 모음화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무릇’과 같이 ‘ㄹ’ 아래에서도 ‘ㅡ’가 ‘ㅓ’로 바뀐 예들이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원순 모음화 조건에서는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순 모음화로 다루기는 어렵다. 이를 선행 모음에 의한 동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있는 ‘거루고’, ‘벼루고 벼루다’, ‘타이루고’, ‘어루다’ 등에서 보듯이 선행 모음에 원순 모음을 지니고 있지 않은 예들도 있다는 점(이준환 2013: 92)에서 보면 선행 자음인 /ㄹ/와의 관련성을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 3.2.3. 치찰음하 /j/ 반영 관련 표기와 음운

근대국어 시기 자료에서는 치찰음 아래에서 /j/의 탈락 내지 첨가가 수의적으로 일어나다가 본래 /j/를 지니고 있었던 것들은 탈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표기가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널리 보인다.

#### [10] 치찰음하 /j/의 반영과 관련한 표기

- ① 본래대로 표기: 홀 슈 업스니<국소 5ㄱ>, 서로<국소 8ㄱ, 유년 1:17, 노동 1:2, 여자 상:10, 국어 3:49 >, 즈세이<국소 45ㄴ>, 쇼릭<심소 11ㄴ, 여학 9ㄴ, 초등 2:17>, 짐작흐면<국소 45ㄴ, 여자 상:50>, 잡기<국소 30ㄴ, 노동 1:24>, 사람<국소 43ㄱ, 소학 7ㄴ>, 처음<심소 29ㄴ, 노동 1:64>, 파초<초소 1:11ㄱ>, 연적<초소 1:26ㄴ>, 슈판 은<초소 1:26ㄴ>, 先養홀진저<고소 1:8>, 摠코져<고소 1:17>
- ② /j/ 첨가: 죽이-<국소 14ㄱ, 유년 3:17, 노동 1:28>, 잡기도<국소 61ㄱ>, 사람<소학 3ㄴ, 4ㄴ>, 처음<국소 39ㄴ, 심소 5ㄴ, 유년 1:19, 노동 1:79, 여자 하:91>, 옛적 예<초소 2:3ㄱ>, 슈머니<초소 1:9ㄱ>
- ③ /j/ 탈락: 소<심소 5ㄴ, 초소 1:6ㄴ, 노동 1:30, 국어 1:50>, 조리<초소 1:8ㄴ>, 자루<초소 1:9ㄴ>, 고족상<초소 1:15ㄴ>

19세기 말의 『국소』, 『소학』, 『심소』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정길남(1999: 37)에서 지

8) 그러나 교과서는 아니지만 정길남(1999: 34)에서는 ‘올무물<로쓰역마 1:11>’, ‘넉넉흐무로<로쓰역요 1:16>’에서처럼 형태소 경계에서 원순 모음화된 예들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길남(1999: 34)에서는 구어를 바탕으로 한 개신교 성서에서는 원순 모음화를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임을 기술한 바 있다.

적한 바와 같이 /j/가 첨가된 것은 많이 보이는 반면에 /j/가 탈락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20세기 초 자료까지 포함하여 찾아보면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표기된 예들도 ③에서 보듯이 적지 않다.

치찰음하의 /j/가 탈락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j/가 있거나 없거나 발음상의 차이가 없게 되자 이를 /j/를 탈락시킨 표기로 단순화하여 표기를 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03년과 1904년에 나온 『유몽』이다. 이곳에는 제일과 이창직의 새 철자법에 따라서 ‘조화하 나나라’, ‘상토’, ‘적계’, ‘장사’ 와 같은 어휘 형태소뿐만 아니라 ‘몽처’, ‘가르쳤다’와 같은 어간과 어미의 축약 형태에서도 /j/를 탈락하여 표기를 하고 있다. 이는 ‘稀少 희소’, ‘俗談 속담’, ‘各種 각종’, ‘政府 정부’, ‘隻童 척동’, ‘出處 출처’와 같은 한자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보면 치찰음하 /j/의 반영과 관련한 표기는 『유몽』과 같이 문헌에 따라 어느 한 방향을 지향한 것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j/의 본래대로 표기, /j/의 첨가, /j/의 탈락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 3.2.4. 치찰음하 ‘ㄹ’, ‘ㄴ’ 표기와 음운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19세기에 들어서 일어난 치찰음 /ㄹ, ㄴ, ㄷ, ㅈ/ 아래에서의 전설 모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ㄹ’와 ‘ㄴ’ 표기가 서로 넘나드는 것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 [11] 치찰음하 ‘ㄹ’와 ‘ㄴ’의 표기

- ① ‘ㄹ’을 ‘ㄹ’로 표기: 아꺾<국소>, 오꺾<국소>
- ② 본래의 ‘ㄹ’을 표기: 일꺾<국소, 심상, 소학>, 즘꺾<국소>
- ③ ‘ㄹ’을 ‘ㄴ’로 표기: 짐꺾<심소>, 아꺾<심소, 국어>, 거꺾<노동>, 질기꺾<국소>, 꺾꺾<심소 22>, 다시리꺾<노동>, 실꺾<노동>, 정꺾꺾꺾<노동>, 꺾꺾꺾꺾<노동>, 꺾꺾꺾꺾[記]<최초>, 부지런꺾<초등>, 안꺾<국소, 심소>, 츠꺾꺾<국소>, 당꺾꺾꺾<국소>, 지꺾꺾꺾<국소>, 꺾꺾꺾꺾<국소>, 마꺾꺾<초등>, 차꺾꺾<노동>
- ※ 아꺾<여자, 국어>~아꺾<신정, 노동, 국어, 초등>
- ④ 본래의 ‘ㄴ’을 표기: 오꺾<국소>, 아꺾<국소, 심소>

이런 현상은 ③과 같은 예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들어서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체언과 용언 어간 모두에서 보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용언 어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용언 어간에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도 이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래의 ‘ㄴ’을 ‘ㄹ’로 표기한 예들도 부사의 예들에서 보이는데, 이는 전설 모음화 현상에 따른 과도교정적 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정승철(1999), 정길남(1999), 이준환(2013), 송미영(2017)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 송미영(2017)의 기술은 수록하고 있는 예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분석이 자세하고 정밀하고 이루어져 있다.

정길남(1999: 34-35)에서는 ‘짐꺾’, ‘안꺾’, ‘츠꺾꺾’, ‘질기꺾’은 전설모음화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유추된 예로 다루었는데, [9]에서 보듯이 전설 모음화 현상이 개화기에 활발하게 일어난 음운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형태소 내부와 경계를 불문하고 이처럼 활발하게 있었던 전설 모음화 현상을 반영한 표기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 3.3. 종성의 표기와 음운

## 4. 음운 현상 및 음운 현상 관련 표기

## 5. 띄어쓰기 및 문장 부호 표기

이기동(1994: 168-170)에서는 이 시기에 편찬된 교과서에서 띄어쓰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교과서가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인 것과 관련지어 이해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권점을 이용한 『심소』와 빈칸을 이용한 『여자』, 『초목』과, 권점(°)과 빈칸을 동시에 이용한 『초등』의 예를 들어 이 시기 교과서에서 띄어쓰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문장 부호 사용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 원해연(2009)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초소』와 같이 모점(、), ”과 권점(°)을 동시에 이용한 것도 있음을 살피고 있다.

### [12] 개화기 교과서의 띄어쓰기 표시 양상

#### (1) 권점(°)으로 표시

- ① 아침에 일즉이러나서°희듯논°景致를보는것보담더°爽快한일은업스오리이다<심소 4ㄱ>
- ② 대°나무논°두°줄기오°독겁이논°여러마리°올시다<초등 1:52>

#### (2) 빈칸으로 표시

- ① 녀즈는 나라 백성百姓된자의 어머니될 사름이라 녀즈의교육教育이 발달發達된 후에 그 즈녀로호여곰 착흔 사름을 얼울지라<여자 상:1>
- ② 아버지는 혼집의 하늘이오 어마이는 혼집의 짜이니 텃디天地아니면 엇지 씨 만물萬物을 니며 부모父母아니면 엇지 씨 나의 몸이 잇스리오<초목 1ㄱ>
- ③ 학교는 사름을 교육°하는데니 各種씨를 심으논 동산과 갓소 학교는 사름의°맛음을 아름답게 하논데니 各色물을 드리논것과 갓소이다<초등 2:1>

#### (3) 모점(、), ”, 권점(°)을 사용

- ① 소반、 목”관、 차관、 남비、 사귀”합、 달”임이 논、 세간 사”리 의 긴요 혼 그릇이”오°<초소 1:28ㄴ>
- ② 一時 논、 六十分 으로、 난호고、 一分 은、 六十秒 로、 난호니라°<초소 2:30ㄴ>
- ③ 저、 사름은、 다음車를、 기다리논外에는、 홀수업소° 瀛車논、 時間을、 定호야、 往來호논者인故로、 그、 時間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決斷코、 만나지못호논니、 瀛車를、 乘코져호면、 그、 時間을、 직힘이可호오°<초소 5:30ㄴ>

이기동(1994)에서는 이곳의 띄어쓰기는 어절, 구, 절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표기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고, 『초등』에서 보이는 ‘대°나무논’와 같은 권점의 사용은 이 말을 합성어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표시로 살펴본 바 있다.

정승철(1999: 26-31)에서는 『여자』와 『초목』과 같은 초급자용 교과서에서 빈칸 띄어쓰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빈칸 띄어쓰기를 語節을 단위로 하는 어절형과 句를 단위로 하는 구형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어절형은 조사만을 선행하는 체언에 붙여 쓰는 것이고, 구형은 의존 명사와 선행어, 보조 용언과 본용언,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하나로 묶어 붙여 쓰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빈칸 띄어쓰기는 당시에는 널리 채택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띄어쓰기가 당시로서는 실험적인 성격이 강해서 관료와 대중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서 권점 띄어쓰기는 주시경도 『국어문법』(1910)에서 채용할 정도로 선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원해연(2009: 41-46)에서는 이런 띄어쓰기 및 부호의 사용이 교과서의 난도와 관련을 맺음이 지적된 바 있는데, 『초소』의 권 1, 권 2, 권 3에서 보이는 차이는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띄어쓰기나 모점(、), ”, 권점(°)의 사용은 초학자의 수준을 배려한 조치로 보고 학습자의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이런 문장 부호의 사용은 김병철(1977)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文部省의 ‘°, 、, ”, 『』, 「」’의 부호 용법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의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위 『초소 1』의 예를 실제 원문에서 보면 행이 바뀌는 곳에서 사용되어 있는데,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띄어쓰기를 해서는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행이 바뀌어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을 드러낸 표시라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준환(2013: 84-86)에서는 한 문장 내에서의 띄어쓰기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장 또는 단락을 기준으로 한 띄어쓰기는 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보이며, 피휘의 대상이 되는 것 앞에 空隔을 둔다든지 줄을 바꾸어 擡頭法을 쓰는 양상이 보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를 형태 단위로 하기보다는 의미 단위로 하는 경향이 강함을 드러내 보였다고 하겠다.

다른 문장 부호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원해연(2009)와 이준환(2013: 84-87)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심소』에서 句讀點(오른쪽 아래의 고리점)을 이용하고 있음과, 『국소』와 『소학』에서 소괄호를 쓰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곳에서 쓰인 소괄호의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3] 개화기 교과서에 쓰인 소괄호의 기능

#### (1) 外來語 表示에 사용

(사버덴), (갈리레오), (뎀스江), (하도손), (제세), (이스터), (브로클닌), (바테리), (부루두웨), (버엔), (웰)街, (사우스)街, (바울)(세달)街, (하도손), (華成頓), (짜힐드), (쎄임스아브람), (어하이어)州(오런지)村, (짜힐드), (토마스), (클니브난드), (히람)짜, (오하요)州, 大統領(닝콘), (롱부레인), (자아질)(지류릿터<국소>

#### (2) 提示語 番號를 매길 때 사용

(一), (二), (三), (四), (五)<국소, 소학>

#### (3) 앞말에 대한 註釋을 달 때에 사용

巴黎(法國서울), 一千七百六十四年英祖四十年, 一千七百六十七年(英祖四十三年), 一千七百七十三年(英祖四十九年), 一千七百七十六年(正宗元年)<국소>  
華成頓(名은제어지)<심소>

※ 孟文貞公이<sub>世宗朝左相名思誠</sub>/ 月川趙先生이<sub>名穆</sub>/ 尤菴宋先生이<sub>孝宗朝左相時烈諡名正</sub><소학>

이 중 외래어 표시에 사용된 소괄호는 ‘거론부스, 산술바더, 고린부스, 바도릿구웬리, 마사 제셋도, 버스던’ 등에서처럼 소괄호를 씌우지 않은 것이 적지 않아서 일관성은 떨어지는 면

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소괄호를 이용하여 어종을 표시하고 텍스트 내에서의 역할이나 위상을 나타내고 부가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내용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 표기법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괄호를 이용하여 주석을 다는 방식은 협주를 이용한 『소학』의 제시 방법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이는 『소학』이 전통적인 위인 또는 유학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전통적인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편찬 목적과도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이준환 2013: 87).

그리고 「」의 사용에 대해서는 원혜연(2009: 43)에서 대화 글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함이 서술되어 있다.

#### [14] 개화기 교과서에 쓰인 흘낏표의 기능

不足額을推尋코져흠인가싱각호고「얼마나不足호나」흔즉「不足흠이아니라過額을맞은故로還償호기爲호야왔다」호고代金幾許를還償호는지라°<국어 4:2>

위에서 보듯이 「」는 인용문을 제시하는 데에 사용되어 있었다.

## 6. 전망

### 참고 문헌

- 강남옥(2005), 「<蒙學必讀>에 대한 解題-전통과의 연계성 탐색 및 발행 연도 추적을 더하여-」, 『선청어문』 33,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365-399.
- 김근영(2012), 「개화기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박연호·김근영(2015),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 『교육사학연구』 25-2, 교육사학회, 93-124.
- 김남돈(2009),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국어교육사적 의의」,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5-24.
- 김동욱(2013), 「『牖蒙千字』 研究 - 한국어 독본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부산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논문.
- 김민수(1980), 『신국어학사(전정판)』, 일조각.
- 김병철(1977), 「韓國句讀點起源考」, 『한국학보』 3-4, 일지사, 106-124.
- 김역수(1979), 「개화기의 국어교과서 고찰」, 『어문론집』 14, 중앙어문학회, 7-22.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형철(1999), 「개화기 국어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15-162.

- 남미영(1994), 「개화기의 교과서」, 『교육개발』 통권 90호, 한국교육개발원, 48-51.
- 남영주(2001), 「개화기 국어 표기법 연구 - 개화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안동대 석사 논문.
- 류대영 · 옥성득 · 이만열(1994), 『대한성서공회사 II - 번역 · 반포와 권서 사업』, 대한성서공회.
- 민현식(2007), 「개화기 한글본 《이언(易言)》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국어학』 49, 국어학회, 277-314.
- 朴美和(2007), 「J. S. Gale의 『牖蒙千字』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논문.
- 朴尙均(1997), 「朝鮮朝後期 辭典編纂에 關한 研究 1」, 『국회도서관보』 256, 국회도서관, 3-15.
- 朴尙均(1998), 「朝鮮朝後期 辭典編纂에 關한 研究 2」, 『국회도서관보』 257, 국회도서관, 57-76.
- 박치범(2013), 「학부 발간 『보통학교용 국어독본』(1909) 연구-‘교과서의 위상’에 따른 특징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8, 국제어문학회, 43-72.
- 박치범(2015), 「개화기 독본의 한글 깨치기 학습 자료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37, 123-158.
- 서신혜(2012), 「『초학언문』과 『국문독본』」, 『문헌과 해석』 65, 태학사, 89-102.
- 송미영(2017), 「개화기 국어과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 연구」, 충남대 박사 논문.
- 심은리(1996), 「개화기 국어 교과서 연구: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 『강남어문』 9, 강남대 국문과, 83-113.
- 신유식(2003), 「개화기 국문 표기체계에 대한 연구-단어 표기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7, 한국중원언어학회, 121-143.
- 원해연(2009), 「근대전환기 문장 부호의 사용 양상과 특징」,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윤장규(1992), 「개화기 국어 교과서 표기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이기동(1994가),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현상」, 『한국학연구』 6,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57-179.
- 이기동(1994나), 「갑오경장이 어문 생활에 끼친 영향」, 『새국어생활』 4-4(겨울호), 국립국어연구원, 171-185.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한국문화연구소.
- 이기문(1980), 「19세기 말엽의 국어에 대하여」, 『난정 남광우 박사 화갑기념논총』, 일조각, 255-266.
-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 출판부.
- 이준환(2012), 「池錫永 《言文》의 표기, 음운, 어휘의 양상」, 『국어학』 65, 국어학회, 281-317.
- 이준환(2013), 「개화기 학부 편찬 독본 자료의 언어 양상」, 『어문연구』 16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1-108.
- 이준환(2015), 「『牖蒙千字』에 수록된 한자와 관련 정보에 대하여」, 『구결연구』 34, 구결학회, 237-276.
- 이준환(2016), 「19세기에 편찬된 이중어 사전에 반영된 서양인들의 한국어 음운에 대한 인식」, 『우리말연구』 47, 우리말학회, 111-154.
- 장상호(1981), 「개화기 국어교과서 연구」, 『국어교육논총』 1, 조선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회, 103-162.
-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근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7-54.
- 정길남(1990),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어휘와 표기에 관하여: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 『논문집』, 서울교육대학교, 55-78.
- 정길남(1994), 「갑오경장 전후의 문자 사용 양상」, 『새국어생활』 4-4(겨울호), 국립국어연구원, 130-154.
- 정길남(1999),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수정 증보판), 박이정.
- 정승철(1999), 「개화기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7-59.
- 정승철(2000), 「j계 상향이중모음의 변화」, 『이중모음』, 태학사, 195-222.







#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의 연구 성과 및 전망”에 대한 토론문

배영환(제주대학교)

위 발표문은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나는 표기와 음운적인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연구 전망을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었던 개화기 교과서에 대한 논의 가운데 표기와 음운과 관련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표문이 완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세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틀이나 방향, 그리고 토론자의 평소 생각 등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 생각을 밝히고,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써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의 연구 성과 및 전망”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자도 알다시피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와 다르게 이 발표문에서 중점을 두어 발표하려는 방향이 무엇인지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났으면 합니다. 가령, 본문에서 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여러 변수를 언급하였지만 실제 논의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별로 고려되지 않은 듯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개화기 교과서>라고 했을 때 ‘개화기’와 ‘교과서’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당연한 얘기 같지만 개화기의 시기와 교과서의 범위도 문제이고, 둘의 결합형인 ‘개화기 교과서’가 가지는 국어사적 의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개화기의 시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의 특징을 살펴볼 때는 시기적인 측면과 자료적 측면에서의 특징이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화기’라는 근대국어와 현대국어 사이의 교량적 성격과 ‘교과서’라는 교육적 목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과서’가 가지는 특성은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규범적’이라든지 ‘통일적’이라든지 하는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 시기나 전후 시기의 다른 문헌 자료나 필사 자료에 비해 개화기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표기와 음운을 관통하는 전체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4.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나는 표기와 음운의 연구에서 음운에 대한 논의까지는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표기와 음운의 문제를 따로 떼어서 논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특징적인 음운 현상과 그러한 음운현상이 개화기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논의하기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발표자의 고민도 많았을 듯한데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나는 음운의 양상에는 어떠한 내용을 논의해야 할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5.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법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주된 쟁점은 ‘·’의 문제와 경음의 표기 문제, 그리고 받침의 7종성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받침의 7종성은 기존의 7종성으로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어원형을 밝혀 적는 새로운 표기로 할 것인지가 주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문에서는 다루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6. 교과서의 성격에 따라서도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가 충분하지 않고 아울러 교과서의 성격에 대한 논의의 기준도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890년대에 간행된 교과서와 1900년대 간행된 교과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특징 교과서별로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교과서 편찬 시기, 편찬 주체, 목적 등에 따라 표기법이나 음운적인 특징이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났으면 합니다.

7. 예문을 제시할 때 층위를 분명히 하고 좀 더 세분해서 제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제시되어 있는 상태는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一’관련 표기 양상의 경우 원순모음화 반영과 미반영, 형태소 경계, 양순음 이외 자음 아래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 관련 표기 양상의 경우, 아래아가 관련된 부분이 제1음절인 경우도 있고, 제2음절인 경우도 있지만(예: 마음, 으름답- 등) 발표문에서는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발표문에서는 ‘·’의 사용과 미사용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본래 ‘·’를 지닌 것과 본래 ‘·’를 지니지 않은 것 등으로만 나누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8. 띄어쓰기와 문장부호의 논의에서 개화기 교과서에 최초로 나타나는 띄어쓰기 방식과 유형, 그리고 그러한 방식 들이 교과서별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계통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부분은 여느 부분과는 다르게 기존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어 균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화기 국어교과서 문법의 연구 성과 및 전망

이지영(서강대학교)

## 1. 서론

개화기 국어교과서는 그 자체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는 별도로 개화기의 문법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큰 주목을 받아온 자료는 아니다. 이 시기의 언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 중에는 신소설류와 같은 구어적 맥락을 많이 보여 주는 자료들이 다수 있는 데다가 개화기 교과서의 특유한 문체는 당시의 언어 표현이라기보다 조금은 의고적인 문어투의 언어 표현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탓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기 교과서는 “교과서”라는 어느 정도의 “표준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여기에 드러난 언어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 국어교과서 문법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아세아문화사의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의 국어편에는 모두 17종이 영인·소개되어 있으며,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개화기 국어교과서들 중 몇 종은 최근 경진출판의 간행물들을 통해 영인·소개된 바 있다. 윤여탁 외(2006: 259-260), 이현희(1999: 246-247)에는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국어” 교과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 목록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윤여탁 외(2006: 259-260)에 정리된 <근대계몽기 편찬 국어과 교재>의 목록에는 모두 33종의 국어교과서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중 《국문정리》(1897, 리봉운), 《언문》(1907, 지석영), 《국어문전음학》(1908, 주시경), 《국어철자첩경》(1908, 한승곤), 《대한문전》(1908, 최광옥), 《우순소리》(1908, 윤치호), 《대한문전》(1909, 유길준), 《초등국어어전》(1909, 김희상), 《국어문법》(1910, 주시경) 등은 국어 교과서라기보다 국어문법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며 《초등작문법》(1908, 원영의), 《초등여학독본》(이원금, 1908), 《부유독습》(강화석, 1908)은 이현희(1999: 249-250)에서 한자·한문학습서로 분류되어 있다.<sup>1)</sup> 윤여탁 외(2006: 259-260)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현희(1999: 246-247)에서 국어 독본으로 분류한 자료로는 《숙혜기략》(1895, 학부), 《연설법방》(1908, 안국선), 『유몽회편』(학부편집국, 1895)이 있다. 그런데 《숙혜기략》은 아세아문화사의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에는 수신·윤리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연설법방》(1908, 안국선)은 연설법에 대한 교양서의 성격이 강하다. 『유몽회편』(학부편집국, 1895)은 내용적인 면이나 편제의 면에서 전형적인 개화기 국어교과서와는 차이가 크지만, 유임하(2015: 132-133)에서도 개화기 초등교육의 근간이 되는 국어·수신·작문 교과의 교과서이자 어휘 중심의 독본류 교과서로 보았다.

1) 백순재(1977: 6-7)은 《초등여학독본》이 편찬의 취지나 단일 구성의 면에서 일반적인 독본류, 즉 국어교과서와는 성격이 다른, 수신교과서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 자료의 제목이 “讀本”으로 되어 있고 당시까지 작성된 모든 개화기교과서 목록에서 이를 국어독본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의 <국어편>에 포함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윤여탁 외(2006: 259-260)의 목록을 기초로 하되 국어 문법서와 한자·한문 학습서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한다. 단 이현희(1999: 249-250)에서 한자·한문 학습서로 분류되어 있는 《초등여학독본》과 《부유독습》은 한문과 대비되어 제시된 번역문에서 당시의 언어 모습을 살필 수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개화기 국어교과서가 아니더라도 본고의 검토 대상 목록에는 포함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검토된 개화기 교과서의 목록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5> 본고에서 검토한 개화기 교과서의 목록

연번	서명	저자	발행처(자) <sup>2)</sup>	발행 시기	약호
1	國民小學讀本	學部編輯局	學部編輯局	1895.7.(梧秋)	국민
2	小學讀本	學部編輯局	學部編輯局	1895.8.(仲秋)	소학
3	牖蒙彙編	學部編輯局	學部編輯局	1895.	유몽
4	초학언문 <sup>3)</sup>	Magaret Bengel(존스부인)	미이미교회	1895.	초학
5	新訂 尋常小學	學部編輯局	學部編輯局	1897.2.	신정
6	국문독본	George Herber Jones(조원시)	미이미교회	1902.5.	국문_조
7	初等小學	國民教育會 <sup>4)</sup>	國民教育會, 金相萬, 高裕相, 朱翰榮	1906.12.	초등_국
8	高等 小學讀本	徽文義塾編輯部	徽文義塾印刷部	1906.11.(권1) 1907.1.(권2)	고등
9	普通學校用 國語讀本	學部	韓國政府印刷局* (권1) 大日本圖書株式會社*(권2-6, 권8)	1907.2.(권1-4) 1908.3.(권5-6, 권8)	보통
10	幼年必讀	玄采	玄采, 徽文館*	1907.5.	유년
11	幼年必讀釋義	玄采	玄采	1907.7.	유년_석
12	初等女學讀本	李原兢	邊瑩中, 普文社*	1908.3.	초등_이
13	녀즈독본	張志淵	金相萬, 廣學書舖	1908.4.	여독
14	勞動夜學讀本	俞吉濬	京城日報社*	1908.7.	노동
15	婦幼獨習	姜華錫	李駿求, 皇城新聞社*	1908.7.(권하)	부유
16	最新 初等小學	鄭寅琥	鄭寅琥, 普成社*	1908.7.(권2, 4)	최신
17	국문초학	周時經	盧益亨, 博文書館	1909.2.	국문_주
18	樵牧必知	鄭崙秀	廣德書館	1909.6.	초목
19	新纂 初等小學	玄采	玄采	1909.9.(권1, 3-5) 1909.10.(권2, 6)	신찬
20	初等小學	普成館	普成館	미상	초등_보
21	蒙學必讀	崔在學	미상	미상 <sup>5)</sup>	몽학

2) <표1>의 발행자는 판권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발행자가 명시되지 않고 인쇄소만 명시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별도의 표시(\*)를 하여 인쇄소를 발행자에 넣어 두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개화기 국어교과서 문법에 대한 연구라고 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개화기의 문법 양상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특정 자료로 한정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특정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굳이 개화기 국어교과서라는 특정 자료에 나타난 언어 양상만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개화기 국어교과서 문법에 대한 연구를 한정하기는 난감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화기의 자료와 관련되는 최근의 연구들 중에서 본고에서 살펴본 개화기 교과서에 해당 언어 양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본고에서는 <표1>에 제시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이들 자료에 나타난 문법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개화기 국어교과서라는 특정 자료에 나타난 문법 양상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을 지양하고, 이 자료들에 나타난 문법 양상이 이전 시기로부터 이어지는 문법 변화의 특정 단계에 속한다는 점과 개화기라는 특정 시기의 문법 양상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몇 가지 문제들에 중점을 두어 개화기 국어교과서 문법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문체에 대한 연구

개화기의 문체는 개화기의 여러 언어 현상 중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6)</sup> 이 주제는 비단 국어학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학, 더 나아가 한국학 분야 전체에서 관심을 두어 온 것인데, 이는 개화기 문체의 다양한 변모 양상이 언어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화기라는 시기가 상징하는 소위 “근대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논의의 초점을 국어학 분야로만 한정해 보면 개화기의 문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위 국한문혼용체라는 문체 유형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문체 유형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과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출현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이고, 둘째는 서사문의 종결형 변화와 관련한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2장에서는 이 두 문제를 중심으로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문체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문체의 유형에 대한 연구

우선 개화기의 문체 유형을 살펴본 연구들은 그 유형을 아래의 (1)과 같이 나누고 있다.<sup>7)</sup>

- 3) 《초학언문》(189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판권지는 남아 있지 않은데, 윤춘병(1986)에서는 이 자료가 감리교회(미이교회)에서 출판된 것임을, 송미영(2017)에서는 이 자료가 Magaret Bengel(존스부인)의 저술이며, 배재학당교과서로 쓰였음을 밝혔다.
- 4) 《初等小學》의 표지에는 ‘大漢國民教育會藏板’으로 되어 있는데, 권8의 판권지에는 ‘國民教育會’로 되어 있다. <표1>은 판권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5) 《蒙學必讀》은 판권지가 없어 발행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강남욱(2005)에서는 천도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자료의 발행 시기를 1912년 초에서 1913년 정도로 추정할 바 있다.
- 6) 개화기의 문체에 대한 연구는 엄밀히 말하자면 문법 연구에만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표기, 어휘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화기의 문체에 대한 연구는 한문 문법의 구문과 국어 문법의 구문 간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표기나 어휘와 관련된 지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 7) 아래의 (1)에 정리된 연구들은 개화기의 문체 유형을 논의한 연구들 모두 망라한 것은 아니며 주로

- (1) 가. 이기문(1984): 한문체, 국한문체, 국문체  
 나. 심재기(1992): 한문체 / 국한문체(- 현토체, 직역언해체, 의역언해체) / 국문체(= 한글체)  
 다. 민현식(1994): 현토체(- 어절 현토체, 구결 현토체) / 전통 국한문체 / 한글체  
 라. 홍종선(1996): 문어체(- 국한문체<sup>8)</sup>: 한문구 국한문체, 한문어 국한문체, 우리말 국한문체), 한글체 / 구어체(- 국한문체, 한글체)  
 마. 한영균(2013): 국한혼용문<sup>9)</sup>(- 『神斷公案』류, 『是日也放聲大哭』류, 『西遊見聞』류, 『國民小學讀本』류, 『勞動夜學讀本』류, 기타)  
 바. 이상혁·권희주(2013): 국한문혼용체(- 한문 중심 구결체(현토체), 한문 중심 직역언해체, 국문 중심 의역 언해체) / 한글전용체(= 국문 중심의 한자병용체)

이들 견해는 개화기의 문체 유형을 크게 셋으로, 즉 한문문법을 기반으로 한 문체, 국어문법을 기반으로 한 문체, 그리고 이들의 과도기 유형으로서의 국한문혼용체로 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1라)는 개화기 문체의 변이 양상이 언문일치라는 큰 흐름, 즉 문어에서 구어로 가는 흐름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국한문체나 한글체나 하는 것은 표기 문자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문어체와 구어체를 나누고, 그 세부 유형으로 각각 국한문체와 한글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견해들과는 차이가 있다. (1마)는 이전 연구보다 좀 더 상세하게 국한문혼용체의 세부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이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토체 > 직역언해체 > 의역언해체 > 현대 한국어 문체’라는 발달 과정이 타당하다면 『西遊見聞』류와 『國民小學讀本』류가 『神斷公案』류나 『是日也放聲大哭』류보다 먼저 나타난 이유, 1900년대 이후 『國民小學讀本』류 텍스트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현대 한국어 문체의 발달 과정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문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국한문혼용체와 국문체로 나타나는데, 다음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

인용되는 연구들을 선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화기 문체 유형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 분야가 아니라 국문학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상석(2008)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 8) 홍종선(1996: 35-37)에서 문어체의 국한문체는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한문구 국한문체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구결 단위에 한글로 토를 단 정도의 국한문 표기를 보이는 유형이고, ② 한문어 국한문체는 국어의 통사구조를 가지지만 그 구성이나 선택이 한문식으로 된 단어가 자주 나타나는 문장을 보이는 유형이며, ③ 우리말 국한문체는 15세기 이래로 쓰이던 전통적인 국한문체로 다수의 언해문에서 보이는 유형이다.
- 9) 한영균(2013: 223-224)는 근대개몽기의 국한혼용문을 모두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을 밝혔다. ① 『神斷公案』류는 한문 구문법을 기반으로 하되 국어 문법의 간섭 결과가 섞인 경우, ② 『是日也放聲大哭』류는 국어 구문법이 기본이지만 구문적으로나 어휘적으로 한문 문법의 간섭 결과가 개재되는 경우, ③ 『西遊見聞』류는 구문적으로는 한문 문법의 간섭이 해소되지만 어휘적으로 한문 문법의 간섭 결과가 남아 있는 경우, ④ 『國民小學讀本』류는 ③과 유사한 문체이지만 한문구 용언이 쓰이지 않고 고유어 혹은 한글 표기 한자어가 사용되는 경우, ⑤ 『勞動夜學讀本』류는 ④와 유사하지만 한국에서의 훈독법(訓讀法)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상의 표기 방식이 함께 쓰인 경우, ⑥ 기타는 텍스트별로 독자적 방식에 의한 국한혼용문을 보여주지만 그 방식을 사용한 다른 예들이 유형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경우이다.

(2) 《초등소학》(1906, 국민교육회)

- ㉗ 時에 七八歲쯤 되는 女兒가 其席에 出호야 此를 受호고 大喜호야 家에 歸호더라 <초등\_국 7:22 ㄱ> [= 홍종선(1996: 36)의 (2)]
- ㉘ 國文은 實로 億萬年에 獨立自主호는 表迹이니라 <초등\_국 6:3ㄴ>
- ㉙ 이 아해의 압흔 東이오 뒤는 西이며 또 올은편은 南이오 왼편은 北이올시다 <초등\_국 2:17 ㄱ>
- ㉚ [교사] 너의 학도들은 이 복사를 헤여보아라  
[학도] 한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올시다 <초등\_국 2:9ㄱ-9ㄴ>

(2)에 제시된 예들은 민현식(1994)의 분류를 따르면 ㉗는 구결 현토체, ㉘와 ㉙는 전통 국한문체, ㉚는 한글체일 것이다. 홍종선(1996)의 분류를 따르면, ㉗는 한문어 국한문체, ㉘는 우리말 국한문체, ㉙는 구어체인 국한문체이고 ㉚는 국어체인 한글체일 것이다. 한영균(2013)의 국한문혼용문 기준을 따르면 ㉗와 ㉘는 『국민소학독본』류 문체에 해당되고 ㉙ 역시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혁·권희주(2013)의 분류를 따르면 ㉗는 한문 중심 직역언해체, ㉘는 국문 중심 의역언해체, ㉙와 ㉚는 국문 중심의 한자병용체인 한글전용체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영균(2013), 이상혁·권희주(2013)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한 자료 내에 다양한 문체 유형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초급 교재일수록 국문체에 가까운 모습을, 고급 교재일수록 한문문법을 기반으로 한 문체나 국한문혼용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한영균(2013)을 비롯한 여러 논의에서 지적되었듯이 문체 유형을 나누는 언어적 기준에 따라 문체 유형의 분류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개화기 문체 연구에 있어서 분류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정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체 유형을 통계적으로 살펴 해당 자료의 문체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개화기의 문체 변화 양상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문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다음의 (3)과 같은 예이다.

(3) 《초등여학독본》(1908, 이원금)

- ㉗ 女子大節이 厥有四行호니 一曰女德이오 二曰女言이오 三曰女容이오 四曰女功이라
- ㉘ 너즈의 형실이 넷시 잇스니 일왈 녀덕이오 이왈 녀언이오 슴왈 녀용이오 스왈 녀공이라 <초등\_이 5ㄱ-5ㄴ>

(3)에 제시된 《초등여학독본》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성격이 일반적인 개화기 국어교과서와는 다르며 체제 또한 독특하다. 각 과는 ㉗와 같이 한문원문에 한글구결이 달린 부분과 ㉘와 같이 ㉗를 번역한 부분을 한 칸 아래에 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언해서의 방식과 같다. 이상혁·권희주(2013: 456, 467)에서는 이 자료의 ㉗와 ㉘를 모두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문체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으나<sup>10)</sup>, 이 자료를 개화기 국어교과서로 보고 그 문체를 논한다면, ㉘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한문혼용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sup>11)</sup>

10) 이상혁·권희주(2013: 456, 467)에서는 (3)의 ㉗를 국한문혼용체 중에서도 한문 중심 구결체(현토체)로, ㉘를 한글전용체로 파악하였는데, ㉗가 ㉘보다 선행하며 ㉗의 특성이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라는 점을 들어 이 자료의 전체적인 성격이 중층적인 한문 본위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라고 보았다.

11) 예를 들어 《초등여학독본》과 유사하게 한자·한문 학습서로 볼 수 있는 《부유독습》(1908, 강화석)의 경우 아래의 ㉗와 같이 한자(혹은 한문)이 제시되고 ㉘에 그와 관련되는 번역문(혹은 제시된 한자로 구성될 수 있는 문장)이 제시된다. 이때 《부유독습》의 문체를 논한다고 하면 ㉘만이 대상이

## 나. 서사문의 종결형 변화에 대한 연구

개화기, 그리고 이어지는 20세기 초반의 문체에 대한 고민은 궁극적으로 소위 언문일치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한국문학 분야에서 주목했던 것은 서사문의 종결형이 ‘-더라’에서 ‘-었다’로, 혹은 ‘-라’에서 ‘-다’로 변화해 가는 20세기 초의 양상이었다.<sup>12)</sup> 이 문제는 언어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시제 ‘-었-’의 발달로 인한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기능 변화와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 ‘-라’의 소멸 과정이 문제와 관련된다.

먼저 과거시제 ‘-었-’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17세기 중반에 문법화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에 확립되어 있었고(최동주 1995: 136-144, 이현희 1994: 63-66), 이 과정에서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기능 변화가 나타난다(최동주 1995). 그러나 ‘-더-’의 변화, 즉 비완망상의 의미로부터 ‘과거 지각’의 양태 의미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에서 소위 ‘-더-’의 인칭제약이 발생하게 되는데, 개화기에도 그 예가 많은 것은 아니나 여전히 인칭제약을 위반하는 예들이 발견된다(이지영 1999).<sup>13)</sup>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언어 양상은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변화해 온 셈이다. 그런데 이지영(1999, 2002, 2008)에서 지적되었듯이 20세기 초의 소설과 신문을 보면 종결형이 ‘-더라’에서 ‘-었다’로 바뀌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 즉 소설의 종결형은 1910년대 말 이후 일괄적으로 ‘-었다’형으로 바뀌게 되지만, 신문의 종결형은 1920년대에는 ‘-더라’형과 ‘-다더라’형이 쓰이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었다’형과 ‘-라고 한다’형이 쓰이게 되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해 이지영(2008)에서는 ‘-었-’이 과거 사건에 대한 단언을 표현하는 반면 ‘-더라’는 화자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서술자의 관점, 즉 소설가와 기자의 관점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된다.

㉞ 人不學不如物(물욕지심)

㉟ 사름이 되고 학문을 못하면 더러 물건만 갖지 못함이라

12) 당시 언문일치체를 완성하였다고 자평하던 김동인의 회고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는 가운데도 우리는 얼마나 머리를 썩였슬가. … 첫재 文體 었섯다. 口語體 使用은 무른이엇지만 그 口語體의 程度는? … 물론 그 ‘깨닷갯더라’의 ‘더라’도 口語에 使用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良心은 ‘깨닷갯다’라 하여 徹底히 하여 노치 안흐면 容認치를 못하였다. … 아즉 만히 남겨 잇든 文法體 文章은 우리의 손으로 마춤내 全히 口語體로 變하였다. … 不完全 口語體에서 徹底的 口語體로 - 同時에 가장 귀하고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시픈 것은 敘事文體에 대한 一大 改革이다. … 이러한 만흔 ‘한다’ ‘이라’ ‘-인다’ 등의 現在法 敘事體는 近代人의 날카로운 心理와 情緒를 表現할 수 업는 바를 깨다렸다. 現在法을 使用하면 主와 客體의 區別의 明瞭치 못함을 깨다렸다. 우리는 감연히 이들을 發見할 수 있다. … 讀者는 … 또한 在來의 現在詞를 쓰든 곳이 完全히 過去詞로 變한 것을 發見할 수 있다. [김치흥 편(1984), 『김동인평론전집』, 삼영사, 76-79., 이지영(2008): 73)의 (9)를 부분 인용함]

13) 선어말어미 ‘-더-’의 인칭제약과 관련하여 ‘-더니’, ‘-었더니’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종결형에서 ‘-더-’의 인칭 제약 위반 예들은 개화기 정도까지만 보이지만, ‘-더니’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꽤 보인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에 보이는 이러한 ‘-더니’의 예들에 대해서는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접속어미 ‘-으니’와 ‘-은데’의 축소와 확대 과정을 아울러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교과서에 보이는 몇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가) 닌가 어릴 찌는 怠惰하여 務業에 마음이 업고 或 就業홀 찌도 남을 爲호야 ㅎ는가 矜각호더니 今日 갖지 農業을 힘쓰게 되믄 全혀 魚와 鳥의 賜호 바|라 <국민 1:32>

(나) 내가 지금 천명을 받아 큰 기업을 세우랴 하더니 맛참 이 어진 사람 세슬 만나니 엇지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리오 <국문\_조 55>

(다) 나난 몰낫더니 學童들은 메역의 根本을 다 아난고나 <최신 2:10>



것으로 보았다.<sup>14)</sup>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 ‘-라’의 소멸 과정, 즉 계사의 종결형이 ‘-이라’가 아니라 ‘-이다’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중세국어 이래로 ‘-라’형을 가지던 ‘-더라, -니라’의 경우는 하나의 종결어미로 굳어졌지만, 계사의 종결형 ‘-이라’는 인용절의 ‘-이라고’, 조건절의 ‘-이라면’ 등 몇 예를 제외하면 현대국어에서 ‘-이다’로 남게 되었다.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이라’가 아닌 ‘-이다’형을 볼 수 있는데, 다음의 (4)와 같다.

- (4) 가. 아니다 밋친 사람이 아니라 酒를 飲은 것이다 … 彼兒는 烟草를 먹다가 잡힌 것이다 <초등\_국 5:6ㄱ-6ㄴ>  
 가. 狂人이 아니오 술 醉은 사름이다 … 彼兒는 烟草를 먹다가 잡힌 것이다 <신찬 5:20-21>  
 나. 學校는 휴가다 <보통 1:23>  
 다. 齒가 더러하니 나이 어린 말이다 <최신 2:24>  
 라. 그 장사의 ㅎ는 말삼 네 돈이 내 돈이다 그 농군의 ㅎ는 말삼 네 ㅅ이 내 ㅅ이다 <노동 1:78>

홍종선(2015/2016: 234-235)은 진학문의 번역 작품(『사진첩』, 제홍, 1916)과 창작 작품(『부르지짐(Cry)』, 1917)의 ‘-다’와 ‘-ㅅ다’를 검토하여 ‘-는다, -었다’의 일관된 사용이 진학문의 번역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 권용선(2004)와 조중환의 일본 번안 소설 『장한몽』(1913)과 창작 『속편 장한몽』에서 비슷한 시기의 신소설에 비해 ‘-다’형이 훨씬 많고 이것이 일본 원전 소설의 ‘-た’ 종결형의 영향이라고 본 이희정(2008)의 논의를 인용하여 ‘-다’ 종결형 사용의 성과는 “조중환이나 진학문에서 더 인정받을 만”하고 이것이 “비록 일본어 작품이나 러시아 작품 번역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현대국어 초기부터 시작된 ‘-다’형의 대거 사용이 그 이후 우리의 문어 생활을 지배하는 문장 표현이 되었다면 그 성과는 큰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계사의 종결형 ‘-이다’는 아래의 (5)와 같이 19세기 말에 이미 보이기 시작한다. 이 예들은 앞서 언급한 20세기 초의 러시아 번역 작품이나 일본어 번역 작품과는 무관하다.

- (5) 가. 세지 굴으디 못될 말이다 세상 사름 가는 길은 이러케 험하고 괴롭고 어려운 길이 업는 나라 <천로역정 1:13ㄱ>  
 나. 세계에 머리를 높히 들고 나도 너만한 사름이다 ㅎ고 단날 심각이 엇지 나지 안ㅎ리요 <독립신문(1896/8/1) 논설>  
 다. 올흔 사름 되는 거시 대통령 되는 이보다 영광이다 <독립신문(1897/2/2) 논설>  
 라. 그건 미우 조흔 대답이다 그 외에 다른 일이 더 만히 잇스니 대답ㅎ여라 <독립신문(1897/6/17) 논설>  
 마. 가령 엇던 사름이 엇던 칙을 가르치며 이것이 나의 칙이다 ㅎ를 것 곳ㅎ면 <독립신문(1897/9/28) 논설>  
 바. 판스 티경식씨의 말이 임의 고등 재판소에서 공정 판결한 일이다 ㅎ고 빅퇴ㅎ엿짜니 <매일신문(1898/6/20)>

14) 이 문제를 김병문(2008)에서는 언문일치체가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은 이른바 ‘발화 기원(instance de l’énonciation)’의 소거, 즉 발화자의 흔적을 최대한 지워낸 것이라고 보고 1910년대 이광수의 작품에 나타난 종결 표현을 분석하였다. 안예리(2015)는 김병문(2008)의 ‘발화 기원의 소거’라는 개념을 보도기사에 적용하여 종결 표현의 변화를 살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언어적 변화로서 기사 종결형의 변화, 즉 ‘-이라’형의 소멸과 ‘-이다’형으로의 교체는 이미 언어 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살펴야 할 지점이지만, ‘-이라’형의 소멸이 언어 차용의 문제로 이해될 가능성은 낮을 듯하다.<sup>15)</sup> ‘-더라’형과 ‘-엇다’형의 문제는 이미 언어 변화가 완료된 상황에서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한 언어 표현의 선택 문제였던 것과 달리, ‘-이라’형과 ‘-이다’형의 문제는 언어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형과 신형의 관계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듯하다.

개화기의 문체 문제를 계량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본 연구도 있다. 안예리(2014)는 문체와 종결어미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검토했는데, 표기체(- 국한문체, 순한글체)와 사용역(- 국한문체, 순한글체)에 따라 종결어미의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는 인상적으로만 서술되었던 문체와 종결어미의 상관관계, 예를 들면 국한문체의 경우 좀 더 의고적인 문장 구성과 표현 방식이 나타난다는 식의 서술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sup>16)</sup> 그러나 표기체와 사용역의 구분이 좀 더 정밀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으며,<sup>17)</sup> 교과서는 표본에 따라 종결어미의 선택 양상에 큰 차이가 보인다는 기술, 즉 “서술문에 ‘-으니라, -느니라, -논지라’ 등 하대의 종결어미를 사용한 교과서에서는 ‘-느이다’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24쪽)라고 한 기술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고찰이 좀 더 요구된다. 또한 이 문제를 교과서가 다른 사용역에 비해서 필자 개인의 문체가 더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의 관점, 예를 들면 심재기(1992: 187-188)에서 교과서의 특징으로 본 “강화적 저술(講話的 著述)”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15) 굳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언어학 이외의 분야에서 종결형 ‘-이다’가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형태로 언급되곤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법 요소의 차용은 어휘의 차용보다는 좀 더 드물게 보고된다. 국어학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법 요소의 차용 예는 아마도 주격조사 ‘-가’가 일본어 ‘-か’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일 것이다. 이 가설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으로서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김현주(2016: 23)에서는 “그럼 시작해 볼까나?”와 같은 예를 들며 이 예의 ‘-까나’가 “가벼운 의문”의 의미를 가지는 일본어 ‘-かな’의 차용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사전에는 ‘-을까나’가 아니라 ‘-을거나’로 등재되어 있다(☞ 해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어떤 의사에 대하여 자문(自問)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에 쓰는 종결 어미.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다. ㉠ 이 과자를 내가 먹을거나? / 내일이 식목일인데 화초라도 심을거나. 『표준국어대사전』). 구어 상황에서 ‘-을까나’를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긴 하지만, ‘-을까나’는 ‘-을거나’와 동일한 의미와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을거나’의 기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소훈(2017: 182)에서는 ‘-을까나’를 ‘-은다나, -으려나’와 같은 소위 비환원형 어미류와 연관시켜 보기도 하였다.

16) 안예리(2014)의 연구 결과는 13쪽의 <표2>에 제시되어 있는데, 각 사용역의 상위 분포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기체	사용역	종결어미
순한글체	소설	‘-지, -는다, -소, -오’ 등
	보도	‘-다더라, -라더라, -는다더라, -더라’ 등
국한문체	논설	‘-로다, -노라, -라, -은가, -으리오’ 등
	교과서	‘-으니라, -느니라, -느이다, -논지라’ 등

17)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구축한 말뭉치에 포함된 교과서는 10종인데, 이들은 각주 (12)의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표기체의 측면에서는 국한문체, 사용역의 측면에서는 교과서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표기체는 “표기 문자에 따른 문체”(8쪽)인데, 주지하다시피 같은 자료 내에서 한자가 표기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기도 하고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한자가 표기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자료를 국한문체로 단정 짓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의 말뭉치에 포함된 자료 중 《초등소학》(1906, 국민교육회)에 대해서 이상혁·권희주(2013: 467)는 국한문혼용체와 한글전용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체로 파악한 바 있다.

### 3. 문법에 대한 연구

개화기의 문법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는 꽤 진척되어 있다. 국어사 전반을 다룬 일반적인 개론서에서도 이 시기의 문법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개화기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법을 논한 연구들도 상당히 있다. 김동연(1999)과 민현식(1999)는 개화기의 형태와 문법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인데, 정길남(1990, 1996, 1997), 김형철(1987, 1997), 홍종선(1994), 권재일(2005), 이지연 외(2008)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이외에 홍종선 외(2000ㄱ, 2000ㄴ, 2000ㄷ)에 실린 일련의 연구들은 1894년~1910년을 현대국어 형성기로 보고(홍종선 2000) 개화기의 자료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개화기의 문법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려대 구어 말뭉치: 20세기 전반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일련의 연구 성과들이 홍종선 외(2016, 2017)에 실려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일련의 연구들은 연구 대상이 되는 말뭉치에 수록된 자료의 특성상 개화기, 즉 1910년 이전보다는 1920-30년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sup>18)</sup>,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참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흐름들을 보면 개화기라는 특정 시기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부터 그 전후의 시기로 넓혀 개화기의 언어 양상을 통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로 확장되어 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모두 검토하고 세세한 주제들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여기서는 최근 연구 성과가 있거나 여전히 고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몇몇 주제로만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자높임법의 체계에 대한 연구

청자높임법에 대한 연구들 중에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꽤 있지만, 개화기의 청자높임법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연구도 꽤 있다. 여기서는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보다는 개화기의 청자높임법 체계에 대한 문제와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나는 종결어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개화기의 청자높임법 체계에 대해 언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하소서체를 합쇼체와 구분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고영근 1974ㄱ/1989, 이경우 1998, 민현식 1999, 김의수 2000, 박진완 2000, 강지영 2007, 홍종선 2016 등), 하소서체를 설정하지 않고 합쇼체만을 설정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민현식 1984, 신호련 2010, 김정호 2012 등).

하소서체를 설정한 연구들에서 그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많지 않은데, 고영근(1974ㄱ/1989: 256)은 합쇼체의 형태론적 표지는 ‘-ㅂ-’이고 하소서체의 형태론적 표지는 ‘-이-’이므로 이 두 등급이 형태론적으로 구별된다고 보았다.<sup>19)</sup> 그러나 같은 필자의 일련의 연구들에서 하소서체가 문어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영근(1974ㄴ/1989)에서는 “形式을 止揚한 用法 중심의 작업을 전개”(360쪽)한다고 하여 하소서체를 합쇼체와 구분하여 논의하지

18) 오재혁(2016: 62)에 제시된 <표1: ‘고려대 구어 말뭉치: 20세기 전반기’에 수록된 자료 현황>을 보면 1900년-1945년의 <유성기로 들던 무성 영화>가 있는데, 1910년대 이전의 것이 얼마나 수록되어 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19) 형태론적인 분석을 중시한 고영근(1974ㄱ/1989)은 존비법을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 하소서체, 해체, 해요체, 하지체, 하지요체’의 9개로 나누었다.

않고 드물게 대화에 나타나지만 대부분 기도문, 서간문, 조사 등에 국한된다고 하였을 뿐이다(382쪽). 이경우(1988)에서는 하소서체를 설정한 이유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중세 국어에 존재하던 하소서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져 가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한다”(33쪽)는 설명을 통해 개화기 이전의 흐쇼셔체가 개화기의 하소서체로 이어지고 그와는 별도로 하소서체보다는 한 등급 낮은 합쇼체가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지점은 청자높임법의 등급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시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청자높임법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고찰한 이승희(2007)는 청자높임법의 등급과 등급형식을 구분하고 있는데<sup>20)</sup> 이에 따르면 19세기의 청자높임법 체계에서 ‘흐느이다’체와 ‘흠니다’체는 모두 ‘높임 등급’에 해당된다. 즉 이경우(1998)에서 별도의 청자높임법 ‘등급’으로 구분한 하소서체와 합쇼체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이 대표하는 종결어미를 모두 높임 등급의 ‘등급 형식’으로 본 것이다.<sup>21)</sup>

이러한 점을 볼 때 하소서체를 청자높임법 등급으로 설정하려면 하소서체와 합쇼체의 사용 맥락이 다른가, 즉 이들이 별도의 청자높임법 등급으로 이해되어야 할 만큼 다른 사용 맥락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명시하여 개화기의 청자높임법을 분석한 연구는 이경우(1998), 강지영(2007)인데<sup>22)</sup>, 이들에서 하소서체는 합쇼체가 쓰이는 관계에서 쓰이지만 그 비율은 합쇼체보다 좀 더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소서체와 관련하여 이들이 주목한 관계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로서,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쓰는 하소서체의 비율이 자식의 입장에서 쓰는 하소서체의 비율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높임법이 문법적 현상이라기보다 화용론적 현상이고 이때 맥락에 작용하는 요소가 단순히 성별, 사회적 지위, 연령 등 사회언어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개인적 특징, 담화 맥락의 특징, 신소설 작가의 특징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sup>23)</sup> 주로 신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개화기 청자높임법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여도 소설이라는 가상공간 안에서의 청자높임법 사용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소서체와 합쇼체를 별도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용례를 제시한 민현식(1999: 189)에서도 하소서체와 합쇼체가 같은 대상을 두고 쓰이기도 하여 하소서체를 합쇼체와 반드시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 점이나 약 20여 년에 불과한 개화기에만 높임 등급을 둘로 나누어 하소서체와 합쇼체를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할 때 개화기 국어에 하소서체를 설정하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 이승희(2007: 33-36)은 ‘등급’을 화자가 자신과 청자의 상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청자에 대한 대우 정도가 나뉘는 것이고 ‘등급 형식’은 각 등급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형태들의 무리라고 하였다. 이는 청자높임법의 등급 명칭이 해당 등급의 명령형을 기준으로 명명된 결과 빚어지는 불필요한 혼란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21) 이승희(2007)에서는 청자높임법의 등급을 전통적이 방식의 명령형 종결어미로 명명하지 않고 평서형 종결어미로 명명한다. 따라서 이 논의의 ‘흐느이다’체는 기존의 하소서체에, ‘흠니다’체는 기존의 합쇼체에 해당된다. 또한 <국문정리>(1897)의 ‘어토 명목’의 기술을 바탕으로 19세기 후반에 ‘-네다(<-네다)’ 등이 높임 등급을 표시하는 형태소로 인정되었다고 하였다(258쪽).

22) 이들은 신소설을 대상으로 청자높임법을 분석하였다. 이경우(1998)는 16종의 신소설을 분석하였다고 하였는데, 『홍도화』와 『고목화』를 상·하권으로 각각 세었으므로 총 14종인 셈이다. 그런데 화·청자의 관계를 통해 청자높임법을 살펴보는 4장에서는 『귀의성』(상), 『화의혈』, 『목단화』, 『빈상설』, 『홍도화』(상, 하), 『추월색』, 『옥호기연』 등 6종만을 제시하고 있다. 강지영(2007)은 이경우(1998)에서 다룬 16종을 제외한 신소설, 즉 『귀의산』, 『금강문』, 『두견성』, 『명월정』, 『송뢰금』, 『안의성』, 『화의혈』 등 7종을 다루고 있다.

23) 강지영(2007: 32)에서는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에게 일반적으로 해라체를 사용하지만, 상황 요인에 의해 위계가 역전된 상황도 있음을 지적하며, 『화의혈』에서 상위계층인 이도사가 걸인 행세를 하면서 하위계층인 기생 모란에게 합쇼체만을 사용하는 예를 보였다.

## 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최근의 개화기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특정 종결어미를 청자높임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론적 구성으로부터 종결어미로 발달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여기서는 이 두 흐름을 개괄하기보다는 몇몇 문제에 집중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청유형 ‘-옵시다’와 관련된 문제를 보자. ‘-옵시다’는 근대국어 시기의 ‘-옵사이다’에서 형성된 것이므로(권재일 1998:46, 장윤희 2005: 325-236) 소위 ‘-습니다’류의 어미들처럼 ‘-옵사이다 > -옵새다 > 옵시다 > -(으)옵시다’ 정도의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화기 교과서에서 이와 관련된 용례들은 다음의 (6)에서 보듯이 ‘-옵시다, -시옵시다, -(으)옵새다, -(으)옵시다’로 나타난다.<sup>24)</sup>

- (6) 가. 우리는 개암이처럼 항상 부지런히 일을 흐옵시다 <초등\_국 2:9 >  
 나. 우리들은 暫時도 게으르게 마시옵시다 <신정 4:5 >  
 다. 술을 먹으며 물을 지어 볶새다 <부유 상:33 >  
 라. 우리 本分 직합시다 <유년 2:17 >

(6가)의 ‘흐옵시다’와 (6나)의 ‘마시옵시다’는 화자 겸양의 ‘-옵-’이 드러나 있는 형태이고 (6다)의 ‘볶새다’와 (6라)의 ‘갑시다’는 ‘-옵-’이 ‘-ㅂ-’으로 축소되어 있는 형태이다.

개화기 교과서에서 이들 형태가 사용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7) 가. 智信이 이욕키 잇다가 그 方法을 生覺하야 니얏다 흐옵노이다 우리들도 쏘흔 智信과 긋치 그 方法을 生覺흐옵시다 <신정 2:37 >  
 나. 世上에 소경이 잇슴은 兒孩들도 다 알야 보오 그러나 두 눈이 밝은 소경도 世上에 잇노이다 … 이런 슝름을 俗談에 눈 쓴 소경이라고 일은다 호오 … 우리들은 暫時도 게으르게 마시옵시다 <신정 4:5 >-5 >  
 나’. [李童] 어대에 가시오 金君  
 [金童] 지금 학교에 가노이다 군은 어대에 가오 학교의 시간이 거진 되얏소 함기 학교로 갑시다 <초등\_국 5:3 >  
 다. 여보 더 소나무가 霜雪을 지내여도 葉이 枯凋치 안이하고 … 우리도 被松갓치 … 歷史上에 靑靑한 事業을 成就하압시다 <최신 2:25-26 >  
 다’. 누님 저긋서 펄펄 날니난 국긋 보시오 우리 남매도 학도인대 느젓소 어서 갑시다 <최신 1:51-52 >  
 라. 여러분 당신네가 어려서 배호지 못흔 싸닭으로 今日[오날] 此[이] 노동이지오 … 어린 아

24) 개화기 교과서에 청유형어미로 ‘-새’도 보인다(㉠ 밥 지어 먹고 공부하여 보새 <부유 상:20>). 종결어미 ‘-새’는 ‘-니, -데’ 등과 그 기원이 함께 논의되어 온 어미인데, 이에 대해서는 ‘-노이다 > -노이다 > -니이다 > -니’와 같이 ‘-이다’의 절단으로 ‘-니’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입장과 선어말어미 ‘-노-’와 종결어미 ‘-이/의’의 결합에 의해 ‘-니’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이승희(2007: 103-106), 장윤희(2012: 73-76) 참조). ‘-이다’의 절단으로 보는 입장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결어미 ‘-이/의’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되었고, 다만 여기서는 종결어미 ‘-이/의’를 설정하는 입장에 대한 반론을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니, -데’의 경우는 선어말어미 ‘-노-, -데-’가 분석될 수 있고 그것이 종결어미 ‘-이/의’와 결합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이다’의 경우 ‘-사-’를 ‘-노-, -데-’처럼 분석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니, -데’의 경우와 ‘-새’의 경우를 동일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좀 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해를 가라쳐서 자란 후에 彼[데]가 버리<sup>ㅎ</sup>야 데가 살게 ㅎ시오 … 그 지긋지긋한 생애를 또 아달에게까지 물녀주라 ㅎ십잇가 … 당신네 子弟[자데]들을 잘 가라쳐 가지고 몇 백년 붓그러움을 써서 뵈시다 <노동 1:47-49><sup>25)</sup>

(7가)는 합쇼체가 쓰인 맥락에서 ‘-옵시다’가, (7나)와 (7나’)는 합쇼체와 하오체가 쓰인 맥락에서 각각 ‘-시옵시다’와 ‘-뵈시다’가, (7다)와 (7다’)는 하오체가 쓰인 맥락에서 ‘-뵈시다’가, (7라)는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가 쓰인 맥락에서 ‘-뵈시다’가 사용되어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개화기 교과서 안에서는 (7가)와 같이 합쇼체와 ‘-옵시다’가 쓰인 유형이 가장 많고 (7나, 나’)이나 (7다)와 같은 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6라, 라’)과 같은 유형이 가장 적다.<sup>26)</sup>

이 형태들과 관련하여 화자 겸양의 선어말어미가 ‘-옵-’인가 ‘-뵈-’인가 하는 점이 이들 형태의 청자높임법 등급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견해는 없는 듯하다.<sup>27)</sup> 그러나 이들 형태의 청자높임법 등급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고영근(1974ㄱ/1989), 이경우(1998), 김동언(1999), 강지영(2007) 등에서는 합쇼체로, 고영근(1974ㄴ/1989), 민현식(1999), 김의수(2000), 박진완(2000)<sup>28)</sup>, 신효련(2010) 등에서는 하오체로 보고 있다.<sup>29)</sup>

이에 대해 장윤희(2012: 71)는 “20세기 초에 형성된 아주 높임의 ‘-옵시다’가 곧 하오체의 자리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sup>30)</sup>, 이는 ‘-옵시다’의 형성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형태적인 측면이나 이승희(2007)에서 지적한 19세기 하오체의 특징을 고려할 때 개화기에서 ‘-옵시다’류의 어미들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이승희(2007: 271-279)에서는 18세기까지 자식이 부모에게 ㅎ느이다체 이외의 등급 형식을 사용한 예는 보기 어려웠는데 18세기 이래로 하오체는 대개 ㅎ느이다체와 함께 쓰이는 예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대국어의 하오체가 형태·의미 기능 면에서는 18·19세기의 ㅎ오체를 계승한 것이지만 사용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였다.<sup>31)</sup>

25) (7라)에서 한자 옆의 [ ] 안에 독법을 병기한 것은 일본의 ‘후리가나’(한자 옆에 독법을 표시하는 글자를 적음)의 방법을 표시한 것이다(이기문 1984: 78-79). 원문에는 [ ] 안의 독법이 한자 좌측에 써 있다.

26) 맥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7가)와 같이 합쇼체와 ‘-옵시다’가 쓰인 유형은 13회, (7나, 나’)과 같이 합쇼체, 하오체와 ‘-옵시다, -뵈시다’가 쓰인 유형은 각각 7회, (7라)와 같이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와 ‘-뵈시다’가 쓰인 유형은 2회이다.

27) 이런 점에서 개화기 명령형의 “하소서체와 합쇼(하십시오)체는 ‘-옵/옵/오-’의 차이로 구별한다”고 한 민현식(1999: 192-193)의 설명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하소서체의 예로 ‘마옵소서’를, 합쇼체의 예로 ‘참옵십시오’를 들고 있어서 이 설명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에서도 ‘마소서’와 ‘마옵소서’가 청자높임법의 등급이 다르다고 본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명령형어미의 청자높임법 등급 결정에 ‘-옵/옵/오-’의 유무가 관여적인 것이라면 청유형어미의 경우는 왜 관여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화자 겸양의 선어말어미 ‘-옵-’이 청자높임법의 등급에 관여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는 이승희(2007: 148-157)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ㅎ옵느이다’는 ‘ㅎ느이다’와 구별되는 등급으로 볼 수 없지만 ‘ㅎ옵니’는 ‘ㅎ니’보다 한 층 더 높은 별도의 등급이라는 점을 사용자의 차이를 통해 주장하였다.

28) 박진완(2000: 265)에서는 하오체의 새로운 종결어미라 하여 ‘합시다, 맏시다, 잡습시다’를 제시하였으나 268쪽의 <표3>에서는 합쇼체와 하오체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어미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본문의 설명을 중시하여 박진완(2000)에서 해당 형태를 하오체로 본 것으로 처리하였다.

29) 고영근(1974ㄴ/1989: 372-374)에서는 ‘-뵈시다’는 하오체로만 쓰이고, ‘-뵈디다, -뵈디까, -뵈닌다, -뵈닌다’류는 하오체로 쓰이지만, 단순한 하오체라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쇼체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고영근(1974ㄱ/1989)의 설명과 다른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고영근(1974ㄱ/1989)는 형태론적인 분석을 중시하고 고영근(1974ㄴ/1989)은 용법을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 본고는 각각의 연구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따로 제시하였다.

30) 장윤희(2012: 71)의 <표4>에는 ‘합시다’가 20세기의 꽤 높임 등급, 즉 하오체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 표의 20세기는 개화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에 인용한 설명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9세기와 20세기 초의 하오체의 위상, 그리고 소위 ‘-습니다’류의 어미와 유사한 형태 축소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어미들의 청자높임법 등급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치밀하게 살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습니다’류 어미의 청자높임법 등급과 관련한 문제도 ‘-읍시다’의 문제와 유사하다. ‘-습니다’류에 대해 고영근(1974ㄱ/1989), 이경우(1998), 박진완(2000), 강지영(2007) 등은 합쇼체로, 고영근(1974ㄴ/1898), 김의수(2000), 신효련(2010) 등은 하오체로 분류하고 있는데, 개화기 교과서에서 ‘-습니다’류는 다음과 같은 예를 확인할 수 있다.

(8) 가. 누구라서 勞動[로동]이 천헌 일이라 흐읍디까 <노동 1:45>

나. 당신네 버리 업는 새에 錢[돈] 一分[한푼] 그져 썬여 주는이 잇삽디까 <노동 1:50>

다. 우리 물건이 몇 가지나 잇삽디까 <노동 1:85>

라. 龍得이가 … 그 母親의 告訶되 산에 었던 놈이 我를 송내니는 故로 我가 辱訶앗더니 그 놈도 我를 辱訶<sup>ᄃᆞ</sup>읍디다 <신찬 3:62>

라’. 룡복이 … 그 어머니의 告訶여 갈아대 산속에 누가 썬 제 목소래와 갖치 흥내내고 썬 나 다려 욕하디이다 한대 <국문\_조 15>

라’’. 龍福이 … 그 어머니의게 告訶야 갈오디 산속에 숨어서 남의 訶는 말을 송니는 사람이 잇서 날다려 辱訶엿습는이다 <신정 2:33ㄴ>

(8가, 나, 다)의 예는 하오체와 해요체가 쓰이는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8라)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인데, 종결형이 제시된 경우는 ‘-읍디다’뿐이어서 해당 맥락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내용을 실은 다른 자료에서 (8라’, 라’’)과 같이 합쇼체의 어미가 쓰인 점이 참고된다.

본고에서 참고한 개화기 교과서의 예만을 본다면 ‘-습니다’류의 어미는 하오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를 확대한다면 상황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강지영(2007: 7-9)에서는 신소설 자료의 ‘-습니다/습디다’가 어떤 사용자 관계에서 쓰였는지를 조사하였는데, 하소서체와 합쇼체가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17관계, 합쇼체와 하오체의 비율이 비슷한 경우는 2관계, 하오체를 위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3관계, 해요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10관계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지영(2007)에서는 ‘-습니다’류가 합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sup>32)</sup>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읍시다’류 어미와 ‘-습니다’류 어미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개화기의 하오체의 성격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한데, 개화기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개화기의 문법에 대해 현대국어의 문법을 여과 없이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현대국어의 사전류에서 ‘-읍시다’와 ‘-습니다’를 하오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여기에 영향을 주는 듯하다. 문제는 개화기의 언어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개화기

31) 이승희(2007)에서는 《국문정리》(1897)의 <어토명목>에서 ‘흙시다’가 높임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예와 《남원고사》(1864년 경)의 ‘-읍시다’를 訶는이다체, 즉 합쇼체로 제시하였다.

가. [동소] 흙시다 訶세 訶자 [= 이승희(2007: 258)의 (4)]

나. [운봉 수령 → 변사또] 우리네가 냥반을 디접 아니 訶고 뉘가 訶단 말이온잇가 … 여보오 본관 직담 말고 여초성연의 풍월귀나 흐읍시다 <남원 5:23ㄴ> [= 이승희(2007: 270)의 (13ㄱ)]

32) 강지영(2007)도 앞서 각주 (22)에서 언급하였듯이 상당히 제한된 목록의 신소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 때문에 개화기의 ‘-습니다’류 어미의 용례들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후의 시기, 즉 18-19세기나 1920-40년대의 언어 양상과 연계시켜 살펴보려는 태도보다는 현대국어, 즉 현재의 언어 양상을 연계시켜 살펴보려는 태도가 더 많다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sup>33)</sup> 아울러 ‘-읍시다’류 어미와 ‘-습디다’류 어미가 형태적으로는 ‘-습니다’류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음에도 왜 ‘-읍시다’류 어미와 ‘-습디다’류 어미만 청자높임법 등급이 낮아지고 ‘-습니다’류 어미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들은 ‘-넌다, -넌시스’이다. 이 예들은 개화기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9) 가. [고문=유길준] 여보 나라 위하야 일하오 또 사람은 배오아야 합니다

[노동자] 곱압소 그리 호오리다 <노동 삽화>

나. 여호가 … 가마귀다려 호는 말이 當身 소리는 참 아름다운지라 아무커나 한번 소리를 들  
 넙시스고 하니 <신찬 2:46-47><sup>34)</sup>

나’. 한 여호가 … 가마귀를 향하여 말하되 그디의 소리는 참 아름다운고로 그디의 소리를 한  
 번 들고자 호오니 곳 소리를 한번 하여 들려 주시옵소서 하니 <국문\_주 31-32>

(9가)의 ‘-넌다’는 ‘-습니다’류 어미와 유사한 과정, 즉 ‘-습느니다>-습느니다 / 습니  
 니이다>-습니다>-넌다>-넌다’ 정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개화기의 다른 자  
 료에서는 ‘-습디다’류 어미도 보인다. 이 어미는 합쇼체의 원칙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는데(고영근 1974ㄱ/1989, 1974ㄴ/1989), 이 형태의 ‘-ㄴ-’이 원칙법의 ‘-니-’에서 축소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형태가 개화기 자료에서 주로 하오체와 어울려 쓰이며 이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방언형으로 강릉 방언의 ‘-넌깡’, 진도 방언의 ‘-넌자, -넌  
 단자’와 같이 의문형이 있다는 점은 이 어미가 합쇼체의 원칙법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이  
 지영 2003). 원칙법은 정의상 의문형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9나)의 ‘-넌시스’는 합쇼체의 명령형어미인데, 개화기 자료에서는 인용절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인용절에 쓰이는 것으로 쓰임이 축소되었다. 이 어미는 합쇼체의  
 명령형어미 ‘-쇼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그 형성 과정은 명확하게 밝혀지  
 지는 않은 듯 않다.<sup>35)</sup>

개화기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흐름은 통사론적 구성으로부터  
 종결어미로 발달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초기에는 현대국어의 직관으로 추정될 수

33) 1930년대의 서울 방언을 가장 잘 구현한 것으로 알려진 《천변풍경》을 대상으로 청자높임법을 연  
 구한 박정임(2008)에서는 허십시오체, 허우체, 허오체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허우체는 청자가  
 상위자, 하위자일 때뿐만 아니라 지위가 비슷한 경우에 두루 사용되고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며 해  
 요체와 함께 쓰이는 반면, 허오체는 청자가 하위자일 때만 사용되며 소원한 관계이거나 격식적인 경  
 우에 사용되며 해요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28-32쪽). 이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읍시다’류  
 어미와 ‘-넌디다’류 어미는 허우체에 해당된다.

34) 이 예는 《신정 심상소학》에서도 ‘-넌시스’로 나타난다. ㉮ 여호가 … 가마귀를 向하야 말하되 當  
 身 소리는 참 으롭다운지라 아무커는 한번 소리를 들넙시스고 하니 <신정 1:24ㄴ-25ㄱ>

35) 이소훈(2017: 25-26)에서는 ‘-넌시스’가 ‘-시어’의 축약 형태인 ‘-사’에 선어말어미 ‘-습-’, ‘-시-’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 ‘샤>사’의 변화에 따라 중세국어 이래의 선어말어미 ‘-시-’  
 와 접속어미 ‘-아’의 결합형인 ‘-샤’가 ‘-사’로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에 다시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된 ‘-시스’의 예들이 보이는 것은 ‘-사’가 일종의 재구조화를 겪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넌시스’  
 가 이러한 접속어미 ‘-사’와 관련이 있는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있는 종결어미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현대국어의 반말체 어미들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sup>36)</sup> 최근에는 통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짐에 따라 개화기 자료에서 종결어미화 과정의 근거가 되는 사례들이 제시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근대국어 자료들까지도 보충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단순히 형태론적 과정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특히 양태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하는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개화기의 자료를 포함시켜 논의한 경우의 몇 예를 들면, ‘-은지’와 ‘-을지’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고찰한 이지영(2008L), ‘-은걸’과 ‘-을걸’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고찰한 최동주(2009), 이민(2012), 이금희(2013), 이지영(2017L)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개화기의 종결어미화 과정을 고찰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소훈(2017)이다. 여기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자료를 대상으로 선어말어미 결합형 종결어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통사적 구성의 종결어미화를 논의하고 이들의 양태 의미까지도 살펴보고 있다.

#### 다. 인용 구문에 대한 연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용구문의 두 유형은 다음의 (10)에 제시된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10가)의 유형이 번역 과정에서 비롯된 문어적인 것이며 (10나)의 유형이 구어적인 것으로서, 통시적으로 보면 (10가)에서 (10나)로 발달하였다고 설명해 왔다.<sup>37)</sup> 이 두 유형의 인용 구문은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10가㉔)와 (10나㉔)에서 보듯이 여전히 확인된다.

(10) 가. [NP<sub>1</sub>이 V-오디 S] 유형

㉔ 須達이 또 무로디 [엇테 쥬이라 흥늑닛가] <석상 6:18>

㉔ 그 동모 순길이가 와서 말흐되 [정길아 저기 과목 밧헤 아모도 업스니 가서 림금을 짜오 너라] <초등\_국 2:32>

나. [NP<sub>1</sub>이 S V] 유형

㉔ 方便으로 늑드려 [이 내 아드리라 니르디 아니코] <월석 13:19>

㉔ 그 중에 智成이란 兒孩가 … [나논 卽今 그 구멍에 들어가서 제기를 가지고 나올 벗을 講하야 왔다] 흥고 말흐며 <신정 2:3>

그런데 인용구문의 유형 중에는 근대국어 시기부터 나타나는 [NP<sub>1</sub>이 V-기를 S] 유형도 있다. 이현희(1994: 76-77, 2007: 33-34), 안주호(2003), 권재일(2005: 186-191)는 개화기 자료를 대상으로 이 유형이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다음의 (11)과 같이 이 유형의 인용 구문이 보인다.

(11) 가. 그 모친이 잠간 희롱에 말노 하기를 [너를 주리라] 하다가 <국문\_조 20>

나.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오리 배속에 金알이 만흔 터이니 한 썩에 다 쓰어내깃다] 흥고 <초등\_국 2:23L>

36) 이에 대해서는 한길(1991), 안주호(1997), 박재연(1998, 2006) 등의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37) 정연주(2015: 51-54)는 (10가)는 번역투의 문체를 가지는 것으로, (10나)는 일상적인 문체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두 유형의 관계를 통시적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안주호(2003)의 논의를 비판한 바 있다.

- 다. 한 암담이 여러 병아리다려 일느기를 [멀니 썩나가지 말라] 흐얏소 <초등\_국 2:26>  
 라. 우으로서 쳐분히시기를 [일절 명부는 모도 잔치에 참여하라] 히시매 <여독 상:46-47>  
 마. 한 어린 학심이 … 말히기를 [나도 어서 일어나서 남에게 지지 안케 글을 읽겠다] 히고  
 <국문\_주 26>

이지영(2017)에서는 (11)과 같은 인용 구문 유형이 17세기부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sup>38)</sup> 이 유형이 중세국어 시기의 [NP<sub>1</sub>이 V-오물 ADV 히-] 유형이 확산된 것으로서 명사형어미 ‘-옴’이 ‘-기’로 교체되면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 논의에서 주목한 것은 인용동사가 선행하는 인용 구문 유형, 즉 [NP<sub>1</sub>이 V-오디 S] 유형을 번역 과정에서 비롯된 문어체적인 것에만 국한시킨다면, 역시 인용동사가 선행하는 인용구문 유형인 [NP<sub>1</sub>이 V-기를 S] 유형이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점이었다. 이에 [NP<sub>1</sub>이 V-오디 S] 유형은 인용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한다는 의미론적 유효성을 접속어라는 통사적 장치로 해소하는 유형으로 보고 이러한 유형이 의사소통 맥락에서 드러나는 특정 표현 효과, 즉 해석의 능률을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 유형과 마찬가지로 인용동사가 인용절에 선행하는 유형인 [NP<sub>1</sub>이 V-기를 S] 유형도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출현한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19세기 이후 나타나는 [NP<sub>1</sub>이 V-은데 S 히-] 유형은 중세국어 이래의 [NP<sub>1</sub>이 V-오디 S] 유형에서 접속어미가 ‘-은데’로 바뀐 유형으로서 현대국어까지 이어지는 것인데<sup>39)</sup>, 이 유형 역시 [NP<sub>1</sub>이 V-기를 S]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인용구문의 유형 중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유형으로 [NP<sub>1</sub>이 V-는 말이 S (히-)] 유형 혹은 [NP<sub>1</sub>의 말이 S (히-)] 유형이 있다.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12)와 같은 예들이 확인되며, 같은 시기의 다른 자료에서도 (13)과 같은 예들이 확인된다.

- (12) 가. 쥐 어미 대답히는 말이 [어어 이 원 말이냐 … 너 오기를 참 잘 히얏다] <신정 1:13 L><sup>40)</sup>

38) 이지영(2017): 72-76)에서 제시된 인용구문의 [NP<sub>1</sub>이 V-기를 S] 유형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김순보기 니르옴기를 [오라바님이 초시를 묻히면 일가의 큰 병환이 있고 초시옷 히시면 일가의 병환이 업고 도홀라 히더라] 히오니 <곽씨 124>  
 (나) 흥문이 스스로 날으기를 [원췌 흥가 사름이 저를 식여 이 일을 히고 월혜의 췌는 오직 고상궁이 안다] 히더이다(興文自言 院洞洪姓人 使渠作此 而月惠之謀 唯高尚宮知之云矣) <속명 1:9L-10>  
 (다) 우리 부친이 님종의 니르시기를 [경공을 잘 섬기라] 히시더니 <태상 4:51L>  
 (라) 김가가 황 동지 마누라 도라간 뒤에 슬몹이 흥계가 나서 혼췌 궁리히기를 [젠장할 것 … 니 지수가 한번 대통홀 터이지] 히고 <화세계(1910)>

39) 이지영(2017): 77-79)에 제시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가) 췌 신유 녹월의 계스를 히는디 [숙데의 동기가 무비 녀종이라] 히여시니 <한중록 546>  
 (나) 정경원 씨가 법부에 보히엿는디 [노름군 리흥오가 김락서 흥당을 차서 닷시를 걸니다 죽엿다]고 히엿더라 <독립신문(1896/5/21)>  
 (다) 누가 그러는디 [나를 만나면 룽혈포 한 기를 선사한다더라네] <송뢰금(1908)>  
 (라) 려관 주인이 그러는데 [병호 씨는 어제스밤 차에 식골로 내려가섯대요] <읍혈조(1923)>  
 (마) 방송 기자가 그러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여 농성을 해야 뉴스 시간에 방영이 될 수 있대요] <통도사 가는 길(1992)>  
 (바) 어떤 놈이 그러던데 [우리가 뭐, 베이비붐 세대라면서?] <마이너리그(2001)>

- 나. 거북이 하는 말이 [천하 나모를 다 깨어도 능히 나를 삶지 못하리라] 한대 <국문\_조 13>  
 다. 히당화꽃을 쓸 압해 심거 노코 흐는 말이 [바람아 부지 마라 이 뜻히 찌러지면 명년 삼  
 월 엿지 기다려] <부유 상:37>  
 라. 花童이 가기 실은 모양으로 갖다와서 한낱 말이 [업세오] 하거날 <최신 3:29>

- (13) 가. 또 내 말이 [나긋치 천하고 악흔 몸이 엿지 감히 밋겠느냐] 흔즉 디답흔 말이 [아무 상  
 관도 업스니 쥬씩셔 분부히시기를 무론 엿던 사름이던지 다 나를 갖가히 흐라 흐섯느니  
 라] 하고 <천로역정 2:174ㄱ-174ㄴ>  
 나. 화적 십여명이 … 또 흐는 말이 [네 동니 사름 중에 누가 요부흔 거슬 ㄱ르치라]고 무슈  
 란타 흐매 … 도적의 말이 [우리가 삼천 냥을 빼앗지 못흐면 네가 물어주마는 표지를 쓰  
 라] 흐야 벗어갔다 하니 <독립신문(1896/4/21)>  
 다. 그 첩이 무료흐야 흐는 말이 [이러흔 괴악흔 놈의 집에서는 살 슈 업다] 하고 <매일신문  
 (1898/4/27)>  
 라. 교장 아편설나씨가 학도들을 디흐야 권학흐는 말이 [금년은 ㅁ음을 더 견실이 흐야 공부  
 를 부즈런이 하고 … 크게 상급을 주겠노라] 하니 <협성회회보(1898/2/5)>  
 마. 그 잇튼날 형역들이 다시 쓰거온 물을 뿌리며 흐는 말이 [네 비교헝기썩지 이러케 이삼  
 십년을 니여 흐겠노라] 흐거늘 <경향보감(1906) 1:24>

위의 예들에 보이는 [NP<sub>1</sub>이 V-는 말이 S 흐-] 유형 혹은 [NP<sub>1</sub>의 말이 S 흐-] 유형은 일종의  
 기사문 혹은 분열문과 유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데<sup>41)</sup>,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  
 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국어의 예에서도 위의 예들과 유사한 예가 보인다.<sup>42)</sup>

- (14) 가. 나중에 서울로 돌아와 그가 평양에 대한 인상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은 말이 [거리 곳  
 곳에 구호가 그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였다.  
 나.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다. 처음 인사말을 할 때 나는 우물쭈물 단 위에 서서 그만 한다는 말이 [저는 여러분을 많  
 이 많이 사랑하겠노라]고 해 버렸다.  
 라. 밤중에 그 집 주인이라는 자가 나타나 보고는 이 놈이 안 죽었구나 하며 물방앗간에 처  
 넣으며 하는 말이 [내일 처치하자] 하더랍니다.  
 마. 삼촌이 하는 말이 [넌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봐라, 넌 얼굴이나 성격을 봐서 부

40) 이 예는 《국문초학》(주시경, 1909)에는 ‘그 어미가 디답흐되 [어이 이것이 웬 말이나 … 네가 와서  
 물어보기를 참 잘흐엿다]’ <국문\_주 27-28>로 되어 있다.

41)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인 최윤지(2016, 2017)에서는 준분열문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예가 “자연발생 구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소 비표준적인 성격을 가지는 구성으로, 분열된 성분이 전  
 체 기사문의 한 성분으로 내포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화행을 표현하고 문법적으로  
 는 독립된 주절의 지위를 가진다”(최윤지 2017: 281)고 하였다. 본고의 (12)와 (13)에 제시한 예는 이  
 들 중 (나)와 성격이 유사해 보인다.

(가) 이번 발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구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어떤 비표준적인 통사 구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나) 진짜 어이없는 게 왜 불넷을 세 개나 주고 투수를 바꾸냐?

42) (14)의 예는 <현대한국어용례검색기>(http://riksdb.korea.ac.kr/)에서 추출한 것이다. 예문의 출전  
 은 순서대로 제시하면 (14가)는 『월간중앙 4월호』(중앙일보 J&P, 2000.), (14나)는 『동아일보 2003년  
 기사: 문화』(동아일보사, 2003.), (14다)는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김영희, 디자인 하우스, 1992.),  
 (14라)는 『가을에 만난 사람』(박완서, 제3기획, 1990.), (14마)는 『이사 가던 날』(이오덕 엮음, 창작과  
 비평사, 1991.), (14바)는 『영원의 뱃길』(함석헌 전집 19)』(함석헌, 한길사, 1985.)이다.

모님을 닮은 곳이 있나? 넌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을 거다] 하고 말을 했다.  
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첫 마디에서부터 걸려 버린다] 그래요.

(14가)는 계사문에, (14나)는 분열문에 해당되는 구조를 가지지만, (14다~바)는 앞의 (12)나 (13)과 같은 구조이다.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14다~바)는 (14가~나)와 같은 구조에서 계사나 '~것이다'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즉 (14가~나)가 더 근원적인 구조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시적으로는 현대국어적인 주술 호응의 관점에 맞지 않는 문장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 결론

본고는 21종의 개화기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최근의 문법 연구의 성과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개화기 교과서는 방대한 개화기 자료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데다가 최근에는 개화기 교과서라는 특정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 시기에 대한 문법 연구 성과들을 망라한 것이라기보다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화기의 문법 연구들 중 개화기 교과서의 언어 양상이 중요한 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개화기 교과서의 문법 연구를 크게 문체에 대한 연구와 문법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체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문법 연구의 성격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이들 연구 중에서도 문법과 관련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문체의 유형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문체 유형의 분류 기준이 좀 더 정밀화되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 문체의 발달 과정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서사문의 종결형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더라'형과 '-엇다'형의 서사 장르에 따른 교체 양상, '-이라'형과 '-이다'형의 교체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의 교체 양상이 문체의 혁신과 관련하여 주목 받아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시의 언어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문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개화기의 청자높임법 체계에 대한 연구인데, 특히 하소서체의 설정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청자높임법의 체계에서 등급의 설정은 등급 형식이 가진 형태론적 측면보다는 사용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소서체의 설정이 재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읍시다'류와 '-습디다'류 어미에 대한 연구를 살펴면서 좀 더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개화기의 청자높임법 체계에서 하오체의 성격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닌다'류와 '-니시스'류의 어미가 형태론적으로 좀 더 고찰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개화기의 자료를 대상으로 종결어미와 과정을 고찰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셋째는 인용 구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인용 구문의 두 유형, 즉 [NP<sub>1</sub>이 V-오디 S] 유형과 [NP<sub>1</sub>이 S V] 유형 외에도 17세기에 나타나는 [NP<sub>1</sub>이 V-기를 S] 유형과 19세기 말에 나타나는 [NP<sub>1</sub>이 V-은데 S ᄃ-] 유형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 유형의 형성 과정과 새로운 유형의 출현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밖에 [NP<sub>1</sub>이 V-는 말이 S (ᄃ-)] 유형 혹은 [NP<sub>1</sub>의 말이 S (ᄃ-)] 유형도 인용 구문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앞으로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 강남옥(2005), 「<몽학필독(蒙學必讀)>에 대한 해제 -전통과의 연계성 탐색 및 발행연도 추적을 더하여-」, 『선청어문』 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365-399.
- 강지영(2007), 「20세기 초기 국어 상대경어법의 등급과 실현 양상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근(1965), 「현대국어의 서법체계에 대한 연구 - 선어말어미의 것을 중심으로 -」, 『어학연구』 15,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고영근(1989: 143-224)에 재록]
- 고영근(1974ㄱ),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고영근(1989: 246-301)에 재록]
- 고영근(1974ㄴ),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고영근(1989: 359-400)에 재록]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용선(2004),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권재일(2005), 『20세기 초기 국어의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동연(1999), 「개화기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61-114.
- 김병문(2008), 「발화기원 소거로서의 언문일치체의 의미에 관하여: 이광수의 1910년대 작품의 경우」, 『사회언어학』 16-2, 한국사회언어학회, 81~103.
- 김성택(1986), 「강릉지방의 방언 연구」, 『방언학연구논문집: 강원도편』 4-1, 흥문각.
- 김의수(2000), 「현대국어 대우법의 형성과 변천」,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2: 통사』, 박이정, 131-212.
- 김정호(2012), 「발화 상황에 따른 국어 청자 높임법의 사용 양상 -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 『우리말글』 55, 우리말글학회, 23-44.
- 김치홍 편(1984), 《김동인평론전집》, 삼영사.
- 김현주(2016), 「중세·근대국어 주격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23, 국어사학회, 7-32.
- 김형철(1987), 19세기 말 국어의 문체·구문·어휘의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 민현식(1984), 「개화기 국어의 경어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5-149.
- 민현식(1994), 「개화기 국어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1, 국어국문학회, 37-61.
- 민현식(1999), 「개화기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163-234.
- 박재연(1998), 「현대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정임(2008), 「《천변풍경》에 나타난 서울방언의 상대경어법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완(2000), 「현대국어 종결어미의 변천」,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1: 음운·형태』, 박이정, 235-308.
- 백순재(1977), 「《초등어학독본》 해제」,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2, 아세아출판사, 6-7.
- 송미영(2017ㄱ), 개화기 국어과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미영(2017), 「초간본 《초학언문》의 표기와 음운 현상 고찰」, 『국어학』 84, 국어학회, 239-273.
- 신효련(2010), 「근대계몽기 국어 의향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1992), 「개화기의 교과서 문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81-194.
- 안예리(2014), 「20세기 초기 종결어미의 분포와 용법 - 표기체와 사용역을 중심으로 -」, 『시학과 언어학』 28, 시학과 언어학회, 7-29.
- 안예리(2015), 「보도기사 전언(傳言) 종결 표현의 변화 - 발화기원의 소거와 “-다더라”에서 “-다”로의 변화 -」, 『한국어학』 66, 한국어학회, 161-187.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연구』, 한국문화사.
- 안주호(2003), 「인용문과 인용표지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10-1, 담화·인지언어학회, 145-165.
- 오재혁(2016), 「20세기 초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국어의 문법적 특징」, 『현대 한국어 구어의 형성과 변천 I』, 한국문화사, 57-81.
- 유임하(2015), 「『유몽휘편』과 문자 문화의 우주관 - 소중화주의와 아동교육 입문 -」, 『소학독본·유몽휘편』, 경진출판, 125-133.
- 윤여탁 외(2006), 『국어교육 100년사 I』,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춘병(1986), 『한국감리교 도서출판 백년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교육국.
- 이경우(1998), 『최근세국어 경어법 연구』, 태학사.
- 이금희(2013), 「종결어미 ‘-(으)ㄴ걸’, ‘-는걸’과 ‘-(으)ㄴ걸’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 특성」, 『한국어 의미학』 42, 한국어의미학회, 111-139.
- 이기문(1984), 「개화기의 국문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65-84.
- 이민(2012), 「구어체 종결 표현 ‘-을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혁·권희주(2013), 「근대계몽기 ‘국어교과 독본류’의 문체 연구 -학습자와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6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소흔(2017),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희(2007),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근대 교과서 백년, 다시 새 세기를 넘어』, 대한교과서.
- 이지연 외(2008), 「근대 계몽기의 격조사 목록과 기능 연구」,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학회, 107-141.
- 이지영(1999), 「선어말어미 ‘-더-’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02), 「서사시제에 대하여 - 서사의 현재시제를 중심으로 -」, 『朝鮮語研究』 1, 朝鮮語研究會, 147-166.
- 이지영(2003), 「‘-넌다’류와 ‘-넌다’류에 대한 문법적 고찰」, 『국어학논집』 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9-24.
- 이지영(2008), 「문법사적 관점에서 본 일제 시기 언어의 몇 문제」,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57-92.
- 이지영(2008), 「‘-은지’와 ‘-을지’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3, 국어학회, 113-140.
- 이지영(2017), 「‘-기를’ 인용구문의 발달과 인용구문 유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우리말 연구』 50, 우리말학회, 59-83.

- 이지영(2017ㄴ), 「‘-은걸’과 ‘-을걸’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 의미학』 57, 한국어 의미학회, 21-48.
-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57-81.
- 이현희(1999), 「개화기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235-279.
- 이현희(2007), 「19세기 초기부터 20세기 초기까지의 한국어는 어떤 모습이었나: 주로 문법사적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1-40.
- 이희정(2008),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매일신보』』, 소명출판.
- 임상석(2008),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 과정』, (주)지식산업사.
- 장윤희(2005), 「현대국어 문법 요소와 통시적 정보」, 『국어학』 45, 국어학회, 313-336.
- 장윤희(2012), 「국어 종결어미의 통시적 변화와 쟁점」, 『국어사연구』 14, 국어사학회, 63-99.
- 정길남(1988),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인칭대명사에 관하여」, 『인산 김원경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인산 김원경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533-540. [= 정길남(1997)에 재록]
- 정길남(1990), 「개화기 교과서와 초기 국역 성서의 격조사 연구」, 『한국교육논총』 2,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33-63. [= 정길남(1997)에 재록]
- 정길남(1996), 「개화기 교과서의 종결어미 연구」, 『한국초등교육』 8-1,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93-112. [= 정길남(1997)에 재록]
- 정길남(1997),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 박이정.
- 정길남(2004), 「개화기 교과서의 존대법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9-55.
- 정연주(2015), 「‘하다’의 기능에 대한 구문 기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정례(1992),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20: 진도 단골 채정례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동주(2009), 「종결어미 ‘-르걸’의 기능과 문법적 특성」, 『국어학』 54, 국어학회, 225-250.
- 최윤지(2016), 「구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어떤 통사구성에 대하여: 준분열문」, 『국어학』 79, 국어학회, 187-237.
- 최윤지(2017), 「한국어와 영어의 비표준적 준분열문 대조 연구」, 『국어학』 84, 국어학회, 275-318.
- 최전승(1996), 「아주낮춤의 종결어미 ‘-르다’와 예사낮춤의 ‘-르세 / -르시 / -시’의 형성과 방언적 발달」, 『선청어문』 2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95-327.
- 한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 한영균(2013), 「근대계몽기 국한혼용문의 유형·문체 특성·사용 양상」, 『구결연구』 30, 구결학회, 219-256.
- 홍종선 외(2000ㄱ),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1: 음운·형태』, 박이정.
- 홍종선 외(2000ㄴ),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2: 통사』, 박이정.
- 홍종선 외(2000ㄷ),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3: 문체·어휘·표기법』, 박이정.
- 홍종선 외(2016), 『현대 한국어 구어의 형성과 변천 1』, 한국문화사.
- 홍종선 외(2017), 『현대 한국어 구어의 형성과 변천 2』, 한국문화사.
- 홍종선(1994), 「개화기 교과서의 문장과 종결어미」, 『한국학연구』 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81-211.

- 홍종선(1996), 「개화기 시대 문장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33-58.
- 홍종선(2000), 「현대국어의 시대 구분과 시기별 특징」,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2: 통사』, 박이정, 9-28.
- 홍종선(2009), 「20세기 국어 문법의 통시적 변화」,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35-61.
- 홍종선(2015), 「현대국어 초기 구어체의 실현과 문학적 수용」, 『한국언어문학』 92, 한국언어문학회, 33-61. [= 홍종선 외(2016: 241)에 재수록]
- 홍종선(2016), 「한국어사에서 20세기 초 한국어의 위상과 문법 특징」, 『현대 한국어 구어의 형성과 변천 1』, 한국문화사, 11-32.



# “개화기 국어교과서 문법의 연구 성과 및 전망”에 대한 토론문

이승희(상명대학교)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는 특정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특정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굳이 개화기 국어교과서라는 특정 자료에 나타난 언어 양상만을 논의하지는 않는다”라는 전체 하에 그간 개화기 문법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몇몇 주제, 즉 문체의 유형과 서사문의 종결형, 청자높임법 체계와 몇몇 종결어미, 인용구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발표자의 이러한 고민과 선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바이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의문이 가는 점이 몇 가지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의 임무를 갈음하고자 한다.

1. 1장에서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윤여탁 외(2006: 259-260)의 목록을 기초로 하되 국어문법서와 한자·한문 학습서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한다. … 《초등 여학독본》과 《부유독습》은 한문과 대비되어 제시된 번역문에서 당시의 언어 모습을 살필 수 있으므로 … 본고의 검토 대상 목록에는 포함하기로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개화기 국어교과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국어문법서’를 국어교과서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국어문법서’와 ‘국어교과서’를 분리하여 전자를 제외한 기준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설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2. 2장과 3장에서 개화기 문법 연구의 주제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해당 문법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2.2. 서사문의 종결형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더라’에서 ‘-엇다’로, ‘이라’에서 ‘이다’로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는데, 특히 전자의 경우는 소설과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만을 다루었고 ‘교과서’에서는 ‘-더라’와 ‘-엇다’가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3.1. 청자높임법의 체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신소설을 자료로 한 20세기 초 청자높임법 체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기술하였는데 ‘교과서’를 자료로 한 청자높임법 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언급되지 않았다(이는 아마도 ‘국어문법서’를 교과서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인다). 또한 ‘3.2.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중에서 “통사론적 구성으로부터 종결어미로 발달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화기 교과서에 이러한 문법화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개화기 국어 자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문체의 유형이나 서사문의 종결형, 인용 구문 등이 갈래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다만 '교과서'로 한정하여 문체나 종결형, 인용 구문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듯하다. 발표자의 과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이 논문에서 개화기 교과서의 문법 양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다. 그러나 내용의 이해를 위해 간략한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2.2.에서 '이라'가 '이다'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이라'가 아닌 '-이다'형을 볼 수 있"다고 예를 제시하였는데, 이 외에도 교과서에 '이라'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라'와 '이다'의 빈도 차이는 대략 어떠한지 함께 기술되었다면 '개화기 교과서의 문법'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심도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개화기 교과서 어휘의 연구 성과 및 전망<sup>1)</sup>

신중진(한양대학교)

## 1. 서론

현대와 가장 가까운 과거가 소위 ‘개화기’이다. 우리 민족사에서 이 시기는 세계사의 주류에서 크게 뒤쳐지면서 열강들에 의해 의도치 않은 영향을 받고 격변하였던바, 현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시기였다. 국어사에서도 개화기국어는 음운, 문법 특히 외세의 영향으로 어휘에서 현대국어와 다른 모습을 꽤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기국어는 현대국어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국어라서인지 늘 국어사의 뒤꼍에서 그 어떤 시기보다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다가 차츰 현대국어의 모태가 되는 개화기국어에 대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문체나 어휘(한자어) 혹은 주시경 등의 국어학 선각자들을 조명하면서 그 외연이 넓어졌다. 또 이 시기의 자료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면서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들을 중심으로 신소설, 성경, 문법서, 교과서 등이 일찍이 영인되거나 최근에는 전산화되기도 했다. 자연히 신진연구자들과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 학술학회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 시기에 알려진 국어 교과서 목록은 이현희(1999:246~247)에 정리되어 있다. 해당 기간은 대략 15년 동안이지만 한국의 개화기라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국어 교과서가 많이 편찬된 것은 아니다. 이현희(1999:246~247)를 그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895년: 國民小學讀本(학부 편찬, 국한문 혼용체)·小學讀本(학부 편찬, 국한문 혼용체)· 孺蒙彙編(유몽휘편, 학부 편집국, 국한문 혼용체)
- 1896년: 新訂尋常小學(학부 편찬, 국한문 혼용체)
- 1903년: 樵牧必知(정운수 저, 국한문 혼용체)
- 1906년: 初等小學(대한국민교육회 편찬, 권 1`2는 순국문체, 권 3~6은 국한문 혼용체)· 幼年必讀(국한문 혼용체)· 高等小學讀本(휘문의숙 편찬, 국한문 혼용체)·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학부 편찬, 국한문 혼용체)
- 1907년: 幼年必讀(현재, 국한문 혼용체, 한자음 傍書)· 幼年必讀釋義(현재 편술, 국한문 혼용체)·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학부 편찬, 국한문 혼용체, 권 1~4(1907): 권 5~8(1908)]
- 1908년: 勞動夜學讀本(유길준 저, 혼독식 표기)· 最新初等小學(鄭寅琥 저, 국한문 혼용체)·

---

1) 학회로부터 기획 주제의 제목을 받았다. 이 글의 제목이 그것이다. 두 가지 세부 요청 사항도 있었다. 하나는 현재까지의 개화기 교과서 연구 성과를 살펴봐 달라라는 것이었다. 이 요청 사항은 부여한 제목의 내용이기 때문에 중설이다. 다른 하나는 개화기 국어 교과서에 한정하되, 1894~1910까지 제한하여 살펴봐 달라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참으로 고마운 요청 사항이다. 왜냐하면 교과서의 종류도 한정해 주었고, 대상 시기도 상당히 좁혀 주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가급적 두 번째 요청에 충실하여 연구 성과물을 찾고 어휘의 연구물을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분석하려 한다. 그리고 전망과 관련된 글의 마지막 부분은 학회 발표장에서 토론자 선생님과 청중석에 앉아계실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서 다시 정리해 볼 참이다.

녀주독본(장지연 편집, 순국문체, 한자 傍書)

1910년: 樵牧必知(정윤수 저, 순국문체) · 新纂初等小學(현재 저, 국한문 혼용체)

1895년에 3종, 1896년에 1종, 매년 이어지지 않고 1903년에 1종, 1906년에 4종, 1907년에 3종, 1908년에 3종, 1910년에 2종이 소개되어 합계가 17종으로 파악하였다. 한국학문헌연구소(1977)의 국어 편(1~8)를 참조하면, 1908년에 初等女學讀本(이원금, 국어 편2),<sup>2)</sup> 蒙學必讀(최재학, 국어 편2), 婦幼讀習(강화석, 국어 편8)<sup>3)</sup> 등이 비록 한문 교과서이지만 국문을 포함하는 문체와 교과서의 성격이나 제목의 특성상 목록에 추가될 수 있겠다. 더 정확한 자료 현황은 한영균 선생님의 금일 발표에서 자세히 드러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1895년부터 1910년까지 소위 개화기에 간행된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를 연구한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 현황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주제의 더 많은 연구물들이 있겠으나 대다수의 주요 연구물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되고, 여기서 제공하는 목록이 이 분야의 전체 연구물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소 조심스러워서 검색의 핵심어를 ‘개화기 교과서→개화기 국어 교과서→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로 초점화하면서 목록을 작성하되, 중복적으로 검증하면서 최종 연구물을 추출한다. 그리고 그 연구물을 직접 확인하여 검토 분석한 결과가 3장이다. 3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어종/품사 연구, 신어/차용어 연구, 기타 어휘 연구로 세분화하여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한다. 4장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되, 개화기 국어 교과서 및 그 어휘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망한다. 5장을 결론으로 삼고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2. 개화기 교과서 어휘 연구 현황

개화기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어휘를 연구한 현황을 살피기 위해 학술연구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Riss를 이용한다. 연구물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색이 더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연구 동향과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은 충분히 살필 수 있다는 판단에서 Riss에서 검색되는 연구물만 정리하기로 한다.

### 2.1. 개화기 교과서 연구

우선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놓치는 연구물이 없도록 검색 범위를 넓혔다. 그래서 검색창에 ‘개화기 교과서’로 검색해 보았다. 이 사이트의 상세 검색창에 ‘개화기 교과서’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로 884건이 목록화되었다. 다음은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단행본에 따른 건수를 보여준다.

#### (1) ㄱ. 학위논문 163건

---

2) 1908년 이원금(李原兢)이 짓고 변영중(邊瑩中)이 발행한 초등학교 한문교과서. 한문에 토를 달고 순국문으로 풀이하였다. 가정에서 여성의 순종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순국문으로 된 풀이는 띄어쓰기 대신 쉼표를 찍어 표시하고 있는데, 띄어쓰기 방법이 오늘날 한글맞춤법과 거의 일치한다. 비록 문체는 한문 번역체로 된 생소한 문장이지만, 표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보이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3) 1908년 강화석(姜華錫)이 지은 아동 및 여자교육용 한문교과서이며 하권의 상단은 2자식(二字式)의 한자속어를 사용하였으며, 하단은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여 역사·시사 등의 문제를 취급하는 색다른 편제를 취하였다. 특히 하권 하단에 실려 있는 국한문혼용문은 가사체로 되어 있어서 일정한 운율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ㄴ. 학술지논문 181건
- ㄷ. 단행본 529건

(1)에서 알 수 있듯이, 단행본,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순으로 검색 건수가 드러났다. 특히 단행본이 유난히 많았다. 그런데 이 수치들은 허수이다. 동일한 검색어로 확인했지만 특히 단행본 건수에는 검색 범위(신뢰할 수 있는 목록의 범위)가 넓게 잡혀서 황당한 책들도 목록에 들어 있다. 상대적으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검색 범위가 안정적이었지만 크게 보아서 단행본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원문보기>를 활용하여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유관한 연구물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

- (2) ㄱ. 학위논문 15건
  - ㄴ. 학술지논문 12건
  - ㄷ. 단행본 2건<sup>4)</sup>

(2)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물들이 (1)의 결과와 반대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단행본 순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개화기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물들인바,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를 연구한 직접적인 연구물(개화기 국어 여자용 교과서 표기 및 어휘 분석,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 표기법 연구, 개화기 교과서의 어휘연구-1890년대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등)들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에 한정하지 않는 연구물(개화기 국어교육 연구,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등)과 어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물(개화기 국어 교과서 표기법 연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 2.2. 개화기 국어 교과서 연구

다음으로 검색어를 좁혀보았다. 검색창에 ‘개화기 국어 교과서’로 검색해 보았다. 이 사이트의 상세 검색창에 ‘개화기 국어 교과서’를 키워드로 입력한 결과, 321건이 목록화되었다. 다음은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단행본에 따른 건수를 보여준다.

- (3) ㄱ. 학위논문 47건
  - ㄴ. 학술지논문 58건
  - ㄷ. 단행본 213건

(3)에서 알 수 있듯이, (1)과 마찬가지로 단행본,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순으로 검색 건수가 드러났다. 여전히 단행본을 중심으로 검색에 허수가 많았다. 모두 <원문보기>를 활용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별된 건수는 다음과 같다.

- (4) ㄱ. 학위논문 4건
  - ㄴ. 학술지논문 5건

4) 기타 건수에서 유관하더라도 당시 자료의 영인본이 대부분이었다. 가령, 국어독본, 신찬초등소학, 초등소학, 국민소학독본, 한국 개화기 교과서 총서 등이 목록화되었다. 본 연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행본으로 검색된 사례는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정길남 1999),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연구(박영섭 1993)뿐이다.

㉔. 단행본 2건<sup>5)</sup>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연구물이 잠정적으로 11건에 불과한 셈이다.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5) ㉓. 개화기 국어 여자용 교과서 표기 및 어휘 분석(백진선, 2014)
  - ㉔. 韓國 開化期 教科書에 보이는 日本漢字語 研究(김창렬, 2009)
  - ㉕.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표기법 연구 : 『여자독본』을 중심으로(김윤진, 2007)
  - ㉖. 개화기 교과서의 어휘연구 : 1890년대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정도세, 1999)
  - ㉗. 개화기 국어 어휘(김형철, 1999)
  - ㉘. 개화기 국어의 부사에 관한 연구 : <개화기 교과서>를 중심으로(임유종, 1998)
  - ㉙. 개화기 국어 교과서 연구 :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심은리, 1996)
  - ㉚. 한자어 비교분석연구 : 개화기교과서와 현 중고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박영섭, 1992)
  - ㉛.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와 표기에 관하여 :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정길남, 1990)
  - ㉜.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정길남, 1997)
  - ㉝. 開化期 教科書에 나타난 語彙研究(박영섭, 1993)

(5㉓~㉕)은 학위논문의 주제들이고 (5㉖~㉘)은 학술지논문에 수록된 주제들이며, (5㉙, ㉚)은 단행본으로 검색된 제목들이다. 개화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어휘를 연구한 성과는 연대순으로 보았을 때, 1990년대 초중반에 박영섭(1993), 정길남(1997)에 의해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내내 학술지논문으로 드물게 성과가 발표되었고, 2000년 들어서면서 최근까지는 주로 학위논문으로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보인다. 구체적인 주제별로 살펴보면,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경우도 있지만 당시의 표기 경향과 함께 어휘를 살핀 경우도 있으며, 특별히 개화기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어에 주목하여서 연구한 결과물도 있다. 한편 임유종(1998)처럼 품사 범주 중에 부사를 중심으로 개화기 어휘를 고찰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뿐만 아니라 개화기 국어 어휘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부터이며, 그 시작은 박영섭(1993), 정길남(1997)의 성과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난다.<sup>6)</sup> 개화기 교과서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성과들이 많고 크게 진전되었지만,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를 중심으로 연구한 성과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2.3.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 연구

마지막으로 검색어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춰 더 좁혀보았다. 검색창에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로 검색해 보았다. 이 사이트의 상세 검색창에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를 키워드로 입력한 결과, 85건이 목록화되었다. 연구 검토 대상 자료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여기서 목록화

5) 단행본 검색에서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와 표기에 관하여 :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정길남 1990:55~78)도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물이지만 사실 단행본이 아니라 학술지논문이며, Riss에서 학술지논문 검색에서도 중복으로 검색되기도 해서 단행본 목록에서는 빠졌다.

6) 실제로는 그 분들과 그 분들의 제자들에 의해 연구 성과가 이어지고 있었다.

된 결과와 (5)와 비교하면서 중복되거나 빠진 자료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보고서 수준의 건수를 뺀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단행본에 따른 건수를 보여준다.

- (6) ㄱ. 학위논문 14건
  - ㄴ. 학술지논문 12건
  - ㄷ. 단행본 56건

이번에는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순으로 건수가 검색되었다. 단행본의 검색에 허수가 여전히 많았다. <원문보기>를 활용하여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별된 건수는 다음과 같다.

- (7) ㄱ. 학위논문 6건
  - ㄴ. 학술지논문 6건
  - ㄷ. 단행본 2건

‘개화기 국어 교과서’로 검색했을 때보다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로 검색했을 때에 의외로 검토 대상 연구물이 더 많이 추출되었다. 즉 그 원문을 확인해 본 결과,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로 검색했을 때 본 연구 대상이 더 정교하게 목록화된 셈이다. 한편 (5)에서 특별히 삭제되어야 할 연구물은 없었다. 다만 수치가 말하듯이, (5)에서 놓친 연구물 3건이 최종적으로 추가되었다. 학위논문에서 2건, 학술지논문에서 1건이 추가된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최종 검토 대상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 (8) ㄱ. 개화기 국어 여자용 교과서 표기 및 어휘 분석(백진선, 2014)
  - ㄴ. 韓國 開化期 教科書에 보이는 日本漢字語 研究(김창렬, 2009)
  - ㄷ.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표기법 연구 : 『녀자독본』을 중심으로(김윤진, 2007)
  - ㄹ. 개화기 교과서의 어휘연구 : 1890년대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정도세, 1999)
  - ㅁ. 개화기 국어 교과서 연구 : 『新訂尋常小學』을 중심으로(심은리, 1995)
  - ㅂ. 開化期 國語教科書 研究 : 학부 편찬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장상호, 1982)
- (9) ㄱ. 개화기 국어 어휘(김형철, 1999)
  - ㄴ. 개화기 국어의 보사에 관한 연구 : <개화기 교과서>를 중심으로(임유종, 1998)
  - ㄷ. 개화기 국어 교과서 연구 :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심은리, 1996)
  - ㄹ. 한자어 비교분석연구 : 개화기교과서와 현중고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박영섭, 1992)
  - ㅁ.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와 표기에 관하여 :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정길남, 1990)
  - ㅂ. 開化期 國語教科書 研究(장상호, 1981)
- (10) ㄱ.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정길남, 1997)
  - ㄴ. 開化期 教科書에 나타난 語彙研究(박영섭, 1993)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 동향과 관련된 전반적인 특징이 (5)를 살펴보면서 언급된

바가 있다. 여기서는 4건의 추가 연구물을 포함한 특징을 종합 정리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를 국어 교과서에 한정할 때, 단권에 대해 살피는 경우가 주를 이루지만, 관심의 초점이 ‘여자용’에 한정해서 연구되기도 하고, 복수의 자료를 비교해서 검토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 자료와 비교하여 연구하는 경향도 보였다. 한편 연구 대상이 어휘로 한정해 볼 때, 교과서 어휘 전반을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한자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기도 하였고, 품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기도 하였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표기 경향을 어휘를 통해 검토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심은리(1995, 1996)은 동일한 연구 내용을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연차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가 부분적으로라도 연구가 시작된 연구물은 장상호(1981, 1982)이다.<sup>7)</sup> RISS의 정보에 따르면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나 1차 자료를 정리하고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의 길을 개척한 단행본은 박영섭(1993), 정길남(1997)인데, 박영섭(1992)는 江南大學校의 論文集 第24輯(pp. 9~57)에 실린 장편의 학술지논문이었다. 사실상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에 대한 단행본의 성과는 정길남(1997)뿐임을 밝힌다.<sup>8)</sup> 그러나 정길남(1997)도 사실상 기존의 학술지 논문을 묶은 단행본이다. 결과적으로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를 대상으로 연구된 순수 단행본은 아직까지도 없는 셈이다. 끝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물은 백진선(2014)이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을 좀 더 특화시켜서 여성용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바, 어휘를 페미니즘적 관점까지 포함시킨 연구물이다.

### 3.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 연구 성과

#### 3.1. 국어 교과서 어휘의 어종과 품사 연구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에 대한 연구 성과로 두드러진 주제는 신어와 차용어이다. 그러나 어휘 연구이니만큼 꼭 빠지지 않고 연구자들에게 고찰되는 주제는 역시 어종이나 품사 그리고 그 빈도 등에 대한 연구이다.

우선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볼 때, 학위논문의 차원에서 가장 주목되는 연구물은 개화기 국어 연구의 권위자인 김형철(경남대) 선생님의 논문 지도로 인준된 정세도(1998)이다. 이 논문의 제목도 “개화기 교과서의 어휘연구-1890년대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이라서 본 연구의 주제와도 일치한다. 이 글은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의 빈도수를 조사하고 어종, 품사, 의미영역까지 고찰하였다. 먼저 개화기 교과서에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의 연구 결과에서 개화기 국어 교과서는 한자어 사용이 절대 다수이다.

구분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빈도수	백분율
고유어	1,223	18.02%
한자어	3,502	51.61%
외래어	55	00.81%
혼종어	2,006	29.56%
계	6,786	100%

7) 이 역시 동일한 연구 내용이었다.

8) 물론 박영선(1992, 1993) 전후의 시기에 개화기 자료에 대한 자료집 편찬의 공은 역시 박영선 선생님의 몫이다.



혼종어도 대부분이 한자어 어근과 ‘-하다/-되다/-이/-히’ 등의 파생 접미사가 통합된 어휘인 것을 감안하면 근 80%의 한자어가 교과서에 노출된 셈이다. 이러한 수치가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표준적인 어종의 분포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점은 아래의 『녀즈독본』에서 분석된 어종 분포와 비교된다.

김윤진(2007)은 개화기 국어 교과서 중에서 특히 『녀즈독본』의 어휘와 표기를 연구한 석사 논문인데, 어휘상의 특징을 어종에 따라서 밝혔다. 김윤진(2007:27)에서 『녀즈독본』의 어휘별 어종 구성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구분	『녀즈독본』 상		『녀즈독본』 하	
	어휘빈도수	백분율	어휘빈도수	백분율
고유어	1,785	50.07%	2,454	51.94%
한자어	1,780	49.93%	2,271	48.06%
계	3,565	100%	4,725	100%

이 교재의 상권과 하권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비율을 보면 고유어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높으면서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상 사전을 기준으로 보면 한자어의 비율이 고유어의 비율보다 배 가까이 높게 등재되어 있다는 점과 비교된다. 또 『국민소학독본』(1895)이 고유어의 사용 빈도가 28%이며 한자어가 72%인 점과도 극명히 비교되는데, 이러한 점은 여타 개화기 국어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자 중심의 문자 생활이 지속되던 개화기에 『녀즈독본』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문자 생활에 소외되어 왔던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자어 이외의 외래어는 주로 서구어로서 인명으로 ‘갈리레오, 고런부스/고론부스/거론부스, 닝콘, 헨리’ 등이 보인다는 언급이 있다. 대체로 학부 간행의 교과서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이표기형이 인명에 보인다는 점을 아울러 언급할 수 있다. 지명으로 ‘버스던, 브로클린, 오하이오, 켄아단스’처럼 기존 연구물에서 제시된 인명과 지명뿐만 아니라 서구식 식물명 ‘사버텐, 코코’도 분류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정도세, 1998:33). 이것은 전문용어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혼종어는 대체로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인데, 한자어는 어근으로 고유어는 접미사로 분류하여 ‘파생동사, 파생형용사, 파생부사’ 등으로 혼종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정도세(1998:34)에서는 합성어의 사례(燭燭, 산스 | (한자어 어기+고유어 어기) 등)도 보여주면서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의 연구에서 혼종어를 보는 지평을 넓혔다. 그러나 다양한 혼종어를 분류하려다가 합성어가 아닌 사례들(버스던港, 변실바니아췌, 못훈卽, 일곱번)을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여 이 분야의 정교한 연구의 필요성을 남겼다.

한편 품사와 관련하여 빈도 조사도 이루어졌다(정도세, 1998:9~13). 다음 표처럼 학부에서 간행한 3종의 개화기 국어 교과서별 빈도순위와 그 다음 표처럼 당시의 빈도와 현대의 빈도까지 비교해 보기도 했다(원 자료에서 최상위만 보임).

빈도 순위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	
	어휘	빈도수	어휘	빈도수	어휘	빈도수
1	그(관)	254	ㅎ다	87	ㅎ다	204
2	ㅎ다	190	者	65	그(관)	184
3	잇다	113	것	62	것	127
4	되다	101	못ㅎ다	61	잇다	115
5	스름	85	人	52	되다	86
6	中	82	曰	49	스도	79
7	것7	75	아니ㅎ다	47	이(관)	78
8	못ㅎ다	67	그(관)	42	스름	71
9	업다(無)	61	名	37	아니ㅎ다	61
10	아니ㅎ다	50	글다	35	업다(無)	59

빈도순위	개화기 교과서	문교부(1956)	정우상(1987)	국어연구소(1988)
1	ㅎ다	하다	하다	있다
2	그(관)	것	있다	하다
3	것	있다	보다	것
4	잇다	그(관)	것	보다
5	되다	되다	우리	그(관)
6	못ㅎ다	이	되다	되다
7	아니ㅎ다	없다	사람	이(관)
8	스름	우리	수	사람
9	업다(無)	같다	때	우리
10	者	사람	이	수(의)
11	글다	때	다음	없다
12	中	보다	나라	않다
13	이(관)	한(一)	일(事)	나
14	보다(見)	하다(보.동)	그	말
15	스도	그(대)	주다	글

어떤 자료도 균형 잡힌 말뭉치를 바탕으로 집계된 결과라고 할 수 없으나 그래도 당시의 국어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순위가 매겨진 바이기에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의의가 있겠다. 가령 개화기 국어 교과서들에서도 세부적인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보아 순위의 위계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시기를 달리하는 순위에서도 상위의 순위는 엇비슷한 바도 있다. 이것은 기초어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세세한 순위에서는 현대로 올수록 고빈도 순위의 어휘가 느닷없이 사라지고(또, 者), 순위에는 없거나 저빈도 순위가 새로 순위(수, 말, 글)에 들거나 상위 순위(보다, 않다, 이)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이것은 교과서가 특수 자료이기는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어휘는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정도세(1998:14)는 상위 빈도 순위 50위까지의 품사별 빈도도 살피고 있다.

자료별 품사별	개화기 교과서	문교부	정우상	국어연구소
명 사	18	16	17	17
대명사	1	4	3	4
동 사	14	16	16	17
형용사	6	9	6	5
부 사	8	1	2	3
관형사	3	4	6	4
계	50	50	50	50

기초어휘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상위 고빈도 50개의 구성 비율을 보여준다. 개화기 교과서와 현대 교과서 분석 자료에서 체언의 경우 명사는 모두 비슷하게 분포한다. 동사는 개화기 교과서보다 현대 자료에서 소소한 차이로 점점 높아졌다. 부사는 개화기에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 이상의 차이도 보이지만 크게 보아 기초어휘라서 그런지 품사별 상대적인 분포의 그래프는 상당히 유사하다. 정도세(1998)는 이외에도 품사별 빈도 순위도 밝히고 있다.

개화기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개별 품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특기할 만하다. 임유종(1998:143~176)은 1895~1910년 사이에 간행된 국어 교과서 16종을 대상으로 부사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부사를 분류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11)

- ㄱ. 접속소 호응 부사: a. 가령, 아모리, 만약, 만일, 비록, 차라리(출하리), 하물며(하물며, 허물며), b. 약혹, 설혹
- ㄴ. 양태소 호응 부사: a. 결단코, 결코, 반드시(반다시, 반드시, 반담히), 과연, 귀어히, 대개, 대저(대저), 맞당이(맞담히), 무릇(므릇), 부드 |, 아모조록, 어서, 엇지, 응당, 자못(즈못), 필경, 하필, b. 백백이, 의당히, 방가위지, 대범
- ㄷ. 부정소 호응 부사: 도모지, 도저히, 이루(니루), 별로히(별노히), 별로, 전연히(전연히), 전혀(전혀), 조곰도
- ㄹ. 시제/상 호응 부사: a. 항상(항상, 흥상), 맞참(맞춤, 맞춤), 맞참내(맞참느 |, 맞춤내, 맞춤느 |, 맞춤내, 맞춤느 |), 매양(므 | 양), 매일(므 | 일), 방금, 앓가, 아직(아즉), 영원히, 벌써(발셔), 이미(임의), 이제(이제), 장차(장춧), 지금(지곰, 즉금), b. 의구히
- ㅁ. 일치소 호응 부사: 몸소, 손슈, 친히

그러면서 ‘전혀(전혀)’는 현대국어의 용법과는 달리 부정소와 통합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정소 호응 부사의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유종(1998:152)의 예시를 다시 보자.

(12)

- ㄱ. 녀계(女械) 칠장(七章)을 지여 전혀 가정(家庭)의 일을 말하니 대개 넷적 공공(公宮)의 ㄱ르침을 닮음이라 <녀즈독본 하> 56~57쪽

- ㄴ. 흡담하고 기리는 것은 전혀 시동스<sup>ᄇ</sup>ᄇ과 시누의게 잇고 시동스<sup>ᄇ</sup> 시누의에 흡담하고 기리는 것과 올코 그른 것은 전혀 형슈의게 잇스니 <초등여학독본> 29쪽
- ㄷ. 내가 비록 尊貴치 못하나 내나라는 소혀 우리 人民이 ㅁ닌든 것이라 <유년필독 4> 29쪽

그러나 여기서 (12ㄱ, ㄴ)은 ‘소혀’가 아니라 사실 ‘專혀’이기 때문에 사례로 옳지 못하다. 이 글에서도 이 둘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였으나 순국문체에서 제시된 사례에 대한 정확한 해독의 차원에서는 약간의 오독이 보였다. 여기서 다시 사례를 분석해보면 비록 교과서 사례이지만 가령 (12ㄷ)의 ‘소혀’는 ‘專혀’의 오기로 판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 3.2. 국어 교과서 어휘의 신어와 차용어 연구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이기도 해서인지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에서도 신어나 차용어의 연구가 다수의 연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목받았다. 어떻게 보면 어느 시기든지 신어가 생기고 문화접촉에 따라서 차용어가 생겼겠지만, 개화기는 현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신어나 차용어 연구는 더욱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

장상호(1981:28/1982:29)에서는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를 분석하면서 신어 중에 차용어를 음역어(한글로 표기)와 의역어(한자로 표기)를 나누고 그 사례를 제시하였다.

(13)

- ㉠ 한글로 표기 : 제노아(Genova), ㅁ시비(Missippi), 덴말(Denmark), 유태(Israrel), 아라스(Russia), 미싱안(Michigan), 링콘(Lincoln), 하밀돈(Hamilton), 와트(Walt), 에드워드(Edward)
- ㉡ 한자로 표기 : 法國(France), 獨國(German), 伊國(Italy), 倫敦(London), 瑞西(Swiss), 白林(Berlin), 英吉利國(England), 亞弗利加州(Africa州), 成吉思杆(Jinghis Khan), 上海(Shanghai)

더 나아가서 백진선(2014:10)에서 신어를 차용 경로와 차용 방법에 따라 ‘직접 음역어, 간접 음역어, 직접 의역어, 간접 의역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물론 이 시기에는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 간접으로 차용된 한자어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정도세(1998:25)에서도 보인다.

개화기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차용어 중에서 일본 한자어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김창렬(2009)은 개화기 국어 교과서 13종을 전수조사하여 총 24,398개의 한자어를 추출하고 개별 한자어는 9,837개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267개의 일본 한자어를 전거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새롭게 쓰이지 시작한 신어들로 주로 명사류(93.9%)를 차지한다고 언급한다. 가령 김창렬(2009:20)의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開化 警察 工業 觀察 大學 道德 獨立 萬國 文明 發明 水夫 人事 需用 自然 自由 地方  
 追及 平和(18語, 이상 『國民小學讀本』)

經濟 道德 道義 萬國 萬歲 新聞 維新 人事 自然 地方(10語, 이상 『小學讀本』)

警察 萬國 文明 書生 書籍 人事 自然 自由 中心 地方 進步 通信(12어, 이상 『신정심상소  
 학』)

우열을 가릴 필요도 없이 한자어는 고유어와 함께 국어 어휘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사전의 등재어를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어 어휘 중에서 60% 전후가 한자어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sup>9)</sup> 따라서 고유어의 어원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만큼, 개개 한자어의 유래를 밝히는 것은 국어 어휘사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 한자어를 따로 분류하고 유래를 밝히는 김창렬(2009)는 의의가 크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고해야 할 한자어들이 보인다. 일본한자어로 판정한 위의 예 중에서 ‘地方, 自由, 書生’ 등은 과연 순수 일본 한자어인지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다음은 『한어대사전』에 소개된 ‘地方’이다.

(14) 【地方】**1**. 古人的一種地理觀念。謂地呈方形。《淮南子·天文訓》：“天圓地方，道在中央。”《晉書·天文志上》：“天員如張蓋，地方如碁局。”姚雪垠《李自成》第二卷第十九章：“再往后又是一院，神殿兩層，上圓下方，象征古人想象中的‘天圓地方’。…… **7**. 處所，地點。《紅樓夢》第六八回：“只求妹妹在二爺跟前替我好言方便方便，留我個站腳的地方兒。”老舍《駱駝祥子》十二：“祥子想找個地方坐下，把前前后后細想一遍。”何其芳

연원이 분명한 중국 한자어로 당당히 등재되어 있다. ‘書生’은 ‘白面書生’이라는 사자성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한자어이며, ‘自由’는 중국어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도 이미 쓰이던 한자어이다.

김윤진(2007:41)에서는 『녀주독본』이라는 여성용 국어 교과서에서 차용어를 고찰하였는데, 국명과 지명에서 당시에 자주 언급되던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러시아, 터키 등의 국명에다가 베를린, 런던 등의 세부 지명까지 소개하고 있다. 인명의 차용에서는 특히 여성 인명이 음역어로 하권에 제시된 점을 들어 여성에게 귀감을 주려는 의도도 파악하였다.

### 3.3. 국어 교과서 어휘의 기타 특징 연구

멀다고 하면 멀겠지만 100여년 전이라서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개화기의 국어 교과서에 뜻밖에 난해어들이 존재한다. 정도세(1998:22~24)에서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가깝다하더라도 오늘날과 시차가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사라지거나

9)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57.12%가 한자어이다.

거의 쓰이지 않는 어휘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제시한 ‘고이하다, 괴, 삭이다, 잔납이, 험하다’ 등은 난해어라고 볼 수 없다. ‘고이하다’는 괴이(怪異)하다에서 부음이 회피된 결과의 어형이고, ‘괴’는 ‘고양이(괴+양이)’의 어원형이자 오늘날 방언으로도 아직 쓰이고 있다. ‘삭이다’는 ‘새기다’의 고어형이며, ‘잔납이’는 ‘원숭이’와 유의어 관계에 있다. ‘험하다’는 ‘ㅎ’-구개음화를 겪은 결과로 오늘날 ‘셈하다’의 고어형이자 어원이다. 이들은 해석이 불가능한 난해어가 아니다.

정작 밝혀져야 할 사례로는 ‘羅麗濟’와 같은 어휘이다. 『국민소학독본』의 제1과 대조선국에 “檀箕衛와 三韓과 羅麗濟와 高麗를 지난 古國이오”의 예문을 통해 보면 ‘삼국시대’를 ‘羅麗濟’로 표현하였다. 어쩌면 ‘삼국시대’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한 측면도 있다. 중국에도 삼국시대가 있었고, 당시 한반도 혹은 주변에 삼국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羅麗濟’는 오늘날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유효한 어휘로 판단된다.

한편 정길남(1990:55~78)에서는 개화기 국어 교과서라고 하더라도 표기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표기들에 주목하고서 ‘쌍형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어휘를 유형화하였다. 그 유형을 보여주었다.

(15)

- ㄱ. 본디부터 어형을 달리하는 쌍형어: 갈오다, 이르다, 말하다, 曰 등
- ㄴ. 음운 변천에 따른 쌍형어: 아직, 아즉 등
- ㄷ. 음운 첨가에 따른 쌍형어: 앓춤, 아참, 아침; 다니다, 단니다, 단니다 등
- ㄹ. ‘ㆍ’의 소멸에 의한 쌍형어: 스름, 사름, 슴름, 슴람, 샤름, 샤름, 사람 등

이 중에서 ‘갈오다, 이르다, 말하다, 曰’에서 ‘왈’은 ‘갈오다, 이르다, 말하다’와 서로 반비례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전반적으로는 ‘왈’이 출현빈도가 높으나 점차적으로 고유어의 쓰임이 강해지고 있어서 이것도 교과서의 어휘가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점차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표기에 대한 검토와 그 결과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의어와 쌍형어의 개념이 혼동한 점은 아쉽다. ‘아직, 아즉’은 음운 변화에 따른 이표기이기는 하나 ‘남기, 나모’나 ‘뉘-, 도오-’ 같은 엄격한 의미의 쌍형어의 개념과는 부합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없다. ‘앓춤, 아참, 아침; 다니다, 단니다, 단니다’와 같은 이표기형들은 역시 표기상의 혼동이지 그 자체를 음운상의 차이로 볼 수 없다. 이 시기에 ‘스름, 사름, 슴름, 슴람, 샤름, 샤름, 사람’도 이미 소멸한 모음 ‘ㆍ’가 보수적으로 표기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화기에 음운 소멸의 관점에서 유형화한 것은 이 글의 가장 큰 오점이다.

기타 어휘 연구의 특징적인 주제는 개화기와 현대의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어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박영섭, 1992). 결과적으로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한자어는 상대적으로 이음절 한자어가 주로 나타나고, 현용교과서에서는 주로 삼음절 이상의 한자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현용교과서에 전문용어와 복합어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타견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개화기 국어 교과서에서 한자어로 나타나던 것이 현용교과서에서는 고유어화하거나 복합어의 경우는 ‘적, 화, 성’ 등의 한자어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박영섭, 1992:8).

백진선(2014:35~49)은 개화기 여자용 국어 교과서를 다루었는데, 의미부류를 세우고 전수조사된 어휘를 의미영역별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결과는 현대국어의 의미부류와 맞대어서 어휘 목록을 비교하고 변화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어절단위의 단순한 제시에 머물러서 기타 연구자가 확인하고 활용하기에는 불편함과 오류를 담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또 의미부류 영역이 단순화되고 또 위계가 등위적으로 맞지 않아서(임지룡 선생님의 분류형에 따라서 ‘사람, 의식주, 사회, 교육, 자연, 감각, 동작, 상태’) 체계의 문제점이 있다.<sup>10)</sup> 또 김윤진(2007:39~41)과 이강민(2009:97~98)에서는 박영섭의 부류법에 따라서 ‘정치, 경제, 과학/문화, 교육/통신/체신, 법률/행정, 군인/경찰, 종교, 물명어, 직업/관직/인륜, 시령/처소’로 부류화하였는데, 부류별 체계적인 비교 판정이 불가능하다. 이 방면에서 앞으로 진전된 연구 성과를 위해서는 현대와 개화기 더 나아가서 이전 시기의 어휘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변천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의미부류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대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정길남, 1997). 그러나 그 실제적인 내용은 개화기 1, 2, 3 인칭 대명사 체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는 연구이다.

#### 4. 개화기 국어 교과서 어휘 연구 전망

무엇보다도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는 주로 어종, 신어, 차용어 등의 관점에서 조명받고 있다는 점이 3장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가 다소 미흡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심지어 잘못 해석한 경우들도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는 기존 연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국어 어휘 연구에 맞는 연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기존 성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료 제시도 해석도 다소 거칠고(예시가 활용형 그대로 제시하거나 어절단위 그대로 예시하여 어휘 자체의 연구인지 의문이 생기거나 실제 동일 어휘를 다른 어휘로 수치화함)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구물이 있었다. 실제 자료 해석에서 오독(정길남(1990)에서 이표기형(너무/넘무)을 쌍형어로 봄, 임유종(1998)에서 쏠혀/專혀에 대한 순국문 자료 해석)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성과 중에 오류가 우선적으로 바로 잡혀야 한다. 그 이후에 아래의 사항들이 연구주제로 수행되면 진전된 연구 결과를 맺을 수 있겠다.

#### <말뭉치 차원>의 연구

##### (1) 주석 말뭉치 구축

\*교과서는 특수 자료이다. 교과서 자료도 시대상을 반영하여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기는 하나 교육용 특수 자료이기 때문에 시대의 대표성은 약하다. 그래서 현대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개화기의 교과서도 분석과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착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점이 많다.<sup>11)</sup> 그래도 교과서 자료 혹은 교과서 말뭉치는 당대의 자료로서 말뭉치를 구성하는 데에 빠질 수는 없다. 특수 자료라는 점은 있는 그대로의 언어상을 직접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자는 특수 자료인 교과서에서 찾은 여러 지표의 해석에서 유의할 점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자료에서 교과서 자료를 온전히 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2) 개화기 말뭉치의 계량 분석 결과와 비교

\*다행히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규모는 크기 않다. 우선적으로 개화기 국어 교과서에 대해 잘 가공된 전수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10) 정도세(1998)은 또 다른 의미부류 체계 속에서 어휘를 분류하였다. ‘인체, 사람, 의식주, 동식물/광물, 시간/공간, 색채, 교육, 동작, 상태’의 부류를 세우고 어휘를 분류했다.

11) 예나 지금이나 교과서는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보정이 많이 이루어진다.

로 연구된다면 개화기국어뿐만 아니라 현대국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개화기 국어 교과서 규모를 고려하면 형태 주석을 넘어 통사 주석까지 반영하면 지금까지 연구된 개화기 국어 어휘뿐만 아니라 음운 문법 전반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가 쉽겠다.

(3) 현대국어 교과서 및 일반 말뭉치의 계량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서 변화 검토

\*현대국어 및 현대국어 교과서의 계량 수치와도 비교할 수 있어서 국어의 변화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다.

(4) 같은 시기의 일본 교과서와 비교 검토

\*주요 교과서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 등은 같은 제목으로 일본 현지의 교과서가 다소 시차를 두고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 위 교과서들은 주로 한국이든 일본이든 ‘學部’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일본 교과서와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sup>12)</sup> 그러한 연구물을 찾기가 어렵다. 어휘 차원에서 결국 일본의 식민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교과서부터 체계적으로 일본 한자어나 관용적 표현들이 한국인들에게 은연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개별 어휘 차원>의 연구**

(1) 사어의 소멸과 신어의 정착 연구

\*당시 국어 교과서의 어휘에 대해 이전의 사전(한불자전)이나 당대의 사전(조선어사전), 『우리말큰사전』이나 현대의 사전(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에서 등재 양상을 파악해 보면 어휘의 소멸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사어뿐만 아니라 신어도 마찬가지로 과정으로 파악하여 어휘의 정착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어휘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2) 전통 한자어와 일본 한자어의 수용 양상 연구

\*송민, 최경옥, 이한섭, 송철의 외 선생님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이 밝혀진 바이지만 교과서 어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수용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3) 국어 분야의 전문용어 형성 연구

\*국어도 하나의 전문 학술 분야이니만큼 관련 전문용어의 형성 과정도 살펴볼 수 있겠다.

**<어휘체계 차원>의 연구**

\*의미영역별 파악으로 당시의 어휘체계를 분석해보고 현대국어의 어휘체계와 비교해보는 연구도 꼭 필요하다. 당시의 표본 어휘체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현대국어의 해당 어휘체계와 비교하면서 어휘체계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휘변화의 거시구조사를 밝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12) 본 연구에서 개화기 국어 어휘의 연구 현황을 밝히는 과정에 필자에게 생긴 가장 큰 궁금증이 당시 한일간 교과서의 영향 관계였다. 다행히 2017년도 겨울 국어사학회·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공동 전국 학술대회에서 계명대학교의 장원재 선생님께서 “개화기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의 영향 관계”를 발표하시는데 그 발표를 통해 필자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초어휘군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세(1998)는 개화기 국어 교과서 3종에서 보이는 한자어 중에서 ‘ㄱ’ 부분의 경우 534개 중에서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280개로 절반 가까이 되는 개화기 한자어가 소멸되었다는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어휘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근거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어휘의 의미관계(유의, 반의, 다의, 상하의)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어휘일수록 다의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시기에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현대국어의 어휘는 다의성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려 하고, 또 그 결과를 사전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 그런데 역사자료 속에 보이는 어휘들은 한결 같이 단의어로 인식하고 연구한다. 물론 자료의 한계가 큰 우리의 현실로써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의어일 수 있다는 열린 관점에서 역사자료의 어휘를 바라본다면 지금보다는 더 세밀하게 어휘 의미가 파악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대국어 동일 어형의 다의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아가서 연어나 관용구의 파악도 놓치지 말고 연구되어야 하겠다.

**5.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강신항(1985), “서구문명의 유입과 국어생활의 변화”, 《전통문화와 서양문화》, 성균관대학교.
- 김문기(1970), 《개화기의 국어연구》, 일조각.
- 김억수(1979), “개화기의 국어 교과서의 고찰”, 《어문논집》 14,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윤진(2007),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 표기법 연구-『녀즈독본』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창렬(2009), “한국 개화기 교과서에 보이는 일본한자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형철(1999), “개화기 국어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개화기 국어》 4, 국립국어연구원.
- 김혜림(2009), “『일본독본』에 대한 연구-일본의 국정 1기 교과서 『심상소학독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민현식(1985), “개화기 국어의 어휘”, 《국어교육》 53-54,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 박영섭(1992), “漢字語彙 比較分析研究-開化期教科書와 現中高國語教科書を 중심으로”, 《강남어문》 7-1, 강남대 국어국문학과.
- 박영섭(1993),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연구”, 《논문집》 23, 강남대.
- 백진선(2014), 개화기 국어 여자용 교과서 표기 및 어휘 분석,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송민(1994), “갑오경장기의 어휘”, 《새국어생활》 4권 4호, 국립국어연구소.
- 송철의 외(2007), 《일제 식민지 시기의 어휘》,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철의 외(2008), 《한국근대 초기의 어휘》, 서울대학교출판부.
- 심은리(1996), “개화기 국어 교과서 연구-「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 《강남어문》 9, 강남대 국어국문학과.
- 이병근(1989), “개화기의 어휘 정리와 사전편찬”, 《주시경학보》 1, 탐출판사.
-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임유종(1998), “개화기 국어의 부사에 관한 연구-개화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 장상호(1981), “개화기 국어 교과서 연구”, 《국어교육논총》 1, 장상호(1982)에 재수록.
- 장상호(1982), “개화기 국어 교과서 연구-학부 편찬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정길남(1990),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와 표기에 관하여-〈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 《논문집》 23, 서울교육대학교, 정길남(1997)에 재수록.
- 정길남(1997ㄱ), “개화기의 존대어에 관하여”, 《한국언어문화》 15, 한국언어문화학회, 정길남(1997ㄴ)에 재수록.
- 정길남(1997ㄴ),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정도세(1998), “개화기 교과서의 어휘 연구-1890년대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경옥(2003), 《한국개화기 근대외래한자어의 수용연구》, J&C.

## “개화기 교과서 어휘의 연구 성과 및 전망”에 대한 토론문

조남호(명지대학교)

개화기 국어의 연구에서 어휘 연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데에 많은 연구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화기에 물밀듯이 서구 문물이 밀려 들어오고 한국 사회도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 변화는 국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어휘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어휘 변화의 폭도 크고 그 양상도 복잡하여 많은 연구 과제가 있다. 이미 개화기 국어 어휘에 대한 연구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지만 개화기 교과서를 이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문으로 작성된 글의 양이 앞선 시대에 비해 많아지고 또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연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아졌는데 개화기의 어휘 연구에서 교과서는 사전이나 신문, 잡지, 정부 간행물, 개인 출판물 등에 비해 그 시기 국어의 모습을 밝히는데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발표자도 지적했듯이 교과서는 교육용 특수 자료로서 시대에 대한 대표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표자에게 주어진 주제가 그중에서도 국어 교과서로 제한되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국어 교과서로 제한했을 것이지만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 연구 성과가 꼼꼼하게 검토될 수는 있었지만 과거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의 연구를 전망한다는 점에서는 교과서 전반을 검토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연구 성과에 관한 검토는 발표자가 잘 지적해 주었기에 덧붙일 말이 없고 연구 전망에 대해 발표문을 보면서 든 토론자의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오랫동안 어휘 연구에 대해 생각을 해 오면서 토론자는 어휘 연구는 잡문(?)을 쓰기에는 좋은 글감이 많지만 논문으로 글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해 왔다. 자칫 자료를 정리하는 성과를 내는 데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 정리가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제대로 된 성과들이 쌓여야 어휘 연구가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계의 분위기가 자료 정리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품은 많이 들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박한 분위기에서는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발표자가 전망에서 ‘말뭉치 차원의 연구’를 지적한 것은 어휘 연구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토론자도 동의한다.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물들이 많으면 계량적인 연구를 통해 개화기 어휘의 경향이나 성격을 잘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토론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 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어학사에서 국어사를 주제로 한 연구의 기간이 꽤 길었고 연구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국어사 자료의 전산화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화기 전 자료들조차 학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말뭉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19세기 이전 국어사 자료들이 시기별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보다 훨씬 양이 많은 개화기 자료를 대상으로, 그것이

교과서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주석 말뭉치 구축과 계량 분석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개인이 하기에는 일이 방대하고 공동 연구로 추진하기도 힘들다고 본다. 국어사의 자료들이 시기별로 정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토대로 개화기에 어휘에서 있었던 양상, 좁혀서는 교과서 분야에서 보이는 어휘의 양상이 더 체계적으로 관찰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소규모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계량적 연구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접근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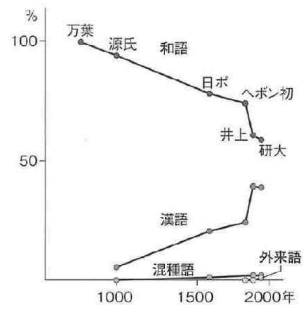
말뭉치가 구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과서는 교육용 특수 자료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면서 연구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많아졌다고 해도 개화기 또한 연구 자료가 넉넉한 상황은 아니므로 교과서가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화기에 발간된 교과서들은 지금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면서 편찬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교재 발간이 급하여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교재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번역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외국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화기 교과서 어휘에 대한 연구는 어휘 자료로서의 개화기 교과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편찬 시기나 유형에 따라 동일한 부류의 어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최근의 교과서와 비교하는 성과들이 쌓이면 개화기 어휘의 양상을 밝히는 데 교과서 어휘 연구가 기여할 바가 크다고 본다.

개화기의 교과서에 대한 관심을 일반어로 한정지을 필요도 없다고 본다. 개화기에 어휘의 개신은 일반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어처럼 사용될 정도가 된 많은 전문용어들이 이 시기에 생겨나고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용어의 수용과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교과서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본다.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편찬되었을 교과서의 어휘는 그 자체로 해당 분야의 어휘를 풍부하게 모아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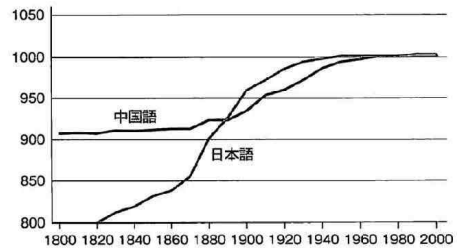
## 개화기 교과서와 일본어 교과서의 영향 관계 -한국의 「국민소학독본」과 일본의 「고등소학독본」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일본어문학전공 장원재

### 1. 현대 일본어와 중국어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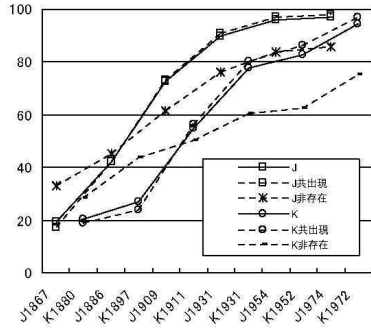
[出典] 宮島謙夫『現代語いの形成』(『国立国語研究所論集3 ことばの研究』秀英出版、1967) をもとに作成



- 현대 일본어와 중국어의 고빈도 1000단어가 언제부터 출현하는지를 조사한 것.
- 좌측그림: 어종별로 그래프화한 것

宮島(1967, 2010)

### 1) 한일 한자어의 동형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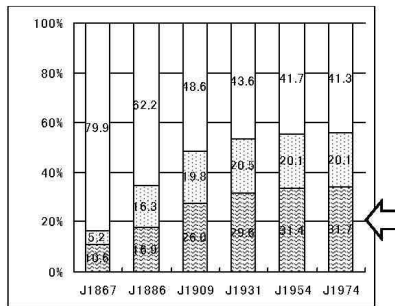
한일 한자어: 한일 각각 3067단어, 2753단어  
한일 동형한자어: 2220단어

- 1) 한자어의 급상승은 일본어가 J1909까지이고, 한국어가 K1931까지
- 2) 한일 각각 동형한자어의 출현율을 보면 한자어 전체 증가 양상과 거의 일치
  - 19세기말 이후 한일 언어가 동일한 변천과정을 겪어왔으며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3) 한일 모두 K1880과 J1867에서는 비존재 한자어가 공동 출현한자어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 이후 일본어는 J1909, 한국어는 K1911부터 공동 출현한자어의 비율이 비존재 한자어보다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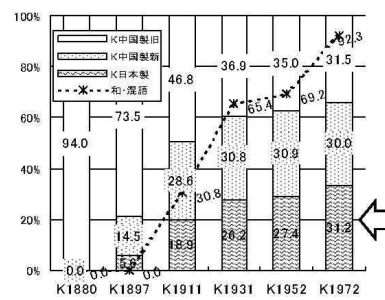
張元哉(2003a, 2009)

### 2) 현대 한일 한자어의 성립과 일본어 유래 한자어의 비율 변화

• 일본어 한자어의 유래별 비율 변화



• 한국어 한자어의 유래별 비율 변화



### 3) 현대 한일 언어의 성립과정

- 거시적인 연구목표 : 근대 한일 양 언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고, 그 특징들이 한일 현대어로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
- 위의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근대 한일 등가의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
  - 그러나 문체의 확립, 동일 장르의 성립 차이 등으로 비교가 어려움
- 대역 코퍼스 구축 필요

5

- 한일 대역자료 중 『국민소학독본』과 『고등소학독본』에 주목
- 한국의 근대 최초의 국어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1895)이 일본의 『고등소학독본』(1888)을 저본으로 번역: 강진호(2012), 박승배(2013)
  - 수록단원의 80% 이상이 동일
- 『고등소학독본』과 『국민소학독본』의 제재 비교: 성윤아(2015)
- 『국민소학독본』의 번역한자어 및 신어: 박영섭(1996), 장원재(2000)·이준환(2016), 송찬섭외(2016) 등등
- 『고등소학독본』과 『국민소학독본』의 번역 양상과 그 어휘: 전무

6





## 2. 번역 양상

### 2.1 『고등소학독본』 과 『국민소학독본』 의 제재구성

甲斐(2000)

文部省 『尋常小学読本』 1887

『高等小学読本』 1888

普及舎 『尋常小学読本』 1887 (辻敬之・西村正三郎編)

『高等小学読本』 1887 (池永厚・西村正三郎編)

金港堂 『日本読本』 1886 (新保磐次編)

『高等日本読本』 1888 (三宅米吉・新保磐次共編)

9

	文部省		普及舎		金港堂	
	尋	高	尋	高	尋	高
수사	68 87.1	88 18.1	24 20.0	77 88.7	22 16.1	47 29.0
지리	10 5.4	45 17.9	18 15.5	15 6.6	16 11.7	15 9.3
역사-	28 12.5	81 82.0	11 8.9	33 14.5	13 9.5	38 23.5
이로-	49 28.6	78 31.0	35 28.3	69 30.2	44 32	25 15.4
공민·실용	3 1.8	14 5.8	17 13.8	4 1.8	28 16.8	13 8.0
그 외	31 18.8	1 0.4	18 14.5	30 13.2	19 13.9	24 14.8
합계	184	252	128	228	137	162

	국민
수사	10 24.4
지리	11 26.8
역사	7 17.1
이화	11 26.8
공민·실용	2 4.9
그 외	0 0.0
합계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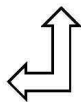


표1 독서과용 교과서의 제재구성(甲斐(2000))

修身(修身、国民)、地理(入門、地形、交通、日本、世界)、歴史、理科(入門、化学、金石、植物、生理、地文、動物、物理)、公民、実業、家政、手紙、言語、その他(説話、生活、自然、雑)

표2 『국민소학독본』의 제재구성

성윤아(2015)에서도 甲斐(2000)의 분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있음

10

- 문부성 『고등소학독본』 : 일본 타 교과서보다 수신, 지리, 역사, 이과의 제재가 비교적 균등함. 특히 역사와 이과는 약30%
- 甲斐(2000)에 따르면 1886년 「小学校の学科及其程度」의 교수 내용과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함.

	文部省		普及舎		金港堂	
	尋	高	尋	高	尋	高
地理的教材	摘録	補完	摘録	摘録	網羅	拡大
歴史的教材	摘録	網羅	摘録	網羅	網羅	補完
理科的教材	摘録	網羅	摘録	拡大	摘録	摘録

- 문부성 『고등소학독본』 이 역사와 이과에 관해서는 교수내용을 망라함.
- 지리는 교수 내용의 일부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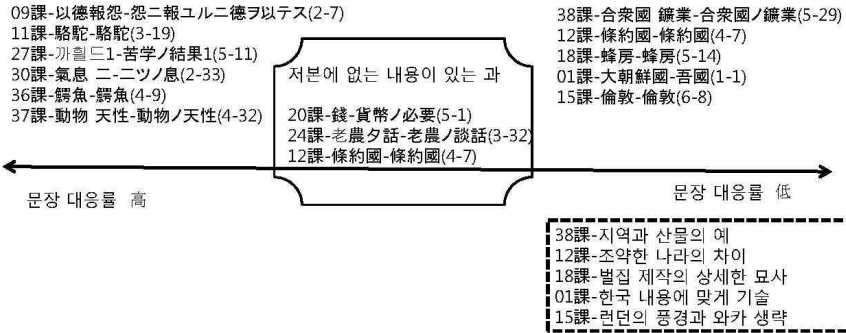
11

- 『국민소학독본』 :
  - 비교적 4개의 교과 내용이 균등.
  - 역사는 한국 관한 내용으로 독자적 기술

12

## 2.2 각 과의 문장 대응률

『고등소학독본』과 『국민소학독본』 31과를 일본어의 구두점(。)을 기준으로 문장(sentence)으로 매칭하여 문장 대응률을 조사한 결과



### <J>:第十九課 駱駝<K>:第十一課 駱駝

- <J>:人の使役する獸類中にて、駱駝の如く奇異なる者はあらざるべし。<K>:스름이 부리는畜類中에 駱駝갓치 異常한 거서 업스니
- <J>:馬と牛とは、世界到る處に、是を使用すれども、駱駝は、熱帯地方の沙漠に於てのみ、使用するものなり。<K>:馬와 牛는 世界中 各處에서 使用호되 駱駝는 沙漠에만 부리는
- <J>:故に是をば沙漠の船と云ふ。<K>:故로 沙漠의 船과 호느니라
- <J>:駱駝は、其体格、醜くして、馬の如く美麗ならず。<K>:駱駝는 그 貌樣이 馬처럼 美麗치 못호고
- <J>:背に一個、若しくは、二個の肉塊あり。<K>:背에 肉塊 호나 或 둘이 잇스며
- <J>:全体は、薄き茶褐色の毛を蓋ひ、脚、長くて、膝には、硬き皮あり。<K>:그 鬃은 茶褐色이오 그 다리는 길고 그 膝에는 硬皮가 잇는

<J>:第二十九課 合衆國の鑛業<K>:三十八課 合衆國鑛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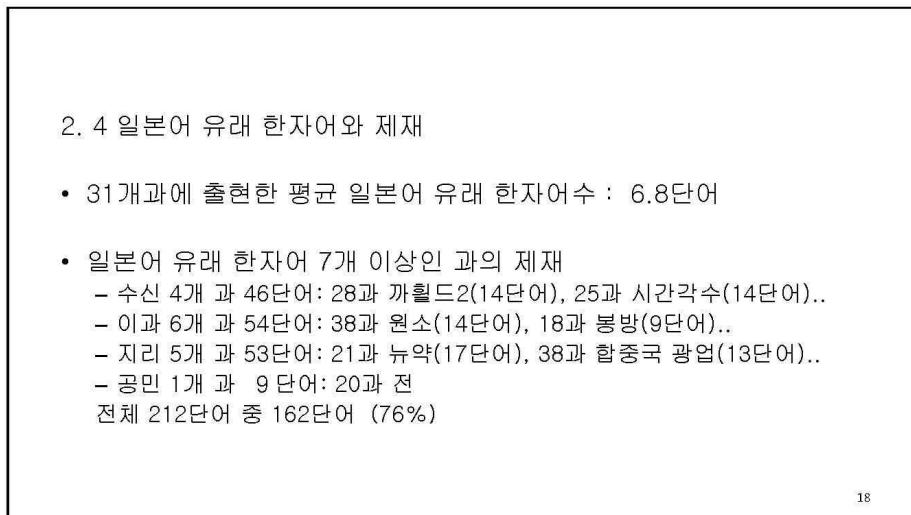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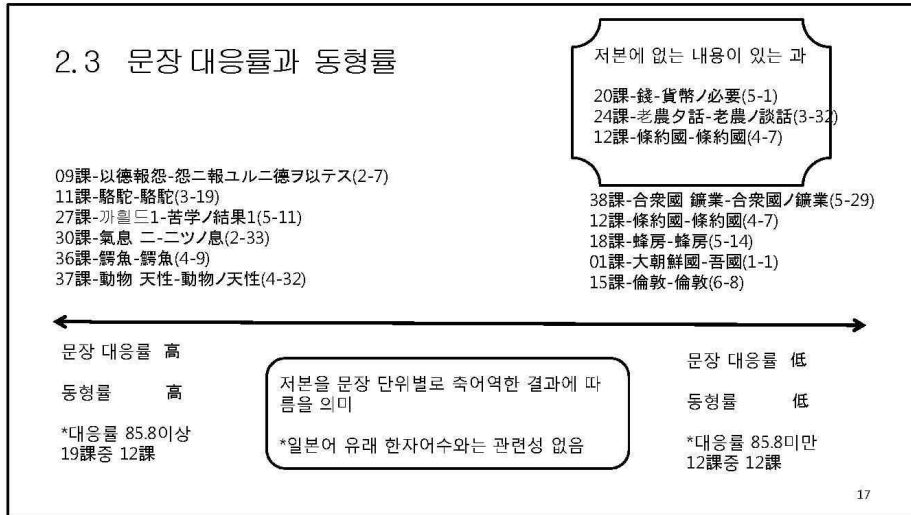
- <J>:カリホルニア州とネヴァダ州とは、共にシルラ、ネヴァダの山脈、横斷するに由り、金、銀、水銀の三鑛に富めること、世界第一なり。<K>:nasi
- <J>:此山脈の西に向ひたる三四百哩の處に、金鑛の數多あること數ふべからず。<K>:nasi
- <J>:故に、此處を金田と稱するなり。<K>:nasi
- <J>:銀鑛は、亦此山の東麓より出づ。<K>:nasi
- <J>:ネヴァダ州の開けしは、専ら此利に由れりと云へり。<K>:nasi
- <J>:又桑方西哥(San Francis-co)が今日の繁華に至りしも、金鑛の利益に由る者にて、今より、五十年前には、人口、百五十人餘の小村なりき。<K>:nasi
- <J>:初め、仏蘭西(France)のハリハツクス(Halifax)と云へる人、始てカリホルニヤ州にて黄金を拾ひ、其後、土人が、サクラメント(Sacramento)河の下流にて、日々、金塊を拾ひ取る者多かりしが、千八百四十八年に至りて、マーシャル(Marshall)と云へる人、桑方西哥邊にて黄金一片を拾ひければ、大に喜び、人々と相謀りて、資金を集め、遂に大なる金鑛數箇所を掘り出だしたり。<K>:nasi
- <J>:斯る大利を發見せしかば、桑方西哥に市街なくては不便なりとて、茲に始て五百軒の假屋を造り、處々より集まり來れる人々の住居とせり。<K>:nasi

15

<J>:第一課貨 幣ノ必要<K>:第二十課 錢

- <J>:nasi<K>:物貨를 交換하기에 便利함을 爲어야 貨幣에 金銀과 白銅과 赤銅으로 此 交易에 適當함을 左列한 緣故@나라
- <J>:nasi<K>:(一)人人이 豆아해야 通用에 便하고
- <J>:nasi<K>:(二)每年에 各處에서 出는 斤量數가 過히 加減 업고
- <J>:nasi<K>:(三)速히 損傷하지 안코
- <J>:nasi<K>:(四)輕해야도 貴하고
- <J>:nasi<K>:(五)分하기에 便利하며 鑄하기 容易하고
- <J>:nasi<K>:錢이 各樣의 品格이 잇서도 僞造를 禁코저 하면 政府에서 一定한 規則으로 蓋印해야 品質과 重量이 畫一함을 示할#나라

16



### 3. 번역 어휘

#### 3.1 「명사(A)+no+명사(B)」의 번역표현

\* 「2자 한자어+no+1자 한자어 or 2자 한자어」

\* A의 명사가 명사적, 형용사적, 동사적, 부사적 명사인가에 따라 한국어의 대응 표현을 집계한 것

##### 1) 일본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高等	A+no+B	명사적	형용사적	동사적	부사적	
	335	283	18	20		4
国民	미대응	96	5	2		0
	A+ui+B	154	2	5		3
	Ahanun+B	0	11	11		1
	그 외	33	0	2		0

- 명사적명사→A+ui+B
  - 형용사적명사→Ahanun+B
  - 동사적명사→ Ahanun+B
- 으로 대응하는 확률이 높음

- 또한 일본어의 명사적명사가 Ahanun+B으로 대응
- 한국에서는 형용사적, 동사적 명사로 사용된다는 것

19

##### 2) 한국어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

国民	A+ui+B	명사적	형용사적	동사적	부사적	
	96	93	1	1		0
高等	미대응	22	0	0		0
	A+no+B	59	1	1		0
	Asuru+B	0	0	0		0
	그 외	16	0	0		0

한국어의  
A+ui+B→A+no+B

\*A: 명사적명사가 대부분

일본어는 명사, 한국어는 형용사, 동사로 표현

20



- 일본어는 명사, 한국어는 동사, 형용사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보임(구어체는 ‘연, 부, 집’)
  - ‘のお払い金でございます’→‘꺼서 주신 돈이올시다’
  - ‘取り返しがつかねへ’→‘도로 무를 수가 업나니’
  - ‘夫婦別れなどをしないで→부부가 따로 나지 아니하고’
  - ‘お構ひなく お帰りを願ひます’→괘념마시고 도라가십시오’
- 일본어는 명사지향표현을, 한국어는 동사(형용사)지향표현을 선호(임팔용, 1995: 김은애, 2003)
- 현대어 조사 (김원미, 2009) : 일한대역사전, 한일대역사전
  - 일본어의 복합명사 → 한국어의 언어표현(35%)
  - 한국어의 복합명사 → 일본어의 언어표현(9%)

### 3.2 고유어와 한자어 대응

- 조사자료 약칭  
a-용례 있음, n-용례 없음
- 표준:표준국어대사전, 日国:일본국어대사전, 大漢和 : 大漢和辭典, 漢語大:漢語大詞典, CHJ: 일본역사코퍼스, 네이버 뉴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조선왕조: 조선왕조실록 검색사이트, 한국고전: 한국고전 종합DB, 근대신잡: 근대이후의 신문, 잡지 자료



## 1) 일본어의 복합동사-한국어의 한자어

- 吸ひ取る-吸取하다 (표준a, 日国a, CHJ:a)
- 撃ち破る-撃破하다 (표준a, 日国a-1827년, CHJ:a)
- 噛み砕く-噛碎하다 (CHJa-1895년, 한국고전a-오주연문장전산고, 그 외의 자료n)
- 恐れ惑ふ-恐迷하다 (조선왕조a, 한국고전a, 그 외의 자료n)
- 掘り取る-掘取하다(조선왕조a, 근대신잡a-1907년(대한자강회월보), 그 외의 자료n)
- 掘り出す-掘出하다(표준-a-의미다름, 근대신잡a-1907년(태극학보), 네이버뉴스a, 그 외의 자료n)

25

## 2) 부사+동사-adv한자어

- 最も大なり-最大하다(標準a, 日国a, 大漢和a)
- 強いて請う-強請하다(標準a, 日国a, 大漢和a)
- 殊に多い-殊多하다(조선왕조a, 근대신잡a-1908년, 그 외의 자료n)
- 半ば燃えて-半燃하다(한국고전a-산림경제, 그 외의 자료n)
- 殊に盛なる-殊盛하다(모든 자료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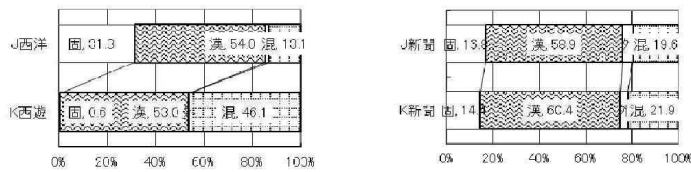
26

**\*한일 근대어종 구성 비율의 차이와 변화**

송민(2013): 19세말부터 20세기초까지 2음절어 한자어의 신생어와 2차적으로 양산된 파생어가 대량 활용

아래 그림 참조: 근대 한국어의 혼종어(2차 한자어(음언))가 일본어에 비해 많음.  
한국어는 근대 이후 혼종어의 비율 대폭 감소

안예리(2014): 『삼천리』 출현 11771종의 2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31.7%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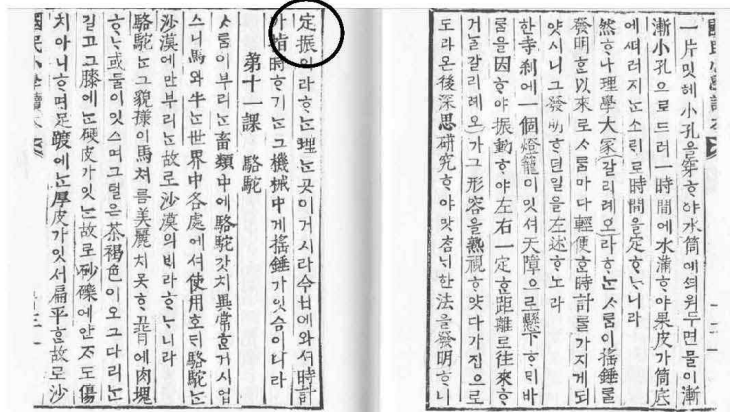
近代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종구성(개별어수)

현대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종구성(개별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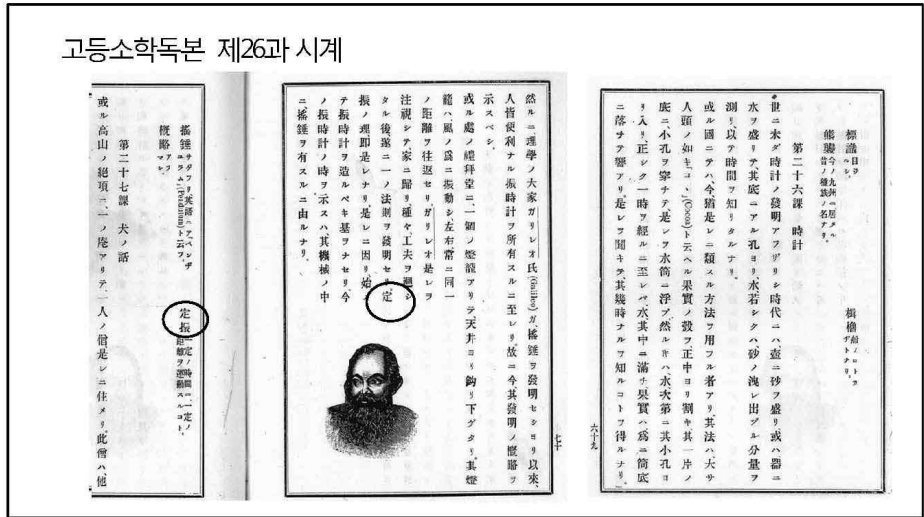
- 현대어: 한일 대역신문, 한일 각각 8082단어와 7508단어
  - 조사단위: 어절단위
  - 근대어: 『西洋事情』(1967단어)와 『西遊見聞』(2627단어)과의 번역부분
- 張元載 (2014a, b)

**\*신출어휘? 定振-定振(모든 자료n)**

국민소학독본 제10과 시계



고등소학독본 제26과 시계



참고문헌

- 가이, 甲斐雄一郎 (2000) 「読書科の教材構成」 『人文教育研究』 27
- 강진호(2012) 「국어 교과서의 탄생과 근대 민족주의- 「국민소학독본」 (1895)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6
- 김영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 김원미(2008) 『일·한 양어의 어구성에서 본 표현양상의 대조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2003) 『日本語の名詞志向構造(nominal-oriented structure)と韓国語の動詞志向構造(verbal-oriented structure)』 『朝鮮學報』 188
- 노우라, 野村雅昭(2013) 「現代日本漢語研究の展望」 『現代日本漢語の探求』 (野村雅昭編, 東京堂出版)
- 미야지마, 宮島達夫(1967) 「現代語いの形成」 『国立国語研究所論集3 言葉の研究3』
- 미야지마, 宮島達夫(1994) 「語彙史の比較対照」 『国語学会平成6年度秋季大会要旨』
- 미야지마, 宮島達夫(2010) 「語彙史の巨視的比較」 『漢日語言対比研究論叢』 1, 北京大学出版社
- 박승배(2013) 「감오개혁기 학부 편찬 교과서 편찬자가 활용한 문헌 고종 II: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1-3
- 박영섭(1996)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3-교과서·신문편』 박이정
- 성윤아(2015) 『개화기 「국민소학독본」의 이문화커뮤니케이션 교육-일본의 「高等小学読本」과의 비교』 『중앙사론』 41
- 송민(2013) 「한자어에 대한 어휘사적 조명」 『국어학』 66
- 송찬섭외(2016) 『한국 근대 신어의 유형과 특성』 역락
- 신종진(2009) 『개화기 잡지에 나타난 명사어휘의 어중분석』 『우리말연구』 25

## 참고문헌

- 안예리(2014) 「사라진 '2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유형」 『국어사 연구』 18
- 유미진(2004) 「『国民小学讀本』에 收錄된 日本 近代 翻譯漢字語의 生成과 受容研究-「人間 活動의 主体」를 나타내는 漢字語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7
- 이준환(2016) 「개화기 독본의 정치 관련 신성 한자어의 개념 및 개념 제시 방식 고찰」 『대동문화연구』 94
- 林八龍(1995) 「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表現構造の対照考察-日本語の名詞表現と韓国語の動詞表現を中心として」 宮地裕・教子先生古希記念論文刊行会(編) 『宮地裕・教子先生古希記念論集 日本語の研究』 明治書院
- 張元哉(2000) 「19世紀末の韓国語における日本製漢語-日韓同形漢語の視点から-」 『日本語科学』 8, 国立国語研究所
- 張元哉(2003a) 「現代日韓兩國語における漢語の形成と語彙交流」 『国語学』 54-3
- 張元哉(2003b) 「現代日韓語彙の対照研究」 『日本学報』 55-1
- 張元哉(2009) 「현대 한일 어휘와 그 형성에 관한 대조연구」 대학사
- 장원재(2013) 「근대 한일 문구어체에 나타난 어휘의 대조고찰-대역코퍼스를 자료로-」 『외국학연구』 24,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 張元哉(2014a) 「近代対訳コーパスにおける日韓の語種構成について-現代語との比較を通して-」 『日本語史の新視点と現代日本語』 (小林賢次・小林千草編), 勉誠出版
- 張元哉(2014b) 「近代語から現代語への日韓の語彙の変化-対訳コーパスを通して-」 『日本語学』 33-14, 明治書院

감사합니다.

# “개화기 교과서와 일본어 교과서의 영향 관계”에 대한 토론문

허재영(단국대학교)

장원재 선생님의 발표 자료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군더더기 없이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현대 한일 언어의 성립 과정’에 나타난 두 언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고, 그 특징들이 한일 현대어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관찰하고자 등가성을 가진 『국민소학독본』(학부, 1895)과 『고등소학독본』(문부성, 1888)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동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1장의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제2장 이후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자료만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설명을 들으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믿지만), 궁금한 점도 있어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 한일어 성립’이라는 표현에서 주목한 것이 ‘한자어’인데, 한자어의 경우 중세 또는 근대의 한자어와 현대의 한자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한자의 경우 서체(書體)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문자 자체가 급변하지 않고, 신조(新造) 방식에 따라 기존에 없던 한자어가 생성되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그것이 현대 한자어인지 아니면 근대(또는 중세) 한자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학술 번역 한자어나 차용어의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이나 일본의 근대 한자 학술어를 별도로 정리한 성과가 많지 않아서, 특정 한자어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학계(또는 국어운동가 사이)에서 간혹 ‘일본식 한자어’ 또는 ‘왜색 한자어’라고 부르던 것들도 실제 규명 없이 관념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현대어’라고 부를 만한 ‘한자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아마도 고려대 이한섭 선생님이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신 듯), 현재까지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근대 계몽기 이후 한국의 신문에 빈번히 등장하는 ‘신어’나 『신민총보』에 소재하는 ‘신석명(新釋名)’ 등이 이를 규명하는 좋은 자료일 듯하기는 하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이후 만들어진 학술어 또는 신생 한자어에 대한 선행 연구 경향을 소개해 주신다면 이 발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둘째, 첫째 질문에 연속되는 내용입니다만, 2.4.에 언급한 ‘일본어 유래 한자어와 제재’의 각종 통계는 어떤 어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아마도 논문으로 발표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어휘 예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중을 위해 몇 개의 어휘를 예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다. 예를 들어 28과 ‘싸힐드 2’의 14단어가 어떤 것인지만 알려 주셔도 될 듯합니다.

셋째, ‘3. 번역 어휘’는 어휘뿐만 아니라 구문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번역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3장의 ‘명사+의+명사’ 표현 비교 결과 “일본어는 명사, 한국어는 동사, 형용사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일본어는 명사 지향 표현을, 한국어는 동사(형용사) 지향 표현을 선호(임팔용, 1995, 김은애, 2003)”라는 결론을 얻으셨는데,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우 타당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언어 변화의 일반 원리를 고려할 경우, ‘전문 용어’ 또는 ‘신조어’ 생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어사 원리에서 “어제의 통사론은 오늘의 형태론”이라는 명제가 있듯이, 동사·형용사 표현은 설명 형식을 따르는 표현(통사론적 구조를 취하는)인 데 비해 명사 표현은 그 자체가 어휘화된 결과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저도 근대 식물학이나 동물학 관련 전문 용어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순국문 번역의 경우 구 구조로 표현하는 것을 한자어로 표현할 경우 한 어휘로 표현하는 사례를 빈번히 발견했습니다. 전문 용어의 특성상 구 구조 고유어 표현이 하나의 한자어로 대응되는 사례가 많아지던데, 일본어와 한국어의 특성이라기보다 언어 변화의 일반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우 정교한 연구 결과에 대해 자세한 발표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인상 평가에 그친 토론문을 작성하게 된 듯하여, 발표해 주신 장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좋은 발표를 듣게 해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 ※ 각종 장소 안내 ※

## <점심식사 장소>

서강대학교 곤자가프라자



## <저녁식사 장소>

찰솔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송문길 18 (02-717-1269)

